

남한산성 축성 370주년 기념  
제 1회 국제 학술 회의

##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일시 : 1996. 10. 10(목) - 11(금)  
장소 : 시민회관 소강당

주최 : 성남시  
주관 : 성남문화원 · 향토문화연구소

# 진 행 일 정

제1회 10월 10일 목요일

시민회관 소강당

09:00 등록	
09:20 개회	
09:20 개회사	李亨河(城南文化院長)
09:22 축사	吳誠源(城南市長)
09:24 축사	金元燮(경원대 총장)
09:27 축사	李秀浦(한국문화원연합회장)
09:29 축사	要富遠(성남시의회 의장)
09:32 기조강연	南都泳(前東國大 副總長)

## 1부 주제발표

좌장: 許昌武(한국정신문화연구원)

09:50~10:40

주제1. 백제한강시대의 남한산성

발표: 白南郡(대유공관)

논평: 崔夢龍(서울대)

10:40~11:30

주제2. 최근에 발견한 남한산성수축비에 대하여

발표: 趙炳魯(경기대)

논평: 崔孝斌(동국대)

11:30~12:20

주제3.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발표: 陳渾(中國: 요녕성사회과학원)

논평: 車文燮(단국대)

12:20~13:20 중식(상공회의소 회장 초청)

13:20~14:30

주제4.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발표: 全寶三(신구전문대)

논평: 金相鉉(한국교원대)

14:10~15:00

주제5. 병자호란과 조선

발표: 張杰(中國: 요녕대)

논평: 崔繼子(이화여대)

15:00~15:50

주제6. 지명어를 통해서 본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

발표: 朴相圭(경원대)

논평: 張哲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50~16:00 휴식

좌장: 韓春燮(성남문화원부소장)

## 2부 주제발표

16:00~16:50

주제1. 한국의 산성연구 동향과 과제

발표: 車勇杰(충북대)

논평: 沈奉謹(동아대)

16:50~17:40

주제2. 서일본 고대산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성과

발표: 小田富士雄(日本: 후쿠호카대)

논평: 成田輝(충남대)

17:40~18:30

주제3. 동북 역대산성의 흥망성쇠 약술

발표: 張玉良(中國: 길림사회과학원)

논평: 金吉源(서경대)

19:00~ 한찬(성남시장 초청)

시민회관소강당

제2일 10월 31일 금요일

08:00~09:00 조식(경원대 총장 초청)

좌장: 全實三(신구전문대)

## 3부 주제발표

09:30~10:30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발표: 蘇擴光(경원대)

논평: 박영천(국토개발연구원)

조유진(국립민속박물관장)

10:30~13:00 종합토론:

이현희(성신여대), 김병모(한양대), 김갑주(동국대), 王慧敏(의오대), 김기섭(경기대),  
정준우(한국정신문화연구원), 千田嘉博(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김성태(성남예총회  
장), 천화숙(경원대), 배인재(용인민속촌대표), 최재봉(남한산성 관리소장), 정기영(문화  
화재관리국장), 양인식(도문화국장), 정출도(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송승영(문화  
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이재범(성남문화원 이사), 손광수(광주군 회회의장), 박찬성  
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이계정(하남시 공보담당관), 오수길(광주군 공보담당관), 이훈종  
(성남시 공보담당관), 이계정(하남시 공보담당관), 신정(성남문화원 감사), 최명근(성남  
시의원), 이명성(경기도의원), 성필스님(방월사주지)

13:00~14:00 중식

안내: 전보삼, 백남숙, 조병로, 한춘성

남한산성 답사

16:30 폐회

통역 중국어: 許昌武(한국정신문화연구원)/일본어: 植大俊(경기대인문대학장)

## 개회사

친애하는 내외贵宾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외 저명한 학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남한산성 축성 3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금번 국제학술대회에 기꺼이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번 학술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오성수 시장님과 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성남문화원이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이번 학술대회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뿌리를 밝힘으로써 이 지역의 전체상을 확보하며, 나아가 산성의 현대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산은 삼국시대로부터 각국의 한강유역 진출에 있어서 배놓을 수 없는 요충지가 되어 왔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국운을 위협하는 외침에 직면하여 그 질곡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으로써 우리에게 약자의 아픔과 국력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한산성은 본 시와 하남, 광주를 연결하는 소중한 관광자원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백제의 하남위례성 도읍이후 오랜 세월동안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같이해온 이 세 지역을 오늘날 새롭게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써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70년대 이후 시작된 성남의 개척과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성남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에 대한 해악된 시각을 교정하고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성남의 역사성과 문화적 역량을 대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모쪼록 금번 제1회 국제학술대회가 유익하고 훌륭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 10. 10

성남문화원장 이형하

## 축 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그리고 각지에서 참석하여 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뜻깊은 남한산성 축성 370주년을 맞이하여 성남문화원이 그간 실현을 기울여 준비해온 제1회 국제학술회의가 성황리에 개막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백제 건국으로부터 500여년간 활동의 근거지였던 남한산을 중심으로 송파, 하남, 광주와 동일문화권을 형성하며, 시승격과 함께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게 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급격한 신장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제 불당 신시까지 형성과 함께 90만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남의 발전은 숱한 역사적 전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흐르는 의지와 개척정신으로 헌신해 온 모든 성남인들의 땀의 결실이라 믿으며,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훌륭한 팔파 노력이 영광된 미래성남 건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서 마련한 국제학술회의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캐고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가치를 새롭게 자리매김 함으로써, 지금까지 성남의 성장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대내외의 편협된 시각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회의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해 온 하남, 광주주민들과 우리 성남시민이 더욱 화합하고 결속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오신 문화원장님과 연구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문화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국내외 학자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 10. 10.

성 남 시 장 오 성 수

## 즉 사

남한선성 축성 370주년을 기념하여 남한선성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제대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문화원인 성남문화원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방적인 문화'의 창달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한선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남, 광주, 하남은 하나의 공통된 역사공간으로써 백제 왕조의 발원지이자 우리나라 국운의 흥망성쇠를 지켜온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역사가 유구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경원대학교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뿌리인식을 갖고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 태평양시대의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데 의미있는 방향감각을 모색하게 된다면, 이번 대회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않아 통일한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남한선성-공주-부여'로 이어지는 백제의 역사공간인식이 재조명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러한 역사공간의 재조명은 한반도의 '무계중심'을 찾는 일이며 세계화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세대가 성남과 남한선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의 운기를 맞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모두 화합하고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오성수 성남시장님, 관계 공무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신 이형하 성남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님들, 이번 세미나에서 연구 주제를 발표하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996. 10. 10.

경원대학교총장 공학박사 김 원 섭

## 축 사

남한산성 축성돌이를 민속놀이로 개발, 시연한바 있는 성남문화원에서 남한산성축성 370돌을 맞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하니 반갑고 기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남한산성」하면 우리는 별자호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국토방위를 위해 국력의 배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수도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던 요새로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 옛 성지에 조선조 인조 2년인 1624년 이서장군의 감독하에 축성을 시작하여 2년 뒤인 1626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올해로서 축성 370주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축성된 남한산성안에는 지금도 연무관, 침폐정, 승열전 등 많은 문화유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백제 전국초기인 한성시대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고 통일신라가 전략적 요충으로 주장성을 쌓았으며 조선시대 재축성 이후로도 여러번의 보수가 있어 수도 서울의 방어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문화원으로서는 주최하기 어려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남한산성을 제조명하고, 군사 방어전략상 의의, 역사적 의의, 산성과 민족정신, 산성에 얹힌 민속 등 다각적으로 학술적 검토를 하는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성장 발전하는 지방문화원의 큰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문화원이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이같은 큰 행사가 전국문화원으로 확산되어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해외에 널리 선양하는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행사를 위해 몰신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오성수 성남시장님과 대회주최를 위해 노심초사하신 이형하 문화원장님, 그리고 학술대회를 기획하시고 해외학자들을 초청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혁창무 문화원 부원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축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10. 10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이수홍

## 즉    사

국화 향기 그윽한 수화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남한산성 축조 3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갖게 된 것을 100만 성남 시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대회를 빛내주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참석해 주신 석학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성남의 발원지이자 민족 흥망의 발자취가 어린 남한산과 산성에 관한 역사와 학술적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고해 보면 한 때는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수난을 겪기도 한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한산성이기도 합니다.

비록 현재의 산성은 애모습 그대로 말이 없지만 수많은 절곡이 어린 남한산성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 담긴 조상의 열과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거 성남, 광주, 하남, 송파는 남한산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그 맥을 같이하여 왔으나, 현재는 무분별한 행정구역의 분할로 인하여 역사와 문화의 이질감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이 고장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의 동질성과 항모애를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행하 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내외 교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1996. 10. 10

성남시의회 의장 강부원

基调講演

## 南漢山城의 歷史的 意義

南 都 泳 (前 東國大 副總長)

# 南漢山城의 歷史的 意義

南都泳 (前東國大 副總長)

우리 祖上은 후손에게 많은 文化遺產을 물려주었다. 그러한 文化遺產은 우리 민족과 같이 험세 없는 外侵 속에서 文化財가 악탈되고 파괴되는 속에서도 전하여 더욱 중요하다. 오늘 南漢山城 축성 370주년을 기념하여 성남의 밭원지이자 민족홍양의 자취가 어린 날한 산성에 대하여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被南의 역사적 유래와 전통문화를 새롭게 定立하고 성남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공동체적 正體性를 확립하기 위해 이 소중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축조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의를 천방해 볼까 한다.

## 1. 南漢山城의 역사적 위치

우리나라는 三國이래 한강유역을 국가발전의 계기로 인식하고 중요시 해왔는데 그 중 남한산은 수도의 방어지로써 일찍이 백제시대부터 이곳에 축성을 하였다.<sup>1)</sup>

백제는 말갈이나 낙랑의 침략을 피하기 위하여 한산 즉 지금의 광주지방인 남한으로 옮겼다.<sup>2)</sup> 그 뒤 백제 貞積王 원년(286) 고구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龜城을 축조하였으며, 蓋康王 말년(475)에는 외래민족이 아닌 관은 민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蛇城 또는 烏土城을 하였다.<sup>3)</sup> 백제는 도읍을 근초고왕 25년(372) 한산으로 옮겼으나 신라 真興王 14년(563)에 백제의 동북부를 합락시킨 뒤로 이곳은 신라영역이 되었다. 그리고 문무왕 4년에 남한산성을 한산주 또는 남한산주로 개칭하였고<sup>4)</sup> 동왕 12년(672)에는 "...築漢山州晝長城 闊四千三百六十步..."<sup>5)</sup>라고 하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얼마후 차운으로 한산주에 晝長城(또는 日長城)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축성은 요새지를 이용하여 외적의 침입을 미리 막자는 것과 위급한 때에 안전을 도모하자는 데서 비롯된 국가적인 시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라시대의 남한축성 이후 이곳은 그다지 중시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려 때의 수도가 桧岳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지방은 중요하게 활용되지 않았던 데 있는 것이다.<sup>6)</sup>

그후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왕조에 오면서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곳을 수축함으로써 왜적을 방어해야 되겠다는 조아의 의견은 거의

1) 「東國輿地勝覽」襄州牧 建置沿革

2) 「南漢志」卷1 建置篇

3) 「三國史記」卷25 蓋康王元年 9月條

4)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第7 文武王條

5)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12年 8月條

6) 李柱熙, 「朝鮮 南漢山城概要」, 「史蹟」 7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2, p.82

일치되었다.

당시 유성룡이 戰守策의 하나로서 機械軍兵, 裝械와 함께 城池를 들고, 예산성의 수축을 강조한 것<sup>7)</sup>이 그 한 예이다. 이것은 임진왜란으로 鄭城이 쉽게 무너지게 되자 산성축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畿輔의 중요한 保障處로써 수원의 先城山城, 安城의 竹州山城 그리고 江都와 함께 수도 서울인 都城을 지키는 關防으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하여 남한산성의 수축문제가 국방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 2. 南漢山城의 來歷과 形勢

南漢山城은 城南市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先史時代부터 민족의 생활터전으로 발전하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중시되어 三國時代부터 城를 쌓기 시작하였다. 五代 遺祚王 13년(B.C.46)에 慶禮城으로부터 도읍을 漢水 남쪽으로 옮겨 漢山 아래에 墓을 세우고 號闕을 세워 河南慰禮城이라 하였다. 이 漢山은 오늘의 延州로서 당시 漢水 이남에 있기 때문에 南漢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고구려, 신라에 영토를 빼앗기면서 이곳의 명칭은 漢山→新興州→新川停→南川停→漢山州→南漢山州→漢州 등으로 개칭되었으며, 결국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畫長城을 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日長城을 거쳐 오늘의 남한산성에 이르게 되었다.<sup>8)</sup> 성 안에는 이섯 개의 우물과 시내(澗)가 있었다.

이와 같은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서 일찍이 李願貽은 그의 <關防圖說>에서 “南漢은 天險함이 있으니 동쪽으로는 여러 개의 봉우리가 겹쳐있고, 서남쪽은 갑자기 두절되어 延野에 밀하였다”<sup>9)</sup>고 하였고, 沈象生의 <坐鬱堂記>에서는 “漢山의 城은 옛부터 五代 遺祚의 도읍지로 일컬어져 왔는데, 서북쪽은 뚝아 지른 듯한 험곡과 漢水로 막혀 있고, 동남쪽은 염호남을 제어하고 京師를 막아낼 정도로 하늘이 만들어낸 높은 山은 長子의 기상이요, 槍櫓와 剣閣과 같이 험한 형세는 많아서 써우지 않아도 이기지 않을 수 없는 땅”<sup>10)</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內矯外截, 天作高城, 北帶漢水, 南控列郡’하여 翠輔의 保障處로 그 중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수도를 송악(개성)으로 정하여 이곳은 별로 중요치 않아 太祖이후 明宗, 忠肅王, 恭讓王의 축성 관계 기록 중에 이곳에 산성을 수축했거나 충수한 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후 조선초에도 축성에 관한 논급은 없다. 이는 명나라와의 적극적인 外交政策으로 인하여 북방 민족의 위협이 없어져 한양(서울)이 안전지역으로 있었기에 축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7) 楊成龍, <<西園集>>, 卷2, 錄著 <機邊推綱>.

8) <<重訂南漢志>>, 卷1, 上5篇 山川條.

9) 朴尚鉉, 卷1, 上篇 五物錄.

10) 註 81와 같음.

### 3. 南漢山城 修築論의 대두

남한산성의 수축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된 것은 壬辰倭亂이 일어난 직후였다. 선조 25년의 폐관으로 鄭城이 쉽게 함락되자 전통적인 淸野入保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산성축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것은 古賦을 수축하는 대서부터 나타났다. 임진왜란의 와중에 경기지방의 幸州山城이나 烏城山城에서 일본과의 싸움에 승리한 정부는 산성의 효능에 대해 크게 고무되면서 고성이나 옛 성지를 수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것이다. 그 결과 선조25년(1592) 수원의 둑성산성을 수축하였고, 파주의 馬山古城, 양주의 錦岩山古壘, 여주의 塔號城, 축산의 竹州古城 등을 새로 쌓았던 것이다.

선조26년 10월에 韓州에 파견갔다가 선조와 함께 환도한 趙成龍은 鄭城防禦策으로써 남한산성 등은 험준하여 광주, 미천 등의 군사를 취합하여 이를 지키면 韓南을 망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그리고 이어 수원의 둑성산성과 용인의 석성산성을 수축하여 남한산성과 함께 京畿방어의 중요한 문호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2)</sup> 그 후에도 도성방어책은 꾸준히 제시되었으며, 선조 29년(1596) 12월에 비변사는 한강 방어의 하나로 광주, 여주, 양근 등으로부터 도성에 머르는 강변의 어울(灘)을 파수하기 위하여 보를 쌓거나 토성을 축조하여 목책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에는 승장 유정이 거느린 승군 60여명을 보내어 산성의 수비와 앞으로의 축성에 대비도록 하였다.<sup>13)</sup> 선조30년(1597) 정월 왜군이 다시 침입하자 남한산성의 방어와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고 한강 연변에는 목축을 세우는 한편 南山, 白岳 등의 산성을 看守하여 미진한 곳은 개축도록 하였다.<sup>14)</sup> 그리하여 경기 등 四道都體察使 유성룡은 경기지방의 산성을 순찰하는 일로 임금과 의논하는 중에 남한산성에 경기 백성들이 들어가 방비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성을 지키게 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에 가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리 바치도록 하였다.<sup>15)</sup> 선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徒驛所로서 남한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유성룡과 의논한지 1개월 후에 다시 同知事 蘆樞에게 남한산성의 형세와 성터, 우물 그리고 修築의役事가 시작되었는지 下聞하였다. 이에 노직은 비교적 자세하게 당시 남한산성의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 “광주의 남한산성은 주위가 布帛尺으로 1만 7천 4백여 척인데 외부는 험난하고 안은 길속하여 능선이 매우 길어 갑자기 포위할 수 없습니다. 남쪽은 약간 평지이고 다른 곳은 모두 암석이어서 기어오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이 바로 은조의 옛 도읍지로서 다른 성에 비하여 더욱 크고 일찍부터 거주민도 있었습니다. (산성은) 들은 다들어 만들었으나 빠락한 것이 3분의 2는 되며, 남쪽은 험하지 않은데 또 곡성을 쌓았습니다. 가운데는 큰 개울이 있으며, 우물은 모두 6개소이고, 水畜이 거의 섬에 죽지거나 되며, 좋은 팔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sup>16)</sup>고 하여 남한산성이 천험의 요새지이며, 곡성을 쌓았으며 큰 개울과 6개소의 우물이 있고 전답이 살달히 개간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

11) <<宜祖實錄>> 卷 43. 宜祖26年 10月 壬寅條

12) <<宜祖實錄>> 卷 74. 宜祖 29年 4月 癸丑條

13) 위의 책, 卷 83. 宜祖 30年 正月 乙未條

14) 위의 책, 卷 84. 宜祖 30年 正月 庚申條

15) 위의 책, 卷 85. 宜祖 30年 2月 丙戌條

그리나 수축문제는 이 당시 동문과 남문, 수구문은 이미 수리를 끝마친 상태이나 성의 외 총사가 너무 거칠하고 방대하였기 때문에 광주의 군사를 동원하여 돌을 운반하고 성지 를 수축하려 했으나 마침 보리 좌충기에 농사를 그르칠까봐 실시하지 못하였다.<sup>17)</sup>

그로부터 6년뒤인 선조36년(1603) 2월에 이르러 다시 이곳의 축성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sup>18)</sup> 이곳은 亘鏡으로써 南道왕래의 요충지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만일 이곳을 수축하고 병사를 훈련시켜 지키게 하면 안으로는 방어가 되고 밖으로는 諸陣을 開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備邊司에서는 남한산성 형세는 방어에 최적지라 강조하면서 이곳에 축성하여 병력을 훈련하면 도성의 보장과 諸鎮의 控制를 기약할 수 있다고 역 설하였다.<sup>19)</sup> 그러나 이때 일부 대신들은 축성사업에는 반드시 인력과 재정을 대거 사용해야 하므로 곤란한 점이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sup>20)</sup>

“결국 선조시대에 도성방어책으로서 남한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게 인식되었지만, 왜관 후 국가부흥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할 당시의 형편상 광활한 산성을 수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수선할 수 있고, 만약 수선한다 하더라도 수만 명의 군사가 없으면 지키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에 부딪쳐 논의만 분분한 채 남한산성의 수축은 실시되지 못하고 신조의 승하로 일단락을 끝내 되었던 것이다.

이어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로 남한산성의 축성문제는 그대로 방치된 채 10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중 광해군 13년(1621) 드디어 이곳을 도성 방어지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sup>21)</sup> 그러나 이때 산성을 축조하되 큰 규모로 일으키지 않았다. 실제적인 축성공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된 것은 인조대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南漢山城의 修築再論과 築城施設

남한산성의 수축에 대한 논의는 仁祖 원년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광해군이 후 등록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불고 온 것은 後金의 등장이었다. 후금의 대부분은 서북지방 방어에 있어 국방상의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인조반정 이후 특세한 西人정권은 종래의 中立外交로부터 親明排金노선으로 전회하게 되므로써 더욱 가중되어 有事時에 대비하는 국왕호위병력의 증감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조 원년(1623)의 李貴는 京畿軍을 禁衛軍으로 삼아 국왕호위병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금박할 때에 都城이외와 王室의 고난처로써 적합한 駐驛所로써 남한산성을 미리 수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인조도 禁衛軍 창설문제를 의논도록 하고 광주 목사 林椿를 발탁하여 남한산성의 수축문제를 실시 하려 했으나, 인조 2년(1624)에 뜻하지 않는 李孟의 叛亂으로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이팔의 난으로 도성이 함락되어 왕이 공주 과천까지 초래하여 鄭城防禦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어 남한산성의 수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조 2년 우선 남한산성의 형세부터 다시 살펴 보도록하여 수축사업을 촉진시켰던 것이다.<sup>22)</sup> 그러나 계신, 삼궁, 삼사 대신들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팔의 난 이후 허공에 뿐 인

17) 逃亡, <逃亡후기 南漢山城의 修築과 防禦施設 (1)>, <<성남문화연구>> 3(1995), pp.13~16.

18) 「宜祖實錄」 卷159 36年 癸卯 2月 乙巳條.

19) 朝鮮 略.

20) 「宜祖實錄」 卷161 36年 癸卯 4月 丁酉條.

21) 「南漢志」 卷1 上篇 城池篇 및 <<光海君日記>> 卷129 光海君 13年條.

22) 이현희, 앞의 논문 p. 9.

심을 다시 둡요시킬 수 없는 일이며 흉년으로 재력이 고갈하므로 대역을 완수하려면 국력이 소모된다고 축성 신중론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는 수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도 있어 한 제 조정은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sup>23)</sup>

당시 명의정 李元翼, 부계학 鄭經世, 좌의정 尹昉, 대사헌 鄭暉 등은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었고, 호조판서 沈悅, 예조판서 李廷璽, 서평부원군 韓浚謙, 형조판서 李時發 등은 신중한 편이었다. 인조 역시 先江都保障 後南漢山城修築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sup>24)</sup>

그러나 명의정 이원익의 적극론에 의거 인조2년(1624) 4월에 이르러 남한산성수축론이 무세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원익, 이귀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총융사 李璣(처음 沈器道을 임명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하여 중간에 이어서 교체함)에게 찬성수축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서는 騎兵(軍)과 軍兵 등의 築城軍 그리고 수도근교의 백성까지 동원하여 인조2년7월에 축성공사를 시작하였는데 該役은 주로 騎軍이 주로 맡았다. 승군은 覺性 등 전국의 유명한 승려들이 駕使를 모아 지역을 나누어 축성하였는데 그들의 城役이 매우 힘들어 緒翼은 그 설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駕使들이 南漢山城의 築城役 때문에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대체로 남한산성의 城役은 나라의 큰役事로서 오로지 駕使들에게 取廳하니 그役의 무거움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승려로서 田土를 가지고 생업한 자는 매우 적습니다. 빌어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써 가지고 수백 천리밖에 超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부터役勞이 있었습니다만 각 도에는 정한 숫자가 있어 역에 동원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역에 따라 度帖을 지급하고 도첩이 없는 자도 역에 동원해 하니 나라의 승려들이 모두 성역에 동원됩니다. 이것은 진실로 승려들이 경에 없었던 무거운 부담입니다. 대저 남한산성의 수축은 비상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해서 나온 역사입니다. 그러나 결식하는 승려들로서는 그 능력이 감당할 수 없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sup>25)</sup>

축성에 동원된 승군의 규모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축성 이후 승군의 편제에 대해서 <重訂 南漢志>> <營制>에 의하면 駕軍 摆攝 1명, 駕中軍 1명, 教練官 1명, 諸官 3명, 職  
韓官 1명, 原居督軍 138명, 義僧 356명으로 면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의승은 남한산성 축조시 산설에 거주하는 승려가 죽어 산성을 守直하는데 고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의 懇懃을 교대로 上奏하여 賴役을 한 대서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향승의 상변수적은 원거승군의 침해 등의 폐단이 야기되어 義僧防盜鐵閣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지방의 향승은 일정한 방면전을 납부하면 그 경비로써 의승을 駕役하여 수직계 한 대신에 향승의 상변은 면제하였던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남한산성의 수축은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보장처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仁祖 2년(1624) 7월에 시작되어 승군과 군병 등의 축성군을 동원하고 어업의 貨穀이나 田結稅 및 田畠 정영을 통해 군량을 확보하면서 드디어 仁祖 4년(1626) 11월 만 2년 4개월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산성수어책의 하나로 광주부를 산성으로 옮기고 입거민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축성시설을 살펴보면 성의 안둘레는 6,297보, 바깥둘레는 7,295보이며 예장 1,897개 용성

23) 『仁祖實錄』 卷5 2年 甲子 3月 更午既。

24) <<仁祖實錄>>, 卷5 仁祖2年 3月 更午既。

25) 緒翼, <<龍浦先生集>> 卷1

4개, 성방 115개, 문 4개, 암문 16개, 우물 80개, 셀 45개 등을 만들고 승군의 사역과 보호를 위하여 광경사를 비롯한 7개의 사찰이 새로 건립되었다.

그 뒤 순조때까지 각종 시설이 정비되었다. 유사시 임금이 거처할 행궁이 73칸 반, 下關이 154칸 이었다. 궁실에 따른 건물로는 1888년(숙종14)에 左德堂을 세우고 1711년에 종묘를 통안하기 위하여 左殿을 세웠다. 남문 안에는 사적을 옮길 右室이 있다. 1798년(정조 22) 漢南樓를 세우고 1624년에 새운 재관인 人和館을 1829년(순조29)에 수리하였다. 宮廟로는 좌승당, 일장각, 수어청, 계승헌을 비롯하여, 베장청, 교련관청, 기제관청 등의 군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종각, 마구, 罡望, 택제시조 은조왕묘, 성황당, 廪壇 등이 이루어졌고, 중도청(督從廳: 南漢經營)을 두어 승군을 총괄하였다. 남한산성의 수어는 처음에 총을 청이 많았다가 성이 완성되면서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다. 수어청에는 전, 좌, 중, 우, 후의 5영이 소속되었는데, 전영장은 남장대, 중영장은 북장대, 후영장은 동장대, 우영장은 서장대에 각각 진을 치게 되었고, 좌영장은 동장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은 4장대 가운데 서장대만이 남아있다. 이 밖에도 성내에는 현절사, 연무관, 지수당, 명월정, 침파정 등이 있다.

이 성은 축성되고 처음 계획된 謂邑의 병력이 동원되어 유사시에 대비하는 훈련이 없더니 수어사 李時白의 건의에 따라 仁祖 13년에 12,700명을 동원하는 대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때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 해이다. 그러나 막상 병자호란을 당하였을 때, 인조가 피신하고 적과 대치하였으나 최명길 등 주화파의 주장에 의해 계 값을 못하고 閉門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수축된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이후 인조16년(1638), 영조 20년(1744), 정조 3년(1779)의 부분적인 중, 개축을 통해 방어기지로써 관방의 구성을 해왔던 것이다.

## 5.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의

Droysen은 歷史認識의 기반은 現在診斷(Gegenwartsdiagnose)을 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풀려준 소중한 文化財인 南漢山城을 이상의 살판 바로서 評斷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첫째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문화원으로서 최초로 성남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향토 문화유적의 하나인 南漢山城에 대하여 韓, 中, 日 관련 학자를 모아 종합적으로 학술적인 제조명을 한 것은 民族文化에 올바른 계승과 발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여 앞으로 지방문화원에 역할중대와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그 의의는 크다할 것이다.

둘째, 중대 남한산성에 대한 인식은 인조가 청의 황제앞에 출성황복(出城降服)했다는 사실 하나만에 길착하여 글과 치욕의 장으로 치부해 버린 점이 없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사관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이 반영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는 이와같은 역사의 글테를 빛어 인조16년 이후의 제수축과 북한산성의 축성, 군비강화, 三學士의 鋒義精神 등이 北伐運動 - 黽正斥邪運動 - 開化獨立運動 - 3. 1運動 - 近代化思想 등으로 이어지는 正統性을 새롭게 제조명하여 이를 생활문화 속에 구현하는 것이다.

세째는, 南漢山城이 三國時代 이래 「關防要塞地」 「畿輔의 保障地」로서 國土保全, 民族保全, 文化保全을 하여 民族正氣의 보유지로서 중요하다는 점과

내에는 城南(廣州)이 先史時代부터 문화를 발전시킨 곳으로 백제초기 한성시대는 도읍지로 되고, 조선후기부터 清祚王朝를 致祭하였으며, 英陵 등 외릉行路, 山城내에 行宮을 설치한 곳이며, 薩韓末 日晉시대에 南相權, 尹致章 등에 의한 항일의병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길이 후손에 물려줄 문화, 역사 유적지로서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문화적 자금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文化遺產을 後孫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 이런점에서 城南市에는 博物館 建立의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끝으로, 미민의 국제학술회를 계기로 남한산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표조사와 관련사료의 발굴 그리고 문화재지정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에게 창도예와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 방어체계상 그 중요성이 제시된만큼 수원의 독성산성과 華城, 그리고 안산의 죽주산성, 서울의 북한산성 등과 연계하여 군영의 편제와 운영문제, 군량의 확보와 전흡기능, 행궁에서의 民政(군사훈련, 과거시험, 조세감면 등) 등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 百濟 漢城時代의 南漢山城

발표자 : 白 南 郁(대유공전)

논평자 : 崔 夢 龍(서울대)

# 百濟 漢城時代의 南漢山城

白 南 韶(大有工業専門大學)

1. 머리말
2. 都城 關係記事의 검토
3. 都城의 명칭
  - 1) 慰禮城
  - 2) 漢城·漢山
4. 都城의 위치
  - 1) 慰禮城
  - 2) 漢城·漢山
5. 漢城의 성격
6. 맺음말

## I. 머리말

오늘날 남한산성은 남쪽으로 성남시를 두고 있고, 수려한 산세와 수어장대 등을 비롯한 유적이 산재하여 사적 제57호로 지정받은 도립공원이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은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의 주민들이 역사의 산교유장 및 문화공간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산성에 대한 이해는 일반인들에게는 조선시대의 병자호란과 관계되어 널리 알려져 있을 뿐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문화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절여되어 있다.

남한산성은 신라의 천년 고도인 慶州의 南山 못지 않게, 백제의 국가 형성과 발전에 연관되어 頭城時代<sup>1)</sup>의 頭城<sup>2)</sup>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성시대의 남한산성에 관계된 역사적인 성격과 실상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문헌이나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sup>3)</sup> 이런 관계로 한성시대의 남한산성에 대한 연구는 河南慰禮城·漢城·漢山 등의 관계기사를 검토하여 역사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三國史記」百濟本紀·地理志와 「三國遺事」의 기술이 소략하고 내용상의 차이로 인하여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한 兩史書의 도성에 관한 자료는 도성 관계기사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三國史記」百濟本紀의 早期記事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이로

1) 百濟의 한성시대라 할은 部城의 번역에 따라, 頭城時代(B.C.18~A.D.475), 頭本時代(A.D.475~538), 潛治時代(A.D.538~600)로 전의상 구분한 것이고, 頭城王이 백제를 건국한 시기부터 高句麗長城王의 남진에 의해 益州王이 전사하고 文明王 원년(405)에 풍진(풍주)으로 친도한 시기까지를 일본 한다.

2) 한국청진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재액과사전」 6, 1991, pp. 856~858.  
일반적으로 도성은 왕이 활동시 거주하는 궁전과 관부 및 위락을 둘러싼 성이며 끝 활성을 찾한다.  
국가의 기능에 점차 강화되면서 도성에는 왕이 사는 궁전과 종묘를 비롯하여, 여러 관부가 중심을 이루고 주변에는 신분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된다. 도성이 성립되는 초기에는 왕과 일반인의 거주지가 공생 혹은 굽장을 빙아 구분하고, 다음에는 위락의 주변을 포함해 축성(羅城)은 이중의 성벽을 갖는다.  
3) 한성시대와 2세기간의 사차를 보이는 것처럼 南漢山과 山城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8년(638)에 高句麗를 정복하고 漢城에 돌아와 김유신을 비롯한 謂將들에게 논문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東漢南漢山北城 平漢城北門戰功第一 授位達千 諸東一千石」라고 한 기록과 同王 12년조에, 「漢山州書長城 關四千百六十步」라는 기사에서 행재의 남한산성에 축성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한산성은 적어도 다른 지명으로 불려져 기술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극히 간단하다는 것이다.

『高麗史』 卷 56 地理志 漢州條, 「日長城 新羅文武王所築 郡置長城……置長城·日長城」  
『朝鮮太宗實錄』 卷 19 太宗 10年 正月, 「遣星山營季禮 相廣州日長城修築可否」  
『朝鮮世宗實錄』 卷 1 郡役平亂, 「慶州日長城 亟轉盡平之……」  
이들 기록에서는 置長城이 日長城의 명칭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  
『新羅東國與北勢覽』 卷 6 廣州牧 建置沿革條, 「本百濟南漢山城 郡名 南漢山 古跡 日長城」  
여기에서는 廣州·南漢山城이다 하여 郡所의 소재지로 보고 있으며, 日長城은 고적으로 여겼다.  
선조대에 이르러 日長城은 '南漢山'이란 지명보다는 '南漢山城'으로 면밀하게 사용되고 있다. 「朝鮮宣祖實錄」 宣祖 30年 正月條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 미전까지는 남한산성이란 명칭은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며, 16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南漢山城이란 지명이 일반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南漢山城의 명칭은 置長城(新羅 文武王) → 日長城(高麗) → 南漢山(16세기 중엽까지) → 南漢山城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해 한성시대의 도성에 관한 연구는 각양 각색의 입론에 의해 위치 비정을 비롯한 계반 내용이 정설화되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sup>5)</sup>

한성시대의 도성이 자리 잡은 곳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한강 하류지역은 조선초기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 성장·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적·유물의 흐름이 극심하여 문헌상의 한계를 보완하기에 어려운 절미 있다. 또한 남한산성 역시 그에 대한 자료조사만<sup>6)</sup> 간단하게 되어 있어 유적·유물의 분석을 통한 고고학적인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한성시대 도성에 대한 연구 사정이 어려운 혼연임을 감안하면, 필자 또한 이러한 계반의 해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고, 아울러 한성시대의 도성이 백제의 국가 발전에 따라 다양한 변천과정을 짚아 활용을 고려하여 한성시대의 남한산성

4) 「三國史記」의 朝鮮記事에 대한 신생설 여부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특히 百濟本紀의 朝鮮記事와 그 기년에 대한 계전체를 개략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궁정적인 측면에서 논지를 제시한 경우.

金允龍, 「三國時代 開拓에 관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976.

千寬宇, 「三國의 國家 形成(8)」, 『韓國學報』 3, 1967.

李繼知, 「百濟의 國家 形成」, 『大邱史學』 11, 1996.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도읍지와 행역」, 『慶愬學報』 60, 1985.

(2) 후정적인 측면에서 논지를 제시하는 경우.

今西龍, 「百濟略史」, 「百濟史講註」, 「百濟史研究」, 1933

白鳥庫吉, 「百濟紀元」, 『歷史』創刊號, 1947.

稻葉岩吉, 「朝鮮滿洲史」, 『世界歷史大系』 11, 1955. (近内古玉 이전의 기사를 인정하지 않음)

(3) 朝鮮記事의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李丙謙, 「百濟의 建國開墾과 馬韓 中心勢力의 變動」, 『韓國古代史研究』, 1976 (古桑玉 이후)

金哲說, 「百濟建國考」, 「百濟研究」特輯主, 1982.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 10, 1987.

이와 같은 百濟本紀의 朝鮮記事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離臺라는 한의 연호 사용뿐만 아니라 馬韓 百濟의 국가 형성에 관한 내용으로써 온조 때에 馬韓을 멸하고, 풍왕 13년에는 영역이 북으로는 酎川, 남으로는 離川, 서로는 大海, 동으로는 走蠻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확보한 국가였음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이설의 드러난다(千寬宇, 앞의 논문 ;崔夢龍, 앞의 논문). 3세기 중엽의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대한 사정을 韓朝로 기술한 『三國古』 韓籍에서는 馬韓의 50여 국이 상호 제어 불능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百濟의 국가 실貌에 대한 기본 자료인 兩 史書의 내용상 약 3세기 가량의 조망하기 어려운 시기상의 경계가 있다. 이는 漢城時代의 상황이란 시기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중남부의 국가 형성을 미롯한 기원 전후한 시기의 역사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데 평활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장 사서의 문제를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고고학적 연구성과, 즉 청동기문화 혹은 초기 철기문화에 대한 광폭할 만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반의 문제에 맹목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세계적인 정리와 확실한 풀증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직한 百濟本紀의 朝鮮記事에 대한 학제적 다양한 견해와 문제점은 앞으로의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필자는 百濟本紀의 朝鮮記事를 궁금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漢城時代의 남한산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5) 河南聖禮城, 漢城·漢山에 관계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설로 인정받는 견해가 보이지 않고 있다.(崔夢龍, 앞의 책 p. 215 ; 金起覺, 「百濟朝鮮 韓城에 관한 一考察」, 『高麗史學』 7, 1990. pp. 3~5. 참조) 연구자들은 대체로 한성시대의 도성인 河南聖禮城과 漢城, 漢山의 위치를 일반적으로 麗州 古邑, 春宮里, 二聖山城, 風納里土城, 麥村土城, 南漢山城, 北漢山이라고 비정하고 있으며, 복원상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한결같이 남한산성 혹은 남한산성과 관련한 구릉으로 이야기는 근접지역이다.

6) 漢陽大學校博物館, 「兩漢山城」, 1986.

이 갖는 역사적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都城 關係記事의 검토

일반적으로 한성시대의 都城은 慶禮城, 河南 慶禮城, 漢山 漢城 등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史料是『三國史記』百濟本紀에서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⑤ 遂至漢山 登負兒嶺 望可居之地 洪流欲居於海濱 十亞諫曰 '唯此河南之北帶漢水 東居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洪流不聽 分其民 驛蹕輕忽以居之 溫祚都河南 慶禮城(溫祚王 即位年條)
- ⑥ 春2月 車駕敵三千來圍慶禮城 王閉城門不出(溫祚王 8年條)
- ⑦ 春2月 王都老驅化爲男 五虎入城 王母薨 年六十一歲  
夏5月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固境 少有寧日 況今妖祥屢見 國母垂養 勢不自安 必將遷國 才作出巡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彼 以圖久安之計。  
秋7月 就漢山下入櫓 移慶禮城民戶。  
8月 遣使馬韓 告遷都 遣畫定轄場 北至渾河 南限鮑川 西窮大海 東極光壤。  
9月 立城闕(溫祚王 13年條)
- ⑧ 春正月 遷都 .....  
秋7月 滯城漢江西北 分萬城民(溫祚王 14年條)
- ⑨ 春 樂浪來侵 欽慶禮城(溫祚王 17年條 )
- ⑩ 春2月 王宮井水暴溢 漢城人家馬生牛(溫祚王 25年條)
- ⑪ 2月 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 修營慶禮城(溫祚王 41年條)
- ⑫ 王徵發丁夫葺整禮城(貴椿王 即位年條)
- ⑬ 9月 內臣左平優輶居北漢城板 王發兵討之(比漢王 24年條)
- ⑭ 移都漢山(近肖古王 27年條)
- ⑮ 初生於漢城別宮(阿孽王 即位年條)
- ⑯ 秋9月 薦王招隨師兵三萬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基幽王 21年條)
- ⑰ 嘉慶21年 高句麗末侵圍漢城(文周王 即位年條)
- ⑱ 遷祚.....自卒本扶餘之慶禮城 立都稱王.....近肖古王 取高句麗南平壤 都漢城(地理志)

위의 자료 ⑥는 온조왕 즉위년(B.C. 18)에 도읍지를 河南 慶禮城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하남취례성이라는 지명은 그 이후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⑩에서는 銈鞨이 내습하여 慶禮城을 포위하자 王이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 지역은 王이 거주하는 도성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자료 ⑯의 경우에는, “왕도에서 銈鞨가 남자로 변화하고.....반드시 나라를 옮겨야 하겠다. 내가 어제 漢水의 남쪽을 追觀하였는데 .....7월에 漢山下에 櫓을 세우고 취례성의 民戶를 옮겼다. 8월에 사신을 馬韓에 보내 遷都를 고하였다..... 9월에 城闕을 세웠다”라고 하여 궁궐을 세워 都邑을 옮기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정월에 천도하였음을(⑩) 미루어 볼 때, 자료 ⑩의 내용과 더불어 온조 13년(B.C. 6)까지의 도성은 慶禮城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수 남을

순관하고 한산하여 墓을 세워 위례성의 민호를 옮겨 '立城關'한 곳에 대한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 ④의 자료에서 천도한 이후 漢城民을 나누어 한강 서북에 성을 쌓았다는 것과 ① ②에서 漢城을 王都라 한 사실을 고려하면, 漢山下로 천도한 도성을 漢城이라고 지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료 ①에서는 한산으로 천도했다고 했는데 移都 기사가 전여된 채로 ①에서는 漢城을 王都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④~⑥까지의 자료는 百濟의 都城이河南慰禮城 → 慰禮城 → 漢山下=漢城 → 漢山 → 漱城으로 변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내용과는 달리 地理志의 내용인 ⑤에서는, '按「古興記」의 典據를 내세워 온조가 납하하여 자리잡은 최초의 도읍지를 위례성이라 하고, 근초고황제에 고구려의 南平壤을 취하여 漱城을 도성으로 삼았다고 하며 백제의 도성을 慰禮城→南平壤=漢城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백제의 도성에 대하여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지리지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한번 ⑥의 도성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三國遺事」 백제의 도성 관계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료 ⑥에서 온조가河南慰禮城에 도읍하였다 내용이 자리지에서 전거한 책과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三國遺事」에서는 「古興記」를 인용하여 온조가 건국한 도읍지를 위례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同王 14년(B.C. 5)丙辰에 한산(廣州)으로 옮기고 成安元年(近肖古王 25, 371년)에 고구려의 南平壤을 취하여 도읍을 北漢城(楊州)으로 옮긴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sup>7)</sup> 이에 따르면 백제의 도성은 위례성(직산) → 한산(광주) → 南平壤=北漢城(양주)이어야 한다. 따라서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지리지, 그리고 「三國遺事」의 관계기사 중 어찌한 내용을 취하느냐 여부에 따라 백제의 도성에 관한 내용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지리지, 「三國遺事」의 도성 관계기사가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古興記」와 같은 인용 자료의 原典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sup>8)</sup> 「三國史記」 지리지와 「三國遺事」에서는 「古興記」에 전거하여 온조의 최초 도읍지를 위례성으로 동일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三國遺事」의 한자가 위례성을 '一云蛇川 今樓山'이라 하고 한산을 广州로 본 것과 위치 미상으로 차리한 「三國史記」 百濟本紀와는 다르게 위치 비정을 하였음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三國史記」 지리지와 「三國遺事」의 도성 관계기사는 사료상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三國史記」에 비해 「三國遺事」의 사료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감안하면, 백제 도성에 대한 이해는 「三國史記」 백제본기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9)</sup>

한편 「三國史記」 백제본기에서의河南慰禮城 → 慰禮城 → 漱山下=漢城 → 漱山 → 漱城이라고 기술한 백제초기 도성의 친도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자료 ⑥에서 최초의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의 지명은 이후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慰禮城과 漱城·漢山이 도성이라는 내용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 ⑥와 ⑦의 내용에서는 백제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후 온조왕 13년에 왕도에서 老嫗가 남자로 화하고, 다섯 마리의 범이 성으로 들어오는 괴이한 내용과 왕도인 召西奴가 죽고 동과 북에서 黑浪과 黑鶴이 영토를 침략하므로 편안할 날이 없다는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불안 요소로 인하여 천도의

7) 「三國遺事」 卷 2 南夫餘 習百濟 北夫餘壤.

8) 井上秀雄, 「三國史記地理志의史料批判」, 『朝鮮學報』 21·22号, 1961.

9) 「三國史記」の原典はなぜある?」, 『朝鮮學報』 48, 1968.

9) 車英杰, 「慰禮城과 漱城에 대하여(I), 「鄉土서울」 28, 1981, pp. 29~30.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한수의 남쪽을 순관하여 도읍을 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漢山下에 봉을 세워 慶禮城의 민戶를 옮기고 마한에 천도를 고하였다”라고<sup>10)</sup> 한 사실에서 도읍지가 漢山下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⑤에서는 온조가 최초 도읍지로 하남위례성을 삼았는데, ⑥에서 천도를 「必將遷國」이라 하여 遷都가 곧 遷國이라고 할 정도의 중대사로 여겼다. 그러나 ⑥에서 천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왕성을 위례성이라고 한 점과 더불어 이후의 도성 역시 慶禮城이라는 내용만 기술하였다는 것도 의문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⑥의 천도 기사를 연관지어 볼 때 즉위년조의 하남위례성의 기사 ⑤가 온조 14년 한산하의 천도 기사와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 최초의 도읍지를 (河北)慶禮城, 移都地를 河南慶禮城으로 구분하고, 漢山下의 遷都地는 강북의 위례성과 대비하여 방위성을 점거한 하남위례성이라고 지칭하였다고 예상된다.<sup>12)</sup> 이후 하남위례성의 명칭은 보이지 않고 都城(王城)은 漢城으로 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河南慶禮城=漢城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三國史記』 저리자와 『三國遺事』에서 온조의 최초 도읍지를 위례성이라고 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三國史記』百濟本紀의 관계기사를 해석해 보면 백제 초기의 도성이 (河北)慶禮城 → 漢山下=河南慶禮城=漢城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산으로 천도하였다는 자료 ②와 ① 등을 참가하여 보면 (河北)慶禮城 → 漢山下=河南慶禮城=漢城 → 漢山 → 漢城으로 계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都城의 명칭

#### 1) 慶禮城

일반적으로 都城의 명칭과 移都는 시대적 산물이란 점을 고려해 보면, 한성시대의 移都와 도성의 명칭은 백제의 국가 발전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기원을 전후한 시기의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상황은 백제의 모태가 되는 伯濟國을 포함하여 마한의 50여 大·小國이 目支國의 虔王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다.<sup>13)</sup> 그리고 三韓諸國은 국읍을 중심으로 만경 50여개 내외 지역의 범위에서는<sup>14)</sup> 諸勢力集團들이 「無城郭」하고 「邑

10) 『三國史記』百濟本紀, 遷祚 13年條.

11) 亂仁主는 하남위례성=위례성이라 하여 하남위례성과 (하복)위례성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百濟 初期 都城 問題 新考」, 『韓國史研究』81, 1993, 全起豐 역시 궁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百濟 初期의 漢城에 대한 再檢討」, 『忠士서울』33). 그러나 이들의 견해에는 百濟와 須磨의 건투지는 주로 北境이었는데 遷祚代의 北境에 대한 이해가 선별되어야 하는 것과 낙랑과 대궐구도에서 봉을 놓는 표충지인 馬首城·井山城(溫祚 8年條), 北境의 건투지인 馬頭川과 青木山, 낙랑과의 통로를 폐쇄하기 위해 만든 烈山壘·狗川壘(溫祚 10年條)의 위치가 한강이남 지역에 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지명의 위치 비정이 宋定 級見미 있으나, 한글같이 한장을 넘어선 강북에 위치를 비정하는 설정(李丙壽 譯註, 韓譯『三國史記』)을 꼽아야 하며, 본고에서는 하남위례성과 위례성을 구별하여 과학하고자 한다.

12) 李丙壽, 「慶禮考」, 『韓國古代史研究』, 1976, pp. 401~407.

13) 李基白·李基更, 「韓國史講座」 1(古代篇), 1982, pp. 94~95.

여기에서는 三韓諸國과 더불어 日支國에 대한 문제를 「三韓의 정치적 밀레리」라는 소제로 취급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 여러 연구자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삼한제국과 복지국에 관한 견해를 인정하고자 한다.

14) 『三國志』30「魏書」, 30「烏丸鮮卑東夷傳」第 30 部桂. 이 책명을 앞으로는 「三國志」韓傳으로 촉

落雜居, 不能善相制御」하는 상태였다.<sup>15)</sup> 諸國의 국읍에서는 臣智·渠帥 등으로 불리지는 首長들을 중심으로 철기문화의 보금이 가속화되어 강에 따라 國의 대내·외적인 고류를 위한 물자의 집산과 분배가 이루어졌다.<sup>16)</sup> 伯濟國을 모태로 하여 북에서 남하 이동한 부여계를 중심으로 국가를 미륵한 백제도 바한제국의 일반적인 운명질서 구도 내에서 발전이 진행되었음은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 즉 온조집단은 국읍을 중심으로 반경 50여리 내외의 지역범위에서 「無城郭」하고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상태의 諸勢力集團들과 연합 혹은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체계를 갖추어 갔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백제의 위례성은 臣智·渠帥 등으로 불리지는 首長이 거주하는 국읍이라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온조집단의 거주지인 국읍 역시 바한사회가 「無城郭」이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계집단의 거주지역과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방의 선진문화를 앞서 경험한 온조집단은 토착사회의 선주집단들을 경차 주도하면서 한강 하류지역이란 지리적 위치에 힘입어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세력성장을<sup>18)</sup> 이루어 갔다. 그 결과 백제는 삼한사회를 분열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한군현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⑤의 천도 이유에서 나타나듯이 낙향과 말갈의 빈번한 군사적 압력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온조집단은 자료 ①에서 나타나듯이 제세력들로부터 제기되는 대내적인 도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자료 ⑤에서 溪山下에 墓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이루시켰다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온조집단은 그 세력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대내외적인 방어 시설과 마을의 중심지역이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온조집단의 거주지역은 나무로 墓을 만들고 흙으로 광택을 끌어쌓게 되었다.

위례성에 대한 어원은 '위례'가 광택을 사방으로 뿐다는 땅언인 위리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9)</sup> 즉 위리는 나무로 墓을 설치하고 흙으로 광택을 뿐는 것을 일컫는데, 위례는 여기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우리제·울타리·울안 등도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마을과 같이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온조집단이 거주한 위례는 국읍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계집단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자, 백제의 수도라는 고유명사로 친환되어 '위례성'이라 불리어지는 도성의 명칭이 되었다고 하겠다.

악하기로 한다.

15) 白南軒, 「三國志 鐘傳의 國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26, 1981.

16) 李賢惠, 「三韓의 國邑과 그 疆境에 대하여」, 『歷史學報』 68, 1976. pp. 3~9.

17) 趙重國, 「百濟政治史研究」, 1988. pp. 50~59.

18) 李鍾旭, 「百濟와 國家形成」, 『大韓史學』 11, 1976. pp. 10~17.

한강유역의 지리적 위치는 내적 요소로 생태학적인 면에서 백농사에 따른 생산력과 인구증가로 이어졌고, 외적인 요소로 案淵·秣麓과의 대외 전쟁에 의한 국가의식의 성장으로 이해한다. 여기에 한군현과의 접근거리란 점은 고역에 따른 역사 산한 제국보다는 유리한 유적이므로 한의 선진문화에 대한 수용이 활발하였을 것이다.

19) 丁若闊, 「慰禮考」, 『緇城考』, 『朝鮮堂空書』 所載, 无銘, 无里, 울타리, 울안에 대해서는 梁柱東, 『古歌研究』 一編號, 1965. pp. 570~571. ; 金龍國, 「河南慰禮城考」, 『壤土서울』 41, 1983. ; 成周輝, 「百濟城址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2) 漢城·漢山

앞서 ①에서 西南慰禮城이 漢城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성의 명칭에 대해서는 阿利河(阿利水)<sup>20)</sup>가 한수·한강의 별칭으로 보고 阿利·慰禮 등이 같은 지명으로도 사용된 데서 연유되었다는 견해가 있다.<sup>21)</sup> 반면에 阿利河와 阿利水가 한수·한강을 지칭한 어원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한강의 여러 카류 중에 하나를 지칭한다고 보고, ②나아가 漢城殿은 王城 혹은 大城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명칭이 주어졌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sup>22)</sup> 이러한 견해는 한강·한수, 그리고 왕성·대성과 관련하여 위례성·한성이란 명칭의 연원을 구했다는 점에서 일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백제의 성과 발전에 따라 온조김단의 거주지가 기능적인 역할과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도성의 명칭 변화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하남위례성은 반경 50여리 정도 지역의 중심지, 즉 국읍이 갖는 대내외적인 교류에 따른 물자의 분배와 칠상이라는 단순 개념을 벗어나 확장된 영역을 경영하는 수도권적 의미의 기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小體 殿塔의 지역별위가 자료 ⑤의 내용처럼 확대되자 온조김단이 거주한 위례성은 계집단간의 물자 교류와 문물을 주도하는 국읍의 역할뿐만 아니라, 확대된 영역을 지배하고 관광하는 각종 관부가 설치되면서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그에 따른 권위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런 추세로 인해 중래의 하남위례성이 갖는 국읍의 성격과 의미는 국가의 도성이란 성격변화에 따른 명칭 변경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정치와 사회질서의 변화에 부응되는 권위를 갖추어 갔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명칭이 漢城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온조 13년에 이르면, '北至𬇙河 南臨龍川 西窮大海 東極走壤'라고 하여 영토가 확장되고 난 직후, ⑥에서 漢山下에 墓을 두르고 광작을 짓은 온조김단은 곧 마한에 천도를 고하고, 동왕 14년에 천도한 직후의 도성이 漢城이라고 불리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7년에는 마한파의 부용관계라는 열세를 만회하고 마한을 멸하는<sup>23)</sup>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하북)위례성은 자료 ⑥에서 "(眞糟)王은 丁夫를 정발하여 성을 修葺하였다"라는 기사를 끝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자료 ⑦에서는 王都라는 의미가 담긴 漢城이 위례성 대신 쓰여지고 있다. 자료 ⑧에서 漢城民을 나누어 한강 서북의 축성작업에 동원하였다는 사실은 도성의 성격이 한성이라는 명칭에서 의미하듯이 인구의 집중을 사사하고 있다. 아울러 도성에 궁궐을 비롯하여 확대된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관부의 여러 시설을

20) 『三國史記』百濟本紀 蔣南王 3年條, 「又取大石於都羅河 作樓以葬父骨」。

21) 『朝鮮金石總覽』襄陽土大王碑文, 「王威惡惡 被阿利水」。

22) 申采浩, 「上古史 考證文 名詞 解析법」, 『朝鮮史研究原草』, 1974, pp. 22~25.

李弘植, 「백제 진국에 대한 계문제 (1), 「국사상의 계문제」 6집, 1960, p. 26.

崔夢龍·權五英,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叢」, 『千寬子先生遺稿紀念 韓國史學論集』, 1966, p. 88.

23) 金起燮, 「百濟 自期 漢城에 관한 一考察」, 『青溪史學』 7, 1990, pp. 28~29.

24) 『周易』異城傳 百濟條, 「王姓夫姓氏 號於羅縣 民呼爲韓吉支 夏言訖王也」. 이를 바탕으로 李炳鉉(『韓國古代 國名·地名研究』, 1982, p. 199)는 한성이 명칭을 이해하고 있다.

25) 『三國史記』百濟本紀 道祚 27年 夏4月條, 「二城障 移其民漢山之北 馬韓遷徙」。

이 건축되어 점에 따라, 지역의 협소함이 대두되어 도성면을 분산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백제의 도성은 백제의 성장 발전에 따라 그 기능과 내용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을 것이므로 그 명칭 역시 새로운 변경이 요구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록 후대의 내용이긴 하나 종래의 도속어가 국가체제의 정비과정에서 한자화하는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구려의 국호 명칭은 큰 존약을 지칭한 息·息·講獻의 음을 한자로 句麗라 표기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十濟 혹은 伯濟란 國號가 百濟로, 그리고 관직명이 고이왕 때 佐平으로 한자화한 것은 국가체제의 경비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또한 신라의 자증왕 때 도속어로 치정되고 있던 '사라·사로'란 국호가 신라로 '마립간'의 왕호가 한자화하여 王이라고 하였던 사례는 두루 알려진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백제가 한글현, 특히 낙랑과의 교류와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한자문화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례성이란 도속어로 된 도성의 명칭이 한자화하였을 것이다.

결국 백제의 도성은 보통 명사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위례란 치명이 '크다·대(大)'를 나타내는 '한'을 한자화하여, 제세리김단의 거주지 혹은 경복한 諸國의 국읍과 구별하고 왕성으로써의 새로운 권위를 부각하기 위해 '漢城'으로 표기하였다 것이다.

#### IV. 郡城의 위치

##### 1) 慶禮城

慶禮城은 온조김단이 한수 이남으로 원도하기 이전에 선주하였던 곳이다. 또한 河南郡 禮城과 구분하기 위해 河南이란 행위명과 대립관계에 놓인 河北이란 부가어를 첨가하여 河北慶禮城이라고 명칭되고 있다. 먼저 위례성에 대한 적질적인 언급은 「三國遺事」에서, "溫祚都慶禮城 一云 鈍川(山?) 今櫻山"라고 한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온조가 도읍한 지역을 櫻山이라고 기술한 내용은 조선 중기까지의 官·私撰의 자리지에 위례성이 직산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조선 속종대에 지금의 북한(산)이 온조의 舊都라 하여 북한산을 위례성에 배정한 기사가<sup>265)</sup> 최초로 보인다. 이후 다산 정약용은 『三國史記』 백제 본기에서 위례가 말갈·낙랑의 침입을 빙번히 밟았음을 전제로 하며, 이 지역이 미들과 근접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차료 ⑤에서, '予祚出遼觀漢水之南'라는 기사를 '한수 북쪽에서 강을 건너 남쪽을 순관하고 왔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史』 百濟誌에 나라를 처음 세운 곳이 霸方故地라 한 내용을 계시하여, 한수 이북은 고조선미래 낙랑군의 일부이고 한수 이남은 韓國 즉 馬韓의 땅인 데, 온조가 나라를 세워 도읍지로 삼은 위례는 한수 이북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위례성의 위치를 오늘날 해화문 뒤 실리 쪽 되는 삼각산 둑쪽의 漢陽 古縣으로 배정하였다. 나아가 백제 초기의 성은 목책 보성이어서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으나, 이곳에 남아 있는 고성의 흔적을 위례성과 연관지어 이해하였다.

265) 『肅宗實錄』 원 50上 27年 2月 甲子條 및 北漢誌 事實條. 이의 내용에 대하여 李丙潤는 當의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신간의 대화내용에 연유한 것이라 가볍게 보고, 慶禮이 본한 『北漢誌』에 실린 유사한 내용 또한 『東國輿地勝覽』 漢城府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질하고 있다(「慶禮考」, 『韓國古代史研究』, 1974, p. 486). 그러나 다산이 강북성을 면밀하게 논증하기 이전에도 위례성의 위치를 직산과 북한산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 언론은 상당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강 이북 지역에서 위례성의 위치를 비정한 경악용의 견해는 김점호에 이어졌다. 그 이후 연구자들이 위례성의 위치를 한강 이북에서 비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절대 위치에 대하여서는 연구자들의異見이 분분한 실정이다.<sup>27)</sup> 또한 경악용의 견해에 지역별위를 좀더 확대하여 위례성의 위치를 미아리-우이동 일대라고 한 경우<sup>28)</sup> 및 북한산 주변의 유적(진홍왕순수비·승가사·장의사·문수사·석굴 등)과 漢山·漢城·北漢山·北漢城 등의 치명과 연관지어 세점경 일대로<sup>29)</sup> 이해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험소한 계곡이며 백제 초기의 육적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물 또한 출토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북한산성을 백제가 3세기경에 국가체제를 갖추기 이전의 출락국가 단계에서 위례성이라고도 한다.<sup>30)</sup> 또한 북한산과 관련하여 위례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휴사하나 북한산의 서편인 적성 남쪽 고향 부근,<sup>31)</sup> 상계동<sup>32)</sup>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처럼 북한산과 연관 인근지역을 온조가 남하 이동하여 자리 잡은 도읍지로 보라는 일반적인 시각은, 즉위년조에 온조가 한산에 이르러 오른 負兒頭을 삼각산 혹은 백운대라 이해하여 자료 ⑤의 기사와 연관지으려는 시각과 온조가 전너 꾸다는 漢·霸水를 예설강·임진강으로 파악한 결과라고 하겠다. 온조 13년조에 나향·말갈이 빈번한 침입하는 攻擊路의 방향이 한강 이북이란 점 또한 고려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산을 중심으로 위례성의 절대 위치를 비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선정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백제초기 유물·유적 등의 물적 증거가 명료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비록 처음에 자리잡은 도성이고 13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⑥에서 丁夫를 정밀하여 위례성을 수리하고 있어 적어도 3세기 말엽까지 그 중요성이 강조된 지역이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유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군사 요충지로써 북한산성의 존재가 보이는 데 이를 慶域의 인접한 지역에 충복하여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다.<sup>33)</sup>

그리고 慶域을 劍縣聚落으로 보고 한강유역의 大·小土壘遺跡에서 그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량천 일대로 비정하여 학계의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sup>34)</sup> 이는 위례성의 위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앞서의 견해들과 같이 확실한 유물 유적에의 물증 계시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갑작 서울파 혹은 한강 이북파이라는 딱연한 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27)註 5) 참조.

28) 金龍國, 「河南鄕禮城考」, 『鄉土서울』 41, 1982.

29) 李丙壽, 앞의 논문, p. 453.

30) 金廷鶴, 「서울 近郊의 百濟遺蹟」, 『鄉土서울』 30, 1981.

31) 金映運, 「百濟開拓의 变遷에 대하여」, 『全北大論文集』 L, 1957.

32) 정병호, 「제5회 馬踏·百濟文化學術會議」, 1978.

33) 崔夢龍·權五榮, 「考古學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鄭城考察」, 「千寬宇先生誕辰紀念 韓國史論叢」, 1965.

34) 車惠杰, 「聖禮城과 漢城에 대한여(1)」, 『鄉土서울』 23, 1981과 崔夢龍·權五榮, 成熙蹟, 金起燮의 앞의 논문은 위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위례성을 위치 비정하는 계설 가운데 다수의 학자들이 동조를 보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에 많은 의중을 두고 있으나 도성에 관계되는 푸렷한 유적에 대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姜仁求, 「百濟 初期 鄭城 問題 新考」, 『韓國史研究』 81, 1983, p. 4.)

35)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1956.

方東仁, 「三國時代의 서술」, 『서울六百年史』 I, 1977.

또한 「三國遺事」 찬자가 위례성을 칙산이라고 한 뒤 비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라는 경우도 있다.<sup>36)</sup>

이처럼 한강 이북, 특히 북한산과 관련되어 위례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최근에 이르러 「위례성=하남위례성」이란 시각에서 풍남리도성의 유물이 한성사대를 통괄하는 내용이라 이해하여, 이 지역이 위례성이라는 새로운 견해도 제시되었다.<sup>37)</sup> 그러나 「三國史記」·「三國遺事」의 내용상의 차이점과 문헌 자료의 간략성을 감안하면, 위례성에 대한 절대 위치의 비정은 그 한계성과 아울러 이전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오늘날 위례성의 위치로 보이는 곳 지역에 대한 개발로 인하여 유적·유물의 발굴을 통한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물론 풍남리도성·풍남리도성·이성산성·마차산성·남한산성과 같은 구체적인 유적뿐만 아니라 기타 한강유역에 산재하고 있는 도성에 대한 종합적인 벌금을 통해 당시 도성의 세반 내용을 세세히 파악하여, 극히 소박한 문헌 내용을 보완 연구한다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실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면 위례성의 위치는 한강 이북과 북한산의 山麓이 연해지는 주변의 조괄적인 지역범위에서 비정 될 수 있겠으나, 절대 위치를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례성은 한강 이북 즉 현재 서울의 강북지역이라 이해할 수 밖에 없다.

## 2) 漢城·漢山

다음으로 河南慰禮城=漢城에 대한 위치 비정에 있어 중요한 문헌 내용은 앞의 자료<sup>38)</sup>이다. 비록 은조 13년의 기사를 포함시킨 흔합된 내용이긴 하나 하남위례성의 위치를 가늠하여 볼 수 있는 유력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至于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滸流狀居於海濱 十臣諫曰 '匪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居高岳 南望沃澤 西臨大海 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滸流不聽 分其民 踏獮却怒以居之 滸幹都河南慰禮城

위의 내용은, “온조 일행이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負兒嶽에 몰라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滸流가 해변에 살기를 원하자 十臣이 간하기를, ‘이 河南의 땅은 목으로 漢水를 떠고 동으로 高岳을 뒤지하였으며 남으로 沃澤을 바라보고 서로는 大海를 격하였으니 그 천 힘지리가 얻기 어려운 지세이니 여기에 도읍을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비유는 들지 않고 그 택성을 나누어 謂却怒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해 였다”라는 것이다. 온조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는 위의 내용 중 하남위례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漢山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랐다

36) 李弘植, 「古漢城國에 대한 請問題」『국사상의 雜문제』, 1960.

37) 金在植, 「古漢城都櫟山考」, 『朝鮮學報』70, 1974.

38)註 [1] 참조.

- ③ 이 河南의 땅은 북으로 漢水를 떠있다.  
④ 동으로 高岳을 떠고 남으로 沂澤을 바라 보았다.

위의 내용이 온조 13년조와 혼합 기사인 점을 고려하면 하남위례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자료 ⑤의 내용을 참가해 볼 수 있다. 즉 온조 13년 5월에, “漢水 남을 巡觀하고……7월에 漢山下에 築을 세우고 위례성의 民戶를 옮겼다……9월에 城闕을 치었다”라는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하남위례성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게끔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漢水 남을 巡觀하였다.  
② 漢山下에 위례성의 民戶를 옮기고 城闕을 치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남위례성의 위치는 ①, ②, ③, ④, ⑤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하남위례성은 ① ④의 조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므로 漱水 남에 위치하게 되며, 그 결과 위례성의 명칭에 漱水<sup>39)</sup>를 기준으로 하여 河南이라는 방위명이 첨가되었다는 점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으로 ① ⑤의 조건에서 하남위례성은 漱山의 負兒嶽에서 조망될 수 있는 漱山과 연결되는 산 아래 지역이어야 하고, ②의 내용과 관련시켜 보면 근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③에서의 동쪽에는 高岳이 있고 남쪽에는 沂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남위례성의 위치 비정은 일차적으로 漱山이 어느 곳이나가 중요한 관건임을 알 수 있다.

漱山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위의 자료를 세워하고는 왕이 漱山에서 수렵하였다는 기사<sup>40)</sup> 등과 같이 적절적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三國史記』 지리지에서 ‘한산주와 駿所는 幕州에 있다’라고 하고, 『三國遺事』에서는 한산을 지금의 광주라 비정하여 漍山 지역이라는 지명이 등장함을 고려하면, 한산이란 지역 명칭으로 사용되어 후대에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산은 일반평사인 ‘큰산·대산(大山)’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위의 ① ⑤에서의 한산은 한수 이남의 특별한 산명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산은 負兒嶽이 있는 산이란 점에 초점을 두고 부아악의 위치를 비정하는 한편 한산·하남위례성과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負兒嶽은 『三國史記』 禦祀志에 따라 그 소재지는 北漢山州라 한 이래로 三角山이라고 이해해 왔다. 문헌자료에서는 부아악에 관한 명칭의 변화와 구체적인 위치를 지적한 경우도 있다.<sup>41)</sup> 조선시대의 지리지에서는 온조 일행이 오른 부아악은 일명 豪山이라 하고, 이것이 곧 삼각산이라 하였다.<sup>42)</sup> 이와 같이 부아악은 삼각산(인수봉·백운대·국방봉을 합친 한 산명)이란 어원에 대한 해석이란 밝아들어져, 한산이 곧 북한산이라는 견해가<sup>43)</sup> 제시

39) 漱水는 漱江을 의미한다.

40) 『三國史記』 百濟本紀 己眞王 27年條, 蓋眞王 4年條, 或有王 29年條。

41) 『高麗史』 卷 36 地理志 楊州條, 「本高句麗北漢山郡……有三角山 斧面稱負兒嶽」。

42) 『朝鮮世宗實錄』 卷 148 地理志 京都 漵城府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 漵城府條

「大東地志」 卷 1 奧城府條

위의 지리지에서는 負兒嶽(온조가 날라하여 오른 곳)=豪山=三角山으로 보고 있다.

43) 英祖 20年, 北漢縣撫廳의 所撰인 北漢縣 山路條, 《李內傳, 앞미》 제, p. 484 죄인용)

이과 더불어 ‘부마’ 곤 ‘봉>봉’의 音音表記라 하여 부아악은 각산의 희미, 즉 인수봉·백운대·국방봉의

되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여러 연구자들은 負兒巖이 三角山, 漢山=南漢山城, 南漢山이라는 주장은 폐고 있으며,<sup>44)</sup> 나마가 부아악은 경단산의 정상<sup>45)</sup> 혹은 용인의 부아산<sup>46)</sup>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계관례는 ①과 ②에서 부아악은 한산에 있어야 하고, 한산은 漢水南이어야 하며 아울러 한수와 근접지역이라는 조건과 연관되어 보면 각각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먼저 부아악은 삼각산, 한산은 북한산이라고 할 때 부아악이라는 산명과 산형은 부합되나, ① ②의 조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삼각산(백운대·인수봉·국망봉)을 부아악이라 하면 당시의 동산 조건으로는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온조 일행이 이곳에 등정하여 도읍지를 조망했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부아악·한산=남한산·남한산성은 ①과 ②의 조건에는 해당되나, 부아 '巖'이라고 표현되는 험한 바위산의 지형을 찾을 수가 없고 ③의 내용과도 상충되어 문제가 있다. 또한 부아악이 黑丹山의 정상이라는 주장은 앞서와 같이 '巖'이라고 할 정도의 험한 지형이 없다는 점이 있으며, 아울러 용인의 부아산이라는 관점도 이와 대동소이하여 ① ②의 조건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상과 같이 부아악·한산의 위치로 비정되고 있는 삼각산·남한산성 혹은 남한산·북한산·경단산·용인 부마산 등은 모두 자료 ①~③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온조 일행이 부아악에 오른 내용이 삽입된 것이라면 제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sup>47)</sup> 그러나 왜 환자는 ①과 ②의 상충되는 내용에다, 오르기도 거의 불가능한 부아악에 온조 일행이 등정하여 천도지를 조망했다는 사실적인 기사를 핵심의 진국과정에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漢山·負兒巖에 대한 위치를 과학함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료 ④에서 나타난 천도 이유는 老嫗가 남자로 변하는 피이한 내용, 王母의 사망, 낙랑과 팔갈의 빈번한 공격 등과 같이 면과 국난극복이란 실질적인 내용이 어우러져 있다. 온조가 河南慰禮城으로의 遷都를 遷國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김단이 상호 韓御不能 상태에 놓여 있던 馬韓諸國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례성을 중심으로 한 온조김단이 천도를 단행함에는 대내적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는 여러 세력김단의 이해가 상충되어 당연히 갈등이 야기되었을 것이며, 그 결과 비유계가 미추홀로 분리되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계로 遷都가 곧 遷國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던

서 봉우리가 팔갈이 빠죽하게 생겼다 하며 삼각산이란 명칭이 주어졌다고 하고, 아울러 봉(負兒)→大→奉로 변천되는 것으로 보고 漢山(봉피)에서 온 이름이라고도 한다. (金允煥, 「河北慰禮城과 河南慰禮城考」, 『史學志』, 第20期, pp. 48~49.)

44) 李丙璫, 앞의 논문.

李道寧, 「百濟 唐城時期의 首域制에 관한 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45) 岸田左右吉, 「百濟慰禮城考」, 『朝鮮歷史地理』 上, 1913. (負兒巖·漢山·南漢山城)

今西龍, 「百濟國都漢山考」, 『百濟史研究』, 1934. (漢山·南漢山城)

李弘植, 「百濟遺城에 관한 諸問題」, 『국사상의 제문제』, 1960. (唐城·漢山·南漢山城)

全龍圃, 「河東慰禮城考」, 『尊土서풍』 41, 1983. (負兒巖·漢山·南漢山城)

46) 金允煥은 앞의 논문에서 경단산과 남한산이 당시에는 구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여 경단산의 정상을 부아악으로 파악하였다.

47) 金聖煥, 「滿族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1982, pp. 57~58.

48) 李丙璫, 앞의 논문, p. 485.

것이다. 따라서 온조 집단이 천도를 단행하기에 앞서 천도 사유로 제시된 실질적인 내용과 누구가 화하여 남자가 되었다는 폐이한 사건을 응미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천도과정에 폐이한 사건을 삼임사처 선비성을 제고시키고 여러 집단파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무마하려는 의도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49)</sup>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脣距과 관계된 기사와 『三國史記』祭祀條 小祠社에 負兒龜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sup>50)</sup>

한성시대 있어서 脣距에 관계된 기사로는 『三國史記』百濟本紀의 온조 5년에 北邊을 순무하고 신복을 참았고, 10년에도 신복을 참아 마한에 보냈다는 것과, 己亥王 27년조에 신복을 참았다는 기사 등이 있다. 이에 신복을 참은 北邊·漢山이란 장소와 시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경과 연결한 곳이며 부야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조 5년을 전후한 시기는 기근과 질병, 일식이 있었으며 한편으로 낙랑파의 대외관계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이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내포하고 있는 신복의 토크이 일간 갈흡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장소가 北邊이라 하여 부야악을 신성시하는 내용이 온연중에 힘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비록 장소가 불분명하지만 마한에 신복을 보낸 시기 역시, 낙랑과 失和하고 말갈의 공격이 있어 어려움을 겪던 때였다. 또한 기루왕 때 한산에서 신복을 참은 면유도 앞서 온조대의 폐처법 천재지변에 의한 국난이 반복되는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한산은 도성과 밀접하게 관계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든 신복을 토크한 시기는 백제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 장소 또한 특별한 곳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北邊은 부야악 일대라 추정할 수 있고, 부야악은 온조왕대에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三國史記』祭祀條에, '三山·五嶽 미화 땅산대천을 나누어 大·中·小祠로 한다'라고 하여 小祠條에 부야악을 포함시킨 내용이다. 이와 같은 땅산대천에 대한 제사는 무명의 산천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었고, 아울러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왕권강화의 사상적인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神君神話는 太白山·首露神話는 龍首基으로 하는 산악신앙과 관계가 있고, 高句麗는 閻橫을 국가적 성역으로 삼고 있었으며, 新羅의 金闕莫은 仙桃山聖母와 연결되어 있으며, 鮎씨계는 도함산을 始祖山으로 하였음은 두루 알려진 내용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면 산악신앙은 건국설화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산이 지닌 위용과 신비감, 天地의 연결 개념 등에서 자연숭배의 일단으로 국가건국과 관련하여 보편화된 것이라 하겠다.<sup>51)</sup>

그리고 小祠에 포함된 부야악은 서울과 성남, 광주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산중에 경관과 산형이 신앙심을 차아낼 정도로 외경스럽고 아름다움을 갖춘 유일한 산미기에 앞서 脣距

49) 비록 후대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참고된다. 전체왕권을 확립한 신문왕이 서울을 遷都後로 옮기며 하다가 실현시키지 못한 일은 천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도합설에 따른 세경천도론이 폐기되기도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태조의 한양 천도, 태종의 한양 천도가 賢選·選理 등 人為 중심의 유교적 지리관에 의해 결정되었던 사실 등에서 천도의 결정 과정에 중수서리설에 의한 논의가 상도 있게 계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종의 천도는 송도·신도·모악의 세 후보지를 놓고 종묘·신廟들의 뜻에 따른다 하고 築占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런 천도 문제는 신내성을 바탕으로 권위와 명분을 측정하고 대내적인 불만과 갈등요소를 해결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洪原基, 「高麗初期 政治와 地理」; 李泰鎮, 「高麗 천도와 地理의 대比」『韓國史市民講演』 14, 1994).

50) 『三國史記』 卷 30 志 2 祭祀條.

51) 李基白, 「新羅 王岳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政治社會研究』, 1975, pp. 194~215.

을 짊은 곳과도 연관이 있고, 나아가 한강의 남북자역 중 小洞地位는 영산 혹은 명산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평산대천을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체계로 두고 있던 온조집단 역시 간히 품성을 생각해 볼 수 없는 부아학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온조는 遷都가 곧 遷國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외환인 낙랑과 말갈의 침범과 같은 실질적인 천도 사유와 더불어, 老驅가 남자로 변했다는 괴이한 사건 등을 결부시켜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를 단행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비류집단의 이탈과 같은 내부 갈등이 야기되자 간히 범첩할 수 없는 신성한 부아학에 등장하여 遷都地를 결정하였다라는 명분을 첨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저요 ①의 漢山은 南漢山城으로 그 위치를 배정할 수 있다.

한편 하남위례성의 위치는 앞서 제시된 ⑤의 조건에 맞고 아울러 ③ ④의 내용에 부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즉 漢山下라 할 정도로 근거리이며 漢水를 북에 두고 남으로는 비록 한 곳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남위례성의 위치는 광주 고읍인 춘궁리(남한산성 포함),<sup>52)</sup> 풍납리도성,<sup>53)</sup> 이성산성,<sup>54)</sup> 풍춘모성,<sup>55)</sup> 남한산 北麓,<sup>56)</sup> 하남시의 고산동 토성<sup>57)</sup> 등으로 비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위례성을 춘궁리에 비정한 경우는 ⑤와 ⑥의 조건에는 부합되나, ③의 내용인 남쪽의 옥택과는 그 방위가 맞지 않으며 기원 전후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모순되다. 풍납리도성은 ②의 조건 중 한산 정상으로부터 근접지역이어야 하는 조건에는 충족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한강과도 근거리여서 홍수에 쉽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미관 문제 가 있다. 나아가 낙랑과 말갈의 공격을 감안하면 풍납리도성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도강하는 대표적인 광진나루터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 天險地理를 얻기 위한 천도 목적과 상치된다. 그러나 출토된 유물의 분석내용에서 보면 城의 初築이 1세기경으로 나타나는 점<sup>58)</sup>이 다른 지역의 전례조건보다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성산성은 춘궁리의 배후산성으로 광주 고읍의 읍서 깊은 곳보다 유력하다고 하나 ② ③ ④의 조건에 대하여 춘궁리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성산성은 춘궁리를 하남위례성이란 전제 아래 방어산성이란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서 출토된 도기와 南漢城이란 名文이 새겨진 와편의 연대가 신라시대로<sup>59)</sup> 상정할 수 있어 6세기 중엽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하남위례성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南漢山城 북쪽은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지칭하는 지는 알 수 없고, 앞서 춘

52) 李丙壽, 앞의 논문.

金秉國, 앞의 논문.

53) 金廷鶴, 「서울近郊의 百濟遺蹟」, 『櫟土研究』 39, 1981.

裴仁求, 앞의 논문.

54) 尹正浩, 「漢江流域에 있어서의 百濟文化研究」, 『百濟考古學研究』, 1992. p. 18.

55) 李基祐, 「百濟文化會議稿」, 『百濟文化』 7-8, 1973.

崔泰臨·權五榮, 成州譯, 全起聖, 李盈學의 앞의 논문 참조.

56) 千寬宇, 앞의 논문.

57) 金尚禹, 앞의 논문.

58) 金元龍, 「鳳納里 包舍層 調査報告」, 『考古人類學要旨』, 3, 1987.

여기에서 凤納里土城을 龍城에 비정한 견해(李丙壽, 「襄川 鳳納里土城과 龍城」, 「面程學報」 10, 1980)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례성과 동시에 축성되었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59) 漢陽大學校博物館, 「二聖山城」, 『發掘調查中獎報告書』, 1987.

沈光注, 「二聖山城發掘調查」, 『第30屆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87.

궁리라고 비정할 때에 제기되는 내용과 놀랄만한 문제점이 남는다. 하남위례성이 곧 하남시의 고산동 토성이란 견해는 雪丹山이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嶺山이라 한 점에 착안하여, 은조대의 친지에 제사 지내던 大壇과 南壇의 위치를 검단산의 정상에 비정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雪丹山과 南面山을 동일한 산명이라고 이해하고, 광진나루터와 주변의 지형지세를 참가하여 하남시의 고산동 토성을 당시의 성터로 보아 하남위례성의 위치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근거는 하남시 고산동의 토성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려는 논거가 주로 후대의 문헌 특히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남시 고산동의 토성은 춘궁리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근본적인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다.

몽촌도성의 경우는 ③ ④ ⑤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몽촌은 성내천과 웬만한 산록인 풍산을 끼고 있어 악간의 토루만 쌓으면 풍수를 빙어시설이 된다.<sup>60)</sup> 또한 몽촌토성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다양한 성격의 유물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게 발굴되었다.<sup>61)</sup> 대개 몽촌도성 일대의 유물 편년은 대략 A.D. 3~5세기 말경으로 짚고 있으나 몽산의 지형에 따라 토루가 증축된 사실을 고려하면 연대의 상한은 올라갈 수 있다.<sup>62)</sup> 나아가 근접지역인 가락동과 석촌동 일대의 고분군과 적석총의 분포와 유물내용을 고려하면, 몽촌토성 일대는 한성시대 전기간에 걸쳐 국가의 중심지(都城)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에 부합된다.<sup>63)</sup>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하남위례성(한성)은 몽촌토성으로 위치 비정할 수 있다.

## V. 漢山의 성격

漢山은 앞장에서 南漢山城이라고 이해하였다. 漢山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먼저 『三國史記』의 한산에 관계된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洪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惟北河南之地北帶漢水 東居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天險地利 豐得之勢 作都於斯」(溫祚王即位年條)
- ② 秋7月 築漢山下立權 移慰禮城民戶 …… 9月立城闕(溫祚王 13年條)
- ③ 二城辟 其民於漢山之北 馬韓逐滅(溫祚王 27年條)
- ④ 冬10月 南沃沮仇顏解等二十餘家至許壤納款 王納之 安置漢山之西(溫祚王 43 年條)
- ⑤ 王鑿漢山新鹿(己亥主 27年條)
- ⑥ 夏4月 王鑿漢山(蓋惠王 4年條)
- ⑦ 王引退 移都漢山(近肖吉王 26年條)

60) 金龍國, 「夢村土城에 대하여」, 『都土서총』, 1981, pp. 55-59.

61) 梦村土城發掘調査團, 「整頓·復元用 차한 梦村土城發掘調查報告書」, 1984.

梦村土城發掘調査團, 「梦村土城發掘調查報告書」, 1985.

서울特別市·서울대학교박물관, 「梦村土城—東北地區發掘報告一」, 1987.

62) 서울特别市·서울대학교박물관, 위의 책, pp. 219-220.

63) 이도학, 「百濟의 起義과 國家財政에 관한 해설」, 『한국고대국가의 財政』, 1990, p. 152.

몽촌토성이 석촌동·가락동 등과 古墳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시기를 3세기 후반~4세기 중엽으로 본다.

- ◎ 春2月 創佛寺於漢山 遣僧十人 (枕流王 2年條)  
 ◎ 秋8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壘 (阿莘王 7年條)  
 ◎ 王置於漢山 (耽有王 29年條)

◎ ◎의 내용은 하남위례성의 위치와 연관되어 있다. ◎ ◎의 관계기사는 民戶를 蔡山의 북쪽과 서쪽에 이주시킨 내용이다. ◎ ◎(中)에서는 왕이 사냥하는 곳과 賢鹿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의 자료는 한산으로 移都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는 한산에 佛寺를 창건하고 道塲을 두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에서는 군사의 출병지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시사한다. 그리고 ◎의 내용에 ◎(中)을 첨가해 보면 한산을 방위의 중심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성시대의 漢山은 지역을 대표하는 '큰산' 혹은 '大山'으로써 인식되었고 주변의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온조집단이 자연신앙의 개념에서 신설시한 貞兒巖을 포함시킨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초부터 한산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中)에서 왕이 한산에서 신록을 카았다 하여, 그 지역이 신성한 장소라고 인식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산이 신성한 장소로 부각된 것은 자연숭배의 신앙과 더불어 삼한사회 계통 내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삼한에서는 귀신을 섬기고 천군을 두어 제사를 주관하였다. 제사는 소도에서 행하였는데, 그 곳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네달아 일반 지역과 구분하였다.<sup>64)</sup> 이것을 각 부족들이 자체적인 공동체를 고수하면서<sup>65)</sup> 유이민의 유임이나 철기문화에서 야기되는 문화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것이다.<sup>66)</sup>

이처럼 天君이 주도하는 제천과 귀신을 섬기는 행사는 相互關係不能 상대의 삼한사회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내용 면에서는 선주집단과 유이민집단파의 慈懷世界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상위에 군림하는 지배자 내지 그 집단의 신앙체계가 계집단에 흔들되어 확산되어 갔다고<sup>67)</sup> 할 수 있다. 또한 온조왕이 하남위례성으로 천도를 하고 새로운 사회의 운영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漢山을 신설한 자연신앙의 慈惟世界로 수용하여 대내적인 결속력의 강화와 지배기반을 확충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온조집단의 고유한 사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천도를 단행하는 데 수반되는 계집단간의 정치적인 갈등의 무마에 이용한 貞兒巖을 漱山에 포함시켜, 온조집단은 승배해야 할 자연신앙의 대상을 부아악에서 漱山으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한산에 관한 위의 자료들에서 천도의 위치와 주변에 대하여 방위의 표식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산의 자연신앙의 개념은 고구려에서 사회발전 특히, 북쪽에서 농경사회로의 발전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隨神을 폭형으로 만들어 우상숭례를 하고 禮天과 귀신에의 제사를 혼합한 내용으로 형식을 변질시키고 있었던<sup>68)</sup> 것과 비교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안위와 관계하여 한강유역에서 농경을 강조하고<sup>69)</sup> 있던 백제 역시, 신앙의 내용이

64) 「三國志」 韓碑條.

65) 蔡晉泰,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1948, p. 215.

許惠政, 「蘇蠻에 관한 研究」 「慶熙史學」 1972, pp. 11-13.

66) 金貴信, 「蘇蠻의 政治史의 意味」 「歷史學報」 79, 1978, pp. 30-27.

67) 車勇杰, 앞의 논문, p. 61.

68) 車勇杰, 앞의 논문, p. 61.

69) 申鐘植, 「百濟史」 1992, p. 52.

농경사회에 적합한 성격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산의 성격 변화를 확인시켜 주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백제가 始祀廟에 제사하고 祭天祠地한 「三國史記」의 내용이 주목된다. 「三國史記」 祭祀志에 '王祭天及五帝之神'라고 하며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과 더불어 사방 및 중앙을 주체하는 五神에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祭祀志의 간편한 내용과는 달리 三百本紀에서는 祭天祠地에 대한 기사와 시조 통명묘를 배알하는 기사가 한성시대에 한하여 심어 차례 보이나, 대부분 墓를 설치하여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다.<sup>70)</sup>

온조왕이 祭天祠地를 행하기 위하여 墓를 '設'하고 '築'하는 기사와 墓을 大壙과 南壙으로 나누고 있는 내용이 있다.<sup>71)</sup> 온조왕은 천지에 제사를 두 차례 지내는데, 이를 위하여 大壙을 '設'하고 '築'하였다. 그러나 온조왕 이후에는 祭天祠地를 大壙과 南壙에서 행하였는데, 대단은 설치하나 남단일 경우에는 설치기사가 없다.<sup>72)</sup> 이는 앞서 온조왕 때의 대단을 '設'하고 '築'하는 기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왜나하면 온조왕 20년에 '設'한 대단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설치한 것이고, 38년에 '築'한 대단은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빙은 墓으로, 남단에서 祭天祠地하는 경우에는 墓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온조왕 38년에 '築'한 墓은 곧 남단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단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나,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온조집단의 자연신앙의 편념 속에 신성시 여겼던 漢山을 계천사지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국초에 온조집단의 자연신앙과 연관되어 신성시하였던 사상계가 속에 한산의 성격에 祭天祠地의 개념을 포함시켜 사회발전에 따른 이해율로기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지역으로 내용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산은 祭天祠地를 행하는 영구적인 단을 놓는 가장 적합한 곳이 되며, 남단의 위치는 곧 漱山이라고 할 수 있다.<sup>73)</sup> 이제 한산은 자연신앙의 한정된 성격을 벗어나 통괄적인 내용을 갖춘 신성한 장소로 이해되고, 아울러 祭天祠地를 행하는 중요한 곳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산에는 祭天祠地를 관장하는 관리와 관부, 왕이 임시로 거처 할 궁궐, 이를 수비할 군사와 관계되는 시설 등의 제반시설들이 설치 운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산의 성격에 면유하여 자료 ④에서 근초고왕이 한산으로 천도하였던 것이다. 근초고왕이 평양성의 전투에서 대승하고 고국원왕을 전사시킴에 따라 고구려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山城인 한산으로 移都하였다고<sup>74)</sup>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근초고왕이 대승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보복을 두려워 하였다가 보다는 북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漢水를 건너 북한산(한산=북한산)으로 移都하였다고 한 견해가 있고,<sup>75)</sup> 이와 더불어 漱山

70) 「三國史記」 三百本紀 祭祀 祭天祠地 舊王(既百王), 多慶王·阿孽王·麟立王後에만 보이고 있다. 朝鮮禮俗府中樞院編, 『高麗以前の風俗禮俗資料考叢要』 I, 1940, pp. 130~137에 백제의 제사 관계기사 중 전시대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71) 「三國史記」 三百本紀 清祚王 30~38年條.

72)註 63) 참조.

73) 金龜禹, 앞의 논문, pp. 66~67.

김단산과 남한산을 하나의 산으로 보고 김단산을 漱山이다. 하고 김단산의 塔峯을 大壙·南壙이 설치된 곳이라 한다. 한편 남한산성 내에 南壙(南漢地圖) 가 있던 위치를 南壙의 경정과 관련시켜 南壙이 설치된 곳으로 보고 있다.

74) 李西庚, 앞의 논문, 말의 책.

75) 이도학, 앞의 논문.

에서 漢城으로의 移都記事가 없어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로 移都의 성격은 인정하나 한산의 위치는 土城의 여러 사례가 보이는 뚝섬 일대라고 한 경우도 있다.<sup>76)</sup>

위와 같은 漢山으로의 移都에 대한 제건례는 일면 긍정적인 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왜 移都地가 한산이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한산이 백제의 정치철학을 실현시키는 신성한 지역이며, 관계된 제반 시설들이 갖추어진 곳이란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근초고왕이 한산으로 移都한 연유를 고구려에 대한 방어와 공격이란 점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移都한 곳이 통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시한 한산이란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산은 여러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고,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연습함과 더불어 대승의 결과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근초고왕의 王位계승이 古余係에서 内古系로 전환되어 상호 정치주도권에 관계된 解氏와 蔡氏의 상관관계가 폭넓적으로 작용되는 정치상황이고 보면,<sup>77)</sup>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에 따라 대내외 정치적 위상을 질적인 면에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연히 가졌을 것이다.<sup>78)</sup> 그러나 동왕 24년에 고구려의 전투에서 포획된 포로를 오천명의 장사를에 나누어 주었는데,<sup>79)</sup> 이는 지배층의 정치사회적인 지배기반에 작용되어 한성에서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던 여려 세력들의 반발은 예견되는 문제라 하겠다. 동왕 25년 평양성전투에서 고구려 왕을 전사시켜 대승한 전쟁이었으나 포로와 같은 포획물에 대한 분배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는 왕이 득점하여 앞서의 정치적 상황속에서 왕권강화의 세력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나 귀족연합체제의 틀은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sup>80)</sup> 그 결과 전투에 참여한 지폐계층뿐만 아니라 한성에 있는 정치세력의 불만요인으로도 작용되어 근초고왕의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에는 한성이 부적합하였을 것으로 예겨진다. 그리고 한산은 景天洞地를 행하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한 병사의 피무와 더불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적절한 곳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면유하여 제반시설이 갖추어진 한산으로의 천도 필요성이 제고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한산은 왕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정치세력을 제압하고 왕권강화의 내용으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재편하는 王都로써의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한산으로 천도한 근초고왕의 정치적 의도는 「書記」 전한을 통해 정당성의 확보를 추구하고, 王位계승이 부자상속으로 전환되는 등 왕권강화를 일견 달성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여려 정치세력들의 도전 또한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近仇首王 재위기간의 절반은 고구려와 긴장팽계가 계속되는 외환 및 異變과 심한 기근에 대한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보인다.<sup>81)</sup> 특히 동왕 10년 2월에 삼종 무리의 해가 생기고 궁중의 큰 나무가 절로 뽑히고, 4월에는 왕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괴이한 자연현상으로 당시의 정치세력의 불안과 대립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예겨진다.<sup>82)</sup> 괴이한 자연현상으로 표현된 것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76) 강민구, 앞의 논문.

77) 虞重慶, 「百濟政治史研究」 1988, pp. 125-128.

78)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仇首王 24年條, 군사의 大國에 황색 銀鏡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竝行思想을 넘어 貨幣과 같은 권위와 강력한 왕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李道學, 「百濟執權國家形成過程研究」, 1991, p. 142).

79)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仇首王 24年條.

80) 신형식, 앞의 책, p. 54.

81)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仇首王條.

82) 강민구는 앞의 논문에서 近仇首王 때 괴이한 자연현상에 대한 기술을 반복하는 힘을 미루어 보아 百

며 祭天祠地의 자연신앙적인 정치철학의 한계성에서 비롯되었다 것이다. 이에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전통적인 신앙을 포용하고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불교<sup>83)</sup>를 침류왕이 전격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하겠다. 한산에 불사를 창건하고 10인의 승려를 두어 정치체제의 정비를 뒤반침할 수 있는 불교를 보급시켜, 한산이 백제 불교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왕실과 지배세력과의 갈등을 충족시켜 침류왕의 재위기간이 2년에 지나지 않고(백제왕의 평균 재위기간은 21.9년), 대자 阿莘에게서 王弟인 景斯가 왕위를 냄으로써 王位상속이란 구정치질서로 회귀하는 절번이 일어났다고<sup>84)</sup> 하겠다. 또한 景斯王 7년에 궁궐 중수와 웃을 파고 산을 만들어 이상한 짐승과 화초를 길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는 산성인 한산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진사왕의 즉위년에서 7년 사이에 한성으로 移都하였지만 지배기반을 확립하는 데에는 여의치 못했다고<sup>85)</sup> 여겨진다. 따라서 阿莘王이 동맹묘에 배알하고 남단에서 祭天祠地를 행하여 한산이 신성한 곳이란 점을 내세운 점으로 보아, 말서 漢山(南漢山城)이 갖는 백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상적인 신성한 성지로써의 성격이 한성으로 천도된 이후에도 이어져 응진으로 천도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漢山(南漢山城)은 백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상적인 중심지였다고 하겠으며,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쳐 지속적으로 漢山地域이란 광의의 지역명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 VI. 맷 음 말

이상에서 百濟 漢城時代의 南漢山城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백제 한성시대의 鄡城은 慶禮城·河南慶禮城(漢城)·漢山이다. 이러한 사실은 『三國史記』百濟本紀·地理志과 『三國遺事』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兩史書』가 서로 다른 입장은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 도성의 관계기사는 『三國史記』百濟本紀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과학하였다. 백제 한성시대의 鄡城의 移都는 〈河北〉慶禮城 → 漢山下=河南慶禮城=漢城 → 漢山 → 漢城으로 변천되었다고 하겠다.

둘째, 백제 한성시대의 鄡城의 명칭은 국가 발전과 관련되어 이해해야 한다. 온조집단이 거주한 위치는 국읍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점차 諸集團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우리제·울타리·울안 등의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전환되어 도성의 명칭인 '위례성'이라 불리어 졌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온조 13년에 영토가 확장되어 소국의 단계를 벗어나자 동왕 14년에 河南慶禮城(漢城)으로 천도하였다. 漢城은 다른 諸勢力集團의 거주

域으로의 再遷移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

8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 1978, pp. 298-305.

84) 虛重圖, 앞의 책, pp. 132-133.

85) 李基白은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pp. 18-20에서 王位繼承이 高句麗의 예에서 보듯이 兄相繼에서父子相繼이 실증되는 과도기적인 상태로 보았다.

86) 景斯王은 10년에 阿莘(위서미상)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지 않고 구원행궁에서 돌아갔다고 한다(『三國本紀』 卷 10 應新紀 3年條). 천황에 경례하여 국인이 사과하고 진사왕을 죽였다는 것은 비록 신발성이 걸리되고 과이한 내용이지만 사냥 중에 피부의 천궁에서 갑자기 죽었다고 함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李丙豐, 앞의 책, p. 281).

지 혹은 경복자의 諸國臣과 구별하고 '크다·대(大)'라는 의미를 가진 '한'이란 도속어를  
한자학하여 왕성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위례성의 위치는 계반 연구의 여전상 한강 이북지역이라고 포괄적으로 이해하였다.  
온조김단미 자연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貞兒嶽을 漢山(南漢山城)에 포함시킨 연유는  
移都에 따른 정치세력간의 갈등을 무마하고 그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철에서  
河南慰禮城(漢城)의 위치는 夢村土城이라 비정하고, 漢山은 南漢山城이라고 정리하였다.

넷째, 漢山(南漢山城)은 국가체제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신앙과 결부하여 신성화  
되었다. 그 결과 南嶽을 설치하여 온조김단에 한정된 자연신앙 체계속에 두고 있던 한산  
은 燭天廟地를 행하여 국가통치이념을 창출하는 지역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이후 왕권  
강화와 연관되어 유교와 불교를 수용하는 장소로 의미가 폐가되면서 한성시대를 이끌어  
가는 사상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추정된 부분이 많지 않다. 앞으로의 연구  
는 세세한 자료의 재검토 및 고고학적인 유물·유적의 발굴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본 연  
구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학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 보완하고자 한다.

## 「百濟 漢城時代의 南漢山城」에 대한 論評

崔 夢 龍(서울대)

白南植교수께서 발표하신 “백제 한성 시대의 「백제 한성 시대의 남한산성」이란 글을 읽고 나서 가지게 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토론의 형식을 빌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필자는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사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백제의 건국이 서기전 18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아울러 인정하고 계신지요?

2) 백제의 한성 시대(서기전 18년~서기 475년)중 도성의 移都는 (河北)위례설-->漢山下 = 南懸禮城 =漢城 -->漢山-->漢城의 순으로 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도 아울러 제시할 수 있는지요?

3) 삼국사가 道祖王 13년조에 기술된 백제 초기의 강역 문제와 관련하여 檀山과 成歎근처에 있었으리라 추정되는 目支城의 이동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4) 檀山의 위치를 현 南漢山城(경기도 팔주군 중부면 산성리 소재: 사적 57호)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蔡天洞塉를 쟁 하던터라도 구전으로 전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西召奴와 道祖/拂流와의 관계는 백제 국가의 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最近에 발견한 南漢山城修築碑에 對하여

발표자 : 趙 炳 魯(경기대)

논평자 : 崔 孝 訾(동국대)

# 最近에 발견한 南漢山城修築碑에 對하여

趙炳魯(京畿大)

## 머리말

1. 仁祖16년의 재수축과 南將臺廳城戊寅碑
  - 1)仁祖16년의 재수축
  - 2)南將臺廳城戊寅碑의 발견과 碑文분석
2. 正祖3년의 재수축과 屏岩南城新修記碑
  - 1)正祖3년의 재수축
  - 2)屏岩南城新修記碑의 발견과 碑文분석
3. 蜂巖城의 新築과 蜂巖新城丙寅磨崖碑
  - 1)蜂巖의 위치와 蜂巖城의 新築
  - 2)蜂巖新城丙寅磨崖碑의 발견과 내용

## 맺음말

## 머리말

신라 文武王 12년(672)에 축성한 畫長城(또는 日長城)에 그 기원을 둔 남한산성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鐮轄의 保障處로서 木原의 禿城山城, 安城의 竹州山城 그리고 江都와 함께 都城을 수호하는 수도권 방어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關防시설의 하나이다.

특히 남한산성의 修築問題가 대두된 것은 16.7세기 임진왜란과 李道의 난 그리고 丁卯, 丙子胡亂 등의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兵亂과 外侵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도성근처인 경기지방에 있는 산성의 수축문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江都와 남한산성은 鐮轄의 重鎮으로써 수원의 禿城山城과 擊角之勢를 이루는 關防으로 인식되어 밖대 왕들은 이의 수축과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庚午 이후 軍器補修, 軍制改編 등과 함께 山城修築問題는 國防上 중심과제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으로 도성이 크게 함락되자 清野入保 전술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산성축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것은 古城을 수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宣祖25년(1592) 수원의 禿城山城, 파주의 馬山古城, 미주의 婆婆城, 축산의 竹州古城이 그것이다.<sup>21)</sup>

그런데 남한산성이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산성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宣祖26년(1593) 鄭城守禦策을 의논하면서부터였다. 당시에는 남한산성의 수축보다는 방어에 더 우선하였다. 광주, 이천 등과 군사를 모집하여 왜적을 막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남한산성을 수여하자는 전략이었다고 이때는 鳥鶴, 秋風嶺, 竹嶺 등 중부지방의 중요한 요새처에도 關防을 설치하고 火砲, 鳥銃의 계조와 駄櫓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후 宣祖30년(1597) 왜군이 재침하자 남한산성의 방어와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桐成龍, 盧樸 등은 남한산성 수축을 실도있게 논의한 절과 東門, 西門 그리고 水口門 등의 일부 城役안을 수축하였다. 여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宣祖35년(1603)에 다시 남한산성 수축문제가 거론되었다. 남한산성의 형세는 동방의 유품이며 廣州의 巨鎮으로 남쪽지방을 몰래하는 요충지라 하며 비곳에 산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지키게 한다면 京畿의 保障이 된다는 입장에서였다.<sup>22)</sup> 그러나 당시 전란으로 인한 인력동원문제와 守成의 어려움, 그리고 국가부흥과 民生安集을 도모해야 할 처지에서 산성수축은 소극적이었다.<sup>23)</sup>

남한산성수축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仁祖反正으로 즉위한 仁廟대였다. 이때 특세한 세력은 西人이었다. 그들은 훈련도감을 제외하고 陞衛廳의 설치를 포함, 德戎廳, 御營廳, 守廟廳을 설치하여 서인경전의 군사력을 강화하였고<sup>24)</sup> 聰明排金의 외교노선을 표방하게 되어 결국 後金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에 仁祖와 西人세력은 서북방어에 주력하였고 한편으로 남한산성의 수축에 적극적이었다. 李貴가 앞장섰다. 그는 朝敵軍을 禁衛軍으로 삼아 국왕호위병으로 하고 都城이외의 保守之地로써 남한산성을 수축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유사시에 국왕과 도성을 봉어하고 왕실의 피난처로써 적합한 保障處였기 때문이

21)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文武王12年 8月條

22) 申勇杰, 조선후기 國防施設의 变화과정—임진왜란 전후의 關防施設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한국사론》 9, 1981

23) 《宣祖實錄》 卷43, 宣祖26年 10月壬寅

24) 《宣祖實錄》 卷193, 宣祖36年 2月乙巳

25) 《宣祖實錄》 卷161, 宣祖36年 4月 丁酉

26) 申文燮, 守廟廳研究(上) 《東洋學》 6·9, 1976.1979.

27) 申文燮, 《朝鮮後衛軍論》 《新史稿》 1995

다.<sup>7)</sup> 그런데 仁祖2년(1624) 1월 季述의 遣謀는 御營軍의 증강과 挑戎軍의 성립 그리고 남한산성의 수축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李囂를 중심으로 한 京畿軍의 정비는 江都의 經營, 남한산성의 수축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남한산성을 국왕의 피난처로만 삼으려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江都와 함께 對後金 및 對倭防禦 차원에서도 절실한 문제였다. 일찍이 柳成龍이 경기의 閫防으로서 수원의 秀城山城과 廣州의 남한산성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괄의 난을 진압한 인조정부는 江都와 捲角之勢를 이용할 수 있는 남한산성의 수축에 대하여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의 大計로써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仁祖2년(1624) 3월 영의정 李元翼의 제안에 따라 江都의 保障對策은 李聖求에게, 남한산성의 修築은 李囂에게 전임시키므로써 구체화되었다.<sup>8)</sup>

물론 조정에서는 異論이 없을 수 없었다. 좌의정 尹昉만이 동의하였을 뿐 우의정 申欽, 병조판서 金鑑, 우찬성 張旼, 호조판서 沈愬 등은 소극적이었다. 이유는 騎兵의 爭성과 機餉의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때문이다. 山城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募民入居하여 백성을 安集시킨 뒤에 수축하거나 경비초달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代案도 제시되었다.<sup>9)</sup> 특히 영의정 이원익은 좌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축성비용과 축성군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호조로부터 1,000石의 山城役糧을 대출받아 충당하는 땅안과 八百騎軍(이괄의 난 때 離散에 응하지 않은 훈련도감군)을 축성군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때는 先江都保障 後南漢山城修築論과 京畿水營을 강화에 이전하자는 견해도 나타났다. 역시 민심수습과 경비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신증론이 주제였다. 그러나 仁祖2년(1624) 4월에 이르러 대세는 남한산성 수축쪽으로 기울어졌다. 결국 李貢의 제안이 수용되어 처음에는 沈愬, 후에 李囂를 挑戎使로 임명하고 남양부사 桐琳을 평주목사, 名譽인 覺性과 應聖 그리고 別將 文耆堅 등으로 監董과 합으로써 드디어 仁祖2년 9월에 始築하고 인조4년 7월에 완공되게 되었다. 이와같이 수축된 城의 규모를 살펴보면 안둘레 6,297步 17리 9斗이고 바깥둘레 7,285步 20里 95步이다. 女堞은 1,940塊이며 壘城이 4개, 蔽門이 9개, 軍舖가 125곳, 詞臺4개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다.

이와같은 남한산성에 대해 종래의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sup>10)</sup> 대부분 남한산성 수축 초기의 연구이거나 義僧의 訪番錄에 관한 분석이었다. 최근에는 도설방어체계와 관련하여<sup>11)</sup> 북한산성<sup>12)</sup>을 비롯, 江都의 산성축조 문제에 관한 연구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筆者는 지난이후 攻城術의 발달에 따른 산성의 수축기술이나 밤어기술에 관하여 또한 산성방어책으로서의 軍營編制와 軍糧의 확보 등에 대하여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13)</sup> 그리하여 만년자료의 조사와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남한산성 재수축과 관련된 몇 개의 비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원이 중심이 된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의 공동 소득이었다. 이 자리에 빌어 발표를 대신하게 해 주신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7) 《仁祖實錄》 卷3. 仁祖元年 四月 壬寅.

8) 《仁祖實錄》 卷5. 仁祖2年 3月 己未.

9) 《稿里集》 卷1. 引見奏事. 甲子 3月 朔8日.

10) 李成熙, <朝鮮南漢山城修築論> 〈史蹟〉 7, 1902. 이하에 金甲里, <南北漢山城義僧番往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 25, 1988. 등 몇 권에 불과한 실정이다.

11) 金宗翰, <조선후기 郡城防衛體系에 대한 밀고찰—5군영의 三手兵制과 守備數>, 『나총』 21, 1995.

12) 이면수, 18세기 北漢山城의 축조와 經理廳, 《평계사학》 8, 1993.

13) 韓相, 조선후기 南漢山城의 修築과 防禦施設(1), 《城南文化研究》 3, 1995.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병자호란 이후 仁祖16년의 재수축과정과 관련하여 발견된 南將臺壘城戊寅碑와 正祖3년의 증축과 관련된 舛岩의 南城新修記碑, 끝으로 南漢外城의 하나인 錦巖城의 新築사실을 짚어볼 침에 주는 錦巖新城丙寅磨崖碑를 중심으로 각각 再修第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碑文의 발견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볼까 한다.

## 1. 仁祖16년의 재수축과 南將臺壘城戊寅碑

### (1) 仁祖16년의 再修第

南漢山城의 재수축문제가 거론된 것은 병자호란<sup>14)</sup>을 적은 되었다. 조선은 청의 침입으로 항전하였으나 군량의 부족과 후방 지원군의 차단, 그리고 강화도의 함락으로 出城降服하게 되었고, 그 결과 丁丑和約을 맺게 되었다. 조선은 이 화약의 세절로 팔미암아 군신의 예와 諸國年號의 사용을 강요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明과의 斷交는 물론 對明抗戰시에 원병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城池를 개축하거나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므로써 군비의 증강은 일체 금지되어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오랑캐라 멸시해 온 이민족에게 임금이 몽소 出城降服하게 되자 민족의 자존과 체통이 깃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주족으로부터 받은 치욕에 대한 민족적 작성은 반청의식으로 나타났으며<sup>15)</sup> 그 결과 韋王廣夷의 大義名分論에 입각한 복벌운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16)</sup>

이러한 반청의식의 고양과 함께 어명령의 병력을 종래의 6,200명에서 7,000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sup>17)</sup> 精抄軍을 창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훈련도감군을 경례화시키기 위해 6,500명의 무과합격자로서 局出身이라는 훈련도감 경예군을 편성하여 군성수비의 임무를 맡기는 등의 군체개편도 단행하였다.

또 이러한 반청의식은 丁丑和約의 군비증강 조항을 무시한 채 호란으로 파손된 날한산 성을 재수축하자는 논의를 대두하게 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즉 인조15년 7월 左議政 崔鳴吉이 江都와 南漢은 모두 保障之地로써 한곳에 진급하여 전쟁에 대비할 계획으로 삼자고 제안하자 特選官 李時白은 江都는 호란으로 예지없이 蕩強되었으므로 수습하고 싶지만 청나라에 빙거롭게 소문이 날까 염려되기 때문에 남한에 전념하여 우선 대비할 곳으로 삼아 불의의 사건에 대비하자고<sup>18)</sup> 제기함으로써 날한산성의 재수축문제는 조정의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었다.

14) 國防部曆史攝影委員會, 《丙子胡亂史》, 國防部國軍弘報管理所, 1986.

金鍾慶 정묘·병자호란,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85, pp. 211~300.

李章烈, 全海赤, 文淵孫씨 徒祖,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5.

15) 李因春, 尤弼 宋時烈의 韋朝思想, 《청계사학》 2, 1985.

16) 趙錫榮, 北伐과 春秋大戰, 《학제연구》 10, 1979.

李京海, 朝鮮李氏祖의 복벌운동, 《청계사학》 1, 1988.

속군본부, 北伐計劃과 軍威體制의 擴張,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2007, pp. 120~132.

17) 徐率軒, 어명령군구, 《한국사연구》 40, 1983.

18) 《仁祖實錄》 韶五, 仁祖16년 7월 丁亥.

“左議政 崔鳴吉進曰 江都南漢 皆爲保障之地 不若專營一處 以爲指揮之計 特選官李時白進曰 江

都舊城無餘跡收拾 而憑藉西人之廳閣 專營南漢 以爲始營之地可也 諸兵則不得一於斯 望出不意

即特何為哉”

이와같이 남한산성의 수축문제가 제기되자 조정의 중론은 철나라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반대의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守衛使 李時白 등이 폐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구실아래 남한산성 수축은 점차 인조의 支援을 받아 실현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남한산성을 재수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철이 맹을 정벌할 때 조선은 치관별을 파견한다는 和約條件때문에 대두되었다. 당시 반정파식이 고조되어 있던 조선의 어른은 비록 정축화약에서 편명을 파견한다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친명반정 외교정책을 오랫동안 고수해 온 조선의 입장에서 쉽게 맹을 정벌하는데 請을 원조할 수는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철의 원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파의 무리충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산성의 재수축은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의 재수축은 守衛使였던 李時白이 주도하였다. 李時白은 仁祖15년 10월에 “南漢의 雜藥은 하루가 급하나 농사철에 段사를 일으키면 민심을 크게 끌을 것”이나 臣의 생각으로는 漢軍으로서 布를 내는자 중에서 2,000명을 빼어 내어 반은 역사를 시키고 반은 軍糧을 잘만하게 하면 일이 매우 편리할 듯 하며 조정의 여러 의논도 또한 같습 니다.”<sup>19)</sup>라고 하여 농사철에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 밀반 백성대신에 漱軍을 조발하여 수축개화하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란 당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군량미 부족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경험을 되살려 山城軍餉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仁祖16년 1월 李時白은 호란이후 산성의 식량확보 상태가 겨우 4,000餘石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sup>20)</sup> 京倉에 보관중인 2萬石 중에서 大米 9,000石, 小米 1,000Stone과 한강변에 있는 각읍으로부터 거둬들인 전세 7,000석을 산성에 운송함으로써<sup>21)</sup> 목표물량 2만석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때에는 鞍樓의 설치와 대포와 같은 火器의 비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일찍이 선조38년 2월 行副將軍 李寔賓이 남한산성의 수구문과 남문사이에 鞍樓를 설치하여 火器를 비치하자고 주장한 바도 있으나<sup>22)</sup> 남한산성을 雜藥함 때 鞍樓가 없는 걸점을 仁祖가 지적하자 당시 축성책임자였던 李囂는 隊廳은 欲弛시 연기와 불꽃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어두워 수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단지 牛馬槽같은 시설을 설치하였다.<sup>23)</sup> 그러나 호란 당시 清의 騎兵에 의한 기습공격과 우수했던 포격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포 등의

19) 《仁祖實錄》 卷55, 仁祖15年 10月 癸卯。

“李時白建議 命召之 時白道曰 審薦修築 一日既急 而農時起作 大失民心 臣望 故以濟率之數布者 除出二千名 半以爲役 半以爲糧 事其便當 戰亂之時 立然矣”

20) 《仁祖實錄》 卷55, 仁祖16年 正月 戊辰。

“引見戶曹判書沈悅 工曹判書李時白 韓府參判李景與 所署參判任純 上請李時白曰 南漢被納是存者幾何 曰四千餘石 又謂沈悅曰 京倉所儲糧料 曰三萬餘石 上曰 山城軍餉可顧滿二萬石耶 曰移彼京倉米 且運水上諸邑並稅 則可萬餘石矣 上日待坐解說入。”

21) 《仁祖實錄》 卷55, 仁祖 16年 正月 甲午。

“戶曹啓曰 山城軍糧 時解水輸入 賈淮二萬石之數 西京食所備 飲料後餘存者 二萬餘石 先賄大米九千石 小米一千石 貢舶運送山城下 且以水土田稅七千餘石 通算於山城 因度對充其數矣 茶口只送萬石 似嫌輕少如廢穢送之”

22) 《宣祖實錄》 卷159, 宣祖30年 2月 甲寅。

23) 《仁祖實錄》 卷55, 仁祖9年 7月 内子。

“上命召對諸官僚講詔 宏嘗召從官李囂謂對 上又曰 南漢無一過鞍樓 是為大也 噬曰 鞍樓設於 守城 若設鞍樓則行晦惡 故西不設也 至於牛馬槽及城上內廁處 捕土之後 形所不可已 故令李守 一 蓋完其役矣 上曰勿以爲也人 代爾而忍之”

화기비치와 함께 堑壘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仁祖16년 1월에 이르러 右議政 申景纘은 이전에 수어사 李時白과 남한산성의 望月臺와 東格臺를 看審하고 난 뒤 堑壘를 설치하는 功臣이 매우 크지만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폐지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축조할 山城圖를 제시하였다.<sup>24)</sup>

그리하여 仁祖16년 1월 당시에 적을 막는 데는 대로만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동궐 등의 부족으로 여전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았지만 인천가는 포루와 함께 구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같은 민식마래 남한산성 재수축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仁祖16년 1월 16일 右議政 申景纘과 병조판서 李時白과의 논의에서였다.<sup>25)</sup> 右議政 申景纘이 그려 바친 山城圖를 펴놓고 修築할 곳을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계획대로 충축한다면 該이 완전하고 견고하리라 판단하고 城壘을 지키는 군사도 2만명 정도 확보토록 하면서 1차 산성증축의 책임을 李時白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李時白은 수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소 주춤하였다. 그것은 丁丑和約 가운데 성지를 수축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라도 축조한 이후에 이로 인하여 清의 힘에 힘드는 단서가 될까 봐 청에 알린 다음 그들의 태도에 따라 城役을 시작하는게 좋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仁祖는 倭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대해 청나라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축에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채적에 대비하기 위하여 特進官 任競을 경상도에 파견하여 舟師를 점검해 하는가 하면<sup>26)</sup> 전라도의 舟師는 統營에, 충청도의 舟師는 전라우도에 遷防해 하였고, 서북지방의 군량을 남방에 운송해 하였으며<sup>27)</sup> 특히 남쪽 關門의 요충지인 조령과 閨留山城의 수축을 통하여 남방에서의 防倭대책을 강구하였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천령의 요새지요 나라의 保障處인 江都를 수습해야 한다는 관해도 대두되었다. 仁祖16년 1월 特進官 曹文秀는 “廟堂의 계획을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산성에서는 결코 해구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江都는 천령의 요새지요로서 나라의 保障입니다. 지난해 지키지 못하였던 것은 저형탓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강도를 수습하는 것만 못합니다.”<sup>28)</sup> 라고 하여 江都수습론을 제안한 것이 그 하나이다.

이와같이 대왜방어책에 대하여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익사 江都보다는 남한산성을 더 우선시 하여 이의 재수축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의 재수축은 동왕 16년 1월 26일 병조판서 李時白이 수축에 필요한 성역군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漢軍 1,000명을 우선 調發하여 從事官 洪璣의 감독아래 望月臺에서부터 城役을 시작한다고 보고하므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당시 광주부윤은 70세 고령의 許徵였다.<sup>29)</sup> 許徵는 병자호란 이듬해 인조15년 1월 광주목사를 州尹으로 승격시키자마자 최초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남한산성 증축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반드시 부윤은 젊고 재능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인조는 洪州牧使 李景義를 적임자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시백의 전의를 받아들여 총사관인 洪璣을 광주부

24) 《仁祖實錄》 卷36, 仁祖16年 1月 丁丑

25) 《仁祖實錄》 卷36, 仁祖16年 正月 庚辰

26) 《仁祖實錄》 卷36, 仁祖16年 正月 甲己

27) 《仁祖實錄》 卷36, 仁祖16年 正月 庚寅

28) 《仁祖實錄》 卷36, 仁祖16年 正月 丙午

29) 許徵는 丙子2月 以高善拜 丁丑正月 旌府尹 戊寅正月 移拜提管하였다.

문에 제수하고<sup>30)</sup> 남한산성 충축의 실질적인 감독관으로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南將臺鑿城戊寅碑의 발견과 碑文분석

그런데 이와같이 인조16년에 남한산성을 재수축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碑의 발견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일명 南將臺鑿城戊寅碑가 그것이다.  
<사진1 참조>



<사진 1> 南將臺鑿城戊寅碑의 모습.

### 1) 碑의 발견 경위

城南文化院附設 惕土文化研究所의 연구원인 장철수, 최창무, 전보상, 조병호 교수는 혀 흥식, 조유진 교수 등과 함께 남한산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1996.4.10) 그리고 매월 넷째 주에 남한산성을 답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4월 28일 1차로 行宮址로 부터 북문과 동장대지를 거쳐 통암에 이르는 코스를 답사하였다. 우리 일행은 1차 답사에서 南漢外城의 하나인 蜂岩城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蜂岩新城丙寅磨崖碑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첫번째 채거였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그리고 5월 26일에는 남문에서부터 南將臺址와 1, 2, 3 麟城을 거쳐 동문에 이르는 2차 답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일행은 1차 麟城조사이후 남장대지 2차 윤성과 포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보삼교수(신구천문대)의 세보에 따라 麟城안에 있는 흥에문(사진2 참조)을 축조하는데 사용한 풀에 “戊寅七月 日”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진 비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산성답사이후 두번째 캐거란 소들이었다. 이들은 아마도 紅觀門의 한쪽 벽면을 축조할 때 사용된 것으로 벽면이 푸너져 발견당시에 碑의 하단이 20cm 가량 땅속에 묻혀 있었다.

30) 《兩漢可證錄》 5冊, 仁祖16年 1月 20日, 등 16年 1月 26日.



<사진2> 南城臺址 城城안에 있는 紅松門의 모습

## 2) 碑文의 내용과 분석

이 碑의 크기는 가로 115cm, 세로 60cm이며 총 글자수는 105字로 해서체이다. 비는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주측면은 都廳이하 城城을 맡은 관직과 이름이 적혀 있으며 좌측면은 城城에 등원한 木手 이하 任人의 이름과 숫자가 새겨져 있다.

이 碑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都	廳	治	石	木	戊	監	營	領	別	都
匠	匠	匠	手	手	寅	役	驛	將	將	廳
金	李	李	刃	刃	七	官	驛	聚	折	通
芝	己	己	手	首	月	前	衛	御	衝	政
屎	嘆	嘆	妻	梁	日	部	司	將	將	大
木	木	木	福	男		將	果	軍	防	夫
七	二	木	木	本		金	慶	宋	軍	守
		十	三	七		義	慶	行	禁	廣
		三	四			履	律	晚	使	州
						以	率	得	知	府
						奉	詳		中	護

이를 해석하면

都廳은 通政大夫守廣州府尹兼防備使인 洪璣이며  
別將은 折衝將軍 兼知中樞府事 崔晚得,  
領將은 駕馬將軍 行駕驛衛司果 宋泰軒,  
監役官은 前部將 金明律, 前屯里 廉以寧, 戰前將 金致慶이다.  
戊寅(仁祖16 1638) 7월 日에 완공하다.  
木手通首는 梁男 등 74명이고

石手邊將는 姜福 등 13명,  
治臣은 李己ழ 등 2명,  
汎臣은 金彊果 등 7명이다.

위의 講文의 문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비문을 새긴 시기는 戊寅 七月 日이 언제인가를 규명함으로써 가능하다. 남한산성 축성시기를 통하여 戊寅은 인조16년(1638)과 숙종24년(1696)를 중에서 인조16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한산성 수축의 책임을 맡은 도정의 총책임자가 廣州府尹兼防禦使 洪璣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洪璣은 앞에서도 칭찬 언급한 바와 같이 평주목을 평주부로 승격시킨 후 許徽에 이어 두번째로 府尹으로 제수되어 병조판서 이시백의 건의에 따라 인조16년 1월 25일 이후 남한산성 재수축의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는 선조39년(1606)에 대어나 현종4년(1665)에 일생을 마친 인물로 본관은 남양이고 字는 伯潤, 號는 竹齋이고 洪友直의 아들이다. 인조7년(1629) 벌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병자호관이 일어나자 김상현, 오달계 등과 칙화를 주장하여 그들과 함께 칙진에 끌려가기도 하였다. 인조16년(1638) 활쏘기와 말타기에 남달라 무재가 뛰어난 광주부윤에 특별기용되어 남한산성 수축을 맡았으며 1642년 강계부사, 의주부윤, 1645년 경상도 말어사, 1646 우부승지, 우승지, 1647년 황해도 관찰사, 칭주목사, 1651년 제주목사, 1653년 길주목사, 1662년 한성파윤, 1664년 충주목사, 한성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인조16년 남한산성의 재수축기간을 1월25일 이후 시작하여 같은 해 7월에 완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재수축할 때 동원된 築城軍에 관한 문제다.

인조16년 1월부터 재수축의 논의가 일어난 때부터 수축군은 호남지방의 궤군 2,000명 가운데 1,000명을 調發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인조16년 2월 10일의 기록에 의하면 호남지방의 漢軍 2,700명 가운데 성역에 부역하기 위하여 905명이 調發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한번 승군을 성역에 調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仁祖16년 2월 5일 守禦使 李時白의 書狀에 의거하면 “남한산성을 수축하는 일이 제극히 많으므로 지난번에 재가한 漢軍 원래의 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부역해야 할 곳과 비교해 보면 마치 타끌을 모아 산에 더하는 것과 같아서 결단코 농사철 전에 마칠 수 없으니 데우 염려스럽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속히 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승군을 뽑아 쓰는 것이 지금 적당한 시기는 아니나 그전부터 이와 같은 충대한 역사에 승군을 제외하고는 쉽게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下三道 및 강원도의 승군 중에 먼저 도첩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도첩이 없는 승군을 날날이 뽑아서 3개조로 나누어 올라오게 하되 제1진은 15일, 2진은 20일, 3진은 25일 동안 부역하게 하며 부역을 마친 후 도첩을 주어 돌마기게 하고 그 중에서 나이 많고 진실하여 승군이 믿고 따르는 자를 領擇으로 삼아 부역하게 하면 이 승군들은 도첩을 얻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오는 자는 부역의 양을 적게 하고 나중에 오는 자에겐 많이 부과시키면 그들은 반드시 앞을 다투어 올 것입니다.”<sup>32)</sup> 고 하여 漱軍만으로는 농사철 미전에 성역을 마칠 수 없기

31) 《後漢司鹽錄》 5回, 仁祖16年 2月 10日.

32) 《後漢司鹽錄》 5回, 仁祖16年 2月 5日.

때문에 하남도 및 강원도의 승군 중에서 도첩이 없는 승군을 조발하여 남한산성의 축축에 부역케 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下三道와 강원도의 승군을 성역에 조발하게 되었다.<sup>33)</sup>

그리나 승군의 남한산성 調發에 대해서는 왜구에 대한 방비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남방에서 왜구에 의한 면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남 즉 경상, 전라도의 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인조16년 2월 10일 좌의정 崔鳴吉은 남방의 변경에 변란이 일어날 우려가 매우 심하여 영남지방의 산성을 수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승군을 모두 남한산성에만 調發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과력하였다.<sup>34)</sup>

그 후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통왕 16년 4월 8일 영의정 李弘貫는 度謙의 유무에 따라 도첩이 없는 승군은 남한산성에 調發하고 도첩이 있는 승군은 각 본도(경상, 전라도)에 調發하거나 좌도와 우도를 구분하여 調發하자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좌의정 최명길은 남한산성은 승군이 아니더라도 케군을 조발하면 성역을 마칠 수 있다고 하여 僉軍調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리나 이와같은 조정의 의논에 대해 인조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선사 양남(경상, 전라)의 산성을 수축한다 하더라도 승군조발은 이미 결정한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였다. 이에 최명길은 승군을 나누어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제하고 그 대안으로써 전라도의 승군은 전라도에, 경상도의 승군은 경상도의 산성 수축에 쓰고, 단지 강원도와 충청도의 승군을 남한산성에 調發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함으로써 결국 인조도 이에 따라 충청, 강원도의 승군은 남한산성에, 下三道의 승군은 각 本道(경상, 전라)의 산성역에 조발도록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5)</sup>

이를 종합해 볼 때 인조16년의 남한산성 축축에 동원된 華城軍은 호남지방에서 올라온 漢軍 1,000명, 충청·강원도의 승군과 앞의 비문에 나타난 木手, 石手, 治匠, 泥匠 등의 匠人 96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단 여기서 의문시되는 것은 당시 산성에 거주하는 慕民이나 駕軍 또는 入防軍이 調發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추후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 2. 正祖3년의 再修染과 屏岩南城新修記碑

### (1) 正祖3년의 再修築

정조대에 이르러 남한산성은 떠시 수원의 烏城山城, 安城의 竹州山城과 더불어 擊角之勢를 이루 藩輔의保障으로 인식되어 중요시하였다. 특히 수원은 경기도와 三南의 요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藩城을 맹아하는데 있어 藩輔의 重鎮으로서 일찍이 조선초부터 중요, 개성, 강화와 함께 관방의 구성을 해왔다. 그리고 정조대에 이르러 사도세자의 농침인 영우원을 수원의 花山에 置奉함으로써 수원은 새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顯隆園에의 國幸과<sup>36)</sup> 行宮보호를 위해 華城을 축조함으로써 정치, 군사상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33) 《仁祖實錄》 卷36, 仁祖16年 2月 辛丑。

34) 《仁祖實錄》 卷36, 仁祖16年 2月 甲辰。

35) 《漢城司舊錄》 35卷, 仁祖16年 4月 8日。

36) 朴廣成, 正祖의 顯隆園與屏, 《기전문화연구》 10, 1993.

37) 崔洪奎, 조선후기 華城築造와 향촌사회의 諸様相, 《국사관논총》 30, 1991.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草城은 남한산성과 擊角之勢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방어체계 상의 체일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역대 국왕들과 路者들은 강도와 남한산성의 맘어체계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정조2년(1778) 7월에 司直 尹是東이 국방전반에 대한 상소를 올린 가운데 김해의 金井山城, 黃山의 鹽鏡山城, 老姑山城을 수축하도록 하고 기타 架山山城, 天生山城, 華山山城, 金鰐山城, 禿尾山城 등을 수선함으로써 諸路를 控制하여 외적의 방비에 전역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남한산성은 副都이므로 다른 것과 保障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수어청에서 실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府尹이나 守使보다는 높은 画門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총용장을 혁파, 수어청에 합병하여 반드시 남한산성을 직접 鎮守하면서 戰輔를統聚함으로써 경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sup>39</sup> 그러한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생각된다. 심지어는 남한산성을 副都로 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남한산성의 국방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던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江都와 남한산성 중심의 방어책에 반대하고 도성수비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도 컸다. 副司直 姜遊는 “江都是 해마다 賊을 수축하면서 都城에 대해 서는 태연히 마음을 쓰지 않고 있으며, 남한은 해마다 계산하여 국식을 계축하고 있으면서 도성에는 전혀 남는 저축이 없습니다.... 江都是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진실로 육지의 犯賊을 방어하기에는 이를지면 三面에 배를 정박할 수 있어서 邪寇를 방어하기에는 불리하니 이는 진급할 때 반드시 귀의할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남한은 산세가 의 따로 떨어져 있어 軍糧의 운반을 계속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으며 성안이 비좁아서 많은 군병을 수용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으니 이곳은 오래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sup>40</sup> 고 비판하고 鄭城의 城塹을 보수하고 軍餉를 비축함으로써 도성중심의 방어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逕城軍의 배치, 檀木의 설치, 軍額減少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조 2년 6월에는 수어청과 총용청의 分司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군체개편을 통한 남한산성 방어를 강화하자는 논의도 대두되었다. 그것은 戰輔의 군사를 나누어 2개의 군영을 설치함으로써 군체가 나누어지고 軍糧의 소모가 끌모없이 많아진다고 하여 군체의 대변통을 갈구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병제의 精銳과 軍需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兩營을 합치자는 俗營論, 양영을 혁파하자는 혁파론, 그리고 합영하여 남한산성을 鎮守하는 南漢山城鎮守論, 기타 양영은 그대로 두고 각각 지방에 나아가 鎮守하는 입장, 중앙의 훈련도감과 경기도에 소속시키자는 입장<sup>41</sup> 등 여러 의견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정조 19년 8월 守禦京廳을 혁파하고 광주부를 광주유수로 승격시켜, 광주유수로 하여금 남한산성수이사를 겸임하도록 하므로써 일단락 되었다.<sup>42</sup>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남한산성의 개수축은 이뤄지게 되었다. 정조가 3년 1월 12일 判中樞府事 楚命壽를 수어사로 임명함으로써 남한산성의 수축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당시 남한산성은 “南漢城塹 公解無圯處 懶其寥然 而以物力之未及猝辭 尚不得修補”<sup>43</sup>할 경

38) 《正統實錄》 卷6, 正祖2年 7月 丁未.

39) 《正統實錄》 卷6, 正祖2年 9月 丙申.

40) 《正統實錄》 卷6, 正祖2年 6月 壬午.

41) 《正統實錄》 卷43, 正祖19年 8月 丙申.

42) 《正統實錄》 卷7, 正祖3年 1月 丁酉.

43) 《備邊司略錄》 100桂, 正祖3年 2月 27日.

도의 실정이었다. 따라서 수축에 따른 재원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守禦使로 임명된 徐命膺은 동년 2월 수어청의 戸房所와 貨餉所 그리고 남한산성의 別庫, 倉庫, 保恤庫, 武械庫 등의 軍餉 실태를 직접 조사하였는 바 戸房所의 4만 5천냥이 현재 겨우 1만냥 정도, 관향소의 10만 7천냥도 단지 3천냥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는 현실을慨叹하고 또 남한와영의 각 库의 군향곡도 대부분 각 銅에 債貸하거나 民戶에 翻譯하여 停掉, 折減, 私貸 등으로 말미암아 元額대로 거둬들이지 못함으로써 “무너진 城壁과 기울어진 公廳을 대개 재력이 낙타치 못하여 대체로 둔튼하고 치밀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환백한 성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sup>44</sup>고 질투하고 大更張을 통해 그 폐단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城牆別館을 폐지하고 留營別館에 합속시키는<sup>45</sup> 한편 남한산성의 수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수어청 본청에 전 수어사 洪國榮이 저축해 놓은 別蓄錢 1만냥을 取用하기로 하고<sup>46</sup> 부족한 재원은 廣州 동상면 백성들에게 환곡으로써 대여한 군향곡 5,000석의 税穀 500석을 貸付하여 산성의 雕砲處, 灰石改造, 그리고 隘門이나 軍舗 및 公廳 등을 修補하는데<sup>47</sup> 쓰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정조 3년 남한산성은 증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사료가 참고된다.

A. 南漢山城補築告完 廣州府尹李明中加資 守禦使徐命膺特賜臘比 (《正祖實錄》 卷7, 正祖3年 6月 庚午)

B. 正宗三年修築元城 撤瓦覆甓 定四門名 東曰左翼門 西曰右翼門 南曰至和門 北曰全勝門) (《重訂南漢誌》 卷1, 上篇, 城池)

위의 사료 A에서 남한산성의 보축공사는 정조3년 6월 18일에 守禦使 徐命膺의 지휘 아래 廣州府尹 李明中이 감독하여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료 B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이제 元城을 수축하고 4대문의 이름을 東은 左翼門, 西는 右翼門, 南은 至和門, 北은 全勝門이라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산성은 적어도 정조 3년 3월 이후 수축공사를始發한지 6월 18일에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수축한 것을 계기로 정조는 3년 8월에 “南漢·北漢은 다 같은 保障인데 北城에는 誌가 있고 刊本이 있으나 南漢에는 이것이 없다”<sup>48</sup>고 하여 徐命膺에게 南漢誌를 편찬케 하였다. 또한 서평용은 남한산성 증축에 관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이른바 “南城新修記”를 지었다. 오늘날 이것은 원종 12년(1846)에 洪敬謨가 쓴 《重訂南漢誌》에 전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南城新修記碑가 발견되어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다.

## (2) 屏岩南城新修記碑의 발견과 비문분석

### 1) 屏岩南城新修記碑의 발견

우리 담사관 일행이 남한산성을 세번째 탐사한 것은 96년 6월 30일 이었다. 남문에서

44) 《正祖實錄》 卷7, 正祖3年 2月 丁巳.

45) 《南漢司理錄》 100卷, 正祖3年 2月 8日.

46) 丙寅 朔, 正祖3年 3月 12日.

47) 《南漢司理錄》 100卷, 正祖3年 2月 27日.

48) 《正祖實錄》 卷8, 正祖3年, 8月 壬戌.

→ 천주사자 → 암문 → 수어장대 → 총불 → 서문 → 별암 → 연주봉옹성 → 북장대 → 북문에 이르는 코스였다. 수어장대로부터 약 200리 정도 떨어진 서문방향 우측 길가 언덕에 일명 병풍바위가 있다.<사진3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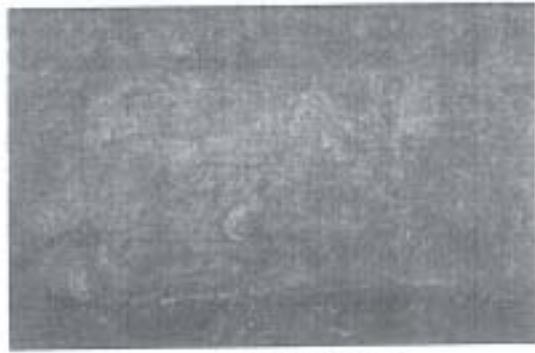
<사진 3> 수어장대와 서문사이에 있는 병판

이 바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글자가 눈에 띠었다. 그날은 안개가 자욱하고 비도 간간이 내린 날씨였다. 흐리고 어두운 날씨 때문에 좀더 긴장된 눈으로 글씨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우측상단에 “南城新修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南城新修記碑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이 배에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洪敬謨의 重訂南漢誌에 실려 있는 徐命膺의 <南城新修記>를 읽은 바 있기 때문에 금방 미을렸다. 그리고 분명 이것은 그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비문의 일부를 확인 내려갔다. 그런데 我聖上三載己亥부터 召工沿石屬命膺爲之記까지는 重訂南漢誌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 듯했다. 그러나 그 이후 비문은 南城新修記에 없는 것이었고(B면), 또 원쪽의 또 하나의 碑面에도 어떤 글자를 새긴 흔적이 있었다. 정밀조사를 기약하고 청장을 려났다.

이때에 필자의 뇌리에는 그렇다면 인조2년에 시작하여 4년에 완공한 사실을 기록한 남한산성수축비는 없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이 비의 구조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또 하나는 徐命膺의 <南城新修記>에 “功既克役者得二轍於城西 其上有天啓月日刻餘皆隱不辨 乃走告府尹 府尹曰 此始築時 紀功著”라는 귀걸때문이다. 이것은 필자로 하여금 시급히 정밀조사를 재촉하게 하였고 금기야는 9월 8일 박본과 더불어 정밀실측을 위한 준비를 하여 계차 담사하였다. 바위는 2개로 되어 있는데 전면의 비문이 새겨져 있는 바위는 부채꼴 모양으로 병풍처럼 놓여 있으며 가로 4.7m, 세로 3m 정도되었다. 뒤의 바위는 우측에 豐岩이라는 큰 글자와 丁韓己未李民夏書. 그리고 李寅草, 李寅商, (李)民夏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특별히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흰색은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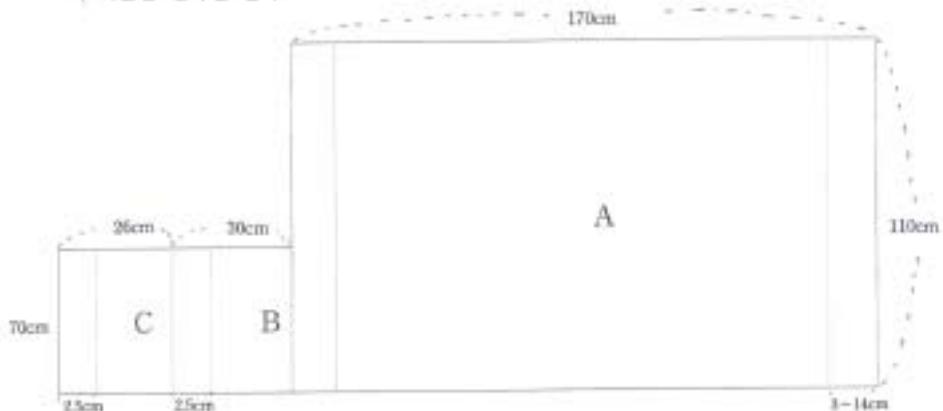
전면의 바위는 <사진4>와 같이 陰刻한 3개의 碑面으로 되어 있다.

A면에는 徐命膺의 南城新修記가 24行 19字씩 새겨져 있으며 글의 3행은 일정차 같다. 세로 110cm, 가로 170cm, 높이 3cm~14cm까지 익과 되어 있다.



<사진 4> 屏邊 前面의 南城新修記碑

이 비문을 실측한 결과



B면에는 内外兼覆色金必曉  
朴壽齡朴昌暉□□  
金仁厚金聲□  
捷攝載取

등이 새겨져 있는데 가로 30cm, 세로 70cm 크기로 깊이 2.5cm정도 역시 음각되어 있다.  
C면의 글자는 거의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이며 가로 26cm, 세로 70cm 크기로 역시 깊이 2.5cm 음각되어 있다.

2) 碑文의 내용분석

南城新修記	
我	慶上三載己亥春守郡使臣徐命應曰南
濟國之保隸也堤壩崩塌既今無一完堵復之	上
口	由舊于臣命應對曰前任守郡使洪國革時錄
一萬道若盡之以九百石來可勝也	上乃許以
九百石外是百石自舊有前錄堵廣田存尹事明中	
董其事宿別稱青仁德謀其功曰南軍官韓德	
洪兵役軍官金榮衡爲內外都廳行參官韓天賀	
李時範南城執事哨官西隱一弘培別特港世	
權興福李瑞廷佐爐灰署被帶禮部某範朴相慶	
李光佑南城安漢科舉宗志也其善贊之嘉榜刻	
曹漢光安國泰丘江暨辰之黨運開李運一李運大	
李時範南城執事哨官西隱一弘培別特港世	
蔚敬執事杜乃慶諸校馬十八號將歎史全時	
李東烈南城守明任天台客程彬李仁宅李彦草	
李仁苗金相人韓光聖李復平李仁本李明曾延	
趙南斗南城守相繼生相繼分掌堤堰以續以繼	
名足者名川堤面堅完財實否則有罪責皆責罰	
趙昌不無誠中父老爲酒主則極俱勞之厚蒙沾	
女貞元襄變爭相其役首尾五十有餘日屹屹	
趙南斗南城守相繼生相繼分掌堤堰以續以繼	
岸橋瓦三十里絕列惟有石堅余固將臺門樓丹	
橋堤築督梁上質德此之史苟既訖役者得二	
告府尹尹尹曰此始廢墮說功者居其一以青	
今數往數其可進于吾工皆石堅奇堅爲之記	
國僕使大夫行刑中樞用使參公文直提學蘇	
文相大提學尹均相事奉宰輔翰林院提學蘇	
通政大夫守廣州府尹尹明中書	
京畿右防護使李明中書	

먼저 A면의 南城新修記文은 위와 같다.

이 비문은 《重訂南漢誌》의 南城新修記와 대조해 볼 때 10행 6字이하 安湧軒, 梁宗浩가 추가되고 같은 行 15字인 豐 아래 글자 死가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그리고 25행부터 帽國崇綠大夫 이하 徐命應記와 通政大夫守廣州府尹尹明中 李明中書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南漢山城을 새로 修築한 記

우리 임금님 삼년 기해 봄(정조3년, 1779)에 守郡使 臣 徐命應이 아뢰기를 남한은 나라의 안전한 곳입니다. 성이 허물어져 한 곳도 완전한 곳이 없으니 보수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더니 임금이 미르시기를 재물이 있는가 하시기에 前任守顯道 홍국영이 모은 돈이 1萬堆미이니 9백석짜리 쌀을 더한다면 보수가 가능합니다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께서 9백석의 쌀을 허락하시니 이에 臣 命應이 前營將廣州府尹 李明中으로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유명별장 黃仁德으로 그 공역을 할당하게 하고 호방군관 韓德護과 병방군관 金榮恒으로 内外都廳을 삼고 고련관 韓光賢과 李彦植으로 도감관을 삼고 벽돌금은 者는 姚德世, 安湧軒, 石致誠, 権興福, 李彌亞(이오) 灰를 굽는 자는 韓德聚, 韓光範, 朴相慶, 李光佑, 金漢軒, 梁宗浩이요 벽돌 긁는 대를 필요로 나무를 공급하는 자는 曹漢光, 安國泰丘, 벽돌과 회를 운반하는 자는 李顯一, 李運大, 李時範이니 이는 南城의 执事 소관으로 顯一은 松板別將이요 德世는 京畿

執事이다. 이에 군교에서 선발하여 十八牌將을 만드니 鄭光奎, 金時亨, 李東赫, 黃道明, 任天均, 鄭龍彬, 李仁宅, 李彦章, 李仁益, 金熙人, 韓光聖, 李復亨, 李仁本, 李碩曾, 延德雨, 朴尚蕃, 孫錫福, 金邦慶 등으로 塔와 壕을 분담하여 시공하여 각각 성명을 태반에 기록하여 굳고 완전하면 상을 주고 아니면 벌하니 모두 용기 내어 응원하는 끝이 이기지 못할 정도였다. 성중의 부노가 술을 빚고 개를 삼아 피로하며 어린 남녀들도 회와 배들을 지고 이고 하며 다투어 역사를 도우니 50여일에 높이 깊은 粉堞 30리를 쌓으며 장막을 진열한 듯 金石관이 건고한 장대와 문루에 단청이 천만하니 모두가 임금님의 慎禮의 소치이다.

勁을 마치자 戰車이 바위 두개를 槍 西便에서 얻으니 그 뒤에 天啓月日이 새겨져 있으니 나머지는 끌미고 셋기어 분별할 수 없었다. 이에 달려가 부윤에게 고하니 府尹이 이르기를 이것은 처음 성쌓을 적에 꿈을 기록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납겨두어 오늘을 기다렸으니 운수이다. 그 운수를 어길 수 없다 하며 쇠공을 불러 불을 다듬어 宦應에게 부탁하기에 記를 하는 바이다.

報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 義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正章閣提學 徐命應이 記를 작성하고 通政大夫守廣州府尹□□□□ 重京畿右副都御使 李明中이 쓴다.

여기서 우리는 정조 3년 남한산성 제수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

(1) 산성수축사기 : 정조 3년(1870) 봄부터 6월 18일까지 약 50여일.

(2) 산성수축이유 : 나라의 보호인 남한산성의 塔堞이 剥缺하여 완전한 곳이 하나도 없으므로.

(3) 계원 : 前守副使 홍국영이 모아놓은 1만냥과 900석의 쌀(추가분).

(4) 수축인원 : 監督官 : 戴晉賛廣州府尹 李明中

지휘관 : 駕營別將 黃仁煥

內外都廳 : 戸房軍官 柳德謙, 兵房軍官 金秉植

都監官 : 數鍊官 韓光賢, 李彦植

撫贊官 : 楊澤世(京畿執事), 安漢趾, 石治誠, 檀英福, 李碩臣

燧灰官 : 鄭德增, 韓光範, 朴相豐, 崔光佑, 康根

薪糧官 : 曹漢光, 安國泰

搬運官 : 李植一(松坡別將), 李運大, 李時範.

18牌將 : 鄭光奎, 金時亨, 李東赫, 黃道明, 任天均, 鄭龍彬, 李仁宅,

李彦章, 李仁益, 金熙人, 韓光聖, 李復亨, 李仁本, 李碩曾,

延德雨, 朴尚蕃, 孫錫福, 金邦慶

(5) 수축규모 : 粉堞 30里.

(6) 南城新修記는 당시 守御使였던 徐命應이 작성하였고,碑文의 글씨는 당시 廣州府尹 李明中<sup>49)</sup>이 썼음을 알 수 있다.

49) 李明中은 생몰년대 1712(숙종38)~1788(정조13): 본관: 전주, 字: 因默.

朝議故 謂의 손자, 현감 順應의子, 딸은 洪重箕의 妻. 영씨경 坐在魯의 사위.

1741(영조17) 진사, 1744(蹶雍院) 계수, 1744(監造官), 洪用監, 主簿, 1748(昭烈正郎) 강서현감,

급성현령) 황주목사 계수, 전주목사, 광주정령, 대주목사, 신해성군령, 사목사

증관 역임, 1770(세현군수), 미천부사, 1774(평양부윤), 나주부사.

1775(정조5) 廣州府尹으로 남한산성 개축후에 중정간사에 임명되었고 그 이후 온남부 관찰사,

비금부 통지사를 역임한 인물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A비문의 말미에 “功既訖 役者得二巒於城西 其上有天啓月日刻 静哲漫鑿不辨 乃走告府尹 府尹曰 此始築時紀功者”라는 귀절과 B碑文에

摺 内  
攝 外  
敷金朴築  
眼仁壽應  
厚壁色  
金朴金  
聲昌必  
□綠瑞  
□□□  
□□□  
□□□

라는 귀절이다. 즉 위의 A와 B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의 A와 B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구체여 이미 A면의 본문 가운데 성역을 담당한 구직적 직명과 단명이 있는데 李明中書 이후 별도의 内外兼應色金必瑞 등의 사항을 책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에 A와 B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A면과 B면의 비의 내용은 전혀 다른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A면의 말미 부분을 다시 유의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경조 3년(1779) 6월 18일 남한산성수축에 관한 공역을 바치고 성의 서쪽에서 2개의 바위를 발견했는데 그때 비면에는 (뒤의 바위가 아니고 앞의 바위 비문) “天啓月日”이 새겨져 있고 그 나머지도 비바람에 깨이고 부서져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 당시 부윤은 그 내용은 처음 수축할 때의 공역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天啓月日”이다. 天啓 年號는 元海君13년(辛酉 1621)부터 仁祖5년(丁卯 1627)에 해당하는데 아마도 A,B면의 내용은 광해군 13년(1621)의 남한산성 수축사실이나 또는 인조 4년(1626)의 남한산성을 수축한 사실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A면은 경조 3년 남한산성 충축 때 비문을 다시 다듬어 현재의 南城新修記碑文을 새긴 것으로 판단되며 B면은 광해군 13년 또는 인조 4년의 내용 중의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광시 광해군대비 산성수축과 13년의 남한산성 수축에 관례 참간 언급할까 한다. 광해군 2년 1월 비면사는 경기지방의 17개 산성 가운데 수원의 烏城山城만이 무준하 수리되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산성을 重修할 때는 수원이나 과주의 산성뿐만 아니라 인천, 誠津, 광주, 고양 등의 산성도 앞으로 수축하라고 하였다.<sup>50)</sup> 그뿐만 아니라 여주의 淩溪山城, 安城의 竹州山城 수축에도 관심이 매우 깊다. 이때부터 광주의 남한산성도 수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후 광해군 10년 6월에 西北地方의 守關策으로 청안도의 永柔山城, 황해도의 瑞興山城

50) 《光海君日記》 卷24, 光海君2年 1月 甲午。

을 수선하고<sup>51)</sup> 함경도 鏡城의 邑城, 明川의 在德山城, 吉州의 城津山城, 황해도의 黃州城, 푸산山城, 海州城, 首陽山城 등의 산성을 수축함으로써 서북방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각처의 산성을 방비하는 대책의 하나로써 江都와 남한산성을 보호의 땅으로 인식하고, 양남의 군병은 江都에, 충청도의 군병은 남한산성에, 경기·강원도의 군병은 三角山城과 坡州山城에 들어가 지키도록 조치하였다.<sup>52)</sup> 그리고 수원의 犀城山城, 과주의 隰津도 밤어해야 할 요충지로 인식하여 군병의 배치, 기계의 배치와 군중조달의 대책을 마련도록 하였다.<sup>53)</sup>

그리고 광해군 13년(1621)에 이르러 이전과의 침입을 막기 위해 광성, 의주, 평양, 안주 등의 방비책을 마련하고 과산의 농한산성을 수축하였다.<sup>54)</sup> 특히 13년 9월에는 비변사로 하여금 重興山城의 수축과 함께 남한산성을 수축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것을 의논하여 전국 元鄉을 廣州牧使로 임명하여 산성수축을 준비케 하였다.<sup>55)</sup> 그러나 광해군 13년에 남한산성 수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다. 단지 《重訂南漢註》에는 “本朝光海辛酉以南漢始定爲保障之地 犀山城按正布己亥修築舊城 役番得二疊於城西 其上有天啓月日刻 絶皆漫漶不鮮 光海辛酉即天啓七年也似是辛酉要城時所記者也”

라 하여 天啓月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광해군 辛酉年을 天啓七年으로 보고 아마도 이것도 후西年(광해군 13년 1621)에 축성할 때의 功役을 기록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하고 있다. 여기서 辛酉年을 天啓七年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후西年은 天啓1年이기 때문이다.

반면으로 天啓月日은 인조 4년(1626) 남한산성의 수축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조4년(1626)에는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였는데 4개의 城門, 9개의 門, 성카위 1940塊, 壁城 4개, 軍舡 125, 4개의 將臺, 7개의 奇利 등 안뜰에 6,297步로 17里, 바깥뜰에 7,296步 20里의 규모였다. 이러한 수축사실도 張班의 <南漢山城記>에도 전하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은 혹시 이 창유의 남한산성기문을 이 異岩에 새기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특히 南漢山城記 뒷면에 “其辭沒有尋人 别記于下”라는 귀절이 B면의 雜名·人名과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碑文의 書體比較, 人名의 정밀조사, 그리고 碑面의 A,B,C 3개의 面으로 된 이유를 밝히면 어느 정도 해명될 것이라 생각된다.

### 3. 蜂巖城의 新築과 蜂巖新城丙寅磨崖碑

#### (1) 蜂巖의 취치와 蜂巖城의 新築

이른바 蜂巖城, 漢蜂城, 新南城은 元城밖에 신축하였기 때문에 흔히 南漢外城이라고 한

51) 《光海君日記》 卷129, 光海君10年 6月 壬申,

52) 《光海君日記》 卷129, 光海君10年 6月 癸酉,

53) 《光海君日記》 卷129, 光海君10年 6月 丙子,

54) 《光海君日記》 卷129, 光海君13年 9月 丙午,

55) 《光海君日記》 卷129, 光海君13年 9月 壬子,

다. 이를 남한 외성은 元城 축조 이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의 화포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진락의 하나로써 축성하게 되었다. 호란 당시에 清兵은 元城 밖의 蜂巖이나 潛蜂 등을 침령하여 城안의 虛實을 빤히 들여다 볼 수 있음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高坡이기 때문에 故砲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였다. 따라서 병자호란 당시에 쟁궁의 안뜨락까지 청의 화포공격에 노출되어 위기감을 맛보았던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대책을 서둘러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에 외성의 축조문제가 논의되었는데 蜂巖城의 신축이 그 하나이다.

蜂巖은 本城의 동쪽 5리쯤에 있는데 바위가 포개어져 가파르게 솟아있고 그 아래에는 돌구멍(石穴)이 있어 겨우 사람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부터 벌이 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蜂巖이라고 하였다. 또는 달월봉이라고도 했다. <사진5 참조>



<사진 5> 蜂巖의 모습

이와같은 蜂巖은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축성논자들 사이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패나하면 봉암은 城한복판을 굽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계곡이 깊고 넓어서 賊이 병졸을 숨겨두더라도 城안에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唐宗12년 3월 廣州留守 尹趾를 “남한산성 동쪽에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蜂巖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城한복판을 굽어보고 있는데 그 아래는 구렁이 깊고 넓어서 賊이 병졸을 숨겨두더라도 城안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内子胡亂에 죄이 그 봉우리를 침령하고 대포를 연달아 쏘았기 때문에 城壞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성을 빙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漢命壽(淸의 大通官·필자)의 공간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으니 本營의 군사를 동원하여 城을 쌓게 하소서”<sup>56)</sup>라고 아뢴으로써 蜂巖城의 신축논의가 대두되었다. 봉암성의 신축논의는 이보다 앞서 병자호란 이후에 蜂巖新築論이 제기되었으나 청의 압력에 못이겨 수락하지 못하고 唐宗12년에 다시 봉암성 신축의 필요성이 제론되었다. 그리하여 本廳 즉 守廳 소속의 군병을 징발하여 50여일 동안의 轉役과 대략 1千石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신축하게 되었다.<sup>57)</sup> 이때의 재원은 본청의 軍餉 부족을 메우

56) 《唐宗實錄補闕正誤》 卷18, 唐宗12년 3월 丁卯

《漢謹司理錄》 40권, 唐宗12년 3월 15일.

57) 《漢謹司理錄》 40권, 唐宗12년 3월 15일.

기 위하여 遷政帖 120장, 墓誌帖 20장 등의 空名帖을 발급하여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물해 902掌로 7重, 女徒 294塊, 蔽門 4곳, 軍舖 15곳을 신축하였으며 또 東林寺라는 사찰을 건립하여 동문박의 民口를募入하여 防守隊하였다. 봉암성은 그후 숙종19년(1693)에 이르러 우의정 陞輔과 守齋使 吳始復이 남한산성에 堆臺築造의 필요성을 계기하므로써 봉암과 한봉사이에 故臺를 설치하였고<sup>58)</sup> 숙종31년(1705)에는 守齋使 閔鑑厚의 건의에 따라 증축하고 鞍臺를 설치하였으며 정조3년(1779)에 대대적인 築築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2) 蜂岩新城丙寅磨盤碑의 발견과 내용

### 1) 蜂岩新城丙寅磨盤碑의 발견경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桟南文化院 附設 鄕土文化研究所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이 남한산성을 체계적이고統合적인 방법으로 探問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첫번째 답사한 것은 1990년 4월 28일이었다. 우리 일행의 첫번째 답사코스는 남문주차장을 출발하여 行營址→北門→暗門→東將臺址→蜂巖에 이르는 길이었다. 봉암에 이르러 우리 일행은 전보삼교수가 몇글자 있다는 제보를 확인한 결과 함께 새겨진 50字 가량의 글자가 있으리라는 추측을 하고 다음에 짜본과 함께 정밀조사를 하기로 하고 下山하였다. 그 후 5월 11일 장철수, 조병로, 허홍식교수님과 경기대 대학원생(이원우) 등 4명이 짜본을 실사하고 判讀의 결과 다음과 같은 비문을 발견하게 되었다.<사진 6 참조>



<사진 6> 蜂巖에서 발견된 蜂岩新城丙寅磨盤碑

58) 《重刊南漢註》 卷1 上篇, 墓誌, 墓地

蜂岩新城內寅廟崖碑의 내용

		二	一	共	都	守	九	役	潤	蜂
		所	所	時	本	累	日	同	四	岩
		將	將	前	使	畢	年	月	月	新
		城	城	前	右	尹	役	五	初	城
		圻	圻	郡	別			月	一	丙
		向	向	守	將			初	日	寅
石	成	時	安	表					始	
之	使									
元	等									

2) 碑文의 내용과 분석

이 비문은 자연석 위에 정사각형의 헤서체로 음각되어 있으며 판독한 글자 이외에 다음과에도 문자가 있으나 글자의 크기가 본문보다 작고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成使等□石之元□□과 같은 몇 글자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 비문을 판독한 許興植교수는 비가 새겨진 뒷면에 축성사에 채석한 혼적이 보이므로 오래된 비가 아닐 가능성은 있었으나 위낙 글자의 마모가 심하고 또 말게 각인 되었으므로 처음에는 오래된 비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비문을 세긴 시기가 丙寅이라는 干支와 蜂巖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므로 쉽게 그 年代는 규명될 수 있었다. 이는 建宗12년(1686)이 丙寅年이고 이때 봉암성이 축조된 사실이 《肅宗實錄》同年條나 《備邊司舊錄》同年條에도 삼세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석해보면

蜂岩新城은 丙寅年(肅宗12년, 1686) 을 4월 1일에 일을 시작하여 같은 해 5월 초 9일에 일을 끝마쳤다. 守齋使는 尹某(趾善)이고...一所의 將은 前府使 表某이고 二所의 將은 前都守 安某이다...城圻向時...或使等 石之元...

이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蜂岩城의 명칭은 外城, 新城, 東城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散見되나 蜂巖新城이라고 할 때 마땅하다. 그리고 碑의 명칭도 이에 따라 蜂岩新城內寅廟崖碑라고 정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蜂巖新城의 蓄造時期는 정확히 建宗12년(1686) 을 4월 1일에 시작하여 약 40여일이 지난 5월 9일에 끝마쳤다는 사실이다.

셋째, 蓄城의 감독과 蓄城軍은 守齋使 尹趾善의 감독 아래 分所法에 따라 1所는 前府使 表某, 2所는 前都守 安某 등이 담당구역을 나누어 축조하였고 축성군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수아철 소속의 군병과 本肆의 군에 나타나고 있는 石之元 등의 工匠(?)을 동원하여 축성하였다라는 사실이다.

넷째, 앞에서 언급했던 碑에도 그렸듯이 清의 年號를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蜂岩新城丙寅磨崖碑의 특징은 연대가 오래지 않고 풍우의 칠식이 비교적 차단될 수 있는 경사도가 심한 應崖碑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알게 새겨져 있으며 축성당관의 姓만 쓰고 이름은 생략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年號를 쓰지 않은 점이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점이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남한산성 수축은 反清意識의 발로이며 都城을 守護할 수도권 방어시설로서의 중요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찰한 바를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남한산성은 일진왜란 이후 江原과 함께 나라의 保障處로서 인식되었으며 後金의 등장으로 인한 野西防禦上 그리고 朝鮮의 난으로 도성수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 결과 남한산성은 수축되었으며 이와 함께 군량의 확보, 군영의 배치 등을 통하여 都城守禦策을 협사이 없이 강구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였던 데서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仁祖 2년(1624) 수축을 시작, 4년(1626)에 완성된 남한산성(元城)은 병자호란이 후 수차례 걸쳐 재수축을 하게 되었는데 仁祖16년(1638), 英祖20년(1744), 正祖3년(1779)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 중 인조16년과 정조3년에 재수축한 사실을 뒷반침쪽은 碑文이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南將蓋斐城戊寅碑와 罪岩 南城新修記碑가 그것이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풍성총조 등이 제기 되었으나 청의 압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 도성방어를 위해 남한外城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延宗12년(1686)의 蜂巖城, 延宗19년(1693) 潛峰城(汗峰城), 延宗45년(1719) 新南城(南格臺)이 그 하나이다. 그 중에서 봉암성의 신축과 관련하여 일명 蜂岩新城丙寅磨崖碑가 발견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와 같은 碑文의 내용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 仁祖16년(1638)의 재수축과 관련하여 발견된 남장대용성무인비에서는 延州府尹 池璵이 別將 崔晚得과 領將 宋季祥, 監役官 前都將 金明律, 前司馬 麥以奉, 前都將 全義龍 등을 지휘감독, 1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축성군으로는 漢軍, 詔軍 이외에 구체적으로 木手 梁男 등 74명, 石手 金福 등 13명, 治匠 朴己曠 등 2명, 工匠 金哲鳳 등 7명, 무려 96명의 匠人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 正祖3년(1779)의 대대적인 재수축은 수원의 烏城山城, 안성의 竹州山城과 함께 남한산성이 聽轎의 保障處로서의 군사적 중요성을 한껏 인식한 결과이며 罪岩南城新修記碑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비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 사항은 정조3년의 재수축시기는 동왕 3년 2월부터 시작하여 6월 18일까지 약 50여 일 걸렸으며, 수아사 徐命齊의 주관과 당시 평주부은 李明申의 감독아래 마주 체계적으로 수축되었으며, 그 財源은 수어청의 別賄錢 1만냥과 평주민들에게 환곡으로 대여한 軍前錢 5000 石의 利子 500石 등으로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비문의 구조나 내용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최초의 수축 사실(광해군13년 또는 인조4년)이 혹시 이 罪岩에 새기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3) 남한의 성피 하나인 봉암성의 신축은 최근에 발견한 일명 蜂岩新城丙寅磨崖碑에 의

하면 道宗 12년(1686) 음4월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5월 9일에 완성하였는데 수여사 尹趾書의 지휘아래 1所, 2所 등 신축구역을 나누어 1소는 전부사 表某, 2소는 전군수 安某 등의 감독관에 의하여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수여정 軍都이나 또는 匠人(?)들을 葉城軍으로 동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와같은 남한산성의 계수축과 외성의 신축은 병자호란이후 맷은 丁丑和約에도 불구하고 韋王撫夷의 대의명분과 華夷觀에 입각한 北伐運動과 反清意識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적으로 비문에서 볼 수 있듯이 철의 年號를 사용해야 하는 조약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은 이제 글유의 장이라는 역사적 글테에서 맷이나 새롭게 개인식하여 抗清節義정신과 민족의 자주국방의식을 되새기는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하고 복원해야 할 것이다.

(5) 특히 이러한 역사적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의 체계화,문화유적에 대한 저표조사 및 관련자료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사적 지정운동을 전개하여 국난극복의 충효정신 그리고 절의정신을 계승하는 민족의 도장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궁터 등의 무속건물의 복원, 이의 교육, 관광자원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남한산성계모습찾기운동이나 한국산성박물관 건립추진 등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최근에 발견한 南漢山城築城碑」에 대한 論評

崔 孝 軸(樞國大)

1. 우선 南將臺築城戊寅碑의 설립은 仁祖 16년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 근거는 『南漢志』 권 6 名宦條에 貢州府尹 留防監使인 洪琢은 「戊寅正月 以道政拜 皿滿後州民請留 加一年 再請又加一年 壬午 二月罷」라고 하였다. 즉, 洪琢은 府尹의 임기 900일을 다하고도 州民의 청원에 의해 2년간 연장 근무한 뒤 仁祖 20년에 그 직에서罷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丙子胡亂으로 賊下에 봉을 맞은지 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남장대 용성을 수축하였던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燃鬱室記述」 권26 清人徵兵條에는 清이 丁丑·戊寅年間에 계속하여 朝鮮軍의 정벌을 요구하였고, 반면 국내에서는 反清意識이 더욱 고조된 상태로서 긴박감이 있었다. 더구나 金自點을 중심으로 한 朝清派인 洛黨이 형성된 상황에서 어찌 가능하였는지? 당시 清은 중국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조선을 보는 시각은 어떠하였는지? 또 順慶의 명분으로 용성을 수축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사정은 어떠하였는지 등의 의문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의 주관으로 남한산성에서 南將臺築城戊寅碑, 南城新修記碑, 韓敵新修磨崖碑 등을 찾고 확인한데 대해 높이 평가될 것이다.

특히 정조 초에 金井·臨鏡·老姑·梁山·天生·牽山 등 산성을 수축하면서 이어 남한산성도 수축하고 특히 順慶로 확장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배경과 운영 실태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숙종12년에 남한산성의 東城 내지 外城으로 일컬어진 錦雞新城의 수축 배경은 어떠하였던가? 숙종 초 중국의 三藩의 叛과 관련되어 龍虎주장이 제기된 이후의 상황전개와 어떤 연관성은 없는지?

숙종대에는 都城의 보강처로서 어떤 면에서는 北漢山城에 더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운영면에서 南漢山城과 北漢山城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궁금하다.

##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발표자 : 陳 淵(요령성사회과학원)  
논평자 : 車 文 驥(단국대)

##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陳 流(遼寧省社會科學院)

1. 전쟁전 명·청·조선의 형세
2. 남한산성전투
3. 조선의 실패 원인과 전쟁의 영향

1637년 1월(清 崇德 원년 12월) 청 태종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자 조선의 국왕 이종(李倧)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약 1개월 만 정도 버텼으나 힘이 미치지 못해 결국 청에 신하를 자질하며 항복했다. 이 일련은 당시의 중국 및 조선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서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전쟁 전 明, 清, 朝鮮의 형세

### 1) 兩國 三方 구도의 형세

남한산성 전투시 중국은 朱氏의 명왕조가 통치하고 있었고 동방의 조선에는 李氏가 군림하고 있었다. 명조는 1368년(洪武 원년)에 건립되었고 조선은 1392년(충무 25년)에 건립되었는데, 1616년(萬曆 44년) 명조 통치하에 있던 동북지대에 또 하나의 정권이 출현하였으니 바로 後金이다. 후금은 당시의 소수민족인 여진족에 의해 건립된 민족정권이었다. 여진족은 元朝 때부터 동북지대에 부락을 이루며 산거해 있었는데, 명조는 이 여진족에 대해 기미(鷹鷹)정책을 써 왔다. 즉, 각 부락의 주장을 위소도독(衛所都督), 도지휘(都指揮), 지휘(指揮), 현백호(千百戶) 등의 관직에 풍하고, 지방정부를 도지휘가 통합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를 세력을 변형을 지키는 데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큰 세력을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16세기 후반에 이르자 여진족에서는 결출한 지도자 누루하치가 등장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부락세력을 통합하면서 후금을 건립하고 建元을 한(汗)이라 칭했다. 1618년(만력 46년) 그는 반명조의 기치를 내세우고 명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요녕의 심양지대부터 공격하기 시작해 차츰 세력을 확대하여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주위의 성들을 접수해 왔다. 명조는 당연히 이 정권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다. 반드시 이 거대한 위협세력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래서 다음 해 거의 국가의 모든 힘을 기울여 10만의 군대를 모아<sup>1)</sup> 후금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 전투를 역사에서는 살미호(薩爾虎)전투라 한다. 이 전투는 신생 후금정권으로서는 생사존망이 걸린 한 판의 접전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명은 의회의 합판을 당했다. 군대를 4개 부대로 나누어 공격했는데, 이 중 3개 부대가 대체하자 나머지 1개 부대는 갑히 접전도 해 보지 못하고 황제를 흐위하면서 폐작했다. 완벽한 후금의 승리였다. 이 중대한 전투의 결과 명조와 후금의 대치국면이 확정되었다. 이로부터 후금은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 세력을 신속히 확대시켜 나갔으나 명조는 수동적인 방어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마다 패전을 거듭하여 겨우 산해관에 이르러 그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여 적을 막아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유포이호전투로 인해 명, 청(후금, 이하 청이라 통칭한다), 조선의 3세력이 병립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 2) 조선과 명의 우호관계의 연원

당국 삼방의 구도가 형성된 후 남한산성전투에 이르기까지의 형세는 어떠했을까? 명과

1) 이 전쟁에 명 철상방이 투입한 데에 관해서는 사적(史籍)에 따라 기록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 서는, 참고 “薩爾虎之戰兵力考辨”(遼寧大學學報, 1980年第5期)에서 고증했는데,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쟁방 모두 10만이다.

침이 서로 대적하면서 전투를 거듭한 것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들과 조선파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조선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이들 문제는 선생전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를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명과 조선의 우호관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한 번 되짚어 보기로 하자. 이것은 상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조선과 명은 오래 전부터 줄곧 밀접한 우호관계를 맺어 왔었다. 명조 건립 초에 사신을 파견하여 명조의 전립을 조선(당시는 고려라 칭했다)에 알렸으며, 고려의 국왕 광천(王尊)은 국서(國書)를 받은 후 원조(元朝)의 연호 지정(至正)을 중지하고 명의 연호 흥무(洪武)로 바꾸었다. 이로부터 양국간에 대략 200여년에 걸친 민관한 우호왕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우호관계는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진립된 것이다. 조선은 줄곧 “事大”的 원칙에 입각해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모시는 “世敎臣節”<sup>2)</sup>을 준수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명조에 왕의 책봉과 황제가 비준하여 하사하는 국채를 청했다. 1392년(홍무 25년) 이성계가 고려 국왕을 폐하고 즉위하여 왕이 된 후 명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책봉과 새로운 국호를 정해줄 것을 청했다. 명조는 사신을 파견해 상황을 파악한 뒤 이성계를 책봉하고 국채를 하사했으며 또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다. 비단 국왕의 즉위식 뿐만 아니라 세자를 책봉할 때도 명에 비준을 요청했다. 매년 새해와 명의 황제 및 대자의 생일에는 명에서 정한 의례에 따라 조선은 정기적으로 사신을 명조근(明祖駕)에 파견했다. 1413년(永樂 11년) 1년 중 모두 7개월 동안 조선 사신이 명조관에 묵었으니 사절단의 왕래가 얼마나 빈번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조선은 중국을 존중했으며 동시에 중국 역시 조선을 “東方之名藩”<sup>3)</sup>으로 생각하여 특별히 그 안위에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1389년(홍무 2년) 고려에 파견된 사신 성유득(成惟得)이 명에 도착하자 명 대조는 고려의 국내상황을 상세히 물어본 후 고려 국왕(공민왕)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이 국서에서 명 대조의 우방에 대한 깊고 간절한 정을 읽을 수 있다.

“최근 사신이 귀국으로부터 돌아왔기에 점이 귀국의 정속(政俗), 성과, 병갑(兵甲), 거실이 어찌한지 물어보았소. 사신이 말하기를, “백성들 사는 데는 성과가 없고, 갑병이 있긴 하나 기강이 멍하지 못하며, 거실은 있으나 정치를 논하는 곳이 없으며, 왕은 오직 불교만 좋아합니다. 해안가로부터 30리나 50리 떨어져야 비로소 백성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 했소. 짐이 그 원인을 물으니, “왜구가 항상 소관을 꾀어서 그러합니다.”라고 했소. 과연 그렇다면 왕도 심려가 코시겠소. 집은 비록 덕이 부족하나 천화의 주인이 되었고, 왕도 이미 선하를 칭하며 조공을 표했으니 고려에 합당하다 할 것이오. 무릇 계후국의 국세가 장차 위태로울 듯하니,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구려. 왕은 잘 알아두어야 하오. 옛날 왕공(王公)들은 협단한 광예물을 설치하여 나라를 치켰소. 지금 왕은 백성이 있으나 성과가 없어 백성들이 보(保)에 피지하고 있소. 국가라면 군대를 벌리할 수 없거늘 지금 왕은 무기나 장비를 둘보지 않고 있으니 국가의 위세가 혼들리고 있소. 백성은 떡는 것을 하늘같이 여기거늘, 백성들은 지금 해변가의 땅을 정착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소. 무릇 국가라면 반드시 정령을 내리는 곳이 있어야

2) 「밀한증설록」 卷177.

3) 정인자, 「고려사」, 종현판세가, 경술19년 5월 갑인.

하거늘, 지금 왕은 거실은 있되 청사가 없어 신하들에게 위엄을 보이지 못하니 절은 심히 마땅치 않소. 역대의 군주는 이하(夷夏)를 불문하고 오직 인의예악을 닦아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었는데 지금 왕은 그것을 내버리고 날마다 제례만 일삼아 복을 구하려 하니 그 핵심을 잃어버린 것이오. (중략) 무릇 왕이 왕답게 높고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전세의 공적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음이 없소. 만약 선왕의 도를 행해 백성과 더불어 이로 을을 진작시키고 해를 제거하며 후손을 널리 번성하게 하며 부모자자가 모두 잘 먹고 잘 입어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도록 한다면 국가는 영원히 번성할 것이오. 먹을 닦고 복을 구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소? 왕은 어찌 이를 행하지 않고 다른 것만 행하고 있는 것이오? 국가의 군주라면 마땅히 제사의 전례를 숭상해야 하오. 들판대 왕의 국가에서는 회생으로 삼을 소를 기르지 않으니 어찌 경내의 산천이나 설황(城隍)에 제사 지낼 수 있겠소?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의 대사는 제사와 군대에 있다”고 했소. 만약 군대를 양성하지 않고 제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라 할 수 있겠소? 지금 오랑캐의 윤이 이미 다해 변방의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나 점의 군대는 요녕의 심양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포악한 무리가 일어난다면 중국 뿐 아니라 고려에게도 반드시 우환이 될 것이오. 하물며 왜인이 해안가에 출몰한지도 수년이나 되니 반드시 왕의 해선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오. 이 역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오. 왕이 그들을 제어하려 해도 뛰어난 장수나 용맹한 병사가 없다면 나라밖으로 원정을 떠날 수 없으며, 왕이 그들의 침략을 막으려 해도 깊은 뜻과 높은 벼 그리고 내부에 양식이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도처에 원병이 있더라도 적의 폐리함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자면 왕의 점 역시 무겁다할 것이오! 치해로운 자는 국가가 위태로움에 처하기 전에 위험을 바꾸어 면 안하게 만들다오. 앞에서 몇 가지 일에 대해 점이 이도록 상세히 말한 것은 왕과 근심을 함께 하는 마음에서이니 왕은 이를 잘 고려했으면 하오.”<sup>4)</sup>

이와 같은 관설은 단순한 우호의 표시를 넘는 것으로, 양국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여 상호 협연적인 관계를 전립하고자 한 것이다. 양국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점을 모두 실각히 인식하고 있었다. 명조가 생각하기는, “조선이 위협에 처하면 해동이 반드시 요녕에 미친다”<sup>5)</sup>라는 것이었고, 조선은 “중국이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안정될 수 없다”<sup>6)</sup>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루 외적의 침입 등 군사적인 대사는 양국 모두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지원했다. 1591년(만력 19년) 일본이 조선에게 명을 공격하기 위한 길을 빌릴 것을 요구하고 조선을 떠나면서 그 선두에 나설 것을 강요하자 조선은 이것을 거부하고 명조에 그 상황을 알렸다. 다음해 일본은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다. 조선은 수도 (漢城)를 빼앗기고 “판도를 모두 유란”<sup>7)</sup>당했다. 국왕은 암록강변의 의주로 후퇴하여 명조에 굽히 구원을 요청했고, 명조는 원병 4만을 일으켜 암록강을 건너 조선군민과 어깨를 맞대어 전쟁을 수행했다. 양국 군민의 유력한 반격하에 일본 침략군은 대패했고 결국 이길 수 없이 화의를 맺고 전쟁을 중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에 대한 성의가 없어 1597년(만력 25년) 다시 공격을 해 왔다. 명조는 다시 조선의 요청에 응하여 원병을 파견했다. 다음해 11월 조선의 노량해전에서 중국과 조선의 연합군이 일본해군에게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입혔다. 일본해군 만여명이 사망하고 전함 100여척이 불탔다. 이 전투 중 명조의

4) 「명태조실록」 권45.

5) 「명신종실록」 원249.

6) 「조선미조실록」 세조, 정제 13년 2월

7) 谷應泰, 「朝史紀事本末」 拙朝鮮

70이 넘은 노장 둥자룡(鄧子龍)이 용감히 선두에 서서 치휘하다 그가 단 배가 포화를 맞자 일본군은 이 기회를 끌어 공격을 해 왔다. 이 때 조선의 겉출한 장수 이순신이 전함을 치휘하며 구원하다 둥자룡과 함께 장열히 전사했다. 이 반침략전쟁은 무려 7년간 지속되었고 명조는 이 전쟁에 군사 10만명과 70만 粮餉을 동원해<sup>8)</sup> 두 차례나 조선을 지원했다.

마찬가지로 명조가 전란에 휩쓸렸을 때도 조선은 예외없이 힘을 다해 도왔다. 여진족의 활동지역은 조선과 가까워 당시 조선·민족에 출몰하며 조선과 교섭을 벌였다. 조선은 이 상황을 모두 명조에 알렸다. 그리고 명조가 행동에 들어간 때 조선은 예외없이 땅을 지원했다. 예를 들어 1457년(成化 3년)과 1479년(성화 15년) 명조가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진주(建州)여진을 공격할 때 조선 또한 출병하여 관미 공격할 것을 약속했고 두 차례 모두 약속대로 출병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명조와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상호 존중하고 도 관심을 가진 믿을 수 있는 맹방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빈번한 무역을 통해 물자를 서로 교유했다. 명조가 건립된 이후 양국간을 빈번히 왕래했던 사신들은 단지 정치적인 사명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제무역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모두 많은 예물을 휴대했던 것이다. 조선 사신의 예물은 비단 소, 밤, 모시, 중이, 인삼, 화분색, 나전공예품 등의 토산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귀중한 금은옥기나 대모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1404년(영락 2년) 조선이 한 차례 중국으로 보낸 소는 1만 두나 되었다. 명조의 담배풀은 주요하게는 지폐, 전각물, 배, 자기, 약재 등이었고 이 외 조선의 요청에 의해 판복이나 예기(禮器)를 주기도 했다. 이러한 공식적인 왕래 이외에도 양국 사이에는 무역이 진행되었는데 명조가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주요한 품목은 소와 말이었다. 당시 유통군둔(遼東軍屯)에서 사용하던 경작용 소는 “모두 조선에서 사들인”<sup>9)</sup> 것이었고, 1432년(宣德 7년)에 한 차례 사들이 소는 모두 1만 두였다. 구체한 말의 수를 또한 매우 많았다. 보통 천 째이나 만 째 정도였다. 조선의 주요 구매품은 주단, 약제, 도자기, 회야 등이었다. 이러한 공식(貿市)무역 중 쌍방의 태도는 매우 성실하고 우호적이었다. 명조는 조선에 대해서 항상 특별한 예우와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1372년(洪武 5년) 명 태조는 고려의 공사(貢使)가 너무 빈번한 것을 보고 고려의 부담이 줄 것을 걱정하고 또 사신이 험난한 바닷길을 전나오는 것을 걱정해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조공을 하는 제도를 정하고, “공물을 토산 때 10회이면 죽하니 더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sup>10)</sup>고 덧붙였다. 1492년(천덕 4년) 조선 국왕의 둘째 이인(李仁)이 명조에 와 표(表)를 올리고 동시에 공물을 바쳤을 때, 명의 선종(宣宗) 역시 사신(侍臣)들에게, “조선은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조공의 사신이 수차례나 오고, 그 공물도 금은이니 작은 나라가 어찌 늘 부담할 수 있겠는가? 국왕에게 칙유를 내려 금후 공물은 토산품으로 하더라도 성의는 충분하다고 하라.”<sup>11)</sup>고 지시했다. 명조는 회약의 수출을 엄금했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예외로 회약과 물을 파는 것을 허락했다. 1592년(만력 20년)부터 1622년(天啓 2년)까지 명조가 조선에 판 회약은 도합 만근에 달했다. 당시 명조의 규정에는, 외국 사신이 남경에 거류하는 기간 중 5일에 한 차례씩 외출이 허용되었고 명시에는 임의로 드나들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 사신에 대해서는 예외였다. “바깥으로 나가 무역을 하겠다면 날짜를 따지지 않고 허락했

8) 「조선비조설록」 선조 무술31년 7월.

9) 「명선종설록」 권58.

10) 「명태조설록」 권76.

11) 「명천종설록」 권50.

다.”<sup>12)</sup> 조선의 사신이 하용진 한도 이상의 물품을 허대하고 국물을 나서도 명조에서는 금지하지 않았다. 명조는 비단 조선에 대해 다른 국가와 다른 특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줄곧 하나의 원칙을 견지했다. 그것은 “厚往薄來”<sup>13)</sup>였다. 때번 조선의 사신이 낭경에 도착하면 명조는 향연을 베풀어 대접하고 돌아갈 때는 답례품을 후하게 하사했다. 예를 들면 1407년(영락 5년) 15세의 조선 세자 이서(李璽)가 천 여명의 수행인을 대리고 북경에 신년 축하를 하러 왔는데 극도의 열정적인 접대를 받았다. 명의 성조(成祖)는 사전에 유통도사(蘆東都司)에, “정성껏 위로해야 하며 제공할 시설과 서비스를 완비해 두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세자가 유통에 도착했을 때 유통도사의 관원들은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어 영접하고 숙소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모두 극도로 풍성하게 했다”. 그 후 관원을 파견하여 낭경에 이르도록 호송하면서 “미르는 숙사나 익사마다 미리 모든 것을 완비해 두도록 했으며”, 낭경에 도착해서는 다시 “풍성히 접대하고”<sup>14)</sup> 많은 예물을 주었다. 심지어 78명의 종인(從人) 모두에게도 비단옷 한 벌씩을 주었고 명의 성조는 친히 시 한 수를 써 세자에게 주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관원을 파견하여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때는 사신이 팔모하여 사적으로 무도하게 쟁길 때도 있었는데 일단 명 황제가 그것을 알면 즉시 금지 시켰다. 예를 들어 1429년 명의 사신 창성(昌盛)과 윤풀(尹圃) 등이 조선에 도착하여 “금없이 이것 저것을 요구한”<sup>15)</sup> 사실을 명 선종이 알고서는 조선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금 조창에서 파견한 내관(內官) 내사(內史) 등이 왕의 나라에 도착해 있는데 왕은 단지 예로써 대접할 뿐 다른 선물은 주지 않았으면 하오. 조창에서 찾는 물건은 오직 칙서에 기재된 대로만 따르면 되겠소. 만약 점의 말을 구두로 전하면서 물건을 요구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할 때는 모두 물어주지 말기 바라오. 왕의 부자가 조장을 짚듯이 설긴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푸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은 잘 알고 있소. 좌우 측근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간될 수 없소. 왕은 아무 염려 말기 바라오.”<sup>16)</sup> 이에 사신들의 사적인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정성껏 조선 국왕을 안심시키고 있다. 어떤 때는 조선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명조는 여기에 대해 보수를 따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1403년 5월(영락 원년 4년) 조선 미 베를 약재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예부에서는 영락제의 지사에 따라 조선의 수요를 감안하여 18종의 약재 총 82.8근을 증정했으며 조선 사신이 가져온 배는 받지 않고 스스로 팔도록 했다. 같은 해 7월 영락제는 다시 조선의 요청에 따라 관목과 서걱을 증정하면서 조선 사신이 가져온 배 등의 물품에 대해, “그들 스스로 팔도록 하되, 밤해를 해서는 안된다”<sup>17)</sup>고 지시했다.

한국과 중국은 옛부터 밀접한 문화왕래가 있어 “小中華”란 용어도 생겨났다. 명조 때에는 양국 문화의 교류가 더욱 깊어졌다. 조선은 명조의 연호를 세택하고 중국의 익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비단 정치적인 우호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문화의 영향을 얼마나 깊이 받고 있었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점은 다른 여러 방면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12) 「평直증실록」 권170.

13) 「평선총설록」 권32.

14) 이上面의 인용문에서 자주들 달지 않은 부분은 「조선미조설록」 태종, 정해7월 10일, 푸자8년 2월조에서 인용한 것이다.

15) 「조선이조설록」 세종, 기유11년 8월.

16) 「조선미조설록」 세종, 기유11년 12월.

17) 「조선이조설록」 태종, 계미3년 9월.

들어 고육상에서 조선왕조에서는 자제들을 보내어 명조의 대학에서 고육을 받도록 했으며, 명조의 과거시험에는 모두 조선에 령경수의 합격자를 배당하여 조선에서 선정해서 보낸 생원들이 중국에서 과거시험을 보도록 했다. 1371년(홍무 4년) 회시(會試)에서 조선에서 선택한 3명이 응시하여 그 중 1명이 금도급제(金道級第)를 했다. 조선에서의 유학의 영향은 더욱 깊어 명조는 당시 조선에 문화전적을 보내주곤 했다. 조선은 이를 서적을 대단히 중시했으며 때로는 어떤 서적이 필요한지 조정에서 도의하기도 했다. 1369년(홍무 2년) 조선에 「왕관복(王冠服)」, 악기, 배신관복(陪臣冠服) 및 홍무3년『대통령』,『육경』,『사서』,『통감』,『한서』를 증정했으며<sup>18)</sup>, 1433년(선덕 5년)에는 「조선국왕 李詮의 요청에 따라『宋史』를 하사했으며<sup>19)</sup>, 1454년(景泰 5년)에는 「조선국왕 李詮의 요청에 따라『會典』全書를 나누어 주었다」<sup>20)</sup>. 중국 법전이 조선에 미친 영향 또한 아주 깊었다. 조선의 사법계에서는『唐律疏議』를 “최고로 유팔한 것으로 알아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1429년(선덕 4년)에는 “지금으로부터 四疇과 期의 取才 및 律科에는 『疏議』와 통계 등의 과목을 병행한다”<sup>21)</sup>고 규정했다. 명나라 황제는 특별히 조선에 보살파 예대의 가족을 보내 친근한 뜻을 보이곤 했다. 이들은 모두 조선에 깨친 중국의 문화영향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설명해 준다. 문화교류의 영향은 절대로 한 방향으로만 미치지 않는다. 조선의 문화발전은 동시에 중국문화를 촉진하기도 했다. 조선은 중국의 활자인쇄술의 영향을 받아 15세기 초엽에는 중국보다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했는데, 이 문화발전사에서의 중대한 성취는 후에 중국으로 전래되었다.

조선과 명의 우호 관계는 결친 이러한 우호관계는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외부의 요인에 의해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이런 관계는 필연코 명, 청, 조선 三方의 형세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 3) 양국 삼방의 형세

조선과 명의 우호관계는 상술한 바와 같은 연원을 가지고 있기에 명과 청이 대적할 때 조선이 영축에 설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조선은 비단 명의 요청에 응했을 뿐 아니라 욕이호전투에 참가하여 여진족을 포위하였다. 또 명의 장수 도문룡(毛文龍)이 한 갈래의 대오를 이끌고 조선의 절산(羅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조선은 그 주둔을 은하하고 양식을 편조에 주어 그들이 청의 후방을 불시에 고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으로 하여금 등에 가시값은 존재로 느끼게 했다. 요동은 조선과 명의 관계를 잇는 통로인데 명과 청이 대립하고 있어 이 통로는 단절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선과 명의 우호관계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양국간의 교류는 단절되지 않았고 요동의 유포가 막히자 쌍방은 다시 해로를 통해 계속 사신을 왕래시켰다. 비록 해로가 활단하긴 해도 조선 역시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 이처럼 명과 조선은 동서 양쪽에서 청을 견제하고 있었다. 조선은 철 후방의 위협이었기에 청은 전력을 다해 땀을 흘릴 수가 없었다.

18) 「명대조실록」 권45.

19) 「명선종실록」 권107.

20) 「명양종실록」 권244.

21) 「명신종실록」 권215.

22) 각주 15와 상동.

양국 삼방의 형세가 전개된 후 청은 부단히 무력을 확대하여 거의 전 유통지구를 장악하였고, 실력이 신속히 강대해져자 1636년(충정 9년)에는 국호를 청이라 바꾸어 정식으로 황제를 칭함으로써 장차 명을 대신하여 중원을 장악하려 했다. 그런데 조선과 명의 우호 관계는 청으로서는 명을 대적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바꾸어 조선으로 하여금 자기를 지지하게 해야만 후회없이 명을 대적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청은 땅이 협소하고 인구가 적으며 생산은 낙후하고 물자는 궁핍하여 경제적으로 대화의존도가 강했다. 따라서 명조의 골시(賈市)무역이 쓸든 청 경제의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명과 적대관계에 놓인 이후 골시무역이 단절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고涸에 처하게 되었다. 비록 청 황제 황태극이 “각처를 거래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sup>23)</sup>, 또 무력으로 빼앗아 보충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계책에 지나지 않을 뿐 경상적인 수요를 해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국의 경제적 끈끈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비단 정치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조선은 청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개워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조선과 명의 우호관계는 어떤 물질적 정신적 수단으로도 파괴할 수 없었기에 청은 오직 무력의 사용을 통해서만 폭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1627년(천계 7년) 청은 조선에 출병하여 무력으로 절박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江都和約”에 서명해 합으로써 “영원히 황제의 관계를 유지하기로”<sup>24)</sup> 했으며, 사신을 통해 공물을 바치고 조선의 중강(中江)을 개방하여 상호교역 시장으로 살았다. 조선은 다시는 모문통의 부대를 지원할 수 없었다. 화약과 같은 조선과 명의 관계는 집요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후금은 명과의 황태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은 시종 “의리상 단절할 수 없다”<sup>25)</sup>는 입장을 견지했다. 비록 최후에는 부득불 후금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고설·문서상 명의 연호 天啓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후금의 요구조건을 행식적으로 결수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명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협약이 있은 후 남한산성 전투가 있기까지의 명·청·조선 3방의 형세는 다음과 같았다. 명과 청의 적대적인 투쟁 중 조선은 명의상 청과 우호관계를 맺고 암력에 놓이게 청에 일정한 물질적 지원을 했으나 실제상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명과의 우호적인 대도를 버리지 않았다. 조선의 정치적 민 입장을 예전의 명조축에 기울어 있었다. 말하자면 조선과 청의 이같은 모순관계의 지속은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언젠가는 다시 한 번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 2. 남한산성 전투

### 1) 전쟁의 폭발

조선과 청의 화약이 있은 후 청군은 조선으로부터 칠수했다. 조선은 비록 약속대로 공물을 바치고 사장을 개방했지만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라 성의가 있을 수 없었다. 청은 심히 불만족스러워 자주 서한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1629년 4월(崇禎 2년 3월)에는 조선이 고의로 모문통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는 등의 위악행위를 나누라는 서한을 보내왔

23) 王先謙, 「大朝東華錄」 儒林 卷3

24) 「조선이조설록」, 인조, 5년 5월

25) 「조선이조설록」, 인조, 5년 2월

고, 벼슬 후에는 청의 황제가 다시 6개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선이 성의도 외리도 없다고 폐단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조선은 여기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군신이 평과의 변함 없는 우호관계를 전지하고 있었고, 그 후 심지어 철이 제출한 경제와 군사적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했다.

1631년(승정 4년) 청은 남쪽으로 연해의 제 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에 전함과 수군을 파견하여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의 출병은 한 편으로는 외지할 데 없는 설사들을 불러 고무하기 위한 것이고, 한 편으로는 조선의 진위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sup>26)</sup> 이것은 조선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일종의 위협이었다. 그러나 서한을 가져온 사신 단달이한(灘灘爾漢)과 둔납밀(董納密)이 조선의 수도에 도착한 후 3일을 기다려도 국왕 이종(李宗)을 만나볼 수 없었다. 더욱이 숙소 주위에는 파견된 군사들이 파수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문을 박차고 나와 철 황제에게 보고하러 돌아가려 할 때야 국왕이 비로소 그들을 접견했다. 그렇지만 전함과 수군 문제에 대해서는 시중 미행다할 대답이 없었다. 대도는 아주 강경했다. 이것은 수전에 익숙치 못한 청군이 이번 출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633년(승정 6년) 청은 다시 명을 공격하면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다. 동시에 큰 전함 300척을 제공해 해도(海島)의 공격을 돋도록 했다. 조선은 회신에서, “만약 귀국이 우리미리 명을 통지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없어질지언정 결코 따를 수 없다”<sup>27)</sup>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이 매년 청에 진헌하는 공물 역시 점차 감소되었다. 청은 원래 조약에 정한대로 다시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이 거절하자 청은 사신의 왕래를 중지시키겠다는 위협을 했다. 무역시장에서는 청과 조선이 처음서부터 부단히 왕래를 계속하고 있었다. 1633년 조선은 또 한 차례 서신을 통해, 청의 상인과는 공평한 교역을 할 수 없으므로 호시(互市)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밝하고 한술 더 떠서 “지금까지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어 보자”는 계안을 했다. 청은 여기에 대해 “전쟁의 단서를 먼저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오래지 않아 청은 다시 조약에 준해 조선에 양식의 원조를 요청했으나 조선은 이를 거절했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과 명은 이전처럼 왕래를 계속했다. 명군에 군량미와 병기 등을 지원했다. 명의 장수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이 명을 빼반하고 청에 투항하자 명은 군사를 파견하여 이들을 추격했는데 조선 또한 군사를 파견하여 같이 이들을 공격하도록 했다. 조선인민 역시 자발적으로 청군을 습격해 살해했다. 이런한 교섭과정 중 조선의 조아에는 상하를 막론하고 반청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적극적인 전쟁준비가 시작되었다. 이종(李宗)은 명을 내려 경기, 황해 및 평안 3도에 12개의 성과 뜻을 추가로 짓도록 하고 군대를 정비하면서 공격에 대비했다.

1636년 청 황태극은 황제동국을 준비하면서 사신을 통해 이를 조선에 알려왔다. 조선은 여기에 대해 축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서의 접수마저 미루었다. 군신 상하가 모두 이를 불가하다 생각했으며, 또 군사를 파견해 청의 사신 영마이데(英俄爾岱)와 마복탑(馬福塔)을 감시했다. 영마이데 등이 문을 박차고 되돌아가 황태극에게 조선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하자 청의 장령들은 모두 분개하여 문문이 조선을 도발할 것을 요청했다. 지

26) 「청태조실록」 권9, 6쪽.

27) 「청태조실록」 권13 17쪽.

보가 뛰어나고 사대 전반을 파악하고 있던 황태극은 이런 대중의 질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연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을 시켜 서신을 가지고 가 이해득실을 깨우치게 하여 왕자와 대신들을 민길로 쉽게 하라. 만약 그들이 해용한다면 그만이지만 불복한다면 그 때 다시 경벌을 논하도록 하자.”<sup>28)</sup> 그러나 조선은 여기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강약과 존망의 형세를 떠나 오직 정의에 입각해 관계를 단절한다”는 결심을 했다. 이종(李宗)은 팔도 장령들에게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전국의 선비를 동원하여 “각자의 책략을 상주”할 것과 “스스로 설실히 전쟁에 임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호소하면서 청명의 침입에 대비했다<sup>29)</sup>. 동시에 나덕현(羅德顯)과 미파(李弼)을 황태극의 황제동극 전례에 자신으로 보내 축하를 표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를 행할 때 뜻못하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이 청의 신하국이 아님을 보였다. 이에 황태극은 조선에 다음과 같은 통첩을 보냈다. “만약 왕이 스스로 알아 죄를 뉘우친다면 바땅히 자제를 인질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짐이 모월 모일에 대군을 거느리고 그대의 국경을 들어설 것이다.”<sup>30)</sup> 조선은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하기를, “맹약이 깨어진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sup>31)</sup>라고 했다. 이에 황태극은 전마를 가다듬고 하천이 얼어붙기를 기다려 다시 조선원정에 나섰다. 12월 28일(12월 초이튿), 황태극은 15만 군대를 진히 이끌고 출정했다.

황태극의 제 2차 조선 침략의 원인은 1차 때와 동일한 것으로, 모두 대명작전상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을 통제하여 명과의 우호관계를 단절해 함으로써 자기의 지지세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 때 청은 이미 여진의 각 부를 통합하고 원래 명에 속했던 전 동북지대를 거의 장악한 상태였다. 서쪽의 풍고 역시 이미 신하도씨 복종됐기 때문에 전선을 장악함으로써 명과의 대적을 위한 외부환경을 최종적으로 철저히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명과의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선을 통제하에 두어 불필적 지원을 얻음으로써 청의 내부 실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조선 외에 두어 불필적 지원을 얻음으로써 청의 내부 실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위협을 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조선은 조심스럽게 예의를 일지 않으면서 민족의 존엄과 국가 독립을 위해 강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태도를 더욱 강경히 굳혀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36년에 이르러, 청은 제1차 무력 정복 후 9년의 국가정책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기구를 전전하게 개혁하고 법제를 강화한 데다 경제 또한 발전함으로써 농업을 위주로 하여 가정부업과 방직, 약초, 조선 등의 수공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군사력이 현저히 증강되었는데, 단지 군대의 숫자가 확장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화포 및 화약제조와 선박제조 능력을 갖춘으로써 여태까지 무기의 측면에서 줄곧 명에 비해 열세를 차지했던 상황을 타파했다. 외부적으로는 몽고의 각 부가 이미 신하로 복종하고, 대명작전에서도 산해관을 강압적으로 탈취한다는 전략을 바꿔 우회 포위하여 내지를 광량함으로써 명에 보다 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관리와 백성에 대한 투항정책의 영향도 날이 갈수록 커져 명의 경제

28) 「청태조실록」 권28, 9쪽.

29) 「조선이조실록」 인조, 14년 3월.

30) 「청태조실록」 권28 48~49쪽.

31) 「조선이조실록」 인조, 14년 5월.

적 군사적 역량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다. 황태극이 말한 것처럼 화실희 “국세는 날로 번창”<sup>32)</sup>라고 있었다. 이 때 청은 이미 기본적으로 명과 쇠후의 결전을 멀일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쇠후결전을 위한 실리적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보다 성숙한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황태극은 만주, 몽고, 한족 상층 인사들의 공동 추대 하에 정식으로 황제라 칭함으로써 장래 명을 대신할 결심을 명확히 표명한 것이다. 이런 시기에 이르러 조선을 철저히 경복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한마디로 조선과 청의 전쟁은 중국 내전으로부터 기인된 한반도의 침략 반침략 전쟁이었다.

## 2) 포위되어 곤경에 빠진 남한산성

청군은 두 길로 나누어 진군했다. 황태극은 친히 우익을 거느리고 풍경(지금의 요녕 遼寧)으로 흔하(渾河)를 건너 남으로 향했고, 좌익은 무순(지금의 요녕 振順)길을 잡아 동쪽으로 해서 내려왔다. 1637년 1월 5일(승정 9년 12월 초열흘) 우익의 대군은 鎮江(지금의 압록강)을 건넜고, 이어 의주, 하작산(下郭山), 정주, 안주를 거쳐 임진강변에 이르니 마침 날씨가 추위 강물이 얼어붙어 있어 전군이 어울지 않게 강을 건너 곧바로 수도(지금의 서울)를 향해졌다. 좌익은 예친왕(睿親王) 다이곤(多爾袞)이 영도하여 관진(寬甸)을 거쳐 장산구(長山口)로 가 영변(寧邊)을 넘어 곧바로 수도로 향했다. 이 길에서는 각지 조선 군대들의 용맹한 반격에 부딪혔다. 장산(長山)에서는 조선 관민이 성 바깥 산꼭대기에 전을 치고 청군과 교전했으나 중파부적이었다. 그렇지만 허다한 사람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영변에 이르자 의주총병(義州總兵)과 黄주원수(黃州元帥)가 병사의 수가 적은 것을 들키지 않고 단지 500명만으로 성을 나와 청군과 교전하면서, 부원수와 몇 명의 장수가 기마 및 보병 흰예병을 이끌고 수도의 구원을 위해 달리게 했다. 그렇지만 도중에 청병과 접전이 물어 불행히도 죽거나 사로잡혔다. 황주도원수(黃州都元帥) 역시 군사 만오천 명을 이끌고 수도로 달렸으나 다이곤이 이것을 알고 청예부대를 선발해 밤새도록 뿐아 불의 습격을 가함으로써 폐퇴시켰다.

대군이 출발한 그 이튿날 황태극은 이미 마복단에게 삼백명을 이끌고 선봉이 되어 성 인으로 가장하여 수도에 먼저 도착하도록 하고 곧이어 예친왕(撫親王) 다탁(多鐸)으로 하여금 천명의 호위군을 이끌고 뒤를 끊어 수도를 예회싸게 했다. 선봉부대는 1월 9일(12월 14일) 세백 수도의 성 바깥에서, 막 성을 나와 적을 맞이하려면 조선 기마병 60여명을 <sup>33)</sup> 전멸시켰다. 성 내에서 이종(李宗)은 이미 전날 권속을 강화도로 보내고 자신은 수도 동남쪽 40리쯤에 있는 남한산성(지금의 성남시)으로 급히 철수해서 다음 날 역시 강화도로 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복단(馬福塔)군이 이를 알고 추격해 오니 성을 나설 수가 없었다. 11일(16일) 다탁군이 도달하여 성 밖 80리쯤에서 목책을 치기 시작하여 장차 성을 포위하려고 했다. 이 때로부터 이종(李宗)은 한 달 이상이나 성 속에 갖혀 고통스런 남한산성 보위전을 처리야 했다.

32) 王先廉, 「九朝東華錄」 卷33.

33) 亂萬中, 「內子錄」에 “80리 駕”라 기재되어 있다. 「청태종실록」 권32, 24쪽.

### 3) 남한산성 보위전

1월 11일에 포위되어 2월 24일 이종(李宗)이 성을 나와 항복하기까지 남한산성 보위전은 45일간 지속되었는데 그 형세의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제1단계: 11일~23일(28일)

이 단계의 교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부단히 충격했다. 그러나 청군은 포위만 하고 있을 뿐 공격하지 않았다. 조선의 충격을 막으면서 주력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청군은 성을 포위한 후 아직 황태극이 이끄는 대군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지 않고 단지 “강화를 맷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조선이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야 한다는 강화조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과의 교섭에서 사실은 성의가 없고 단지 이종(李宗)을 곤란하게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었다. 조선은 이미 적을 맞이할 심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 부서를 만들어 험준하고 공격하기 힘든 산성을 의지하여 굳게 지키면서 구원을 기다릴 결심을 했다. 일면으로는 사람을 보내 교섭에 응하면서 일면으로는 소수의 병력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배번 죄를 살상했다. 17일(22일) 전후로 살상한 적은 백 여명이었고 조선군은 “죽은 자가 불과 5~6인, 활을 맞아 부상을 당한 자가 7~8인”<sup>34)</sup>이었다. 이 때문에 사기도 매우 높아 18일(23일)에는 1차 대량동을 조직했다. 이종(李宗)은 친하 북문에 이르러 진을 돌려했으며 네 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동시에 출격하여 청군에게 타격을 입혔으나 조선의 손실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23일(28일)의 전전에서는 조선군이 배복에 걸려 300여 명이 사망함으로써 원기를 크게 상했다. 바로 다음 날 황태극이 이끄는 우익의 대군이 성밖에 도착하여 성의 서쪽에 진을 쳤다.

#### 제2단계: 24일(29일)부터 3월 9일(충정 10년 정월 15일)까지

조선과 청 쌍방이 화의의 담판을 진행하는 단계였다. 이 기간을 이용하여 청은 밀면 대오를 준비하고 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으며, 일면 담판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 이종(李宗)이 성을 나와 항복하도록 꾸박했다. 조선측은 적극적인 방어태세로부터 외부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고 주화(主和)세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황태극은 산성에 도착한 후 공격을 서둘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청군의 좌익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특히 성을 공격할 전문무기와 화포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장 성을 공격할 수 없었다. 다른 하나는 산성의 형세가 험준하여 지키기는 쉬우나 공격하기는 어려웠다. 황태극은 병력의 손실은 바라지 않았다. 작전은 자제로와야 하며 무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견지했던 그는, 주변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이종(李宗)이 절망하면 담판을 통해 항복을 강요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청군은 단지 산성의 균왕군만을 부단히 공격했으며 동시에 서신을 보내 성안에 있는 이종(李

34) 나한감, 「봉파록」 金報以後日置.

의 대약을 어긴 죄를 조목조목 들어 염하게 나무랐다. 그러나 화의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부대는 29일(정월 초나흘) 한강 북안까지 철수하여 진을 치고 후군을 기다렸다.

이 때 조선 각 도의 군마가 분분히 남한산성으로 치닫고 있었다. 비록 청군에게 인명상의 피해를 입히고 싶지어 청의 대장 역부양고리(額部 양고리)를 살해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다. 산성의 구원에는 어떤 작용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각 지방에서 원군이 끌임없이 전장으로 모여든다는 소식은 성안으로 전해져 성안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작용은 있었다. 성안의 조선군은 다시 출전할 힘이 없어 단지 외부의 원군만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종(李宗)이 황태극에게 보낸 회신 중에는 비록 여기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황태극이 지적한 죄목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하고 있었다. 이 단계는 청과 조선 양방이 서신을 통해 단지 자신의 입장만을 되풀이했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이나 의의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당시 성안의 상황이 점차 변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전쟁이 개시되면서 조선왕조 내부에는 주전파와 주화파의 대립이 있었다. 처음에는 주전파가 우세하여 조아에 적분 강개의 언론이 넘쳤다. 산성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형세는 계속되어 비록 포위를 당했지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청군의 대부대가 도착하고 시일이 흐르면서 성안의 양식이 차츰 떨어지고 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면서, 특히 23일의 대첩전이 실패하여 인심이 통요되면서 주화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시종 화의를 주장했던 이조판서 최병길이 화해 교섭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하면서 절차 그 작용을 발휘했다.

제3단계: 2월 10일(정월 16일)에서 24일(정월 30일)까지로 무력에 의한 최종 투쟁단계였다.

2월 4일(정월 10일) 다이폰이 거느린 좌익대군과 화기부대가 도착하자 청의 사기는 고조되었다. 황태극은 최종적으로 성을 탈취할 안배를 했다. 그의 속략은 여전히 가급적이면 강공을 피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면으로 배를 준비시켜 군사를 나누어 강화도를 공략하고 일면으로는 담관을 계속하면서 이종(李宗)이 성을 나와 항복할 것을 명확히 계시했다.

산성 안에서는 2월 2일(정월 8일)부터 외부와 연락이 끊어져 더 이상 원병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성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청군의 병마 뿐이었다. 기다 한 달 이상을 로위당해 성안의 양식, 화약, 약품 등이 거의 바닥나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다. 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下에서 타협을 주장하는 화의파의 역량은 날로 커지고 있었다. 17일(정월 21일)에는 장출률이 무리지워 주전(主戰)대신을 청군측에 보내어 처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변(兵變)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종(李宗)은 무득불 청에 죄를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청의 신하가 되기를 청했다. 그렇지만 성을 나가 투항하지 않고, 청이 제출한 요구나 주화대신의 조건들을 준수할 생각은 없었다.

16일(정월 22일) 청군은 강화도 수군을 격파하고 강화도를 점령했다. 조선 군신의 권속이 모두 포로가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밤 청군은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성을 지키는 조선군에 의해 모두 격퇴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성안의 형세는 아주 위급했

다. 청군은 종일 쉬지 않고 화포를 쏘아대어 사살자는 늘어가고 있었다. 19일(정월 25일) 동성의 성벽 일부가 화로에 무너지자 조선군은 신속히 이를 보수하며 “위급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sup>35)</sup>. 그렇지만 더 이상 외로운 성을 치킬 수는 없었다. “인심이 심하게 둥요되고”<sup>36)</sup> 일부긴 하나 군심 또한 둥요되기 시작해, 20일(정월 26일)에는 군졸들이 다시 주전대신의 축출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날 저녁 조선의 사신이 청의 진영에 도착하자 청의 장수는 강화도에서 포로가 된 종실의 친원군(珍原君)과 내관 나업(羅業)을 불러오게 하고 또 당시 포로가 된 왕자의 친필을 건내주었다. 강화도가 함락했다는 소식을 확인한 그날 밤 조선 군신은 성을 나가 항복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청이 제출한 조건에 따라 성 아래에서 맹약을 맺게 되었다. 24일 이종(李宗)은 푸른 옷을 입고 장수와 신하를 대동하여 성을 나와 삼전도에 이르러, 이미 마련된 놀은 대에 막아 있는 황태극에게 항복했다.

26일(2월 초이틀) 청군은 요녕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장의 전쟁은 끝이 났다. 그렇지만 단지 전장이 마무리되었을 뿐 전쟁이 남긴 계사와 영향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 3. 조선의 실패원인과 전쟁의 영향

#### 1) 조선의 실패원인

조선군민이 비록 용감하게 싸웠으나 남한산성 보위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은 주요하게는 조선과 청의 병력의 차이 때문이었다. 조선은 청의 병력을 당할 수 없었다. 당시와 같은 병기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말해, 전쟁의 승부는 거의 병력의 대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남한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성안에는 “근병이 겨우 1만2천 명 정도”<sup>37)</sup>였으며, 출전시 제일 많았던 것이 불과 400명 정도였다. 자기보다 열 몇 배나 많은 강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물며 조선은 줄곧 “文단을 숭상하고 武略을 등한시한”<sup>38)</sup> 반면 청군은 강하고 전투에 익숙해져 있었다. 조선군이 악체로써 이처럼 강한 적과 싸우려 했던 그 용기와 절개는 사실 경탄할 만하다. 조선이 면조에 구원을 요청했지만 당시 면조는 국내 농민 기피(起義)를 진압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대군을 과언해 외국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겨우 둥채총병(凳菜忠兵) 진홍범(陳洪範)을 과언하여 해도로 원병을 보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작전의 면에서 본다면, 병력이 분산되어 각자 전쟁을 치른 것이 조선군 실패 원인의 하나였다. 고전 쌍방의 병력 차가 현저할 때는 약한 쪽은 병력을 정확히 안배하고 병력을 유효하게 집중시켜 국부적 우세를 점할 때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다. 조선이 만약 청군의 우세를 충분히 검토하여 미리 전국의 병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더라면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전투개시 단계에서 청군의 진공을 저지하거나, 후에 남한산성에서 원군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이 응전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

35) 나만갑, 「병자록」 金賴以後日錄.

36) 나만갑, 「병자록」 金賴以後日錄.

37) 나만갑, 「병자록」 金賴以後日錄.

38) 「조선이조설록」 인조, 15년 정월.

충분한 것으로 겨우 차지에 경계를 강화하라는 정도의 춘령에 그치고 말았다. 이렇게 분산된 병력으로는 청군의 우세한 병력을 막아낼 수 없었다. 결국 모두 각개격파 당하고 말았다.

다른 점으로는 조정의 용인(用人)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요 장령들이 무능해 지휘에 실수를 범함으로써 소식이 불통하고 전투에 옹호 회판 성에 고립된 것이다. 이것 역시 조선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보자. 조선은 원래 요충지에 진(鎮)을 설치하고 병사를 배치시켜 방어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전이 임박했을 때, 쇠활사(体察使) 김류(金鑑)와 그 아들 도원수(都元帥) 김자점(金自點)은 도라에 이 초소를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주, 평양, 창주, 평산 등 큰 진을 지키는 군사를 나누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새로운 방어지역은 “가깝게는 대로로부터 3~40리, 멀게는 하루 이틀 정도의 거리”로 하고, “양서(兩西) 일대의 큰 진에는 거의 무인지경”<sup>39)</sup>이 되도록 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칠학에 들어오는 적을 대적하는데 불리한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배치였다. 김자점 선임 도원수는 형벌로써 위엄을 세워 인심을 잃었고 또 스스로의 주관에 빠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청군이 이미 압록강을 건너 조선의 경내로 들어왔을 때, 변방의 군사들이 불파로 경보를 알렸으나 김자점은 절대 청의 침입이 아닐 것이라 주관적으로 단정하여 조정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2월 6일(정월 12일)에야 비로소 조정은 청군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때는 이미 청군 선봉이 수도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조선은 본래 강도(江都)에 성을 쌓고 석량을 비축해 두었다. 천연의 협난한 지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 그러나 적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시기를 놓친 결과 황망히 날한산성으로 철수한 것이다. 성안의 병력이 적고 석량과 물자도 부족해 강도보다 적을 막아내기가 훨씬 어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처음 산성으로 철수했을 때 청군의 선봉은 불과 300명이었고 또 피로에 지쳐 있었는데 조선은 적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이들이 안정되기 전에 타격을 가하지 못하고 단지 철수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적군이 주장하는 강화(講和)를 가볍게 믿어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손을 끊어 존란을 자초했던 것이다. 다시 1월 23일의 전투에서도 金鑑은 지휘실수를 했다. 적의 배후에 걸려 첨예를 당함으로써 성의 정예부대를 모두 잃고 원기를 크게 상한 것이다. 소위 “이로부터 사기가 막여”<sup>40)</sup> 이후 성을 굳게 지키자는 논의는 없어지고 말았다. 강도(江都) 수비대장 김경정(金慶征)은 “조석으로 연회를 빼풀고 날마다 술로 일삼는”<sup>41)</sup> 자로 방어에 뜻이 없어 아무런 방비 없이 함락당하고 말았다. 출류한 장수 없이 전쟁에 서 승리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또 하나 마땅히 걸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기상황에 부딪혔을 때 통치집단 상층부가 국난극복을 위해 일치되지 못한 사실로서, 이렇게 되어서는 역시 이길 수 없었다. 청·평원의 대도에 대해서 조선의 통치계급 상층부는 시중·상이한 두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親明反淸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위 “기미(羈縻)”, 즉 중립의 대도였다. 명파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청을 인정하고 철제의 명약을 치켜나간다는 것이다. 전쟁이 폭발한 후에는 和, 輓, 양종 의견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들은 시중·쟁론을 그치지 않음으로써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적에 대항할 수 없게 했다. 이것은 적에 대한 단호한 정체결정에 영향을

39) 나만감, 『병자록』, 記載于卷五.

40) 나만감, 『병자록』, 記載于卷三.

41) 나만감, 『병자록』, 記江都事.

미쳤으며 패연적으로 전투력에 영향을 미쳤다.

## 2) 전쟁의 영향

이 전쟁의 직접적 영향은 자연 침략의 대상이었던 조선에 미쳤다. 경제와 문화가 모두 엄중히 파괴되었으며 인민은 더욱 고난을 겪었다. 청군은 이르는 곳마다 마음대로 약탈하고 살해했다. 당시 친히 죽었던 자는, “서울을 분탕질하고 인민을 포로로 끌어갔으며, 부락의 인가는 대부분 불탔다”고 했으며, “시체가 도로를 덮고”, “과반수가 포로가 되었다”<sup>42)</sup>고 했다. 청은 또 조선에게 은을 내고 속례(賸買)하도록 강요했고, “그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사족(土族)이나 명인(名人)의 부모 처자 등은 가격이 심지어 수백 수천 량이나 되었다. 그 돈을 구하지 못해 사람들은 모두 절망했으며 울음소리가 길을 채웠다. 그 중 친척도 없는 사람은 단지 국가에서 조만간 사 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날마다 울면서 관외(慄外)로 호소하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sup>43)</sup> 또 화약에 근거하여 이후 청군이 정벌을 할 때마다 조선에서 병사를 모집하며 그것도 한 차례에 12,500명이나 되었다<sup>44)</sup>. 전쟁은 생산을 엄중히 파괴하였다. 본래 소를 생산하던 조선은 전후 농사지을 소가 없어 봄고까지 가서 소를 사 와야 할 형편이었다. 동시에 전쟁은 농사의 시기를 늦춰게 하여 농업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거기에는 전후 조선에는 자연재해가 겹쳐 어떤 도(道) 내에서는 “모두 사망하여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sup>45)</sup> 정도였다. 이와 같은 상황下에서 조선이 매년 청에 진헌할 물품은 전쟁 전보다 대폭 증가되었다<sup>46)</sup>. 인민의 부담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 있다. 청이 입관한 후에는 조선에 모병을 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지 연포 15필만 내면 그만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 모두 군대로 가기를 원했다”<sup>47)</sup>. 15 필의 연포를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것이다. 인민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 전쟁은 이처럼 인류가 세밀 두려워해야 할 재난인 것이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역시 중국 땅면에 있었다. 남한산성 보위전 실패의 직결적 결과는 조선이 이로부터 명의 번방(藩邦)으로부터 청의 신하국으로 바뀌어 완전히 청의 통제를 받게 된 사실이다. 이것은 원래 조명(朝明)연합이 청과 대립하던 구도에서 조청(朝淸)연합이 명과 대격하는 구도로 바뀌게 함으로써 명과 청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부터 중국 내전의 형세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42) 나만갑,『행자록』卷五後日羅。

43) 「滿翰錄」卷1, 정축 원4월 24일.

44) 「海關狀冊」10略.

45) 「조선이조실록」, 인조, 16년 8월.

46) 「조선이조실록」의 기계에 의하면, 1627년부터 시작하여 조선이 매년 청에 전상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雜色綢緞 600필, 白苧布 300필, 白牽 400필, 麗色木綢 2000필, 玳瑁緞 500필, 豹皮 50장, 木櫛皮  
300장, 青垂皮 100장, 露華緞 500필, 白綢緞 1000필, 彩花帛 30장, 花紋帛 50장, 龍席 1장, 蝶刀 8把, 小  
刀 8把, 丹木 300근, 胡楂 黃粟 火薑 綢緞 各 10斗, 干糉 50필, 全蠶 10箱, 天產省舌茶 各 50封(인조 14  
년 2월), 「청태조실록」에는 남한산성 전투 후 청이 조선에 요구한 매년 전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  
이 기재되어 있다. 黃金 100량, 白銀 1000량, 木牛角 200對, 豹皮 100張, 雙皮 100장, 狐 1000只, 木櫛皮  
400장, 青垂皮 300장, 花緞 10斗, 獵刀 25口, 頭刀 20口, 丹木 200근, 大紙 1000張, 小紙 1500張, 五爪龍  
絲 4頃, 各種花緞 40張, 白苧布 300필, 各色綢緞 2000필, 各色綢緞 400필, 各色綢緞 1000필, 布 1400  
필, 紗 10000只(권33 31쪽). 「조선이조실록」, 인조 15년 경월의 기록 역시 동일하다. 1 항목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종류나 수량에 있어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47) 「조선이조실록」, 壴公 5년 3월.

이 전쟁의 결과를 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과 대적하면서 후방을 견제하지 않아도 되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고, 동시에 조선으로부터 물자와 병력을 얻을 수 있어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이다. 전쟁 후 조선은 매년 화약의 규정에 의해 청에 금은과 같은 귀중품을 포함해 허다한 물품을 공물로 진상해야 했고 이 외에도 각종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청의 불시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다. 예를 들면 1639년(숙정 12년) 겨울에 청국(青竹)과 생강 및 비 종자를 심양에 보냈으며, 다음 해 겨울 청의 요청에 의해 다시 비 종자 50석을 봉황성에 보냈다. 2월에는 청인이 마춘문전(馬春屯田)에 와서 조선에 인마, 양묘(糧料), 농량(農糧), 종자 등 곡식 3400여 석을 요구했다. 연말에는 700여 낭에 해당하는 온그릇을 만들어 심양에 보냈다. 1641년(숙정 14년) 청은 조선에 육진(六鎮)에 비축한 곡식 450석을 경하창(慶河昌) 부락에 나누어 줄 것을 명했다. 1645년(순치 2년) 청은 조선에 원정미 20만석을 요구했는데 조선에서는 격심한 논쟁을 거쳤지만 결국 10만석을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개 이런 식이었다. 특히 청은 매번 대명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원정에 필요한 명사와 양식 선박과 화포의 제조를 조선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청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1641년에 청군이 금주(錦州)를 포위 공격하할 때, 10월 11일(9월 7일) 한 차례 전투에서 멀군의 사방자가 아주 많았는데 이 중 7~80%가 조선군의 포화에 맞아 사망했다<sup>48)</sup>. 반대로 명은 이런 방면에서 조선의 저지를 입었다. 요동의 해상에서 활동하던 해군은 다시는 조선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특히 국면 전체를 놓고 볼 때 청을 동서에서 협격하던 전략적 우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들은 전략상이든 전술상이든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청의 역량을 증대시킨 반면 명의 역량을 감소시켰다. 이런 식으로 명청 대적의 패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조선과 청의 화약에 의거해 패전국 조선 세자 이왕(李王)과 왕자 이호(李潤)가 청군을 따라 심양으로 갔는데, 이들은 거기서 8년 동안이나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이 친히 보고 겪은 일이 하다했다. 특히 청에 대한 각방면의 상황 및 명청 교전의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들을 수해했던 대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이런 사실들을 날마다 기록해 두었는데, 이 자료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藩臣錄』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이 시기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극히 진귀한 1차자료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기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직접 보고 들은 것이므로 그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 둘째, 이왕(李王) 등이 비록 인질이었지만 그 활동범위는 비교적 넓었다. 그들의 교류 대상은 청 통치권단의 상층이었다. 그들 또한 어느 정도 조선왕정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다한 군국대사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어 기술된 내용이 풍부하고 자세하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명, 청, 조선의 관(官)에서 편찬된 사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세째, 명청 교전에 대해 이왕(李王) 등은 제3자로서 객관적 입장에 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 기술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다. 따라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명, 청의 관에서 편찬한 사서와 대조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순치(順治) 계통(繼統)의 문제에서『실관록』에 기재된 제왕(諸王)회의의 토론 상황은 단지『清實錄』보다 상세한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어떤 세부적인 절에서는 주요 인물의 태도와 작용을 능히 읽어낼 수 있어 이 시기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다. 후세에 유익한 명향을 남긴 이 진귀한 자료는 남한산성 전투의 예상치 못한 하나의 결과라고,

48) 「조선미조실록」 인조, 10년 9월.

남한산성 전투의 역사는 중한 양국 우호관계의 깊고 길은 연원을 말해준다. 이러한 우호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바로 여기에 중한관계사상의 한 개별적 사건을 연구하는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 역사적 회고에서 계시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중한 우호관계의 지속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에 대한 論評

■ 文 豐(단국대)

陳潤교수의 발표문을 간명하게 읽었다. 특히 남한산성 전투의 실상은 국내 학자들의 견해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저자는 진교수의 발표문을 따라가면서 소신의 일관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 1. 전쟁전 明·清·朝鮮의 형세

양국 삼방구도의 형성 - 조선시대의 외교를 대개 事大交隣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리하고 있다. 즉 사대는 명과의 관계요 교민은 북방족과의 관계인 것이다.

명과의 사대관계는 명 태조 주원장이 “今後 俊國事務 赤廳自爲”라고 했듯이 内政이나 外交에 근본적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自主的 조·명 관계였으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奉主的·從屬的 관계는 아니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우호적이고 機禮的인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대명 외교는 문화적, 정치적, 實利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명은 북방족을 통제하는 등의 군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있다.

한편 북방족에 대한 교민들은 말 그대로의 뜻 보다는 오히려 명과 조선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방족은 유목생활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서 미개상태였으며 이들은 항상 경제적,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小中華的 차지의 기미정책이 교민정책으로 표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명 양국의 대북방정책은 기미정책으로 그 軌를 같이 하는 것이며 이는 유목을 대봉으로 하고 있는 북방족에 대한 일관된 통제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제책은 王 武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족에 대한 분열정책이기도 하다. 즉 이들 북방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한 번 단결하면 남녀노소가 모두 戰士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단결하면 정착민족은 담할 수 없어 분열상태로 두어 통제하는 정책이 기미정책인 것이다.

양국 삼방의 형세 - 조선과 명은 국가 초기에는 女眞·載贍 등의 문제로 다소 거북한 면이 있었으나 명 태조 주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양국은 實利를 추구하는 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대북방정책에 있어서도 양국은 기미정책을 써서 통제하고 그대로 북방족의 횡포가 심하면 적극적으로 응징하여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세기말 王辰倭亂을 계기로 양국이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극하게 되어 마침내 북방족이 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피해가 심했던 조선은 패란전에 여러 차례의 土禍를 겪는 과정에서 대의명분을 존중하는 土林派가 승리하여 僧亂前에는 이들이 정치일선에 나서게되고 명과의 외교면에서도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명분을 추구하는 외교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와중에서 폐와의 전쟁이 있었고 조·명 연합군이倭亂을 극복하고 난 후에는 명에 대한 고마움을 대의명분으로 표현하여 명에 대하여는 “再造之

思”이 있다고하여 지배층이든 아니든간에 대의명분을 앞세우게 되었다. 이 사이 북방족은 통제의 굴레를 벗어나 “누부타치”에 의하여 단결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後金을 건국하여 조선과 명에 물리적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조선에서는 光海君이 와위에 나아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대후금 전쟁에 군대를 내어주기도 하는 한편 후금의 물리적 압력을 최적시키기 위해 후금으로 사신을 보내는 등 明·후금에 대한 等距離적이고 윤리적인 외교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은 조·명 양국의 이해관계에서 공동방위력을 발휘하여 대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배층은 朝野를 막론하고 모두가 대의명분을 존중하는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律後金親謀明을 앞세워 정해군 정권을 공격했고 마침내는 왕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것이 1623년에 西人们이 주도한 仁祖反正인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외교정책은 實利外交에서 한데 후금·명에 대한 等距離외교, 그리고 인조 태무라는 문자 그대로 인간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대명 명분외교로 치닫게 됨으로써 후금의 침입을 물리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남한선성 전투

전쟁의 폭발 - 광해군의 대북정책을 내어놓고 정권을 장악한 인조 서인정권은 자연 대후금 강경책을 표방하게 되었고 명장 毛文龍 등에 시달리면서도 鞏固政策을 강행하였다. 인조정권은 반정 후의 후유증과 해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는 물론 경제의 복구 및 군사력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군사면에 있어서는 폐란 때 10여일만에 해군이 서울까지 진격해온 경험에 비추어 首都圈 중심의 방어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계획이 실패로 되기 전에 반정중인 사이에 품이 생겨 인조2년(1624)에 李麟의 蔽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다시 5년에 이른바 후금이 침입해온 丁卯胡亂을 맞게 되었다. 이때 인조는 북방족이 물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일단 강화도로 과하였다. 그러나 후금도 건국 이후 만주 일대마저도 자기 수중에 놓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국은 손쉽게 和約을 이끌어내었다. 다시 和約의 글자를 보면, ① 후금군은 平山을 넘지 말 것 ② 豊約 후 후금은 즉시 철병할 것 ③ 후금은 철병 후 알록강을 넘지 말 것 ④ 양국은 兄弟國이다 ⑤ 회야 후 明과 敵對하지 않을 것 등이었다. 이후 후금은 만주 전역을 거의 통합하고 만리장성 넘어 북경부근을 공략하면서 丁卯年에 냈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전교수는 후금이 조선의 虛約을 實했다고 하나 조선은 위약한 것이 아닌 것 같다. 후금은 약조를 지키지 않고 알록강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犯鶻·剽盜·明의 폐잔군을 용정한다는 명목으로 부단히 위약하다가 마침내 인조10년(1632)경에는 과거의 “兄弟之盟”에서 “君臣之義”를 강요하는가 하면 截幣도 黃金 1萬兩, 五色布 10만동(한동은 50銖), 白金(銀) 1만량, 白織布 1만동, 正兵 3만 戰馬 3천필 등 마치 전승국이 폐전국에게 요구하는 배상금같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요구를 해왔다. 물론 외교라는 것은 힘이 결의라고 하지만 이같은 일방적인 통고는 기왕의 행약을 후금이 위약한 것인지 조선이 위약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정부와 후금과는 더욱 소원해지고 민심은 충통해질 수밖에 없어 대후금 亂和에 대한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후금은 조선에서 보낸 使臣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의 침폐를 부리다가 인조14년 4월에는 국호를 “淸”이라 고치고 대중이 황제에 오르는 동시에 조선에 “군신지의”를 강요하였다. 조선은 명과의 대의명분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이에 청은 그래도 근20만군으로 조선에 침입해온 것이다. 이렇게하여 별

자호란이 일어나고 남한산성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전투양상은 이미 진교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거나와 호란 실패의 원인 및 가지만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 북방족이 중국 중원을 차지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를 자기 수중에 완전히 넣어야 한다. 따라서 후금(청)이 무리한 여러 요구를 해온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서 중국 본토로 진출하는데 “後顧의 豪慮”를 없애기 위한 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역사적으로 과거 북방족인 象와 鞏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차지하는데 실패하였고 元과 清같이 완전히 장악한 나라는 중국을 통일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둘째 : 병자호란의 배후는 한마디로 방위전략의 실패에 있었다. 앞서 말하였듯이 조선 정부는 예란과 정묘호란의 고훈을 거울삼아 수도권 방위에 힘을 기울였다. 즉, 훈련도감의 강화라던가, 총융청, 수여첨의 설치 및 어영군의 강화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북방족에 대한 西北路의 방위는 山城충심의 편제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清野체라고 한다.

이는 피난을 될지 모르나 적을 밤어할 수 있는 편제는 아니었다. 당시 西北防衛는 都体察使, 都元帥 중심체제인 麗州(白馬山城) - 妥州(淸安감사) - 平壤(淸日山城- 평양감사) - 黄州(正方山城- 都元帥) - 平山(長水山坡 · 都体察使) 등으로 편제되어 있어 길을 막아 驛 등을 설정하고 적을 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완절할 수 없었다.

셋째 : 數의 인력이다. 당시는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령 가장 많은 수가 짐질되어 있었던 白馬山城이 3000여, 남한산성이 12,000여 밖에 없었으니 아무리 정예조이다 하더라도 근 20만군을 상대로 작전을 펼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예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 20만 일본군과 전투다운 전투를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듬해 明年 5만이 투입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官·義兵이 일어났다고 하나 몇백명 정도의 인원으로 20만의 밤어망을 풀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넷째 : 국론의 분열이다. 즉 척화파와 주화파 모두가 나라를 위한 논리에는 틀림이 없으나 하나는 名分論者이고 하나는 實利論者인데 결국 당시의 분위기는 척화파인 名分論者가 장악하고 있었으나 청파의 고설에서는 주화파인 실리론자가 승리함으로써 일단 호란이 마무리지어진 것이다.

다섯째 : 전쟁에 나선 지휘관이 武將이 아니라 文臣 위주였으며 여기에다 반점 초기부터 반정공신 사이에 兵權을 중심한 갈등이 호란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다. 즉 体察使系와 鐵鈸兵權掌작과 사이에 의견의 대립 등이다.

전쟁의 영향 - 물론 결과적으로는 진교수의 말과 같이 명의 우방으로부터 청에 대한 事大로 바뀐것이며 병자호란때의 항복조건에 따라 각종 경제적 침구는 물론 명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동원을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분위기는 척화파인 명분론자가 정국을 주도했기 때문에 명군파의 싸움에도 철을 뛰여 싸우지는 않았다. 진교수의 말은 鐵州공격 때 명군의 7~80%가 조선군의 포화에 맞아 숨졌다고 하나 이는 설득에서 보는 바와 같이 “請人疑義國聽手輒不力 露人脅道…”하기 때문에 내용했던 것이고 이 사정을 알려없는 漢人은 원한을 품었겠으나 명에 대한 명분을 조선정부가 저버린 것은 아니었다.

이라한 척화론은 韓明論으로 발전하고 호란후 宋時烈 등의 山林派가 정치일선에 나오면서 北伐論으로까지 비약된 것이다. 따라서 仁祖 다음의 恽宗은 이 복별론을 바탕으로

軍備擴充에 전력했고 남한산성의 守禦廳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廣州가 留守府로 되면서 수여사를 留守가 겸하게 되고 京廳이 폐지되자 여기에 防禦廳을 두어 敵路를 遷截하려 했다. 그러나 南漢支 등에 의하면 軍官이나 軍王이 거의 納末·納布로 대체되었고 이후 外敵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망 활용의 途와 實은 알 수가 없다.

끝으로 몇가지 진교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몇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 조선과 명과의 우호관계는 초기에 있어서 文眞, 敏第, 朝鮮國王의 家系 문제등으로 하여 마찰이 심하여 金印·誥命帖을 받지 못하다가 명 태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주어져 이 때부터 명과는 거의 마찰이 없었다.

둘째 : 江華檢察使 全慶徵을 金自點의 아들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김자점의 아들이 아니고 당시 도체찰사를 맡고 있던 金鑑의 아들이다.

셋째 : 이는 토큰자가 이 방면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교수에게 질문을 해야겠다. 즉 진교수가 제시한 “瀋館錄”은 우리측에서 알고있는 世子侍講院에서 죽은 “瀋陽日記”가 아닌지? 만약 같은것이라면 1930년대 日人에 의하여 출판되었고 현재는 번역도 되었으며 규장각에 그 원본인 필사본과 이를 정리한 諸本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설양일기”가 아니라면 “설관록”과의 비교연구를 빼서 당시의 청의 경제를 규명해 볼 수 있는 중요 사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측에는 당시 世子侍講院에서 옮긴 “瀋陽狀稿”도 출판되어 있어 저간의 사정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연구

발표자 : 全 實 三(신구전문대)

논평자 : 金 相 鍾(한국교원대)

#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연구

全 寶 三(新丘專門大 教授)

1. 머리말
2. 민족정신의 배경
  - 1) 역사적배경
  - 2) 문화적배경
3. 민족정신의 특성
  - 1) 벽암각성선사와 호국정신
  - 2) 개원사의 8도사찰과 호국정신
  - 3) 선비절신과 삼학사
4. 현대적 의의
5. 맺는말

## 1. 머리말

남한산성은 수도권의 배후도시 즉 한강을 중심으로 그 남쪽인 강남의 서초, 강남, 강동, 송파구와 경기도의 성남, 하남, 광주를 평통처럼 두르고 한가운데에 고원지대의 문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민의 역사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자연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를 찾는 수도권의 수많은 시민들은 남한산성의 현재의 모습에서 그 역사의 현장인 백제문화의 성산으로서나, 조선왕조와 청나라의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을 떠올리기보다는 자연공원으로서의 산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남한산성의 옛 모습을 찾아보면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기리던 은왕창과 은왕묘를 모신 백제의 성산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친관하고 아름답고 섬세했던 백제 400년간의 문화의 중심지로 서의 남한산성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도 남한산성의 숭열전(崇烈殿;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2호)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풀력 9월 5일 추모제를 열고 있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앞산의 개념인 남한산을 성산으로 하여 중요시한 여러 혼획을 남한산성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위상속에서 남한산성의 축성은 인조 4년(1626)에 백암 각성선사로 하여금 조선 8도 도총첩으로 임명 하여 오늘의 석성으로 2년 5개월의 역사 끝에 완성하였다. 인조 14년(1636)에 참나라가 침입함에 인조대왕은 남한산성에 몽진하여 47일 동안 항전을 두려 하던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 자존심의 상징적 장소가 남한산성이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남한산성에는 수어정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곳이다.

남한산성은 때마다 민족경기를 불러 일으켜 민족주체의식을 심화 시켜 나간 민족 자존의 땅 남한산성임을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에 관한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수없이 나타나 있는 것<sup>1)</sup>만 보아도 남한산성은 우리 민족사에서 어떠한 위치였는가 하는 문제는 명확하여진다.

본 논고에는 이러한 남한산성 관계의 문헌 기록<sup>2)</sup>과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나라사랑의 도량인 남한산성의 호국 의승군들의 활약과 그들이 이룩한 조선판도사찰의 전립배경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백암 각성선사의 호국 의지와 조선 8도 사찰이 산성에 세워짐으로 조선왕조 270년간 산성 충번제도가 유지 되면서 불교의 호국 도량의 역할을 수행한 남한산성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여 민족의 자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 선비 정신의 고향으로 남한산성의 현蹟사와 내력과 그 민족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의 소중함과 우리 선인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가치관 혼란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오늘의 좋은 지혜의 생터 역할을 하리라 본다.

1) 『선조실록』으로 부터 『고종실록』에 이르기 까지 270년간 남한산성에 관한 기록은 1400쪽 이상 중요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와 남한산성과의 특수관계임을 증명하는 사료가 된다.

2) 1) 朝鮮王朝實錄 2) 南漢莊/洪武朝 補 3) 韓監修/申景福 補(英祖朝) 4) 梵字彙/正祖 金撰(1799) 5) 韓國 崇禎元年/崔相老 補(1779) 6) 韓國佛教史學大事典/趙明基 補(1991) 7) 韓國寺刹日錄/文化土壤部 宗務室 補(1991)

## 2. 민족정신의 배경

### 1) 역사적 배경

한강은 한반도의 하리 부문을 횡으로 흐르는 큰강인 만큼 옛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배권을 다루던 곳이다. 그러므로 한강 유역을 점령한 나라는 면성하였고 빼앗긴 나라는 쇠퇴하였다. 성남은 남한산성의 남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산성의 청량산(淸涼山)과 청계산(淸溪山) 사이에 한강의 판원(樊川)을 지원으로 한 땅이었다.

성남은 탄천변을 중심으로 선사시대와 삼한시대 즉 유사 이전의 시대는 고인들을 끼시 한 문화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 최초로 백제의 시조 은조왕 14년(BC 5년)에 한반도의 서남쪽에 천도(遷都)의 도읍지로 정한 하남 위례성(勿踰城)의 땅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심제(十濟)에서 나라 이름을 백제라 개칭한 땅이었다. 남한산성은 백제의 전성기 약 400년 간의 중심 무대였다. 남한산성에는 온조대왕을 기리는 온왕청과 온왕묘가 있었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위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문무왕 12년에 당병(唐兵)을 막기 위하여 지금의 남한산 동봉(東峰)에 성을 구축하여 주장성, 또는 일장성이라 불렸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오늘의 석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왕조 선조 28년(1555)에 축조를 서두르기 시작하였고, 임진왜란을 겪은 후 산성의 요새화는 조정의 큰 역사(舊事)의 하나였다. 서산대사도 승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에 오른 기록을 조선왕조실록<sup>3)</sup>은 남기고 있다. 그후 광해군 13년(1612)에 다시 증축하였고, 인조반정의 공신복을 두고 2등 공신에 책록(策錄)이 된 이괄은 난(1624)을 일으키니 인조는 황급히 공주로 피신하는 곤욕을 치르면서 남한산성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인조 4년(1626) 수어사 이서(李瑞)에게 명하여 다시 개축하였고, 수어청을 두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고, 개원사에는 승군 본영을 두었다. 여기 남한산성 개원사를 본영으로 하여 벽암 각성선사가 조선 8도 도총섭으로 전국의 승려들을 관찰하여 남한산성의 수축의 일부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8도의 사찰이 전립되었고, 호국 와승군의 정신적 도량이 되었다. 산성이 완공된 후에도 승려 370여명으로 승군을 조직하여 산성의 수비를 책임졌으며,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개화의 풀결에 남한산성의 승번체(僧番體)가 폐지될 때까지 270년간 지속된 제도였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호국 승군들의 의지가 살아있는 땅이었다.

그리고 현절사를 중심으로 한 삼학사의 정신은 조선의 충절을 대표하는 선비정신의 요람이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삼학사의 고귀한 애국심과 충절을 되새길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민족사의 우뚝솟은 준봉이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둘, 세, 네의 3문에 문루(門樓)를 세우고, 4방에 장대를 축조. 그리고 봉암외성(峰巖外城), 한봉외성(漢峰外城), 신남성(新南城), 포루(砲樓), 돈대(墩臺), 암문(暗門) 등이 증축되었다. 성벽주위는 8km의 전고한 석성이 되었다.

중앙의 별어체계는 오군영계였다. 즉 서울 도성에 혼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이 있고, 수도 외곽에 수어청과 총융청을 두어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대비하였다. 남한산성은 수어청을 두어 관리하게 되었다. 수어청은 반점윤(半箭尹)의 상징이었고, 수어사는 관서급 중신이 맡았

3) 《重祖實錄》 卷 80(29年 9月 12日條).

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외적의 침입과, 왕권의 강화를 위한 나라의 방위를 꼽고히 하게 되었다. 배정의식을 심어 민족정기를 불러일으키며 민족주체의식을 심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민족정기를 더욱 신장시켜 폐체의 철망을 딛고, 더욱 빛나는 문화 전통을 창출하는 역사의 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은 근세에 까지 이어져서 조선왕조의 구 한말에는 의병운동<sup>4)</sup> (乙未義兵; 丙午義兵; 丁未義兵 등)의 산실로서 남한산성의 지세를 활용하여 구국운동의 산실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19년 가비 만세 독립운동 시에도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3·1 운동의 햇불을 높이든 땅이었다. 민족 자존의 땅 남한산성 입을 우리는 역사에서 옮겨 배워야 한다.

## 2) 문화적 배경

남한산성은 고원지대로서 천연적인 출창한 수원과 수도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송림, 기이한 바위와 모습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져다 준다. 평균 높이가 400~450미터의 고원 분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연마과 굴짜기로 형성되어 있어 천연적인 요새지이다. 서울 보다 항상 4~5도가 낮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산성은 천연적인 자연환경과 더불어 백제의 온왕청을 위치하여 수어장대등 많은 문화재들이 국가의 특별 관리로 잘 관리 되다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산성의 습면제도를 폐지하면서 70년간 관리의 부재로 인해여 많은 문화재들이 파손되어 같다. 더우기 일제는 1907년 8월 1일 조선인의 화약과 무기를 수거하면서 남한산성의 많은 문화유적들을 화약의 쟁속에 물에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마저 끊어버리고 말았다. 더나아가 남한산성은 치욕적인 땅이요, 폐체의 땅이라는 차과감에 젖게 하였다. 그러므로 쇠민지의 사관을 철저하게 심어 놓았다. 이제 역사의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여기 남한산성을 옛조상들의 생활증축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관찰, 탐구할 수 있는 민족정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국민 교육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길어 낮이 짙은데 반하여, 남한산은 산은 높으나 끝이 깊지 않으므로 낮이 길다하여 일장산(日長山) 또는 주장산(豊長山)이라 불렸다. 인조 2년(1624)에 당시 수어사 이서(李瑞)가 책임을 지고, 축성의 공사 책임은 판선교도총설(判憲敎都摠設)으로 봉은사의 벽암 각성선사를 조선 8도 도총설으로 임명하여 8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진행하였다. 1626년에 현재의 남한산성의 석성의 모습을 완성하니 2년 5개월이의 대역사였다. 이때의 석성의 전 둘레가 6,277보(步)이고 성가파가 1,700첩(塊)이며, 사방에 성문을 만들고 16개의 비밀문(秘密門)이 있었다. 그리고 성 안에는 관아(官衙)와 행궁(行宮)이 있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4개의 장대(將臺)가 있었고, 전부터 있던 맹월사와 육경사 외에 7개의 사찰을 새로 지어 4장대의 좌우에 배치 하였고 개원사에 승도첨(僧徒廳)을 두어 승군을 총괄 하였다. 그 외에도 웅성(瓊城) 성곽(城郭) 우물, 생동의 시설을 갖추었다. 남한산성 안의 시설들의 확장은 민조때부터 순조때까지 계속되었다.

임금이 거처할 행궁은 상궐이 73칸(間) 빙, 하궐이 154칸이었다. 숙종 14년(1688)에 재석

4) 麗州의 乙未義兵調査의史料는 梧州麗訖와 최근의 資料인 《내가 사는 광주》(梧州文化院, 1993.12.30.) 資料 韓熙.

5) 남한산성의 습면제는 1884년까지 즉 270년간 지속되었고, 그 이후 남한산성은 경기도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57호로 지적하면서 다시 관리사무소가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6) 인조 2년(1624) 3월에 착공하여 민조 4년(1635) 7월에 완공하였다.

당(在禮堂)을. 숙종 37년(1711)에는 종묘(宗廟)를 봉안하기 위하여 좌전(左殿)을 세우고, 남문 안에는 사직을 모실 우설(右室)을 세웠다. 정조 22년(1798)에는 행궁(行宮) 바깥 삼문(三門)의 상루(上樓)인 남한루(南漢樓)를 세웠었다. 객관(客廳)인 인화관(人和館)은 인조 2년(1624)에 세운 것인데 숙조 29년(1829)에 수리되었다.

이상은 궁궐(宮室)에 따른 시설들이고, 관아 건물로는 좌승당(坐勝堂)-일장각(日長閣)-수어정(守御廳)-제승헌(制勝軒)을 비롯하여 군사 기관으로는 비장첨(裨將廳)-교련관청(敎練官廳)-기마관청(旗韓官廳) 등을 위시한 20여개의 건물과 종자(鐘闕)-마광(馬廊)-뇌육(牢獄;감옥)-성황당(城隍堂)-여단(驛壇) 등이 들어섰다.

이 산성의 수비는 처음에는 총융정(摠戎廳)에서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자 수어정이 따로 설치되었고, 여기에는 전·좌·중·우·후(前左中右後)의 5명(盤)이 소속되었는데, 전영장(前營將)은 남장대에, 중영장은 북장대에, 후영장은 동장대에, 우영장은 서장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남문을 지화문(至和門), 동문을 좌익문(左翼門), 북문을 전승문(全勝門), 서문을 우익문(右翼門)이라 하였다.

남한산성에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인 수어장대, 제2호인 숭연전, 제3호인 청광당, 제4호인 현절사, 제5호인 침례정, 제6호인 연무관이 있고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4호인 재수당, 제15호인 장경사가 있고,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인 망월사지와 제119호인 개원사지가 있다. 그리고 영월정, 영춘정,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장경사, 국청사, 개원사, 망월사 등과 보(堡), 누(壘), 몬대(墩臺) 등이다.

현존하는 문화재 보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화재를 더 많이 간직한 남한산성이다. 민족의 자존이 숨쉬고, 민족 문화의 자긍심을 심어가기 위하여서도 이 땅의 역사를 기록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무신을, 아니 우리들의 부지를 일깨워 다시는 역사의 암흑시대를 만들지 말고 민족 자존의 역사와 문화를 남한산성에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도량으로 가꾸어야 한다.

### III. 민족정신의 특성

#### 1) 백암 각성선사와 호국정신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을 살피 때 우리는 먼저 호국정신의 고향으로 남한산성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조선왕조의 배불정책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한 불교는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호국의 정신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남한산성이다. 남한산성의 축성을 위하여 조선의 8도 승려들이 동원되었고, 축성의 대임을 완성한 이들도 승려들이었다는 기록은 여러 가지 자료기가 확인시켜주고 있다. 원래 여기 남한산에는 신라시대의 사찰인 망월사(望月寺)와 육정사(玉井寺)가 있었다. 인조 2년(1624년)에 이월(李月)의 난을 겪은 조종은 대대적인 축성을 시작하면서 승려들이 거처할 사찰을 건립하였다. 이때에 건립된 사찰이 남한산성 내에 있는 망월사와 육정사를 제외한 7개의 사찰(국청사, 천주사, 남단사, 한홍사, 장경사, 개원사, 통림사)이었다. 그러므로 개원사를 본영으로 하고, 8개의 사찰은 4장대를 중심으로 좌우에 2개씩 사찰이 배치되어 조

7) 《仁經實錄》과 洪教謨 楊의 《南韓誌》의 記錄 참조.

8) 洪教謨 楊의 《南韓誌》 卷3.

선 8도의 부처님 원력이 충질결 되었다. 남한산성 내에 있는 사찰은 조선 8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모두 남한산성의 축성에 참여한 승려들이 세운 사찰들이다. 그러므로 진충보국(靈忠報國)하는 호국의 사찰이 되어 나라사람의 실천도량이 되었다. 사명(寺名)도 호국파 품계가 있는 국정, 천주, 한홍 남단사등 이었다. 이 모든 조선땅을 부처님의 힘으로 하나로 모았고, 실천에 옮긴 중심 인물은 백암 각성선사로서 조선 8도 도총설이었다.

백암 각성선사는 조선왕조의 3대 팔도도총설(八道都摠攝)으로 임명되어 남한산성의 축성의 대임을 완성한 호국 승군장이다. 나이가 병자호관 시 호국승군인 항마군(韓蠻軍)을 조직한 전술가요, 승군을 이끈 유통장이기도 하였다. 백암 각성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밝힌 본인의 즐고(指稿)<sup>11)</sup>가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그의 중요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암 각성선사는 선조 8년(1575) 12월 충북 보은의 서삼산(西三山)에서 김제 김씨인 아버지와 조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字)는 장원(讓圓)이며, 법명(法名)은 각성(覺性)이고, 스스로 지은 호(號)가 백암(碧巖)이다. 어느날 밤 어머니 조씨가 백발 노인으로부터 옛 거울(古鏡)을 받아 자신은 꿈을 꾸 때몽으로 그를 화임(懶狂)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점을 살필 때 각성은 양가(良家)와 정성어린 부모 술하에서 태어났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기도 하였다.

각성은 태어날 때부터 날달라서, ‘생김새가 비범(風骨異常)하고 뛰어난 얼굴(容貌辭美)로 눈동자는 빛났다(星眸如電)’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 태고난 자질(天資)이 출중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효심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백암은 10살 때 뜻을 세워 보은군 내의 화산(華山)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 설목장노(雪默長老)를 스승삼아 계자가 되었다. 이어 14살 때는 머리를 깎고(剃髮) 불도에 정식으로 입문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보경(寶鏡)대사로부터 받았으며 그후 불경을 공부하였다. 후날 그의 스승이 된 부휴선사가 화산에 왔었다. 그런데 한눈에 백암이 불법의 진수를 담을 수 있는 훌륭한 그릇(法器)임을 알아차렸다고 전한다. 그 뒤로 백암은 부휴선사를 좋아 스승으로 모셨다. 속리산 등 여러 평산을 두루 찾았다며 스승을 늘 그림자처럼(形影相隨) 따라 다녔고, 경, 융, 론 삼장을 널리 열람하였다. 그리고 선조 25년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역시 스승을 모시고 강점(技劍)하여 명나라 장수(班將)와 함께 특히 해전(海戰)<sup>12)</sup>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전투에 분연히 활약하여 큰 전과를 올리니 명나라 장수들도 각성의 혜전에 뛰어난 전술과 인품에 단복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가야산에 있을 때 백암이 스승 모시기에 정성스럽게 계자의 도리를 다하는지라, 사명(泗溟)도 줄곧 “훌륭한 시자(待者)”를 두었다고 축하해 마지 않았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 이종성(李宗城)도 해인사를 치나갈 때, 백암의 모습이 으뜸감(相貌鬼偉)을 보고 부휴선사에게 “백학(伯樂)의 마굿간에는 준마(駿馬)의 망마지만 말을 빼, 선사의 시자(待者)는 천리마와 같은 청년”<sup>13)</sup>이라고 부러워했으며, 또 부휴와 각성의 사제 관계를 자기 나라의 불도정(佛圖證)과 도안(道安) 관계에 비유해 친탄묘한 일도 있다. 백암 각성은 스승 모시는 일에 철저하였고 그 인품이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은 부휴와 각성의 스승과 계자 관계를 대불(大佛), 소불(小佛)이라고 하며 존경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정해군은 백암 각성을 봉온사(奉恩寺)에 머물게 하고 관선교도총설(刊禪敎都摠攝)의 직함

11) 全寶三, 〈朝臺覺性禪師의生涯와思想〉 - 《城南文化研究》 창간호, pp.175~199, 城南文化院, 1994. 5.  
10) 李繼和, 《朝鮮佛教通史》, p.502.

11) “伯樂之臣多勝利禪師待者之子孫”

12) “顯證道安復見於海外”라고 부휴와 각성 사제 관계를 친탄한 것이다.

을 내렸으며, 많은 학사품도 내리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대부와 고우를 갖게 되었다.

벽암 각성선사는 인조 2년(1624.7.28.)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팔도도총설이라는 중요한 직책, 즉 승군대장으로 산성 축성의 대임을 전적으로 책임<sup>13)</sup>지게 되었다. 조선 팔도에서 소집된 의승군은 성내의 8사에 배치되고 망월사(望月寺) 등 8사(玉井寺, 開元寺, 圓清寺, 天柱寺, 南隱寺, 張經寺, 東林寺, 廣興寺)에는 모두 병기창과 화약고 그리고 군량비를 저 장<sup>14)</sup>하였다. 그리고 산성내의 동, 서, 남, 북 네 불무리에 장대를 설치하고 그 장대의 좌, 우에 사찰을 배치하였고, 승군 본영 사찰로 개원사에서 모든 지휘 통솔을 하였다. 벽암 각 성은 의승군 대장으로서 전국 의승군을 지휘 감독하여 2년 5개월 만에 완전히 축성의 대 임을 마쳤다. 남한산성은 수도권 호위에 적절한 산성 요새(要塞)였고 국가 유사시를 대비 하는 양병훈련장(棗兵訓練場)이 되었다. 그리고 벽암 각성이 영도(領導)하던 의승군은 이 때부터 수도 방위를 위한 삼비 정예군으로서 면목을 갖추어 조선왕조 270년 간의 승번제를 유지 발전 시켰다.

그리고 진충호국(盡忠護國)하는 불교도의 빛나는 애국정신을 유품없이 말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관군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축성역사(築城役事)를 원신적 노력으 로 훌륭히 완성<sup>15)</sup>한 각성은 나라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으므로 왕으로부터 특별한 치하를 받았다. 즉 인조 4년(1626) 11월에 받은 사령(辭令)<sup>16)</sup>에 의하면 '報應闡教圓明國—都大禪師'라는 시호(諡號)와 가사(獎狀)와 발우가 특별히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벽암은 남한산성을 축성·수비 경영하는 데 앞장섰고, 항마군을 조직하여 쓰러져가는 국운을 바로 잡으려는 데 그의 충성스런 애국심과 원신적 역량은 높이 평가되었다. 각성은 1642년 해인사에 돌아와 있었던 6월에는 사명대사를 뒤이어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日本使价; 使使)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각성은 말을 달려 서울로 향하여 도중 노병(老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일본 사신의 자리를 사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명대사가 맡았던 애국적 대일 외교활동을 각성에게 맡기고자 했던 나라의 의도로 보아 각성의 애국적 역량이 뛰어났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후에는 백운산 상선암(上仙庵)에 여물렀으며, 1642년 보개산으로 들어가서 법식(法席)을 열었다. 이때 황자였던 효종은 그를 만나 화엄종지(華嚴宗旨)를 배웠다. 1645년 가을 범주사에서 둘째인 회연(熙彦)과 은거하였고, 회연이 화엄사로 가서 입적하자 그도 화엄사로 가서 지내다가 제자들에게 "도업(道業)에 힘써 국은에 보답할 것"과 "사후(死後)에 비(碑)를 세우지 말 것"<sup>17)</sup>을 유언한 뒤 입적하였다. 나이 86세요, 법랑 73세였다. 이상은 벽암 각성선사의 진충보국하는 나라사랑의 정신을 살폈다. 한국불교의 이러한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어 발전되어진 호국정신의 기본바탕에는 불교와 민족은 둘일 수 없다는 한국불교의 특성이 살아 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조선 8도의 역량이 총동원된 호국의 퍼지가 세련 역사의 땅이다. 그러므로 한국정신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곳이다.

13) 李詮和, 《朝鮮佛教通史》, p.488.

14) 景貞祖, 《南北漢山城歲晝防番錄에 대하여》 - 《佛教學報》 제1집, 1963.10.15.

15) 《仁祖實錄》 卷13, 仁祖 4년(1626) 7월 22일조 참조.

16) 宋禮 幸體寺에 現在 保存되어 있는 辭令狀 論理.

17) 범주사에 세워진 騰斗廟이 지은 비문과 화엄사의 李景肅이 지은 비문 참조.

## 2) 개원사의 8도사찰과 호국정신

남한산성 내에는 신리시대의 고찰인 망월사와 옥정사를 제외하고는 애암 각성선사에 의하여 남한산성의 축성과 수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찰들이다. 4장대를 중심으로 8개의 사찰과 승군 본영으로 개원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는 자료는 남한지(南漢誌)가 있다. 여기서 남한지의 기록을 살펴보자.

인조갑자(仁祖甲子; 1624) 성을 쌓을 때에 승 각성(覺性)으로 팔도도총첨(八道都摠撫)을 삼아 성역(城役)을 맡아 팔도의 승군을 소모(召募)하게 하고 또한 선내 각 절에 명을 내려 8도에서 무역(赴役)해 온 승군들의 공양을 지어 용리는(供餚) 일을 분장(分掌)케 하였다. 그러므로 각 사원에 비로소 주관자도의승임번(主督各道義僧立番) 및 승총(督摶)-절제(節制)-중군(中軍)-주장(主將)의 명칭이 생겼다.

무릇 선내의 아홉 절은 갑자년에 시작된 것이니 망월사(望月寺)가 가장 오래고 옥정사(玉井寺)가 다음 가며 나머지 일곱 절도 모두 새로 세운 것인데, 동림사(東林寺)가 가장 뛰어나고 영원사(靈源寺)를 또 늦게 두었다. 모두 성 지키는 일을 맡았으며, 구사(九寺)에 각각 군기(軍器)와 화약을 비축<sup>180</sup>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 ① 개원사

개원사의 사지(史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개원사는 인조 2년(1624)에 임진왜란으로 파손된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승도들을 총지휘했던 본영 사찰로 창건되었다. 남한산성 내에 있었던 원래의 망월·옥정사 외에 7사를 창건하였는데 개원사를 본영 사찰로 활용하고 나머지 8사는 각도의 승방이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개원사는 조선 승병의 총지휘소로 크게 자랑받았던 사찰이다. 그후 고종 3년(1884) 갑오경장 때 외승방면이 폐지될 때까지 270년간 수도 한양을 지켜온 호국사찰로 번창했으며 전국 사찰의 승동을 규찰하는 규장소가 설치되어 명실상부하게 조선 불교의 총본산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인조 15년(1637) 이래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으나 1970년 화재 발생 때 법당 누각 등의 부속 건물과 함께 전소되었다. 그후 작은 건물 1동이 겨우 남아있었으나 선효화상(禪曉和相)이 신도들과 함께 10여년간에 걸친 원력 끝에 대각전 묘사 등의 건물을 신축한 후 면모가 일신되기에 이르렀다. 원래 군기고지·누각지·종각지 등에는 주춧돌·석개·박석 등이 남아있어 개원사의 규모와 건물의 배치를 짐작케 한다. 또한 이 사찰에는 남한산성 축성과 산성 수호 승군들이 사용했던 유물 1점과 석장·용기·항저 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어서 변창했던 사찰의 영광을 알려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 다시 남한지의 기록<sup>181</sup>을 살펴보자.

동문 안에 있으며 불경을 많이 간직했으며, 큰 높동이 넷이 있으니 부계가 각각 2백여 근이요 팔 및 셋씩이 든다. 연못이 있어 금붕어를 기르고 있다. 인조정축(仁祖丁丑; 1637) 가을 한 조각배가 서호(西湖)에 헤아들어 왔는데, 배 안에 사람은 없고 오직 대장경 폐함(廢函)만이 들었고 위에 “中原開元寺開刊”이라는 일본 글자가 있었다고 한다. 장가의 사람들이 비국(擂局)에 바치고 다시 임금님께 전달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끈

180 洪敬謙 編, 《南漢誌》, 卷下, 閱藏。

181 洪敬謙 編, 《南漢誌》, 廣州府 謂, pp.81~82 卷下 참조.

것도 아니면서 배가 갑자기 스스로 웠으니 이는 염회(靈怪)한 일이고다. 이 책이 이미 중국 개원사에서 나왔으니 우리나라 절간에 같은 이름 가진 절을 찾아서 주어 길이 간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그때 활도 중에 개원(開元)으로 이름한 것은 다만 이 절이 있는 까닭에 열별로 이를 써고 따로이 사신을 보내 이 절에 간수하게 하였다.

천종병오(顯宗丙午; 1666)에 불이 절의 화약고에서 일어나 불길이 영렬하였는데 얼마만에 갑자기 반대쪽 바람이 일어 불을 껐다. 속종갑술(肅宗甲戌; 1694)에는 불이 나서 다섯 칸 누각이 다 탈 것 같더니 갑자기 큰 비가 쏟아붓듯이 퍼부어 불이 곧 절로 빠져 누종(樓中)에 두었던 군기가 하나도 상한 것이 없으니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개원사는 간오경장 이후 산성 승변제도가 폐지되면서 대략의 길을 걸었다. 1907년 8월 1일에는 산성의 무기 수거령과 화약·현지 폭파 사건 때 하루 아침에 폐사의 비운을 맞고 만다. 갑초 속에 주춧돌만 푸성하던 개원사 옛터에 1976년에 선효 베구가 다시 개원사 중창 불사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 다리를 건너 언덕을 넘어 조금 산길을 걸으면 남한산성 개원사 일주문이 보인다. 일주문을 들어 서면 좌측에 개원사 송덕비<sup>20)</sup>가 눈에 띠고 개원사 사적비도 한눈에 들어 온다.

자금은 개원사관 불경도, 큰 놋동이도, 연못의 금불이도 다시 찾아볼 수 없지만 벽암 각성 선사의 호국의 의지가 서린 호국승군의 본명으로서의 자태가 역력하다.

양관 대체학에 이어 이조관서를 지낸 남용익은 개원사에 들러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개원사는 큰 절이다.

天殿의 큰 關門이 古樹를 누르는구나.

싸움뒤에 城池는 殺氣가 남아 있고

가을이 오니 고각소리 또한 술렁도다.

외로운 물우리 淀澗한 것은 모두 종의 밭이요

낙엽이 소소하니 客의 마음 悲感하게 하네.

눈에 가득한 山洞에 눈물이 흐르니

세장대 높은 곳에 오르지 마소<sup>21)</sup>

라고 읊었다.

## ② 망월사

경상사 후록(後錄)에 있는데 옛부터 망월암(望月庵)이 있었던 곳이라 9사중에 가장 고찰(吉利)이 된다. “고려 때 한양에 장의사(社義寺)가 있었는데 태조께서 도성을 세울 때 이를 허물고 그 물상과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 한 별과 금정(金鼎) 하나를 이리로 옮겨다 두었다”는 《남한지》의 기록<sup>22)</sup>를 중심으로 망월사를 살펴보자. 그러나 옛 모습은 온데 간곳이 없다. 아마도 여기에도 일제의 무기, 화약 수거령에 예외적인 사찰이 되지 못하고 그

20) 사적비를 중심으로 3개의 송덕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원사 잣나무 그늘  
청풍부 했던 자리 / 대생김 그 무슨 세앗 마음다해 심었는데 / 만나기 어려운 법 만나 보리도록 거닐  
까 / 사방정토 면곳 아닌 바로 여기 거기인데 / 텁번 축만 고요속에 연꽃들을 피워내고 / 이 한생 부  
처님께 흘려 완회물을 빙는다.

21) 洪敬源 編 《湖廣誌》, 광주군 편, pp.232~233.

22) 洪敬源 編 《湖廣誌》, 長治郡 譯, p.83.

때의 환관을 피하지 못하였는가 보다. 성법(聖法) 미구니의 크나큰 원력이 10년전 부터  
피어나기 시작하였다니. 남한산성 계일의 도량이 되었다.

적멸보궁에는 성법 스님이 인도의 간디 수상으로부터 직접 받아 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그 팔래가 온 산성을 감싸고 있다. 망월사 절 입구에 들어서면 하늘 높이 솟은  
적멸보궁 13층 탑전을 쳐다보면 하늘나라에 피워낸 부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옛 통장  
대 자리에 올라보면 부처님의 세계가 밤자욱 마다 피어나고 있다. 이 13층 적멸보궁탑은  
법자호란 시 전을 장병 위령제를 거행하였던 숙종 대왕<sup>230</sup>의 어진 꽃을 미운 남한산성 내  
의 유일한 탑전이면서 전관에 피어되어간 영혼을 달래기 위한 보탑이다. 천상과 지상에  
함께 피워낸 혈세의 부처님이 나루신 자리가 망월사인가 한다.

### ③ 국청사

인조 김재년에 성을 쌓을 때 각성이 두 철을 이루고 한홍·국청으로 이름 지었는데 모두  
그 뜻을 모르다가 명자난을 치르고 나서야 한(汗)은 한(漢)과 읍이 같고 금국(金國)이 이  
해에 청(淸)이라 개호(改號)한 것을 깨달았다. 인조도 기이히 여기 상사(賞賜)를 후하게 하  
였다고 『남한치』는 기록하고 있다.

서문 안에 있고 누(櫓) 앞에는 봉이 있다. 권하는 말에 철이 부국(富局)에 있는 때문에  
부승(富僧)이 많다고 한다.

국청사는 2단 자연석 기단 위에 장대석(長臺石)을 올리고 그 위로 조성한 팔작(八作) 지  
붕에 걸쳐마와 원주(圓柱)를 한 정면(正面) 3간(間), 측면 3간 집인 현재의 국청사다. 특히  
팔작 지붕은 대웅전 안 천정을 만들고 그 천정 안에서는 화약을 제조하고 법당에서는 예불  
을 했다고 한다. 법당 안의 주불(主佛)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3기만 있다는 신라 원안왕 3년  
법일국사(梵日國師)가 강원도 철원 보개산 심장사에 조성(造成), 통안(奉安)했던 천불중(千  
佛中) 일불(一佛)이라고 하니 사찰만 재건했을 뿐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값비싼 유적(遺蹟)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성삼문(成三門)의 친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병풍 1점과  
송시열(宋時烈)의 친필 책자 3권이 있다는 기록은 전하여 치고 있으나 현재는 그 자취를  
찾을길 없다. 성삼문이나 송시열이 송파를 돌아 남한산성 서문에 올라 국청사에 들려 친필  
을 날렸을 적한 사실을 역사의 기록에서만 확인 할 뿐이다. 철을 돌아 마당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위치해있는 국청사 우물의 내력<sup>231</sup>은 효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무리 가뭄이 심해  
도 마르지 않고 육수(玉水)가 흐르고 있는 국청사의 우물이다. 지금은 환백하게 보존하기  
위해 금고식으로 만들었고 넘치는 물을 다시 받아 절 입구에 약수터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우물의 사연은 풍물한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차하고 선(善)한 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

조선시대 경주 이씨 조상에 이집(李集)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광주군(廣州郡) 구  
천면(九川面) 둔촌에서 그의 부친이 악성 득종을 앓고 있었다. 이에 그의 아들 이집은 아  
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남한산성에서 백일기도를 하였다. 그러면 중 어느날 꿈에 신신이  
험몽을 하여 이곳에 이르러 우벽간(右壁間)에 빛인 나뭇잎을 깎으니 의외의 밝은 샘물이  
나와 그 물을 떠다가 부친께 마시게 하니 득종이 나았다고 한다.

그후 이 샘물은 전국에 알려져 피부질환을 막고 있는 환자들이 성사를 이루었고 설계

230 《唐武實錄》 卷四, 唐宗 14년 2월 26일 칭조.

231 楊州郡 編. 〈내가 사는 광주〉, pp.287~289.

로 흐름도 있어 간혹 지금도 피부병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 ④ 장경사

남한산성 동문 안에서 동쪽쪽 약 500m 거리의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데 경내는 넓적한 대지를 이루고 있다. 철 뒤에 철쭉이 많고 노송 숲에서는 송옹(松葺)이 난다. 진남루(鎮南樓) 남쪽에는 말대(望臺)가 있으며, 올라가 보면 그윽한 경치가 머리 절중에 으뜸이다.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축성 시 산성 수축의 승군 총지휘관인 도총장(都總攝)을 두어 전국에서 승군을 소집하여 축성케 하였다. 산성 내에서는 원래 방월사와 육정사 2개의 사찰만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축성 부역을 위하여 징집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군막 사찰로서 같은 해에 7개의 사찰을 새로 세웠다. 7개의 사찰들로는 장경사, 국청사, 개원사, 한종사, 천주사, 돌립사, 남단사 등으로 모두 9개의 사찰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270명의 승군이 청군과 대치하여 성을 지키기도 하였으며, 그후 승군은 고종 때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해산되었다.

1975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중창(重創)했으며 대웅전은 가장 화려하게 지어진 고전적 양식의 건물이다. 흐사체(療舍體)인 서제(西齊)는 대웅전에서 서남쪽 15.4m 거리에 있는데 1988년 예전 것을 헐고 34.7평 규모로 중축했다.

현재 산성내에서 장경사만이 유일하게 옛 모습의 일부가 남아있고 방월사, 개원사, 국청사는 근년에 다시 중창되어 명판(名匾)을 잊고 있다.

#### ⑤ 천주사

서장대(西將臺) 아래에 있으며 누(壘) 앞에는 뜻이 있다는 남한지의 기록은 찾을 길 없고 주춧돌과 돌절구만 옛터에 잔영으로 남아 있다. 남한산성 남문에서 수어장대를 오르는 길목이어서 휴일이면 수만의 인파가 물리는 천주사 옛터를 몇사람이나 말이 볼수 있을까. 수어장대를 높은 봉우리를 좌측에 끼고 천주봉 작은 봉우리를 배경으로 퍽 베티고 샷을 엿 천주사의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역사의 영고성쇄를 다시 한번 설득나게 느끼는 장소이다. 청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늘나라를 밟치고 쳤는 부처님의 원력이 있는 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천주사의 높은 기상은 민족의 기상 바로 그것이었다. 천주사 뒷편 옛 성터에서 바라보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성남시와 분당 신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소가 되었다. 대우기 한발의 야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철경을 이루고 있다. 옛 뜻이 있었다는 기록 때문만은 아니지만 산성리 웃삼거리 앞을 흐르는 불출기는 여기서 발원하여 산성천으로 흘러 들어 간다.

천주사의 하늘 높은 기상은 민족의 기상되어 남한산성의 새로운 민족의 도량으로 태어나리라 믿는다. 훗날 이 천주사에 오른 김석주(金錫舟)는 다음과 같은 시를 2편이나 남겼다.

千古의 은조王 자취가 묘연하며  
遺蹟에 올라 흘겨보니 눈물의 흔적이로다.

山僧은 與亡의 일 관계 아니하고 흘로  
창문향하여 연화경을 공부하네.  
一聲長笛에 높은 다락에 의지하니  
다락밖으로 훨이 옛 싸우든 언덕이 보이네.  
바람을 임하여 出塞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孤城 月色에 견디어 시를 짓네.<sup>25)</sup>

⑤ 육경사

북문 안 남쪽 기슭에 있는데 뒤에 큰 우물이 있어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렇게 이름 지었다 한다. 방월사와 더불어 신라의 고찰로 산성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바라  
보던 양자 바른 언덕의 사찰이었다. 지금은 주춧돌과 유구만 남아 옛모습을 마련하게 전  
하여 주고 있지만 맹당의 절터였음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남한산성의 9개 사찰 중에  
서 옥구슬 같은 샘터와 양자 바른 언덕에 자리잡은 절이었다. 산성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  
이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친근감을 심어주던 사찰이요, 북광대를 지키던 승병들의 기  
원과 원력의 터다. 지금은 깊은 속에 폐사지로 주춧돌만 남아있다.

⑦ 동림사

남한산성의 9개 사찰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였고 주변 암석들 모양이 우리들 시선  
을 끈다. 몽암(峯巒) 아래에 있었다. 지금은 벌길이 가장 뚫린 곳이 되었지만 남한산성 안  
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찰이다. 사인 이민서(李敏寂)와 남옹익(南龍翼)은 동림사에  
올라 다듬과 같은 시를 남겼다.

山頭에는 城이 高丈이오  
並壁은 둘레가 너그럽다.  
보호하고 깨축함은 전에 일 쌓고 하겠으나  
올라보니 장관을 얻었네.  
五色구름은 하늘이 지척이오  
六月인데도 땅 높아 출구나.  
사전의 對園策을 계획하여  
길이 나라가 편안하도록.<sup>26)</sup>

나라에는 金湯의 견고함이 있고  
사람은 이제 尹揚처럼 너그럽구나.  
빛나는 성루에는 옛 쌓은 것 더하니  
승지엔 먼저 보이던 것을 고쳐었네.  
들이 넓으니 三江이 小하고臺가 높으니 五月에도 출구나.

25) 《南漢記》, 黃州府 譯, p.231.

26) 위피 채, p.222.

시험하여 구름이는 뜻을 보라.  
마름다운 氣는 바로 서울이니라.<sup>27)</sup>

### ③ 한홍사

개원사 동쪽 기슭에 있으며 땅이 매우 시원하고 넓다. 지금은 사찰의 모습 간곳없고 주춧돌만 남아 있다. 벽암 각성선사가 이 절 이름을 치울 때 우리나라가 영원히 흥할 수 밖에 없는 나라임을 청군들에게 인식 시키기 위하여 하여 한홍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온다. 나라사랑의 높은 뜻이 사찰 이름 하나 하나에도 선조들은 뜻으로 새겼다. 이러한 전통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 나라사랑의 대비원력을 배워야 한다.

한홍사 습격이 백지와 산나물, 순무우를 진상하였기로 좋다는 비구(佛句)에 내리고 무우와 나풀은 종신과 부마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남한지』의 기록<sup>28)</sup>은 산성의 한 역사로 기록하기에는 우리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 ④ 남단사

한홍사 서쪽 기슭에 있다. 남장대를 중심에 두고 한홍사의 서쪽을 지키는 승군들의 사찰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단군의 후손들로서 청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한산성 내의 개원사를 중심으로 조선 8도의 사찰들은 산성 축성과, 수성의 대립을 달아 호국사찰로 그 임무와 역할을 다 하였다. 국난 극복을 위하여 조선 8도가 모두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일어 선 곳이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 진 뜻이 곳이 남한산성의 정신이요, 국민의 산교육장이요, 호국승군들의 의지가 서려 있는 역사의 땅이다. 이러한 생스웠던 땅에도 근대사 조국의 암울했던 그림자가 드리우던 1907년 8월1일 사찰에 있던 무기와 화약고는 모두 현지 폭파 되었다. 일제의 조선 강압 통치가 시작 되면서 남한산성은 다시 크나큰 시련을 맞보게 된다. 9개의 산성 사찰에 나누어 있던 화약고가 폭파되는 동시에 사찰도 함께 사라지는 비운을 맞보게 되었다. 그 환란 중에도 동문 북쪽의 장경사만은 화를 조금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의 사찰은 동시에 은명을 함께 하였다. 그 이후 개원사, 망월사, 국청사가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5개의 미복원 사찰(한주사, 남단사, 한홍사, 동암사, 옥정사)의 폐사지에 주춧돌, 맷돌, 절구 등 유물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남한산성을 오르는 도시민들에게 호국 도량의 참 모습을 일깨워 주고 있다.

### 3) 선비정신과 삼학사

선비정신이란 인격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지조(志操)의식을 말한다. 우리 민족은 인간 중심적 사고의 전통 속에서 수양과 극기 및 학문탐구를 추구하는 성인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전통을 중시하였

27) 위의 책, p.232.

28) 위의 책, p.291.

다. 선비는 바로 이와 같이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선비는 학문과 덕을 겸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위태로울 때에는 일신의 생명을 둘보지 않고 대의를 위한 줄 아는 지조와 절의가 굳은 인간을 말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비의 개념을 유교적 교양에 의해 형성된 지도자 및 고정된 신분적 개념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 신분적 고결관념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볼 때 선비정신은 보편성을 떤 지조정신이요, 의리정신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은 인격의 수양을 통한 도덕적 귀감의 제시와 애국충절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함께 추구하였다. 선비의 절대적 충의와 지조정신은 선비정신의 높은 기개와 절의를 중상하는 전통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비의 사회적 공익(公益)정신을 강조하는 전통은 임금폐란, 병자호란을 꿰으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병사를 일으켜 적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선비들의 면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비의 사회적 공의정신은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뿌리가 되었으며 민족정신의 원류가 되었다. 선비정신은 학식과 인격을 갖춘 즉 인격적인 덕성을 갖춘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선비정신의 인격적 조건은 생명에 대한 욕망도 남을 만큼 궁극적인 것으로 세워진다. 어진 덕과 인의 덕목, 의로움의 덕목과, 치조를 선비의 인격적 조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비정신은 역사를 역류해 이끌어 가려는 지성과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병자호란 시 청파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고 죽음을 택하여 조선의 선비의 기개를 엿보기 위해 발휘한 세 분을 일러 척화(仇和) 삼학사(三學士)라 부른다. 평양 서울 흥익한(洪翼漢), 고려 윤집(尹集), 오달재(吳達濟)가 바로 이들이다. 1636년 (인조 14)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선을 속국시하는 모욕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오자, 흥익한, 윤집, 오달재는 청나라의 이 사신들을 죽여 모독을 셋자고 주장하였다. 1937년 1월 일인조가 삼전도(三田道)에서 화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들 세 사람은 봉령대군(鳳林大君)과 함께 청나라로 몰끌려 갔다. 흥익한은 1637년 2월 초에 청군이 회군하는 길에 평양에서 잡혀서 25일에 심양(瀋陽)에 이르렀으며, 윤집·오달재는 청군의 진(陣) 뒤에 있어서 그때 4월 15일에야 심양에 이르렀다. 19일에 융골대(龍骨大)가 황명으로 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청나라에서 살기를 권유하자,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에 윤집과 오달재는 서문(西門) 밖에서 처형당하였다. 흥익한은 10월에 이미 처형당하였다는 설이 있고, 윤집과 오달재와 함께 처형 당했다는 설도 있다. 한편 이들이 처형당하기 전에 청 태종이 친히 국문하였는데, 흥익한은 국문에 당당히 맞서 척화를 주장했던 멋진한 대의를 밟으면서 나라에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더 이상 못할을 안타까워할 뿐이었고 하였다. 또한 윤집도 청 태종의 최유적인 설득에 완강히 거부하였다. 품바쳐 나라를 구하려는 뜻은 죽어도 멋진하다는 기개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청 태종도 이들의 기개에 오히려 감탄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충의와 대절을 기리기 위하여 경문(旌門)을 내리고, 흥익한에게는 충정(忠正), 윤집에게는 충정(忠貞), 오달재에게는 충렬(忠烈)이라는 시호가 각각 내려졌다. 이들 세 분을 일러 우리는 삼학사라 부르며 남한산성 양지바른 언덕에 현절사 제향을 짓고 선비정신의 그 울끈고 꽃꽃한 정신을 배우고자 한다. 이들 세 분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기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신구문화사의 『한국인명대사전』<sup>29)</sup>에서 이 분들의 생애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았다.

29)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90.8.

## 1) 흥익한 (洪翼漢)

1586(선조 19) ~ 1637(인조 15). 병자호란 때 3학사(學士)의 한 사람.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습,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운옹(寰翁). 찬성 속(淑)의 현손으로, 전사 이정(以成)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김립(金琳)의 딸이며, 백부인 교위(校尉) 대성(大成)에게 입양되었다. 이정구(李廷龜)의 문인이다. 1615년(광해군 7) 생원이 되고, 1624년(인조 2)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서(司書)를 거쳐, 1635년 사헌부 창령(掌令)이 되었다.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사하는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고 사신을 보내오자, 상소하여 제호(帝號)를 참정한 죄를 문제하고 그 사신들을 죽임으로써 모욕을 벗자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이 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최명길(崔鳴吉) 등의 화의론(和議論)을 극구 반대하였다. 이 병자호란으로 그의 두 아들과 사위가 모두 적의 칼에 죽었고, 아내와 벼느리는 적에게 불풀렸으나 몸을 깨끗이 보존하고자 자결하였으며, 늙은 어머니와 딸 하나만이 살아남았다. 이듬해 화의가 성립되자 조경의 권유로 창군(淸君)의 화를 피하기 위하여 평양부 서윤으로 나갔으나, 청나라의 강요로 화친을 배척한 사람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오달체(奧達濟)·운집(尹集)과 함께 청나라로 잡혀갔으며, 그곳에 불러들려 갔어도 청장·용골대(龍骨大)에게 “지난 해 봄에 내가 우리 나라에 사신으로 왔을 때 상소를 올려 너의 머리를 베자고 청한 것은 나 한 사람뿐이다”<sup>30)</sup> 하였고, 깊은 혈마파 유혹에도 끝내 굽하지 않고 선화된 도리와 그 충의를 다하여 죽음을 택하였다. “내 피를 복에다 떨라서 친다면 내 넋은 하늘로 날아 고국으로 갈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밖에는 다시 할 말이 없노라”<sup>31)</sup> 마지막 이 한마디를 통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조선의 선비정신의 울분은 삶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바 ‘병자 삼학사’의 한 사람으로 흥익한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훗날 명의정에 수증되었으며 남한산성의 현절사(顯節祠)에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 외에도 강화의 충렬사(忠烈祠), 평택의 포의사(褒義祠)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화포집》(花浦集), 《북행록》(北行錄), 《서정록》(西征錄) 등 있다.

## 2) 윤집 (尹集)

1606(선조 39) ~ 1637(인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고산(高山). 현감을 지낸 철갑(銅甲)의 아들이며, 남양부사 를 지낸 계(榮)의 아우이다. 1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형의 뒤에서 공부하여 1627년(인조 5) 22세에 생원이 되고, 1631년 26세에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설서가 되고, 1636년 이조정랑·부교리를 거쳐 고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국왕과 조경 대신들이 남한산성으로 난을 피하였으나 청병에게 산성이 포위되어 정세가 극히 불리하게 되었다. 최명길(崔鳴吉) 등이 화의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때 오달체 등과 함께 화친의 사신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최명길의 목을 뱉 것을 청하였으며, 최명길이 국왕의 뜻을 움직여 화친의 일을 성립시키고자 입대(入對)하여 승지와 사관을 물리치도록 철하자 이를 규탄하는 극렬한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옛날 화친을 주장하여 사필(史筆)

30) 《三學士傳》, p.91. 民族文化推進會, 1985.7.

31) 朴翁 集, p.98.

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진희(秦檜)와 같은 대간도 감히 사관을 끌려치지 못하였다. 극렬한 말로 규탄하였으며, 국왕이 대간(臺諫)을 끼리지 않고 오직 사특한 의논만을 용호하고 간사한 신하만을 의뢰하면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경고하였다. 화의가 성립되자 청나라 측에서 척화론자의 처단을 주장하며 그는 오달제와 더불어 상소를 올려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섰다. 철명에 의하여 북쪽으로 끌려갈 때도 조금도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여 청병이 오히려 감복하여 존경하였다. 한다. 청나라에서 고문과 회유 등으로 그의 뜻을 돌리려 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항변하자 마침내 심양성 서문 밖에 끌려가 사형당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31세였다. 그의 죽음을 조선인의 의리와 절개를 청나라 사람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하였다. 세상에서는 오달제·홍익한과 더불어 삼학사라고 부른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납한산성의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되었다.

### 3) 오달제 (吳達濟)

1609(광해군 1)~1637(인조 15).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암(秋潭), 은해(允諤)의 아들이다. 19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634년(인조 12) 30세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 전적으로 부터 벽술을 시작하여 별조 좌랑·시간원 사서·사간원 정언·사헌부 지평·홍문관 수찬을 거쳐, 1636년(인조 14년)에 부교리가 되었다. 이 때 후금의 세력이 날로 커져 청계 건원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을 무섭게 위협하여 왔다. 이에 화진을 위하여 주화파·좌명길 등의 주장으로 사신을 코판하게 되자, 임금을 속이고 삼사(三司)와 공의(公議)를 위협, 세치하여 임의로 사신을 보낸 좌명길을 단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겨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납한산성에 들어가 청나라와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였다. 인조가 청군에 항복하게 되자, 청나라 측에서는 전쟁의 책임을 척화론자에게 돌리 이들을 찾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척화를 주장하였지만 막상 척진으로 물어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에 오달제는 용감과 더불어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서서 척진에 잡혀가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다. 짜장 용골대는 그의 뜻을 뛰기 위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청나라에 와 살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 험박하기도 하였으나 그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불피(不義)라고 하고 저를의 말을 좋으면 오랑캐가 되고 바는 것이라 하여 굽까지 항변하였다. 그는 마침내 심양성(瀋陽城) 서문 밖에서 용집·홍익한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삼학사라고 하여 그들의 절개와 충성을 높이 기리게 되었다. 그는 목매화(墨梅畫)에도 뛰어났는데, 어봉룡(魚夢龍)·조속(趙穎)·허목(許穎)의 화풍을 따르면서도 명나라의 목매화풍을 영향받아 구도가 조금은 편집한 감을 준다. 그의 그림은 목매도(墨梅圖) 2점이 전하며, 이러한 구도의 목매화는 뒤의 조지운(趙之耘)·홍수주(洪受疎)·박동진(朴東晉)·조희룡(趙熙龍)·이공우(李公愚) 등의 목매화에 영향을 주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납한산성의 현절사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충렬공유고 忠烈公遺稿》가 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삼학사의 정신은 죽음을 뛰어넘은 용맹과 절의로 우리나라의 귀감이요, 우리의 자람이다. 특히 이들 세 분 중 홍익한은 평양부 서윤이요, 용집은 이조정랑 고려었으며, 30세의 청년으로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섰다. 그리고 오달제는 부교리의 직책이었지만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막할 수 있다는 대의 명분에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롭게 죽음을 막하였으며 그때 나이 28세의 악관의 청년이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불의라는 이들 상학사의 충절은 남한산성의 양지바른 언덕 현질사에 영원히 피어나리라 생각된다.

#### IV. 현대적 의의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을 탐구하면서 그것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온 민족정신의 도량으로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가꾸어야 할 성스러운 땅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충절의 흔이 짐들어 있고, 전충보국하는 나라사람의 땅 남한산성에서 우리는 역사의 진한 향기를 알아야 한다. 이 땅에서 나라사랑하는 큰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남한산성은 많은 도시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반성하면서 역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길이 상학사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이요, 호국 승군들의 의지를 따르는 길이라 생각된다.

먼저 우리는 남한산성에서 이 남한산성이야말로 역사의 땅이라는 자리를 유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잊혀진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여기서부터 새로운 우리의 전통을 확인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자. 그리고 역사가 있는 땅, 문화가 있는 땅으로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체험의 장소로, 국난 극복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 저기에 옛 산성의 모습을 확인시키는 문화 유적 표시판을 세워 누구나 쉽게 여기가 역사의 땅이란 사실을 쉽게 민식시키는 작업도 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많은 도시민이 찾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송립이 울창한 자연 공간으로 남한산성은 우리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장이요, 휴식처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많은 위성도시들이 산업화, 공업화로 치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는 송립이 울창한 자연 조건을 최대로 살려 역사와 문화가 있고,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시민의 자연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역사가 있고 문화가 숨쉬는 자연 교육장의 전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요, 미래의 꿈을 꾸 수 있는 유일한 땅이 남한산성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한산성하면 치욕의 땅, 폐전의 땅이라고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없이 불렀다. 이 모든 사실은 일제가 우리에게 물려준 식민지 사관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서 말이다. 적어도 조선왕조 시대에는 역대 임금들이 들려 그 때 그일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던 산성이었기에 수에장대의 내부 편액을 무망루(無忘樓)라 이름 하였다. 그리고 병자호란시 전률장병 위령제를 올리며 나라사람의 높은 뜻을 되새긴 장소였다. 식민지 사관을 벗어나는 우리들의 진지한 노력이 남한산성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을 치욕의 땅, 폐전의 땅이란 역사를 오도하는 식민지 사관에서 탈피하자. 그리고 병자호란만을 강조하는 산성의 역사, 택계의 성산과 한반도의 중추적 허리에 해당하는 역사의 땅으로, 그리고 도시민의 역사, 문화, 자연학습의 장으로 강조되어져야 한다. 역사의 땅 남한산성을 소개하는 남한산성의 문화지도를 만들어 이 땅을 찾는 도시민에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V. 결론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을 탐구하기 위한 작업을 통하여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멀탐의 길을 걷고,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의 뿌리를 확인하는 민족은 번영의 길을 걸어 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일깨울 수 있었다. 남한산성은 조선의 8도 외승군들의 기와 맥이 숨쉬는 곳이요, 조선의 선비정신이 숨쉬는 역사의 팔임도 밝혔다.

조선 팔도 도충심인 벽암 각성선사의 나라사랑의 전충호국의 정신은 서산, 사명의 뒤를잇는 호국 승군장의 역할과 남한산성의 축성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룩하여간 호국의 영광으로서 백암 각성선사의 행적을 살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불교의 호국정신은 국가와 민족은 둘이 아니고 하나의 존재(不二)라는 불교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의 호국정신이 민족과 어떠한 관계를 갖았는가 하는 사실도 살폈다.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 오늘을사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경의와 진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한다.

그리고 선비정신과 삼학사의 높은 정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세를 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였다. 이러한 민족정신의 고향이 남한산성의 현절사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바로 이 땅이야말로 선비정신의 고향으로 삼학사의 숨결이 들리는 선비의 고향, 충절의 땅 남한산성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면 내가 앞장서야 한다는 흥익한, 윤집, 오달재였다. 충절의 높은 애국심으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기개를 굽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삼학사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겨레의 귀감이다. 민족 앞에 충절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킨 삼학사의 높은 애국심은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영원한 지표다. 이들은 조국 앞에 책임을 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교훈을 우리들에게 일려주고 있다. 말로만의 애국심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따르는 정신은 삼학사의 높은 정신이요, 우리 모두의 크나큰 교훈이다. "구차히 살기를 바라지 않고 어서 죽어서 내 피를 복에다 발라서 둥동 친다면 내 냄은 하늘로 날아 고국으로 갈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하면서 미역 만리길에서 눈을 감았다. 고국산천을 끙끙대 죽어 영혼으로 남한산성의 언덕에 모셔진 세 분 삼학사의 충절은 우리 삶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이다. 삼학사의 영혼이 잠든 남한산성의 현절사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며 조선 선비정신의 뿌리를 살펴보았다. 흥익한, 윤집, 오달재 세 분의 영혼이 잠든 현절사는 오늘을 사는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역사에서 찾으며, 남한산성의 땅에서 찾아야 한다.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이 꽂피는 날 우리 민족의 영원한 번영이 함께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

## 「남한산성 민족정신 연구」에 대한 논평

金相鉉(한국교원대)

(1) 전국토의 약 20% 이상이 山地인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山城이 축조되었다.

그 축성의 기원은 선사시대로 소급되고 삼국시대에는 많은 산성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까지도 산성을 짓았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많은 산성을 수축했고, 藩將으로 하여금 雜徒를 이끌고 축성하도록 한 폐가 많다. 남한산성은 後金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1624년(인조 2년)에 축성하기 시작하여 2년만에 완성한 것이었다.

도총십 賢性이 풀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축성공사를 했었다. 남한산성은 사방이 높고 중앙이 낮은 고로봉형(鵠樓蜂形)의 좋은 지형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각종의 시설을 갖춘 산성으로도 손꼽혔다. 그리하여 이 산성은 폭한산성과 함께 수도 방어의 요새지로 중요시 되었다. 남한산성은 폭한산성과 마찬가지로 약 350명 정도의 義衛이 수호했고 이를 위한 義衛防番錢額가 시행되다가 영조 32년(1766)에는 義衛防番錢額로 전환되기도 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주화파와 주전파가 여러 논쟁을 벌이다가 주전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조는 세자와 함께 성문을 열고 三田渡로 나가 치욕적인 굴욕을 당했다. 石之珩의 南歸口記, 羅萬甲의 丙子錄, 金尚璽의 南韓紀略, 작자 미상의 山城口記 등은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청군에게 항복하기까지 약 50일간의 방어와 피월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宋時烈은 三學士博을 지어 丘和三學士의 불굴의 저항정신과 비극적인 최후를 서술하여 이들을 조선후기 최고의 충신의사로 추앙했다.

(2) 종래의 산성 연구는 대개 축성과 그 시설, 그리고 전쟁사 등을 그 중요 주제로 삼아 왔다. 그런데 전보삼교수의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연구」는 각성의 호국정신과 삼학사의 저항정신에 주목함으로써 사상사적인 고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다만 논제 중의 「민족정신 연구」는 「호국정신 연구」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3) 南北漢山城 義衛防番錢에 대해서는 景貞相, 金甲闕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를 선배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승군의 활동을 숭고한 호국정신의 발로이며 친정한 이파행 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이재창), 승군의 제도화는 자신들의 회생 위에서만 승려사회와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승려들에게 국가가 미끼를 던져 국토방위에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안계현). 의승군의 활동을 정부의 대불교정책과 당시 불교교단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승군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의승군 治送비용, 義衛防番制 納付는 사원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갈 만큼 불교계에서는 가혹한 부당이었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여운경, 김갑주).

(4) 삼학사에 관해서는 삼학사전이나 인조실록 등의 기본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5)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의는 호국정신이나 불굴의 저항정신에 있겠지만, 포위한 철군에게 성문을 열어야 했던 마른 기억도 진정한 호국과 저항을 위한 반성의 자료로 삼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 丙子胡亂과 朝鮮의 三學士

발표자 : 張 杰(요녕대)

논평자 : 崔 韶 子(이화여대)

## 丙子胡亂과 朝鮮의 三學士

張 杰(中國 喬寧大)

360년 전의 丙子年(1636) 12月 初에 清太宗 皇太極은 직접 심한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朝鮮史에서는 이 전쟁을 '丙子胡亂'이라고 부른다. 表面上으로 볼 때 전쟁이 빨발한 치질적인 원인은 조선 쪽에서 황태극이 元을 帝로 바꾸는 것을 막은 데서 기인된 것일지만 실제로는 쟁방간에 장기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일어난 것이었다. 다음해 정월 30일 (1637년 2월 24일) 청나라 군대에 의하여 남한산성에 포위된 조선 국왕 李倧은 막대한 화생을 치루고서도 승리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 밖으로 나와 투항하였으며, 청조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조선의 丞憲府掌敍인 洪翼漢, 校理 尹集, 修撰 吳達濟는 "敗盟撫兵"<sup>1)</sup>(동맹을 깨트리고 전쟁을 일으킨)의 罷人으로서 조선 정부로부터 청나라 군대에 넘겨지게 되었으며 심양에 압송되어 비참하게 살해되었다. 이것이 "朝鮮三學士" 사건이다. 본 논문은 '丙子胡亂'의 전쟁 실체와 조선 삼학사의 역사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여러 나라 학자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一.

明의 萬曆44년(1616년)에 여진족의 수령 누투하치가 획도아라(지금의 중국 喬寧성 新賓)에서 명나라 경권을 건립하였는데 이로부터 명나라와 중국 최고 통치권을 다투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조선은 그 중요한 전략적 위치로 인하여 쟁방이 다투는 대상이 되었다.

조선은 14세기 말 李氏 왕조가 건립된 이후로 명조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高歷20년 (1592년)에 일본 關白 平秀吉(풍신수길)이 명사를 끌고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침입하여 신속하게 서울을 점령하여 "분묘를 훠손하고 왕자와 신하를 억압하며 나라의 창고를 약탈하여 팔도가 거의 피폐하게 되었다."<sup>2)</sup> 국왕 宣祖는 近臣들을 거느리고 龍州변경으로 떠돌았는데, "명의 속국이 되고자하여 강을 건너 명나라로 들어가 피난 할 것을 간청 하였다."<sup>3)</sup> 명조는 "무릇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조의 속국으로서 요하 좌측의 울타리이다"<sup>4)</sup>라고 생각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어찌 가만히 앉아서

1) 「清太宗實錄」, 卷34, p.15.

2) 「明史」「朝鮮傳」, 卷 320. "亞填臺, 炳王子, 蒙招, 別府軍, 八道機轄班"

3) 「明神宗實錄」, 卷 296, p.13. "至京內附, 想請渡江入明國避難"

4) 馬榮慶, 「鴻臚大司諫」, p.932. "大朝鮮, 天朝之屬國, 遷左之藩屬"

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그러므로 두번의 출병 인수가 23만이나 되며 소모한 군비도 은화 수백만兩이나 되는데 끝내는 조선을 도와 일본 침략군을 국토에서 몰아내었다. 조선은 명조가 출병시켜 원조해준 이 일을 잊지않았는데 몇 십년 후에도 국왕은 “임진의 난으로 인하여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신종황제가 천하의 명사를 움직여 재난속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음과 뼈에 새겨두고 있다”<sup>5)</sup>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금나라와 명조의 전쟁 와중에서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賴恩의 정신으로 결연히 명나라 편에 섰다.

萬曆47년(1619)에 명나라가 韓東에서 橋鑄가 조직한 四路 대군을 움직여서 혁도아라를 코위하고 조선에 출병하여 참전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조선은 즉시 刑曹參判 姜弘立을 元帥로하고 安平兵使 金景瑞를 諸元帥로 하여 만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명나라의 장군 鍾誠이 지휘하는 東路軍에 가담하여 명나라 군대와 어깨를 같이하고 싸웠다. 天啓元年(1621년)에 금나라 왕 누루하치가 기병을 끌고 들어와 요하 동부 지구를 점령한 후 명나라 장군 崔文龍이 “우리 200명을 모아 밤에 진강성을 습격하였는데” 금나라 장군 修養員을 살해하고 조선으로 피각하였다. 그 다음에 명나라는 모문룡을 요동을 명정하는 德兵官으로 삼아 부대를 이끌고 皮島(조선의 역사서에는 鹿島로 되어 있음)과 조선의 龍川, 鐘山등지에 진주세 하며 해상과 압록강 유역으로부터 금나라의 후방을 부단히 습격함으로써 금나라 참전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케 하였다.

금나라는 둘서 양 쪽의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선을 점령하는 짜략을 배하였다. 누루하치는 살이호(薩爾訶) 전투에서 금나라에 투항한 조선의 장수 姜弘立을 비롯한 사람들을 “賓禮로써 대하여 닷새동안 小宴을 베풀고 열흘 동안 大宴을 베풀었다.” 그는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먼저 “당신의 병사가 명나라를 도우러 왔는데 나는 그것이 본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나라가 위험에 처하였을 때 명나라가 구해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에 보답하려고 마지못해 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조선이 출병 시켜 참전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표시하고 난 뒤, 또 말하기를 “본자니 명나라가 자질을 시켜 우리 양국을 다스리게 하려한다 하니 사람을 모욕함이 너무 심하다”<sup>6)</sup>라고 하여 조선과 명조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조선은 “朝鮮國 平安觀察使 朴暉奉이 建州 團馬法 足下에 편지를 쓴라”라는 방식으로 누루하치의 말에 회답하였는데, “명나라와 우리 나라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다. 아버지가 평이 있는데 아들이 갇혀 떠드지 않을 수가 있느냐? 큰 뜻이 있는 바이니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sup>7)</sup>라고 하여 조선과 명조가 피로 뗐은 전쟁의 우의는 그 어떤 상황하에서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금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었다. 그러나 금나라와의 전쟁 발발을 면하기 위하여 이후에 조선은 출병하여 명나라를 도와주는 않고, 다만 度島와 조선 해안지구에 있는 명나라 장군 모문룡부대에 대량의 물자를 공급하였다 뿐이다.

누루하치의 뒤를 이어 금나라의 왕이된 황태극은 전략을 바꾸어 무력으로 조선을 헐파하여 동맹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天啓7년(1627년)정월 초팔일에 황태극은 阿敏, 岳托에게 멸령하여 조선을 치게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 『李朝實錄』, 『仁祖』, 卷 34, p.6-7. “壬辰之難, 小邦朝夕且亡, 諸商賈奔動天下之兵, 救濟生靈于水火之中, 所相之人, 至今銘鑄心骨”

6) 『清太祖武皇帝實錄』, 卷 3. “聞大明欲令子侄 主吾頭領, 等人尤甚”

7) 李首珥, 『熱齋室記述』, 卷 21, ‘深河之役’. “天朝(明朝)之與我國, 父父之子子也, 父之有命, 子孰不從乎? 大義所在, 不得不然”

“조선은 누대로 우리나라에 죄를 지었다. 성도함이 마땅하나 이번의 행차는 조선을 경벌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명나라 모문통이 저 해도 근처에서 마음대로 날뛰며 우리의 반역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군대를 장비하여 정벌하려 보내니 만약 조선을 취할 수 있으면 함께 취하라”<sup>8)</sup>

조선에서는 전혀 전쟁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阿敏은 3만이나 되는 八旗兵을 거느리고 갑자기 습격하였는데 정월 14일에 압록강을 건너 麗州, 凌漢山城, 安州 등지를 연달아 점령했다. 조선의 軍民은 비록 용감히 침략에 저항하였지만 많은 희생을 내고 평양을 포기한 뒤 스스로 회전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3월 3일, 금나라 담판 대표 劉興祚(조선 사서에는 劉海로 되어 있음)과 조선왕 李愬이 강화도에서 聰轂를 하였는데 그 聰轂文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후로 각자 약속을 따라 국경선을 지키고 사소한 일로 싸우지 말며 비리를 경멸하여 바로잡는다. 만약 우리나라가 금나라와 원수가 되고자 우호관계를 위배하고 병사를 일으켜 침범하면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만약 금나라가 나쁜 마음을 풀어 우호관계를 위배하고 병사를 일으켜 침범하면 하늘이 화를 내릴 것이다. 두 나라의 군신은 각각 믿음을 지켜 함께 태평을 누리자. 천지신명은 이 맹세를 들으소서.”<sup>9)</sup>

그러나 金나라 畿의 총 사령관 阿敏은 본인이 맹서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回軍하는 도중에 병사들을 시켜 사방에서 노략질하게 하였다. 평양에 이르자 아민은 조선왕의 봉생 李覺(原昌君 李欽로 일용)과 또 다시 聰轂를 거행하였는데 그 맹서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왕 이종에게 이르노니 마땅히 만국 국왕에게 예물을 드리라. 만약 여기고 드리지 않고 명나라 사신을 대하는 예로써 대하지 않으며, 우리 만주와 원수를 뱋아 성과와 면동을 간고히 하고 병마를 훈련시키거나 만주의 포로들이 도망하여 조선으로 들어갔는데 받아들여서 돌려보내지 않거나 왕이 한 말을 어기고 몰래 명나라와 교류하며 만주국의 언어를 친근하게 고유하지 않으면 천지에 고하여 조선국을 정벌하도록 할 것이니 천지가 조선왕을 견제하여 재앙이 그 몸에 미쳐 옥술을 보전치 못하리라. 조선국왕은 맹세한 말을 어기지 않았는데 만주국 賢勤 아민이 전쟁을 일으키면 재앙이 역시 같이 미칠 것이다. 양국이 능히 맹세한 말을 실천하면 천지의 도움을 입어 왕조를 연장하고 길이 태평을 누릴 것이다.”<sup>10)</sup>

사학가들은 이 두번의 맹서를 '江都之盟'과 '平壤之盟'이라고 부른다. 우리들이 이 두 번의 맹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간도지맹”的 주요 내용은 조선과 금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광동조약이다. “평양지맹”은 주로 조선의 금나라에 대한 의무로서 예컨대 ‘예물을 바친다’거나 ‘사신을 우대한다’거나 ‘도망온 사람을 돌려보낸다’거나 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8) 『唐太宗實錄』, 卷 2, p.2. “朝鮮屢逆我國，寇定計擊。然此行非專伐朝鮮也。特毛文毅近被虜殺，倚恃接賈，藉我復民。故整旅徂征。若朝鮮可取，則并取之。”

9) 『李朝實錄』, 仁祖, 卷 15, p.50. “今後各避均擊，各守封疆。田爭競絕說，非理徵求，若我國與全國計仇，遠育和好，興兵侵伐，則亦皇天降災。若全國仍起不良之兵，違背和好，興兵侵伐，則亦皇天降福。兩國君臣，各守信心，共享太平。皇天佑土，任肅神祇，監聽此盟。”

10) 『高麗史』, 下, p.839. “爰朝鮮國王李成，恐處滿胡國汗禮物，若違忤不直，不以苟明國使臣之禮待，則致滿汗搆怨，堅固城池，添練兵馬，更繕作修築城壁之人等，遂至朝鮮，容留不給還。或達王明言，與其通文明國，毋寧近交義國之説，則告諭天地，知征伐朝鮮國，天地謹責朝鮮王，殃及其身，尤克永滅。朝鮮國王不達賢言，自滿汗國貝勒阿敏等叛西歸，他亦如之，兩國使踐誓言，必蒙天地佑，歷祚延長，永享太平。”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도지맹'과 '평양지병'은 금나라와 조선이 '형제지국'을 결성하였음을 나타내지만, 그 후 쟁방의 관계는 실질적인 개선이 없이 도리어 더욱 악화되었다. 崇禎 6년(1633년) 11월 15일, 손나라 왕 皇太極은 조선의 국왕 李倧에게 보내는 國書 중에서 조선 측에서 맹약을 위반한 사건을 열거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朝鮮王이 가족을 王弟라고 불렀다.
2. 漢人을 받아들여 외주에서 농사 짓게하고 상황을 탐지하게 하였다.
3. 금나라에서 놓아 들려보낸 조선인을 명나라에 보냈다.
4. 조선 변경의 백성을 시켜 경계선을 넘어 인삼을 캐게 한다.
5. 외주의 무역을 정지하여야 한다.
6. 해상에서 금나라에 투항하려 온 孔有德, 權仲明의 군대를 가로막았다.
7. 요동 연해의 금나라 兵船을 진군하였다.
8. 금나라를 속이고 명조와 관계를 결코 끊지 않는다.
9. 舉寧에서 開市한 무역을 불허한다.
10. 7개의 城을 새로 쌓아 금나라를 방비한다.

황태극은 國書에서 "만약 우리와 원수가 되면, 반드시 원수를 맞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것은 두 나라의 관계가 이미 또다시 전쟁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한다.

崇禎 9년(1636년) 4월 11일, 황태극은 元을 帝로 고쳤는데 百官의 조회와 축하를 받을 때 "조선의 사신 좌덕현, 이적이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 일 이후 황태극은 이 문제로 조선에 조서를 보내어 무리하게 "너희 왕이 만약 스스로 죄를 알고 뉘우친다면 용당 자제를 인질로 맡기라. 그렇지 않으면 집은 모월 모일에 대군을 이끌고 너희 땅으로 칠 것이니 그 때에 비록 후회한들 어찌하리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하였다.

崇禎 10년(1637년) 12월 10일, 황태극은 친위 10만 청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長州를 공략하고 14일에 평양에 진입하였는데 先鋒 부대는 한양성 아래에 도달하였다. 조선의 국왕 이종은 군신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퇴하였다. 그 달 말에 청나라 군대는 한양성을 함락하였다. 조선 8道의 지원병이 몇 번이나 남한산성의 포위망을 뚫으려 시도하였지만 모두 청나라 군대에 의하여 폐하였다. 청나라의 장군 多爾袞은 또 군대를 거느리고 강화도를 점령하였는데 조선의 왕비와 왕자 및 종실, 대신 등 가족 200여명을 로로로 잡았다.

충무 2년(1637년) 正月 初三일, 조선의 국왕은 즉시 사자를 파견하여 청나라 軍營에 가서 譲和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황태극은 조선 국왕 이종에게 城에서 나와 투항하고 "首謀敗盟之臣"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이종은 남한산성 旦夕可 아래에서 종묘사직이 허물어 지려는 위급한 사정에 피할 수 있는 계책도 없는 터라 하는 수 없이 洪翼漢, 尹集과 邑連

11) 『청태종실록』, 卷 16, p.13-16. “若與我爲仇，勢必結盟，構兵”

12) 『청태종실록』, 卷 28, p.22. “朝鮮使臣羅德惠，李明不辭”

13) 『청태종실록』, 卷 28, p.28-29. “爾王若自知無罪，當送子弟爲質，不然，朕即于某月某日舉大軍以臨爾境，則時變相平”

清三人을 청나라 군에게 넘겨주었다.

正月 28일, 청나라는 일방적으로 조선에 “永定親貿”을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一.“當去明國之年號，絕明國之交，歡納明國所與之諸命印，躬來朝謁”
- 二.“爾(指李厚)以長子，并再令一子爲質。諸大臣有子者以子，无子者以弟爲質。爾有不達，則聯立爾質子嗣位。”
- 三.“以此一歷文移，奉大清國之正朔。”
- 四.“其禹舜節及中宮千秋，皇子千秋，冬至、元旦及慶弔等事，俱行貢獻之禮。并遣大臣及內官奉表。其所進往來之表請陳詔勅，或有事傳喻，爾與使臣相見之禮及爾陪臣謁見，並迎送使之禮，勿違明國舊例。”
- 五.“聯若證明國，陳詔遣使，謂爾多騎師或數萬，或定期會處，數日限期，不得有誤。”
- 六.“軍中俘獲過鴨尋江後，若有逃回者，執送本主。若試續還，聽憑兩主之便。”
- 七.“爾與內外諸臣結婚姻，以固和好。”
- 八.“新舊城池，不許擅築。”
- 九.“爾國所有瓦礫喀，俱當剷送。”
- 十.“日本貿易，題頭如舊，當導其使者來朝，朕亦獎遣使與復往來也。”
- 十一.“每年進貢一次，其方物數目：黃金百兩，白銀千兩，水牛角二百對，豹皮百張，鹿皮五百張，茅千包，木頭皮四百張，青乘皮三百張，胡椒二十斗，腰刀二十六口，單刀二十口，蘇木二百斤，大紙千卷，小紙千五百卷，五瓜龍席四幅，各色花布40領，白織布二百匹，各色綢緞布四百匹，各色細布萬匹，布千四百匹，米萬包。”<sup>140</sup>

正月 13일, 조선 왕 이종온 왕자들과 文武백관을 거느리고 황태극을 만났으며 청조가 제기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다. 조선은 이로부터 명조의藩屬國으로부터 청조의 속국으로 되었다.

청나라는 조선이 항복한 때를 따서 조선의 군함 50척을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청나라 장군 孔有德, 欽仲明과 尚可喜의 군대를 합쳐 사월에 皮島를 공략하였으며 明軍의 海軍력을 철저히 소멸하여 명조에 대한 전략적인包围를 완성하였다.

## 二.

중덕 二年(1637년) 二月, 청나라 군대는 병사를 철수하여 돌아갔다. 「청태종실록」의 기록에 근거하면 3월 5일에 “조선의 대간 흥악한, 고리 윤집, 수찬 오달제를 목을 빼여 죽인 것은 의를 납방하고 병을 감싸며 동행을 끌고 군대를 일으킨 까닭이다.”<sup>141</sup>

이 사료의 기록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 날 살해된 사람은 흥악한이다. 심양에서 인질로 있었던 조선의 세자가 국내에 보내온 보고에 의하면 윤집과 오달제는 4월 19일에 피살되었다고 한다.<sup>142</sup> 반드시 조선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로서 병자호란은 끝났다.

140 「清太宗實錄」, 卷 33, p.30-32.

150 「清太宗實錄」, 卷 34, p.15. “藉朝鮮亡徒兵翼漢，修理尹集，修撰吳達濟以降，以其俱鹿班相，敗盟構兵致也。”

160 「沈祖狀書」, 30.

앞에서 간략하게 '丙子胡亂'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소개하였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논의할 점은 이 전쟁이 조선의 "袒明敗盟"에 의하여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청나라가 일부러 협박하여 일으킨 것인지, 흥의한 등 세 학자들은 전쟁의 죄수인지 아니면 민족의 영웅인지 하는 것이다.

'丙子胡亂'의 도화선은 비록 흥의한 등 三學士들이 앞장서서 황태극을 帝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한 데서 일어난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금나라 정권이 丁卯年(1627年)以來 조선에 대하여 만족 압박 정책을 실시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강도행악'과 '평양행악'의 성립은 금나라와 조선이 '형제 나라'를 결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금나라는 비록 '형'이지만 '동생'인 조선에 대하여 조급도 품성을 가지고 양해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전쟁의 틀을 타서 조선에 대하여 가혹하게 경제적 악탈과 정치적 압박을 진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물을 악탈하고 사람을 노략하였다. 아민이 八旗兵을 거느리고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활활하게 저항하는 조선의 군에 대하여 야만적인 도살 정책을 실행하여 銚州는 "크고 작은 장사와 관리들, 수만명의 백성과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여 거의 없어졌다."<sup>17)</sup> 금나라와 조선이 '강도행악'을 거행한 후 아민은 행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팔기 장사들에게 량을 내려 진로를 나누어 삼일동안 맷대로 악탈하게 하여 하였으며 재물과 사람, 가축을 모조리 살어 갔다."<sup>18)</sup> 이 점에 대하여서는 황태극조차 인정하였다. "조선을 절멸하는 동원에는 병사들의 기강이 없어져서 이로움을 보면 앞으로 벼이나가 이로움을 다루게 되니 드디어 나라의 기강이 떨하지게 되었다!"<sup>19)</sup> 조선 관원 金起宗이 그 국왕에게 울린 보고에는 이 전쟁에서 파살된 사람의 숫자가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평양에서 포로된 남녀는 2193명이고 피살된 사람은 158명이며 도망한 사람은 344명이고 실종된 남녀는 1169명이며, 강동에서 포로된 남녀는 225명이고 도망친 사람은 67명이고 소와 말을 빼앗긴 것이 790마리이다. 三登에서 포로된 사람은 1500명이고 피살된 사람은 28명이며 도망한 사람은 111명이다. 順安에서 포로된 사람은 576명이고 피살된 사람은 44명이며, 도망한 사람은 78명이다. 龍川에서 포로된 사람은 370명이고 싸움에서 죽은 사람은 60명이며, 도망한 사람은 33명이다. 漢城에서 防正軍에 가입하여 포로된 사람은 121명이다. 六邑에서 포로된 사람은 모두 4986명이고 피살된 사람은 290명이며 도망간 사람은 623명이다."<sup>20)</sup>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八旗兵이 물치르고 죽이고 악탈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해아릴 수 없는 춘실을 입혔으며 특히 조선의 서북 지구의 농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 동시에 조선 사람들의 금나라 정권에 대한 강한 복수심을 촉발시켰다.

둘째, 조선에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게 하였다. 아민이 조선을 침략하던 시기에 조선 사람들을 대량으로 데리고 유통으로 불아가서 그들도 하여금 농사짓게 하고 복역하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漢人들과 함께 조선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금나라와 조선이 "형제나라"가 된 후 황태극은 조선인들을 좋아 보내는 우호의 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선으로 하여금 그 나라로 도망간 "만주, 한인,

17) 『李朝實錄』, 「仁祖」, 卷 16, p.2. "大小將官, 數萬民兵, 居殺無遺"；安州는 "守城兵數萬口, 居殺殆盡"

18) 『清太宗實錄』, 卷 2, p.26. "夏令八旗壯士, 分路搜掠三日, 封割人畜, 焚行駕載"

19) 『清史稿』, 卷 3, 「太宗本紀二」, "壘騎統之役, 兵行无紀, 莫利即日, 奏亡版軍"

20) 『李朝實錄』, 「仁祖」, 卷 16, p.2.

빛 싸움에서 포로로 잡은 조선인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의 이종은 “우리 나라 사람이 귀국의 포로가 된 후 부모형제와 고향이 그리워 방명하여 돌아왔는데 이것은 사람의 자극한 정으로서 하느님께서도 불쌍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백성의 부모로서 적들에게 잡혀간 데에도 보관하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지금 돌아온 것을 또 다시 잡아 돌려보낸다면 천리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금나라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한 어조로 거절하였다.

셋째, 예물을 바치라는 것을 빌미로 조선을 험박하며 무상으로 금나라가 필요로하는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받았다. 아민은 조선을 침략할 당시 조선측이 “木綿四萬匹, 牛四千頭, 銅鐵四千匹, 布四千匹”<sup>21)</sup>을 세출하는 것으로 譲和의 조건을 삼았는데 수량이 막대하였다. 조선은 평계를 대 목면 15000필, 면주 200필, 백년포 250필, 虎皮 60장, 麟皮 40장, 儒刀 8자루, 鞍具馬 한 필을 모아 예물로 아민에게 보냈다. 아민은 또 예물을 바치는 것을 ‘평양 행악’의 誓詞에 넣었다. 조선은 “두 나라가 서로 교유하며 사신이 오가는데 각자의 토산품을 주고받는 것이 義이다”<sup>22)</sup> 하며 데년 경기적으로 예물을 보냈다. 그러나 朝鮮 표년에 금나라는 조선이 바치는 물건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사자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에 강압적으로 데년 반드시 바쳐야 할 목록을 제시하였다. “金 백량, 銀 천량, 멀주 천필, 마포 천필, 쇄포 만필, 鮑皮 100장, 수달피 400장, 물소뿔 100쌍, 판목 200근, 大紙 100필, 次張 1,000필, 용무늬 가는 듯자리 1조, 花席 100조, 胡椒, 蘿皮 200장, 墻刀 20자루, 頭刀 20자루, 松羅葦 200포”<sup>23)</sup> 이러한 숫자는 이전에 비하여 10배나 증가되었는데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바치는 예물의 숫자는 조금 증가되었다. 조선 측의 평계에 의하면 丁卯년 이래로 금나라에 보낸 물건의 숫자는 “錐色綢合 600필, 백포 400필, 염색목면 2,000필, 청목면 5,000필, 표피 50장, 수달피 200장, 青桑皮 160장, 霜華紙 500권, 백면지 100권, 蕤花席 50장, 花紋席 50장, 龍席 12장, 肝刀 8자루, 小刀 8자루, 丹木 200근, 胡椒, 黃粟, 大粟, 은행 각 10발, 풋감 50점, 전복 10점, 天然崔, 香茶 각 50봉”<sup>24)</sup>이다. 숫자로 볼 때 예물이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 중 방직품과 종이는 금나라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조선의 공급에 의지하였다.

넷째, 강제적으로 시장을 개방케 하였고 不等價의 무역을 통하여 조선을 약탈하였다. 天啓 7년(1627년) 가을, 금나라는 인구가 많아져서 본국의 양식 공급이 걱정스러워지자 양국의 변경인 龍江會寧에서 시장을 열었는데 “일년을 관리하여 부족함을 해결하였다.”<sup>25)</sup> 다음 해 二月에 청나라 장군 英俄爾岱가 병사 천여명을 거느리고 龍江에 와서 석량을 강제로 구매하였는데 조선 관원 李鴻 등과 상거래를 결집하고 “무역을 하려면 봄, 여름, 가을 세 계절만 시장을 연다는”협정을 맺었다. 조선 반면에서는 금나라의 험박 하에서 3000석의 농식을 모아 변경으로 가져갔는데 그냥 준 것이 2000석이고 發賣한 것이 1000石이 된다.<sup>26)</sup> 조선 관원이 국왕에게 올린 보고에 의하면 양국이 시장을 연 것은 호혜평등이 아니라 “英俄爾岱가 물건의 가격을 계멋대로 하여 약탈이나 다름 없다”라고 하였다.<sup>27)</sup>

21) 「李朝實錄」『仁祖』, 卷15, p.38.

22) 「清太宗實錄」, 卷13, p.16.

23) 「清太宗實錄」, 卷12, p.6.

24) 「李朝實錄」『仁祖』, 卷32, p.5.

25) 「清太宗實錄」, 卷3, p.41.

26) 鄭培國,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第9集, p.3381.

27) 吳曉楨, 『吳曉楨集』, 第3冊, p.347.

다섯째, 조선에 대하여 경치적인 험박을 하고 무리하게 조선이 출평하여 명조를 칠 것을 요구하였다. 금나라와 조선이 화친을 논의할 때 금나라는 단지 조선이 금나라의 사절을 명나라의 사절처럼 겹대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며, 조선과 명조의 정상적인 왕래를 간섭하지 않았다. 황태극은 조선의 사신에게 “너의 나라와 天朝는 200여년이나 관계가 좋았으니 일조에 길을 필요가 없다”<sup>28)</sup> 그러나 崇禎四年 여름 금나라가 명나라를 칠 준비를 하며, 海島에 있을 때 사람을 과전하여 조선이 배를 벌려 주어 서로 몸기를 청하며 조선에 요구하기를 “형제간의 의를 생각한다면 든든하고 큰 군함을 제공해주고, 때 배에 홍릉한 선장 한 명 씩 안배해 달라”고 하였으며, 또 “만일 배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서 언론의 주와 철산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조선을 협박하였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에 대해 조선은 “명나라는 아버지와 같고 우리를 200여년이나 돌봐주었다. 지금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정복하려 하는데 어찌 배를 보내어 도울 수 있겠느냐?”<sup>29)</sup>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위의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금나라는 10여년 동안 조선에 대하여 일관되게 약탈과 압력의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특히 인심을 멀지 못하여 일찍이 조선 사람들의 커다란 미움을 촉발시켰다. 그러므로 황태극이 원을 帝로 고치려고 생각할 때 사람을 조선에 과전하여 그 국왕을 험박하여 관찰시키려는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광경에 전해지자 司憲府의 掌敎 흥익한이 먼저 상소하여 반대하였다. “신이 듣자하니 지금 용호(영아이대를 말함)가 오는 것은 곧 금왕을 제로 칭하려는 것입니다. 신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다만 대명의 천자가 있음을 들었을 뿐인데, 이 말이 어찌하여 나온 것입니까?”<sup>30)</sup> 소에서는 또 “우리나라는 본래 예의로 세상에 소문이 나있어서 小中華과 일컫는데, 대대로 事大의 일심으로 삼가고 또 힘써왔습니다. 지금 복종하여 오랑캐를 섬기고 안전을 탐내어 겨우 보존하며 시간을 연장한들 祖宗을 어찌 대할 것이며, 세상에 어찌 나설 것이며, 후세에 어찌 계 학습습니까?” 소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국왕에게 요구하기를 “그 사신을 목례고 그 서신을 뺏어서 머리를 상자에 담아 명에 보내어 형제의 악속을 폐반하고 천자를 침침한 것을 문제한다면 명은 예의가 뛰어나다고 말하며 이웃나라의 도를 베풂 것입니다.”<sup>31)</sup>

흥익한의 상소는 끝이 바르고 말이 염증하여 조선과 명조가 장기간 형성한 우호 관계를 굳게 저칠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금나라의 ‘渝盟聞’하는 무리한 요구를 심각하게 복로하였으며 조선 군민의 고통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이 때문에 조정내 대신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삼군관 학생들은 상소를 올려 오랑캐의 사신을 목베어 大義를 밝히라”고 하였다.<sup>32)</sup> 매월 후 英俄虜使는 春官弔祭使 명의로 서울에 도착하여 조선 대신에게 황태극을 응접하여 黃帝로 稱하는 일을 계기하였는데 “여러 관료들이 군신간의 대의로써 그것을 때 칙하였다.” 국왕은 영아이대를 접견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가 가지고 온 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영아이대는 화가 나서 팔을 빼며 돌아갔는데, “그가 성을 나갈 때 구경나온 사람들이 길을 짚고 체웠으며 어린이들은 기와조각을 뿌리면서 모욕을 주었다”<sup>33)</sup> 여론의 지지

28) 民忠 檄, 和提督, 第6卷, p.342.

29) 『清太宗實錄』, 卷9, pp.5~7.

30) 『李朝實錄』, 仁祖, 卷32, p.9.

31) 『李朝實錄』, 仁祖, 卷 32, p.9. “聽其使而取其禮，而其首奉于皇朝，責其背兄弟之約，棄天子之號，明信禮義之大，悉頌顯國之德。”

32) 趙慶男, 「萬中旌錄」, 卷 8, 「權衡錄」, “前學僧生等上疏諫斯橫使以明大義。”

33) 『李朝實錄』, 仁祖, 卷 32, pp.10~11.

아래 조선 국왕은 팔도에 고지를 내려 “충의지사는 각자 죄악을 내고 용감한 사람은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여 함께 어려움을 미김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것”<sup>34)</sup>을 호소하였다. 이리하여 어떤 냇가와 회생을 치루더라도 절대로 군나라에 굽복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로부터 ‘丙子胡亂’이 금(청)쟁권이 조선에 대하여 실행한 고압과 악랄 정책의 계속이며, 이것은 조선에 대하여 진행한 군사 정복과 민족 압박의 침략 전쟁이었으며 동시에 조선 인민이 적의 침략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유지하는 자위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은 비록 이 전쟁에서 실패하였지만 흥익한 등 三學士를 대표로 하는, 정의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죽더라도 強暴勢力에 굽복하지 않는 고상한 기개와 열중의 기개는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 三.

흥익한, 윤집, 오달재 “삼학사는 소를 울려 사신을 목쳐서 대의를 전하에 멀치자고 청하였다가 실양에 잡혀갔다”<sup>35)</sup> 삼학사가 실양에 있는 기간동안 청나라 조정의 위협과 점박, 음혹과 죽음의 시련에 당면하여 그들은 민족의 대의를 견지하였고 전혀 두려워함이 없이 청나라 조정의 淪盟稱帝를 통쾌하면서 조선파의 전쟁을 일으킨 背信棄義적인 비열한 행위를 질책하였고 ‘大明’ 신하로 칭하면서 죽어도 불굴하고 죽음으로 정의를 取하였는데 그 사격은 가히 칭송할 만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친들을 기억하게 한다.

먼저 과살된 사람은 司憲府掌敎인 흥익한이다. 흥익한은 南陽 사람으로서 字는 怡軒이고號는 花鳳, 校理비이다. 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흥익한은 “삼종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사법원성이 順健하고 警敏하다. 그의 품질은 사헌부장령에 이르렀고 책화과의 중진 인물이었다. 청나라 군이 두번째로 조선에 침입하였을 때 주화파 崔鳴吉과 金鑑宣이 흥익한을 “책화를 부드렸다 포로로 바쳐졌다”라고 말하며 그를 조정에서 배격하여 평양의 府尹으로 임하였는데 명의상 그로 하여금 서쪽 길에서 청나라 군대를 막는 중임을 책임지게 한 것이며 실제상은 청나라 군대의 칼을 빌어 자기의 적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흥익한이 떠나기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안”하였는데 그의 안전때문에 걱정을 하였다. 그는 태연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적을 위하여 죽는 것은 나의 진심이다”<sup>36)</sup>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평양에 가서 임하였다.

청나라 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였을 때 “먼저 서너명의 중요 주모 신하를 끌어서 보내야한다”고 세기하면서 의함의 선별 조건을 내걸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의 압력에 못 이겨 “책화를 앞장서서 주장한 대간 흥익한”을 내놓을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말하기를 흥익한은 비록 평양의 府尹을 맡하고 있지만 “만일 군대 앞에서 포로로 잡히지 않는다면 반드시 本土의 逃遁之路에 있으니 포로로 잡아 보내기가 어렵지 않다”<sup>37)</sup>고 하였다. 2月 12日, 조선 정부는 頤山縣 습邊大中에게 명령하여 평양으로부터 흥익한을 압송하여 실양으로 가도록 하였다.

34) 『李朝實錄』, 卷 32, pp10-11. “忠義之士, 各效策謀。愚敗之人, 自願嚴征, 務于共濟難難, 以報國恩。”

35) 『東國文獻備考』, 卷8, 「名臣錄」 ‘洪翼漢’

36) 『東國文獻備考』, 卷8, 「名臣錄」 ‘洪翼漢’

37) 김경호: 『조선사』, 권9, p.61.

38) 『唐太宗實錄』, 卷33, p.38

홍익한이 번갈 성시 외주를 지날 때 府尹 林慶庚은 특별히 길 옆에 나가서 영접하였으며 그를 격려하여 말하기를 “사대부는 죽을 때 그 자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공의 이번 행차는 진정한 남자의 일입니다. 살아서는 큰 뜻을 만들고 죽어서는 역사에 빛날 것인즉 무엇이 憾 菲비가 있겠습니까”<sup>29)</sup>라고 격려하였다. 이런 말들은 그의 홍익한에 대한 흡모의 정을 반영한 것이다.

二月二十五日, 홍익한이 삼양에 도착하자 “명나라 사람으로부터 오랑캐들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풀려서 보면서 모두들 한탄”하며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에 깊이 탄복하였다. 청나라 정부는 처음에 홍익한을 단독으로 가두어 놓고 體部의 관원들로 하여금 연회를 베풀어 그를 초대하게 하였지만 홍익한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나라 조정은 자가들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영마이대를 보내어 질문하기를 “너는 무엇때문에 왔느냐?”라고 하였다. 이 말은 분명히 알면서 일부러 묻는 것으로서 그 뜻은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홍익한이 대연하게 “작년 봄에 네가 우리 나라로 사절로 왔을 때 너의 머리를 베자고 청한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라고 대답하자 영마이대도 더이상 방법을 못찾고 백이 빠져 풀아가 버렸다.

三月五日(1637년 3월 21일), 홍익한은 청나라군에 압송되어 청태종을 만나러 갔다. 그는 비록 두 손이 묶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차례가 해연자약하며 “말걸음이 더욱더 안정되었다.” 청나라 병사가 그를 빨리 가라고 재촉하자 홍익한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남자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대연히 죽음을 맞이하여야 할 것이지 어찌 얼굴색까지 변하면서 달황할 것이나?”라고 하였다.

그런데 홍익한의 영웅적인 본색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와 청태종이 나눈 한 단락의 말이다. 청태종이 그를 대하자 얼른 청나라 군대들에게 친을 내려 손을 묶은 것을 풀어주라고 하면서 묻기를 “너는 무엇 때문에 풀어 앉지 않고 고고하게 서있느냐?”라고 하였더니 홍익한이 대연히 대답하기를 “이 무릎을 어찌 당신앞에서 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청태종이 또 물기를 “너는 무엇 때문에 먼저 맹약을 배반하여 두 나라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였느냐” 하였더니 홍익한이 반박하여 말하기를 “너와 우리 나라는 형제로 약속하였지만 후에는 우리들을 신하로 삼으려 하였으니 계약을 위반한 것이 너냐 아니면 나냐”라고 대답하였다. 청태종은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다가 한동안 지난 후에야 비로소 말하기를 “네가 기왕 앞장서서 착화를 부르짖었는데, 무엇때문에 우리 군이 나 아갔을 때 반격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참의왔느냐”라고 묻자 홍익한이 딱 잘라 말하기를 “내가 짐행한 것은 단지 큰 義일 뿐이다. 성과와 존망은 늘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 나라 사람이 모두 나의 뜻과 같다면 너희가 우리들을 멸망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말하고 홍익한은 분연히 옷을 벗고 땅에 누워 자기의 드리난 몸을 청태종에게 보이면서 질호하기를 “빨리 나를 죽여라”고 하였다. 홍익한의 이같이 견결을 보고 청태종은 방법이 없다는 듯이 좌우의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쩔구나”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태종은 홍익한이 그를 황제로 칭할 것을 반대한 진소를 거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황제가 될 수 없느냐?”라고 하였는데 얻은 대답은 “너는 역시 반역자인데 어찌 황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었다. 청태종은 매우 화가 나서 명령을 내려 홍익한을 끌고

29) 김경중, 「조선사」, 연 9, p80. “士大夫死得其所, 雖死! 明公此行, 真男子事, 生扶大義, 死光竹帛, 親可所恨。”

나아가서 죽이도록 하였다.<sup>40)</sup>

홍익한은 죄를 당하기 전에 청나라 병에게 종아와 팔을 달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유언을 썼다.

“대명 조선국의 누신 홍익한은 척화를 부르짖었던 일과 의도를 분명히 밝혔으나 다만 언어가 서로 잘 통하지 않으므로 감히 문자로서 밝히는 바입니다. 부릇 사해 안에 모두가 형제가 될 수 있지만 하늘 아래는 두 부자가 없는 법입니다. 조선은 본래부터 예와 의를 숭상하였고 언관들은 오로지 솔직한 것을 풍족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작년 봄에 제가 마침 언관의 책임을 맡았을 때 금나라가 곧 동맹을 어기고 황제로 자칭하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만약 (금나라에서) 끝내 황제로 자칭한다면 그것은 곧 천자가 둘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한 집안에서 어찌 형제를 서로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친지간에 어찌 두 사람의 천자가 있겠습니까? 대명은 조선에 대하여 예로부터 작은 나라를 들뢰주는 은혜가 있어서 깊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한 즉 깊이 사귄 큰 은혜를 잊고서 배반을 우선하는 헛된 악속을 지키게 된다면, 이치에 너무 벗어나며 의리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의론을 먼저 제창함으로써 예와 의를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선의 척화인 것으로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신하된 자의 명분과 의리는 마땅히 충과 효를 다 해야 하는 것이거늘 위로 군주와 부모가 계시지만 모두 안전하게 지켜드리지 못하였고 왕세자와 대군들이 모두 포로가 되고 늙은 어머니의 생사도 모르는지라, 진실로 한 상소가 파장을 일으켜 집안과 나라의 재화와 폐망을 불러왔으니 충효의 도리를 해마려 볼 때 그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추궁해보건대 죽어 마땅하므로 비록 만번 죽음을 당하더라도 진정 마음이 달가운 것입니다. 이 땅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로지 빨리 죽고 싶습니다! 오로지 빨리 죽고 싶습니다!”<sup>41)</sup>

홍익한은 유서에서 총금을 열고 그가 나라에 보답하기 위하여서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혼연한 장기를 밝혔는데 감정이 솔직하고 의지도 간절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

尹集은(1607-1637) 남원 사람으로서 자는 成伯이고 號는 林溪, 校理이며 吳達濟(1608-1637)는 해주의 사람으로서 자는 季潭이고 號는 秋潭, 校理이다.<sup>42)</sup> 윤집은 弘文館의 校理이고 吳達濟는 弘文館의 修撰이며 두 사람의 관직이 홍익한 보다 훨씬 낮지만 그들의 사적은 홍익한과 함께 길이 빛난다.

청나라 군이 날한산성을 포위하였을 때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무력에 의한 협박을 받아 “척화인은 자수하라고 명하자” 적지 않은 대신들이 자신과 가정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진하여 청나라 군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였다. 윤집과 오달제는 鄉名으로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들이 듣건대 조정에서 전후의 척화인은 자수하러 가라고 명령하였다하니 이때를 당하여 父의 위급함을 구할 수 있다면 조정의 신하들로서 어찌 감히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작년 가을과 겨울에 소를 옮겨 희생을 배격한 것이 곧 척화의 히물이었습니다. 오랑캐의 병영에 나아가서 칼을 맞아 죽음으로써 고환한 오랑캐의 간특한 요구를 막겠습니다.”<sup>43)</sup>라고 하였다.

40) 이상은 김경중의 「조선사」를 자세히 보시라, 卷9, 80.

41) 『李朝實錄』, 「仁祖」, 卷34, p.34

42) 〈東國文獻類考〉, 卷8, <名臣卷>.

43) 《李朝實錄》 仁祖, 卷34, P.15. “臣等伏聞廟令前後序班之人自首以往，當此之時，苟可以救君父之危急，

처음에 주화파 언론이었던 좌의정 金鑑가 “김상현, 정은, 윤황, 윤집, 오달계, 김수익, 김의희, 정희경, 이행우, 홍전 등 열한 사람을 보내기를 청하였다”(請以金尚顯、鄭蘊、尹煌、尹文熙、尹集、吳達濟、金壽闕、全益熙、鄭雷卿、李行遇、洪璽等十一人送之)하였다. 국왕과 기타 대신들이 환강히 반대한 데다 윤집과 오달계가 몸을 드러내고 나서서 차라리 ‘칼을 맞아 죽겠다’고 하자 조선의 君臣들은 그를 두 사람의 앞장에서서 淸盤으로 달려가 절대로 청조에 글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침내 오달계와 윤집으로 정하였다.<sup>44)</sup>

국왕 이종은 특별히 오달제와 윤집을 만나서 말하기를 그들은 '本非諉國'이라 하면서 두 사람을 청나라 군에 넘겨주는 것에 대하여 괴로운 심정을 밝혔다. 윤집이 말하기를 "아와 간은 때를 당하여 만약 나라에 이로움이 된다면 한번 죽어도 아쉬움이 없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구구함을 이와 같이 하십니까?"(當此之時，苟有利于國家，豈萬死而無惜。嚴下用同區區若此乎.)라고 하였고 오달제도 윤집과 마찬가지로 끗끗하게 말하기를 "선은 스스로 죽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오늘 죽을 끗을 얻었으니 그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臣恨不能自死。今得死所，有何憾乎)라고 하였다. 국왕 이종은 그들이 이렇게 충성심이 지극한 것을 보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윤집과 오달제에게 국가가 만약 보존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가족을 후하게 돌봐주리라고 하며 친히 두 사람에게 술을 부어 주었다. 이

정월 29일 아침(1637년 2월 23일), 오달계와 윤집은 청나라 군으로 압송되었다. 정태종이 직접 심문하였는데 그들에게 故臣斥和의 연유를 말하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대명에 대해 신하의 뜨로 설긴 것이 살해년이라. 대명이 있음을 알고 청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니 어찌 감히 칙화를 부르겠지 않으리오? 우리 조정이 天朝에 대해 신하로소 설긴 것이 지금까지 살해년이다. 으리상으로는 군신관계요 정례상으로는 부자관계이다. 청나라가 칭호를 몇대로하여 사신을 보내니, 나는 간연을 담당하는 관리로써 어찌 칙화를 험씨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할 말이 없으니 속히 죽여주기 마련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다시는 어떤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태종은 계속 심문할 수가 없어 그들을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윤집, 오달제는 청나라 군의 후발대를 따라 갔으므로 4월 15일에야 비로소 실향에 도착하였다. 四月十九日(1637年五月13日), 청나라 장군 명아이대는 조선측에서 심양에 보낸 사신인 파의정 李聖求 等의 사람들과 조선의 세자들을 빼놓은 관원들을 體部銜門으로 불러들여 이들이 많자 윤집과 오달제를 데려 오라고 명령하였다. 명아이대는 그 자리에 있는 조선 관원들 앞에서 윤집과 오달제를 향하여 청태종의 論疏을 선보하였다. “너희들이 화친을 돋는 것을 논의도록 선동하여 두나라로 하여금 괴를 보게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무거워 죽어 마땅하다. 다만 인명이 지중하니 너희들을 모두 살려서 처자를 이 곳으로 네리고 와 살게 하고자 한다.”<sup>47)</sup>

보기에는 윤리과 유파계가 저자들을 식양에 네리고 화시 일월로 삼는 것을 동의하기만

在廷臣已默敢不曰。臣等于去年秋冬屡斥崔鳴吉之主和，是乃斥和之尤者也。請黜鳴吉，快剗一死，以塞狡諭一派之後。

44 余灝中：《歷史》，轉引自

⑤「李朝實錄·仁祖」，9834，P21-22。

<sup>45</sup> 蘿离甲：「內子雖」，「亟相以後甘歸」，「我固之于太祖。臣事三百年，知君大柄，不知有清國，安敢不呼和。我朝之于天朝，以臣事之。今將三百年，義君臣而稱父子，清國潛號尊使，身爲諫官，安得不力言忤之乎？此外更无州言，惡速殺我。」

47) <李朝實錄·仁朝>, 卷34, P35: “兩年羽謫絕利, 使二國成仇。其禦極重, 可以殺之。特以人命至重, 故令全活爾輩, 可率妻子入居于此”。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서 죽을지언정 끌어았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더욱 처자들에게 까지 고삐를 끌어 그들마저 청조의 4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윤집이 먼저 말하기를 “천난을 겪은 후 처자의 생사도 모르니 천천히 확인하고 처리하겠다”(經亂之後，不憚妻子存沒，徐當聞見而處之)라고 하여 청나라의 침략으로 조선인민들의 처자가 흩어지고 재난으로 김과 가족을 잃게한 만행을 공소하면서 청나라의 유혹을 거절하였다. 오달제는 더욱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온 사람이 만일 살아서 돌아간다면 서민들까지 우리 임금과 노모를 만나 (따지려고 할 것이니) 파연 그와 같다면 살마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못하다”<sup>48)</sup>라고 하였다. 맹아이대는 생각대로 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황제께서 생명을 보전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은혜를 생각히 않고 대왕하는 말이 이와 같으니 지금은 그 대가를 치불할 수 있겠는가?”(累不念皇帝全話之恩，抗言如此，今不可復貸!)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조선 관원들은 오달제에게 집에 계신 70老母를 생각하여서라도 삼국시대 曹操의 徐庶를 빼워 “그대의 노모로 하여금 그대의 생촌을 들게 한다면 비록 이역에 있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는가”(使君之老母親聞君生存，雖在異域，不猶愈于死乎?)라고 권하였다. 오달제는 아예 용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윤집과 오달제는 실양城 西門 밖에서 피살되었다.<sup>49)</sup>

윤집과 오달제가 잡개하여 사자로 달리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장거는 모든 해국 지사의 실령과 마찬가지이다. 그 당시 조선의 평론가들은 말하기를 “오, 윤 두사람은 멀밀장부라 할 수 있다. 산악을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러한 절개는 웅직이기 어렵다. 만고의 대의를 밟혀 영원히 간신비와 아첨꾼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능히 태양과 그 빛을 견줄만 하다”<sup>50)</sup>라고 하였다.

十七世紀 初, 清(金)정권이 요동에서 급기한 후 조선에 압력을 넣으므로써 동쪽에 대해 걱정하던 근심을 해소하는 것은 청나라 정권이 명황조와 중국의 최고 통치권을 다투는 충체적인 전략의 중요한 요소였다. '丙子胡亂'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선은 이미 한차례 청조의 침략을 당하였는데 쌍방간 군사력량의 대비가 현저하였음을 잘알고 있다. 그러면 조선 정부는 무엇 때문에 '강약과 존망의 형세를 혜아리지 않고"<sup>51)</sup> 다시 전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꿋꿋하게 명나라 편에 서 있었는가? 이 문제에 답하면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역사적으로 명조와 조선이 함께 피해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떠어온 전쟁을 통한 주의와 전통적인 우호적 宗藩관계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明神宗은 “念東藩藩籬，甚效忠順，特命文武將吏，督兵進剿，不惜數百萬之糧餉，七年之牲勞，肅平海寇，全復屬國。”<sup>52)</sup>이라 하였다. 일본 침략자를 죽출한 후 침략자들이 또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평나라 군은 또 조선에서 2년이나 주둔한 뒤에 돌아갔다. 명조는 많은 인력과 장비의 비용을 치불하였음에도 조선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국제적인 원조는 흥익한에게 '祐之大恩'으로 불렸고 조선 백성들도 하여금 대대

48) 「沈陽狀啓」 31, 오녕대학 역사학부 1983년, “至今忍死到此者，萬一生還，則庶欲見君君與老母，果若如此，則生不如死。”

49) 김경중, 『조선사』 卷9, P82.

50) 署萬寧, 「丙子難」 「急相以後甘諒」, “吳尹二人，可謂烈烈丈夫。山岳可動，此節難動，昭萬古之大義，觀千載之奸謀，能與白日爭光?”

51) 「李朝實錄」, 「仁祖」 卷 32, p.11. “不量強弱存亡之勢”

52) 「明神宗實錄」, 卷34, P.4.

로 영원히 잊을 수 없게 하였다. 윤집과 오달재는 명조를 '義君臣而情父子'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바로 두 나라가 혈육의 관계임을 풍성하게 알려주는 징표이다. 또 지적할 것은 명조의 사십없는 원조가 조선의 보답을 얻어냈는데 명과 청이 요동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에서 조선은 먼저 출병하여 擊敗하였고 후에는 海島를 빌려주었으며 몇나라 장군 毛文龍에게 양식 및 기타 물자를 공급하여 주었다.崇禎二年(1629년)十月, 조선 측의 통계에 의하면 "모문룡의 군대에 제공한 물과 곡식이 모두 비십육만 팔천칠백여석"으로 조선도 마찬가지로 청조의 아만적인 침복에 저항하는 명조를 위하여 켜다관 회생과 사십없는 원조를 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나라 병사들이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불지르고 악랄하여 조선 민들로 하여금 청조에 대한 거다란 증오심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청조의 통치권내에 있는 피압박 濟族 인민들을 더욱 동경하게 만들었다. 청나라 군대가 처음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도처에서 죽이고 악랄하여 자녀와 재산, 가축들이 蔊羸하여 없어졌다.<sup>53)</sup> 평산 지방의 여덟집들은 불에 타서 한 칸도 남지 않았다.<sup>54)</sup> 조선 백성들은 청나라 군대의 잔혹한 행위에 대하여 더없이 분개하여 '화늘마래 함께 살지 못한다'(不共戴天)고 여겼다. 그러므로 조선 국왕이 팔도에 교서를 내려 청조에서 온 사신이 조선이 (청나라에 대해) 帝로 칭하라고 권유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시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였으며, 백성들은 청나라 군이 죄들어오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였다는데, "모든 사람들은 비록 천생의 화가 긴박함을 알더라도 오히려 배척하고 절교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다"<sup>55)</sup> 흥익한 등 三學士가 "首倡斥和"한 것은 민심이 바라는 것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민족의 공동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 다음, 조선과 명조의 사회발전과 문화수준이 접근 되어 있었는데 흥익한은 그것을 가리켜 "素以禮義聞天下, 脣之小中華"라고 하였는데 중국 儒教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다. 공자의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論語』, 颜淵公)의 사상은 흥익한, 윤집과 오달재 상학사가 죽어도 굽히지 않은 원천으로 "所執大義而已, 成敗存亡不論也"(흥익한의 말)청나라는 藏外에 있을 때 아직 낙후된 노예제 사회 발전 단계에 처하여 있었으며 유통 지구의 한족과 비웃 나라이 조선에 대하여 민족적인 압박을 실시하여 비정의적인 악랄 전쟁을 발동하였다. 선진적인 생산방식과 문화적인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동일한 사회 발전 단계에 처한 명조와 조선으로 하여금 청나라를 배격하는 동맹을 맺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殺身成仁文承祖, 餓死燕京謝信州, 可憐今日三臣死, 取比前人誰劣優."<sup>56)</sup>

詩 中의 "文承祖", "謝信州"는 중국 남송인 文天祥과 謝枋의 가리키는데 뜻은 조선의 흥익한, 윤집, 오달재 三學士는 문학상, 사망특과 의해를 겨룰 수 있는 외래 침략자에 저항하는 民族 영웅임을 설명한다. 그들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용감히 희생된 경신은 영원히 中韓(朝) 두 나라 국민을 고무 격려할 것이다.

53) 梁贊輯, 『李朝實錄中의 中國史料』, 99쪽, p. 348. "毛營前後斬殺米谷井二十六萬八千七百餘石"

54) 梁贊輯, 『卷六』, p.325.

55) 趙慶男, 『亂世雜錄』, 卷6.

56) 梁贊輯, 『卷六』, p.350. "鄙人士女雖知兵革之禍, 迫切朝夕, 而反以斥絕爲快"

57) 趙慶男, 『亂世雜錄』, 卷9.

## 「丙子胡亂과 朝鮮 三學士」에 대한 論評

崔昭子(이화여대)

胡亂과 연관하여 南漢山城은 350年前의 朝鮮의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清代사 그 중 關係史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인 朝鮮의 三學士 문제를 논평하게 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張杰教授의 論文에 관하여도 오늘 발표논문 이외에는 알지 못하므로 張 교수의 논문의 평이나 그 밖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中國學者들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사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져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清代의 中國과 韓國에 관한 研究로는 張存武, 劉家驥, 李先洙, 陳捷先 等의 台灣學者들의 胡亂前後, 19세기 말까지의 훌륭한 성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張教授의 논문 「丙子胡亂과 朝鮮 三學士」는 丙子胡亂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소개하고 이 胡亂이 '祖明敗盟'에 의하여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청나라가 일부러 죄악하며 일으킨 것인지, 崇翼漢等 三學士들은 전장의 죄수인지 아니면 민족의 영웅인지에 대하여 평가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丙子胡亂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관하여는 국내에서 많은 논문이 있지만 三學士에 관한 것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張教授의 문제제기는 國내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장교수의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면兩側의 기본사료인 「清實錄」「明史」「朝鮮傳」「高文書檔」「瀋陽將略」「朝鮮王朝實錄」仁祖朝 및 「燃藜室記述」 및 개인기록 등을 잘 활용하여 1. 丙子胡亂까지의 양국관계로 後金과 朝鮮의 관계, 두 번의 胡亂 그結果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2. 이 호란이 欲翌構兵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3학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론되었고 3. 三學士가 濰陽에서 처형되기까지 宏義之土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張教授는 丙子胡亂의 배경으로 丁卯胡亂 이후 제물약탈, 인구 捕掠이 심해져 조선인의 복수심을 촉발시켰으며, 遷逃人の 문제, 貨物 및 요구증가, 關市, 정치적 압박의 심화를 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毛文龍과 동강진 문제 역시 주요원인의 하나였고 조선인의 복수심은 전쟁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張教授는 丙子胡亂은 清정권이 조선에 대해 실행한 고압과 악랄정책의 계속이며 조선에 대하여 진행한 군사정복과 민족압박의 침략전쟁이었으며, 조선은 적의 침략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자유전쟁이었다고 평한 것은 양측의 입장을 잘 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三學士는 심양에서 清廷의 위협과 침략, 유흥과 죽음의 시련에 당면하여 清朝의 濰翌稱帝를 통색하고 朝鮮과의 전쟁이 背信棄義의만 비열한 행위임을 밝히고 大明臣下를 칭하면서 죽어도 불굴하고 죽음으로 절의를 취하였는데 그 사적은 칭송할 만하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明의 입장에 서게 되었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론적으로 조선과 명은 王朝儀亂 때 관계 外勢를 물리쳤고, 明은 재정적으로나 人力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선에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이점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大恩을 보답해야 된다는 감정을 일으켰고, 철예의한 과제, 간혹 행하는 중오심을 더욱 증가시켜 小中華의 입장에서 행동하게 된 것이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장교수는 清朝史의 입장이 아닌 韓國史의 입장에서 本論文을 서술하였지만, 三學士의 學의 배경이나 思想 등을 깊이 이해한다면, 왜 조선이 끝내 전쟁의 피해를 입으면서 明의 편에 서있는가, 三學士가 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장교수의 논문에 첨가하여 몇가지 논의를 추가하고 질문과 다소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논함으로써 논평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内子胡亂의 구실을 채끔하였다고도 하는 三學士는 宋時烈이 「三學士傳」(1674)을 지은 이후부터 洪翼漢(당시 52세), 尹集(32세), 吳達濟(29세) 3사람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송시열은 性理學의 純統(嫡統)을 자부하면서 순정성리학의 이념을 현실세계에 구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는데 對外의 으로는 復歸雪恥해다 된다는 北伐論, 對內의 으로는 禮治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對明의 리론인 舉聞大義를 표방하여 内子胡亂의 열사들인 三學士 伝記의 저술을 통해 春秋大義를 전달한 것입니다.

결국 행자호란의 핵심으로 조선은 더욱 성리학 이념에 충실했던 明이 망한 시절(1644년)에서 조선이 中華文化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됨으로서 주자학은 명실상부한 조선 사상으로 성화되었다<sup>1)</sup>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7세기 조선사회의 재편성 과정에서 성리학적 이념을 사수한 三學士에 대한 誉重이 시도되고 그것은 三學士傳으로 배듭지어졌습니다. 内子胡亂과 관련하여 三學士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들의 學的, 사상적 배경의 이해는 胡亂의 성격을 좀 더 선명하게 알려줄 것이며, 胡亂과 三學士의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이해해야 될지의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言官出身인 三學士는 당시 士林社會의 역론을 대변하였는데, 洪은 仁祖反正 이후 宮界에 나아간 人物이었고當時는 西人과 南人의 연관정권으로, 中華인 明에 대한 舉聞의 의리와 임진왜란때의 再造之功을 들어 親明 排金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内子胡亂, 전후斥和論의 평가는 당연한 것으로 小中華<sup>2)</sup>를 차치하고 문화국가임을 자부한 조선의 사대부로 북방 오랑캐인 여진에게

君臣關係란 참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國論이 斥和論이라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江華島가 함락되고, 主和論이 인조의 지지를 얻고 和親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책임을 물어 斥和派의 상징적 人物인 洪翼漢, 尹集, 吳達濟 等 三學士는 流亡으로 잠혀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회생의 속죄양이 된 것이다.

당시 흥익한과 清太宗과의 문답에서도 清太宗은 이길 승산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나라고 하였을때 흥은 言官의 역할은 大義를 막하는 것이지 成敗存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1) 鄭王子, 「三學士에 대한 再評價」, 『朝鮮後期社會史』 一志社, 1991. 9.19.

2) 소中華論의 문제는 근대 한국사에서 많은 論文이 있으며, 좀더 넓은 의미의 小中國, 韓國, 日本과 천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는 曹承鎬, 「朝鮮의 小中華觀」, 「歷史學報」 140-159 참조

性理學的名分論을 내세웠는데, 흥의 견해는 비현실적 명분론이라고도 하겠지만 조선사학의 性理學者들이 당연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전론과 주화론은 어느 의미에서 현실타개 밤법론상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는 유교적 명분론과 북방 여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尹集 역시 내 스스로 예컨하면 적은 더욱 경밀하여 화씨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싸워 치킬수 있음을 보여 준 후에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宋時烈『三學士傳』 참조)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주전론과 뒷받침은 주화론의 종전 협상에 유리한 배후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仁祖反正 이후 조선정권의 성격으로는 檢明排金을, 主戰論이나 三學士의 활동도 모두 小中華로서 朝鮮을 지키기 위한 차위적인 행동이고 그 바탕으로서의 性理學 뿐이었습니다.

張교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清側의 資料를 좀더 심층분석하여 清朝史의 입장에서 太宗이 胡亂을 일으키게 된 배경을 政治, 社會, 經濟의 면에서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三學士 문제는 清側史料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 전쟁이 첨조로서 필연적인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준비를 충분히하고 조선정벌을 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고, 단시일의 속전속결로서 미무리 되었는데, 領土的인 야심이 있었다면 그 역시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入關前 内蒙古와 朝鮮을 복속시켰는데 두 지역에 대한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張교수의 논문에서 시정하였으면 하는 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1. 後金으로 표기하시던지 아니면 1636年 이후는 清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金"으로 쓰는 것은 앞서의 금나라와 혼돈의 우려도 있고一般的이지 않습니다.

2. 참고 자료 제시때에例를 들어 清實錄(太宗) 卷? P?은 P보다는 崇德(天聰) 年, 月, 日纔라고 쓰는 편이 독자에게 쉽게 자료를 구해볼 수 있고, 시기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3. 1637年 1月 28日字 永定規則 11항목 중 6, 7, 11은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 정확한 제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오자는 간혹 있는데 자격하지 않겠고 1章의 보충적인 자료로 内附의 문제는 指稿 「壬辰倭亂 朝鮮支配層의 對朝儀式」, 「考古美術」 136,7 合輯 1983, 壬辰倭亂關係는 指稿 「明末中國의 世界秩序의 變化: 壬辰丁酉倭禍를 中心으로」, 「明末 清初社會의 照明」 한글 1990을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地名語를 通해서 본 南漢山城에 관한 研究

발표자 : 朴 相 圭(경원대)

논평자 : 張 哲 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地名語를 通해서 본 南漢山城에 관한 研究

朴 相 圭(경원대)

1. 序
2. 地名語의 例와 南漢山城의 字體的 意味
3. 結語

## 1. 序

올해로서 남한산성 축성 370주년이 된다. 城廟에 講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유서 깊은 '남한산성'을 하나의 주제로 하여 國際學術會議를 성남에서 개최한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 경사 중의 경사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국제적 행사에 '지명어를 통해서 본 南漢山城에 관한 考察'을 가지고서 '山城'을 중심으로 국학 부분적인 언어민족을 통해 어떻게 '南漢山城'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실상 여러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바탕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보다 객관적인 '南漢山城'에 관한 研究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어려하지만 실제로는 한 個人에게 이러한 논문은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그 까닭에 필자는 本稿에서 '三田渡碑'와 '地名譜'를 통한 남한산성의 지명적 성격을 도대로하여 '남한산성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 글을 이끌어 갈 것이다. 同學, 先學의 많은 질책이 되마드리라 본다.

성남지역과 남한산성 지역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성남지역은 그 일대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과 그 유역의 비옥한 평야로 보아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입지 조건으로 선사시대부터 이미 생활하지 않았는가 여겨진다. 실제로 여주와 화성, 광주군, 도척 등 인근 지역에서 舊石器가 발견되었고 신석기 시대 유적의 하나인 암사동·미사리 등지가 떨지 않고 첨동기 시대의 유적지로 알려지고 있는 역삼동·평일동·가락동 등지가 민접지역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성남지역'에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初期國家중에서 백제국은 마한 50여국 중의 하나로 뒤에 부족 연맹왕국을 이루어 백제로 성장해 갔는데 '성남지역'이 본격적인 국가통치하에 놓이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이 백제의 중심에 속하게 되면서부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백제의 영역 중심부에 속해 있던 '성남지역'은 언제까지나 백제의 영토로 남아 있지는 못했는데 475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면서, 이 지역도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 후 이 지역은 백제 성왕에 의해 다시 탈환될 때까지 대략 70년간 고구려의 지방행정조직으로 편성되게 되었다. 곧 고구려는 백제의 한산성을 험락시키고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北漢山郡을 설치한 바, 성남지역은 廣州와 함께 여기에 관계되었던 것이다. 장수왕 때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어 북한산군이라는 행정구역에 편제되었던 '성남지역'은 501년 백제 성왕에 의해 탈환되어 일단 수복되었다가 다시 신라군의 침략으로 이번에는 신라에 귀속되는 바 되었다.

신라에게 있어 한강유역은 그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으므로 전홍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던 그 해, 이곳 한산성에 新州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신주의 主治는 廣州에 두어졌는 바, 이로써 한강 유역의 지배세력은 백제·고구려에 이어 신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 무렵 성남지역은 광주와 함께 지금의 서울 지역에 포함되어 신주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후에 행정구의 개편의 일환으로 '성남지역'도 북한산주의 관할로 되었다.

신라가 삼국통일 후 9주를 두게 되었는데 9주 중 고구려 고지에 설치한 한산주의 치소는 지금의 광주·성남지역으로서 삼국시대 한강유역 통치의 중심부로 기능하였던 이 지역이 통일 이후에도 또 다시 주의 首府로 기능하게 된 것이었다. 한산주라는 명칭은 경

1) 李完宰, 한국사에 비친 南漢山城의 역사, 民族文化社, 1983 참조

백왕 때의 한화정책에 따라 貴州로 개명되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이 8道로 전국을 분할함에 따라 건국초에 廣州牧은 고려말의 行政區劃인 楊廣道에 그대로 속해 있던 것이나 태조 4년(1396)양주와 광주 소관을 京畿도 등에 따라 광주목은 京畿所管이 되었다. 그러다가 1895년 고종 32년에 개혁된 지방 관계에서 광주는 郡으로 개칭되는 반면 漢城府의 관할이 되었다.

## 2. 地名語의 例와 南漢山城의 字體的 意味

南漢山城은 경기도 광주군 군내면(중부)의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山城里에 국한하여 '山城'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것은 몇몇 문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며 최근에는 지명 사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2)</sup>

필자는 본 논문에서 山城과 관련되거나 城南市와 관련된 지명 중에서 一例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A] 도마치-고개<sup>3)</sup>

웃벌 대에서 뒤ண면 도마치로 가는 고개.

[B] 솔치-고개<sup>4)</sup>

광주읍 송정리 솔치고개.

[C] 태봉재<sup>5)</sup>

① 하대원동, 도촌동, 여수동 경계에 있는 산.

② 높이 158.3 m

③ 특징은 산이 페처럼 생겼다고 함.

[D] 이비재<sup>6)</sup>

① 상대원 동쪽에 있는 고개

② 퇴계 이황 선생께서 과거에 금계하여 귀향하다가 이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넘고 보면 황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두 번 철하고 떠났다 함.

③ 三拜觀이라고도 한다.

[E] 세자골<sup>7)</sup>

백제시대에 세자궁이 있어서 세자골이라고 한다. 간이풀 세자궁터라는 끝(발)에는 와편이 출도되고 있다. 또는 세집이 살아서 세집골이었는데 세자골로 변했다고도 한다.

[F] '城南地域'의 字體的 意味

[1] '도마치-고개' '솔치-고개'의 지명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해서 그 언어적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제171경기편<上>, p217ckawh, 1985.

3) 한글학회, 상계서, p218창조.

4) 한글학회, 상계서, p.218창조.

5) 박상규, 城南地城의 地名語 '-재' 研究, P.3 창조, 城南文化研究 제 3집, 1990.

6) 박상규, 상계서, p.4 창조,

7) 박상규, 城南 地域의 地名 性格 考察, P.10 창조, 城南文化研究 창간호, 1994.

<9> 첫째 '도마-치-고개'라고 표기한 것은 '도마-치-고개'라고 표기한 것보다는 현명하지 못한 표기의 한 방법인 것 같다. 그 이유는

① '도마-치'가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며 여기에서 고유명사는 '도마'이다.

② 그리고 '치'는 원래는 실사로서 그 의미가 있었으나 후대에 와 그 쓰임에 있어 그 의미가 상실되고 형태만 남게 되니 그 형태는 자연히 하사화가 되어서 '-치'가 된 셈이다.

③ 그러면 하사화된 '-치'의 원래의 형태와 의미는 다음에서처럼 규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관련된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④ '-치'는 본래 free morpheme으로서 '제'와 가능이 동일하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제' 역시 원래는 free morpheme이었으나 후대에 들어와서는 언어의 '用不用'에 의한 사람들의 심리적 여러 현상에 의해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bound morpheme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겠다. 따라서 '제'였던 free morpheme인 '제'가 '用不用'에 의한 인간심리에 의해서 '-제'라는 bound morpheme화하였으니 어휘 자체에서만으로 볼 때는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의미로 변화하는 했으나 결국, 구속 형태소로 밖에는 오늘날 문법적으로 볼 수 밖에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와 '-제'는 백제어로 하여 모두 그 어휘의 의미는 '制'으로서 '城'을 뜻하며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子母(자희)>제'로 변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중세한국어에서는 '제'는 '城'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국어사적인 근거는 '백제어'에서 '제'는 '城' 즉 '高' 山 '谷'을 뜻하기 때문일 것이다.

⑤ 따라서 '-치'도 '-제'와 동일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원래 '-치'가 '-치'로 free morpheme이었던 것이 bound morpheme으로 변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제'의 경우처럼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의 작용 중에 하나인 '用不用'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 이 크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언어란 계층 간에 그 쓰임이 각각 달라 어느 어휘는 많이 애용되며 어느 어휘는 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정' '즈끈'은 '은'정이 여기에 속하며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모사랑 '어엇브다' '갈해다' '마음' '가난하다' '어리다' 등이 撫意에서 莫意로 변천하였거나 또는 原體가 망각 소실되고 新意味로 변천하는 어휘들이다. 말하자면 아무리 아름답고 독특한 어휘라고 할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민족에게 사랑을 받아야 그 어휘는 더욱더 학습된 의미가 담겨진 언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민족이 자기의 국어를 갖고 다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그 언어가 '用' '愛用'과 같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 계속 쓰이게 되고 '不用' '不愛用'과 같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라지거나(消失)'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화'하거나 하는 운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치'도不用하게 되면서 하사화된 '-치'로 쓰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앞에 固有名詞가 와야만 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⑥ 그러면 '-치'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다음에서처럼 어학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百濟 地名에는 10<sup>th</sup> 城'을 '子母(자희)>제'로 기록한 곳이 있다.

8) 박상규,상계서,p.79 참조

9) 이을환,박상규 공저,언어학의 이해,pp.250~253 참조,한도출판사,1995 서울.

10) 韓國方言學會 編, 國語方言彙單,p.68 참조,한성출판사,1987년.

### 秋子分郡-秋城郡(潭陽郡)

예기 '子<sup>우</sup>'(조희)는 '제'의 古形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제'는 오늘날 방언에서 '셋머리'라고 전북 무주에서 쓰이고 있고 또한 '셋배기'도 쓰이는데 이 말은 충남 서천 사산에서 쓰이며 또한 '셋배기'는 충남 논산에서 그리고 '셋날령이'는 경북 김천에서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제어 '子<sup>우</sup>'(조희)는 '제'의 古形이지만 이 '조희'는 '잣'으로<sup>11)</sup> 중세한국어에서 '城'의 뜻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방언에서는 '셋-'-'전-'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제, 잣, 셋, 전' 등이 상호간에 오늘날 異形體로 각각 쓰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개음 평음인 'ㅈ'이 격음인 'ㅊ'으로 語頭에서 격음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ㅈ>ㅊ'으로 이것이 '잣-제'가 '치'로 바뀌었다고 보겠다. 言衆 사이에서 '제'가 '치'로 바뀐 형태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그 의미는 동일한 '城'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바뀐 형태는 오늘날 '제'와 더불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고 하겠다.

물제, 三韓系에는 '城'을 의미하는 '己·只·基·支'[ki:gi] 등이 있었으나 고구려족은 발견할 수 없다.<sup>12)</sup>

奴斯只縣 - 僮城縣

結己縣 - 淑城縣

基郡 - 富城郡

關支郡 - 關城郡

에서 볼 수 있듯이 '己·只·基·支'의 'ki:gi'는 '城'을 뜻하므로 '치(chi)'와 매우 상관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어학적 상관성은 아마도 폐쇄음인 연구개 평음 ㄱ이 과음을 인 구개음 격음 ㅊ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다. 말하자면 'k>ㅊ'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세국어에서 '꽃>꽃' '고>코'로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언어적인 현상은 'k>ㅊ'로 변화 내지 異形體로서 동시에 k와 ㅊ가 쓰였음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言衆이란 언어적인 법칙성보다는 언어적인 경계성이 보다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문법적인 言語體系보다도 자기 편리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三韓系 言語에서 '城'의 뜻을 가진 '己·只·基·支'는 'ki:gi'로 표기되는데 이러한 형태소는 '치(chi)'와 어학적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미도 '城'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제, 三韓系 地名에서는<sup>13)</sup> 물론 山巒에 관한 것도 있지만 평야에 관한 地名이 많고 '夫里, 伐, 布, 火' [puri,pwli,bwi] 등은 '城'보다는 평야에 있는 '市邑'의 뜻이 보다 더 농후하며 지명에 물는 짐마사도 이에 관련된 것이 있다. 가령 예를 들면 '彌知'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松彌知 - 茂松縣

古馬彌知縣 - 馬邑縣

化昌縣 (本 知乃彌知縣 大拜部曲)

單密縣 (本 武冬彌知縣)

이 '彌知' '密'은 韓 '민, 밀, 미디'로 對應漢字가 없어 불분명하나 분명히 보통명사이고 도근 산을 뒷면으로 하고 그 밑에 위치하는 손락의 뜻이요 앞에는 평야를 연상하게 한다고

11) 崔鵠桂, 韓國方言辭典, p.122 참조, 玄文社, 1977, 서Ⅱ.

12) 金昌桂, 李朝語辭典, p645 참조 1974.

13) 한국명언학회편, 전개서, p68 참조.

14) 한국명언학회편, 전개서, p70 참조.

하였는데 아마도 이러한 의미 속에는 '치' '체'와 거의 연관된 끗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A]도마치-고개 [B]술치-고개'의 지명 내용이 '웃벌 내에서 피운면 도마치로 가는 고개'와 '평주읍 송정리 술치 고개'에서 모두 '山의 밑에 있는 村落' '체 아래에 있는 마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상, ⑦⑧⑨를 통해서 '치'가 '-치'로 허사화되었음을 나름대로 살펴 보았으며 또한 그 의미 역시 논의하였다. 결국 ①②③과 ④의 ⑤⑥에서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도마치-고개'에서 '도마치-'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도마-'가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이며 '치'는 '-치'로서 '체' '城'을 나타내는 '보통명사'이며 뒤에 붙은 '-고개'와 同意眞形態이다.

둘째, '-고개' 역시<sup>15)</sup> 고구려어 忽(域)인 'kol'에 차소격 조사 '이'가 합성되어서 'kole' 또는 'kol'의 '-이'가 '-n'化되어 'koke(고개)'라는 어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고개'는 '곡(谷)' + '이'의 합成語로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치'는 忽"域"의 뜻으로서 백제어에서는 '子丘(제)', 고구려어에서는 '城'에 해당되는 '城"域"에 사용되면서 방언에서는 '샛"ண"갓'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넷째, '-치'는 三韓系에서 '城'에 해당되는 '己, 只, 基, 支'와 어학적 상관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다섯째, '-치'는 三韓系 지명에서 '眞知' '密'의 음인 '민, 묵, 미디'와 어학적 상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섯째, 결국 '치'는 '-치'로 문법상 변형되었으며 의미상으로 free morpheme 으로서의 '치'나 bound morpheme 으로서의 '-치'와 동일한 개념으로서의 의미인데 그 뜻은 오늘날 아마도 '체, 끝, 山, 고개, 城'과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b>둘째, '술치-고개'라고 표기한 것은 '술-치-고개'라고 표기한 것보다는 현명하지 못한 표기의 한 방법인 것 같다. 그러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도마치-고개'가 '도마-치-고개'라고 표기해야 함을 설명했던 것처럼 통일한 방법에 의해서 '술치-고개'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a>첫째와 <b>둘째는 같은 방법에 의해 결국 '치'와 '-치-'의 문법적 어휘적 측면에서 그런데로 살펴본 셈이다. <a><b>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지명에서 어휘가 중첩되어 나타나게 될 때는 선형되는 어휘와 段尾의 어휘와의 연어적 관계가 대체적으로 동의미 미형태이던가 혹은 문법적으로는 free morpheme이던 형태소가 bound morpheme 化되는 말하자면 實辭의 虛辭化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한 어휘에 다른 어휘가 승해서 새로운 단어로 형성될 때 생겨나게 되는 언어적 현상은 제일 후미에 나타나게 되는 어휘는 최초의 원래 의미에 대한 단어이거나 형태소이며 그 다음에 오는 원래 의미에 대한 그 地方 方言 내지 화례에 또는 강조된 어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여 보다 심도 높은 어휘분석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 '대봉재' '이태재'의 지명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15) 韓상규, 韓계서, 장간호, 153 참조.

<a> 첫째, '매봉재'라고 표기한 것은 '매-봉-재'라고 표기한 것보다는 헌명하지 못한 방법인 것 같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의 특징이 '매'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매-'를 語頭에 붙였을 것이다.

② '-봉-'은 한자어 '峯'을 의미할 것이며

③ '-재'는 백제어 지명으로 '城'을 표기한 기록이며 어학적으로는 '子丘(존현)재'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오늘날 '재'라고 부른다.

④ 따라서 '매봉재'는 '매-봉-재'를 의미하며 '-봉-'과 '-재'는 결국 同意味異形態이며 '-봉-'은 한자어이며 '-재'는 단자 백제어로서 '峯'을 뜻한다.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매재'이던 이 지명이 신라 삼국 통일 이후부터 한국문화의 중국문화적인 것으로서의 번철에 의한 본격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가장 경점이 8세기 景德王의 地名 中國化에 의한 작업으로 인하여 '매봉재'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결론적으로 보면 'A,B,C'라는 地名에서 보면 'A'는 그 지리적인 여러 여건을 충칭할 수 있는 어휘임을 알 것이며 'B'는 대체적으로 'C'에 대한 한자어이거나 아니면 'C'에 대한 同意味異形態로서 'C'에 대한 bound morpheme에 해당한다. 또한 'c'가 그 지역의 고유어인데 비하여 'b'는 외래어임을 대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b> 둘째, '이비재' 역시 '이비-재'로서 여기에 대한 어학적 분석 내지 종합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이비-'는 韓系 이황 선생의 전설과 관련이 있어서 '두 번 절을 하다(산을 넘으면 서)'에서 '二拜'가 온 듯하다.

② '-재'는 앞에서 언급한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3] '세자골'에서 '-골'의 어학적 견해는 필자가 여러 논문에서 발표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하겠다.<sup>16)</sup> 그리고 '-골'은 고구려의 지명에서 '谷' '城'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a> 첫째: 形態

골(谷) : ① 고구려 시대 '골(kol)'은 '城'의 의미로서 滿洲語 holo(谷)와 비교되며 비교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同根語異形態일 뿐이다.

② 중세 한국어 '골(kol)'은 '洞.谷'

③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골(kol)'은 매우 다양하게 따라서 비교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골(kol)은 어미가 많이 참가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④ 오늘날 城南地域에서는 '골, 끈, 고개, 터골, 풀산, 산골, 고개골, 벌골, 굴산, 굴고개, 골산' 등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b> 둘째: 意味

골(谷) : 고구려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城南 地域의 '골'의 의미는 '단어의 중침성'으로

16) 박상규, 전계서, 향간호, 200장조.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章珠의 '經濟性'나 '保守性'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성남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백제적 언어와 고구려적 요소가 상호 관계되고 어우러져서 지명어의 발전을 폐하게 되었던 것 같다.

#### [4] '南韓山城'의 자체적 의미

史學에 관계되는 論文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北城=大城, 南城=王城”이며 北城=漢城이라 는 결론 아래……<sup>17)</sup>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南漢山城’의 자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를 간단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역사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a> 첫째, ‘南’은 다음과 같은 Altai 言語民俗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①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 满語語의 경우에는 南=julergi(前方, 前側, 앞)이며 北=ernargi(後方, 後側, 뒤)이다. 또한 女真語에서도 보면 ‘後·前後의 後’라는 뜻으로 ‘阿木’이라는 용어 있으며 이 曾 裏記를 ‘amu’ ‘a’ ‘ama’ “a” ‘amu’ 등이 있다.<sup>18)</sup>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言語에서는

- ① ‘南=前方=前側=앞’으로 볼 수 있으며
- ② ‘北=後方=後側=뒤’로 보며, 또한
- ③ ‘北=後=前後의 後’로 볼 수 있다.

결국 ①②③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南=앞=前’이며 ‘北=後=뒤’이다.

② 민족적인 측면에서 볼 때<sup>19)</sup>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한민족은 어떻게 해서 기원 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때에 아무래도 北方을 생각해야 한다. 즉 흔히 말하는 “北方系 케의 南方系”이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말의 앞과 南 그리고 배(腹)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며, 귀와 背과 등(背)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앞은 南이오, 배가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南’이자 뒷‘南’과 옆‘山’이라는 말은 없다. 서울의 앞山은 ‘南山’이고 大邱에서는 南쪽 山을 ‘앞山’이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 둘째, 漢은 韓이다. 따라서 漢=韓=大이다. 그러한 이유는 大舍或云韓舍, 大阿盧或 韓阿盧(三國史記 卷38) 중세국어의 ‘韓’과 일치한다. 따라서 漢=大의 뜻을 지녔다. 또한 ‘漢’은 사람의 뜻을 가지기도 한다.(예: 惡漢=악한 사람)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은 신라어의 경우를 뜻하는 것이니 만약에 백제어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sup>20)</sup>

(例) 韓吉支=Kankirci(王稱證)..... 이 단어가 開書 異域傳 百濟條에 등장함은 이미 주지 된 사실이다. 이 단어에 대한 분석을 ‘간 = 大 = 한 = 큰’과 ‘吉支 = 貴人’과 같이 할 수 있어 이것을 종합하면 ‘大貴人’(Kankirci)가 될 것이다.(都守熙, 1972:136-141) 이 단어는 韓系語임이 분명하다. ‘간’이 干, 韓과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開書의 記錄內容이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도수희가 말했던 바를 기초로 한다면 ‘大’의 뜻을 끌라서 생각할 수 있으니 新羅語系에서는 han’이며 이것은 중세 한국어에 이어지고 오늘날까지도 이어

17) 金起聖百濟 翡翠略 漢城에 대한 再檢討 p20 참조, 1995.

18) 金昌鎭, 韓계사 p.149 참조.

19) 박상규, 朝鮮·高麗·元朝 語彙, 언어 민족학 논고 제 7집, p5 참조, 민창문화사, 1992.

20) 都守熙, 『百濟語研究』 (1), p.140 참조, 張文闡, 1984.

지는 데 반하여 백제어系에서의 '건'은 'Kən'이며 당시에는 '大'를 뜻하였으나 이 'Kən'은 중세 한국어에 이어진 어휘는 아닌 듯 싶다.

따라서 '南漢山城'의 字體的 의미에서 '漢=大'라고 하는 속 뜻은 신라어에서 연유되었거나 조선시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시 이러한 사실이 아니라면 백제어의 'Kən'이 후대에 'han'으로 竝記 使用하여 오다가 'Kən'보다 'han'으로 定義 사용하였을 추측을 가능케 한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남부에서는 특히 백제어 보다는 신라이가 세력권이 더 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 넷째, 山은 '재'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재'가 '山' 또는 '언덕'을 의미한다는 것은 백제어적 의미를 내포했다고 보겠다.

넷째, '城'은 '城'이며 중세국어의 '꼴(鵠谷)'과 비교된다. 그리고 谷 holo(谷)과 비교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同根語異形歷程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어에서는 '山'을 '達' 그리고 '城'은 '怒'이라고 한 점이 백제어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것째에서 넷째까지 간단하게 논의하였는데 결국 '南漢山城'의 자체적 언어분석에 의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 ◎ 앞 쪽에 있는 큰 재의 성곽 도시
- ◎ 남 쪽에 있는 큰 성곽 도시
- ◎ 前方의 큰 재를 둘러싼 城郭 등의 뜻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앞에서 언어학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해석을 하였으나 문제는 역사학적 측면에서 보는 방식과 言語學的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과의 차이점은 두고두고 숙제의 예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주변 학자들과의 관점 차이를 좁히도록 상호간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3. 結語

필자는 이상과 같이 간략하나마 南漢山城 축성 3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성남지역의 지명어와 남한산성의 字體的 의미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주안점으로 필자가 두고자 하였던 점은 현재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널리 산재되어서 불리우고 있는 지명어를 통해서 과거 고대에는 이 곳들의 명칭이 어떻게 불리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남한산성과 관련된 여러 지명을 통시적인 관점을 갖고 본 발표에 임하려고 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남한산성을 단층에 연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넌센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 이러한 국제대회를 통해서 자기 분야에서만이라도 최대한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이 '남한산성'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세상에서 빛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말하자면 韓國學의 인측면에서 남한산성에 접근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남한산성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남한산성은 有史以來로 많은 사연을 담고 이 시점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전국'과 관련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恨'과 관련되기도 하고 때로는 '忠臣'과 관련되기도 하면서 남한산성은 늘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성남과 꿈을 갖이 하

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더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갖기로 한다.

글으로 한 마디 보탠다면 '남한산성'은 백제를 시작으로 하였으나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지명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작업의 의미가 된 셈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차후 수정 정정하여 加筆할 것을 약속한다. 同學과 先學, 後學의 뜨거운 비판을 기다린다.

## 「地名語를 통해 본 南漢山城에 관한 研究」의 論評

張 哲 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논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地名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부터 언급하고자 한다. 지명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제도의 필요에 의해서 일정한 땅이나 구역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나름의 의미가 깔려져 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 주듯이, 그리고 생물의 이름이 각각 다르듯이, 지명도 생활과 사회에서 일정한 땅을 다른 땅과 구분하기 위한 문화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제도가 변하면 그에 따라 지명도 바뀌거나 아니면 변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필요가 없게 되어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그 지역이나 지명의 가치나 의미가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명은 특정한 시기의 생활과 사회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땅의 문화와 역사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지명이 문헌기록에 수록되는 것은 아니다. 지명이 문헌에 기록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관계 될 때에 한정된다. 그밖의 대부분의 지명은 일상생활에서 단지 口傳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의 연구는 기록된 역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地域史研究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논평자가 보기에는 학술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음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자의 해설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우선 제목에 나타나는 '地名語'라는 단어의 용례에 관한 문제다. '지명'과 '지명어'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사전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가 해명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특정한 용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와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序論은 本論의 도입부분으로서, 본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의 의의, 그리고 연구방향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지명연구와는 관계없는 남한산성 지역의 역사만이 간략하게 통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론에서 언급한 지역의 간략한 통사와 본론의 지명연구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지명연구의 지방문화사적 의의는 지명에 나타난 음운현상이나 문법적 사실보다는 지명의 뜻과 의미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땅에 이름을 붙여 다른 땅과 구분하고자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명의 뜻은 바로 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명에 나타난 음운현상이나 문법적

사실은 바로 그 뜻이나 의미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취급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연구는 言語學이라는 전문분야에서나 다를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남한산성 지역의 생활과 문화 또는 역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론의 논지전개에 나타나는 '도마지 고개'라는 지명을 문제삼을 때, 우선 '도마'의 뜻이 밝혀져야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도마'라는 지명이 나타났으며, 또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치'와 '-고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혼가되었는가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의 변화를 사람의 "用不用·用·愛用·不用·不愛用" 등과 같은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지명에 대한 지방문화사적 연구에서 그렇게 의미있는 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치'와 '-고개'가 모두 '城'을 나타내는 "同意朱具形態"라고 본다면 왜 이런 중첩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이곳에서만 나타나는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마-치-고개'와 '해-봉-재'의 2지명에서 나타나는 차이, 말하자면 순수한 우리말로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지명과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한자를 결합시킨 지명이 갖는 의미는 어떤가에 대한 설명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복잡한 문화적 배경과 의식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의 뜻에 대한 설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 쪽에 있는 큰 계의 성곽도시, 남쪽이 있는 큰 성곽도시, 전방의 큰 재를 둘러싼 성곽" 등의 뜻으로 풀기보다는 洪敬謨의 『南漢誌』에 기록된 대로 "漢水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南漢이라고 하였으며, 漢山郡·南漢山州와 같은 이름 또한 모두 漢水라는 말에서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한자가 공용문자로 사용된 이후에 명명된 지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리말 지명은 무엇인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남한산성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밝히는 지방문화사적 지명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남한산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 즉 이 지역은 한자가 공용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도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었다는 지방사의 한 축면을 밝히는데 공헌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비전공자의 논평이라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해하시고 보다 나은 지방사 연구의 방법을 위한 관점에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란다.

## 한국의 산성 연구 동향과 과제

발표자 : 車 勇 杰(충북대)

논평자 : 沈 奉 謙(동아대)

## 한국의 산성 연구 동향과 과제

■ 勇 杰(충북대)

1. 머리말
2. 韓國山城의 源流 問題
3. 山城의 類型別 認識
4. 비교연구의 필요성
5. 조사 연구의 현황

## 1. 머리말

전통 시기 한국의 역사는 산성의 축조와 산성을 이용한 외민족의 침략을 극복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산성은 특히 한국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유난히 산성을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산성은 중국의 평지 방형(平地方形)의 유품들과는 달리 산지 부정원형(山地不定圓形)을 기본으로 하는 점에서 중국의 전통과는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성은 중국의 성이 향도(旁土)와 진축(墳築)이란 점에 대하여, 토축도 있으나, 석축(石築)을 기본 재료로 하여 성장(城牆)을 구축(構築)하였다라는 점에서도 성격의 구분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의 전통에 대하여 근세의 삽화에서 산성을 고로봉형(鵝樓峯形), 사모봉형(紗帽峯形), 마안봉형(馬鞍峯形), 산봉형(叢峯形)의 네가지로 구분하였다는 것 자체가 산성 위주의 발전을 한 한국 성곽사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고도 여겨집니다. 이러한 형식 구분의 입체성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유적으로서의 산성에 대한 연구는 그 택이 근대적인 학문의 도입과 적용과정에서 잠시 멈추어 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의 역사에서 근대화의 과정으로 들어서면서 나라를 빼앗았던 빼겨진 세 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연구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전코 활발하거나, 활동반거나, 연구의 성과가 특히 풀목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분단으로 약 50년간 한반도 북쪽 지역의 산성을 실건할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무었보다도 한국의 성곽은 그 유적이 매우 많아서 기본적인 현황의 파악에 만도 많은 시일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하나의 성벽을 개략적으로 지표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간행하는 데에는 10여명의 조사단이 약 2-3개월의 현지조사와 정리과정을 거쳐서야 가능한 힘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나마 최근의 연구열의 고조에 빼맞추어 南漢山城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성을 국제적 안목에서 규명하고자 함에 있어서, 한국의 산성 연구의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연구 이해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번의 발표에 앞서서 발표자는 1996년 11월 4일에 한국고고학회에서 <한국고고학의 반세기>-성곽-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성곽의 연구 현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개략적으로 밝힌 바가 있음을 살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한국의 성곽은 아니더라도, 산성이 한국의 성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만큼, 공부하는 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자신이 아직 한국의 산성에 대하여 한반도의 중남부와 일본지역의 산성을 보아왔을 뿐이고, 한반도의 북부지역의 산성과 중국의 동북지방에 있는 많은 산성들을 세계로 본 것이 많지 않아서, 한국의 산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설이 확립된 실점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큰 짐을 지게 되어 매우 충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각하겠습니다.

## 2. 韓國 山城의 源流 問題

韓國의 山城은 高句麗의 경우에 처음부터 山城을 葉造하였으리라고 추측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三國史記 뿐만이 아니고, 廣開土大王 碑文의 “即本西 城山上而建都焉”이라는 것

이 그것입니다. 高句麗와 같은 秦漢으로 여겨지는 夫餘의 경우에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 “城柵皆有城柵”이라하고, 後漢書 에서는 “以城柵爲城”이라하여 그 形態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시기에는 대체적인 韓國의 古代 城柵의 源流가 形成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古朝鮮 王險城(王險城)의 경우에는 어떤 認인지 불분명합니다.

韓國 山城의 源流를 考古學上으로 판단한다면, 中國 東北地域의 青銅器 文化에 까지 遷及하여 살펴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시라무렌강 지역 赤峰 夏家店 下層文化 시기의 西山根 山城遺址는 이 시기 集落들이 그곳의 가장 편리한 지리적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年代가 지금부터 약 3~4000년 전으로 遠及한다고 하는 이러한 유적들은 山城의 發生이 人類문화와 보면 괜찮은 발전과 짹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보다 동쪽의 吉林地域 西關山 文化는 한반도와 연결되는 요소가 많고, 石棺墓의 分포와 함께 山城의 조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示唆합니다. 보다 북쪽의 오늘날 黑龍江省 지역 爛華강 유역의 軒轔과 관련된 작은 山城類型의 것들도 韓國의 山城과 아주 관련이 없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더욱 범위를 넓혀 생각하면 南部 시베리아 지방의 逃避用 木柵인 Gorodishche와, 草原地帶를 따라 分布한 高地城柵類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음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木柵類의 중그린 모양의 城柵이 中國 古代 사람의 눈에는 자기들의 문화와는 다른 것이라서 기록에 남겼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城柵과 그에 관련된 중국인의 기록은 중국적 기준에 의한 文明의 程度를 나타내기도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三國志 以及 韓에서 長安에 이르는 長安에는 城柵이 있다고 하고, 弁辰은 辰韓과 雜居하며 城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馬韓은 城郭이 없다고 하고, 다시 城郭을 쌓는 모습을 묘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무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城이 없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 城城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記錄의 誤譯라 볼 수 있습니다. 韓半島 中部 以南에서 최근 조사되고 있는 유적들 가운데 失跡 松菊里를 비롯하여, 莊州 榆丹里, 昌原 慶川里와 鮑音丁洞, 聖山 多芳洞, 金海 大成洞과 龍鳳臺 등지의 環濠나 環溝 및 木柵과 유사한 유구가 발생기의 城柵임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韓國 城郭의 源流는 지금 外部移入説과 自體發展説로 주장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는 日本人 小野忠源가 주창한 高地性集落論을 따를 경우 자체발생설도 흐름 가능성이 많습니다. 北韓의 최근 주장은 아마도 이런 誤譯인 듯합니다. 즉, 북한에서는 1993년에 강동군의 단군릉을 발굴하고, 이어서 거기서 동남쪽으로 28km거리의 평양시 강동군 남강노동자구 활대촌에 있는 黃陵城을 조사하여 그 연대를 약 5,000년 전으로 보고, 단군조선 시기 초기부터의 城으로 평안남도 온천군 송현리 토성과 황해북도 봉산군 지탈리 토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후기의 토성은 평양시 낙랑도성을 비롯하여 황해북도 황천군 고연리 토성, 황해남도 은율군 운성리 토성, 선천군 청산리 토성, 함경남도 금야군 소라리 토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를 경우 한국의 산성은 川流의 沿邊에 있는 丘陵 내지는 山에 축조하기 시작한 것이 誤譯라 생각할 여지가 많아집니다.

반면에 夫餘와 高句麗는 모두가 流亡集團의 건국이고, 심지어 百濟와 新羅도 流移民集團이 건국한 것으로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原住地가 中國의 동북부나 韓半島의 북부지역 등의 경우이고, 당초부터 산에 山城을 建造하는傳統을 가진 流移民들이 있다면 경우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이 경우는 최소한 中國의 東北部에서 점차 韓半島의 南部

地城으로 山城 葉造의 傳統이 流入되었을 可能性이 있습니다. 高句麗의 경우 中國側의 기록에서 城을 萬畫라고 부른다고 特記하고, 同書와 北史에서는 平壤城의 이야기를 “城內唯  
積倉儲器備 寇賊至日方入固守 王財別為主於其城 不常居之”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山城의  
制度는 通路上으로 보아 初期의 鄭邑址라 여겨지는 五女山城이나 丸都山城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여겨집니다. 이 高句麗의 山城이 高句麗의 영역에 확대되고, 南으로 百濟와  
新羅에도 採擇되었을 可能性이 있습니다. 이는 南部地域에서 高句麗의 경우와 같이 王都  
의 背後에 큰 規模의 山城이 마련되는 것이 문헌 기록상 百濟는 薩畫王 5년인 서기 132년  
에 北漢山城을 쌓았다는 것이고, 新羅는 明話城의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서기 405  
년입니다. 물론 이에 앞서서 山城의 存在를 示唆하거나, 文獻解釋의 如何에 따라서는 기록  
의 城群의 名稱 自體가 山城의 葉造라고 할 수 있는 葉造記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百  
濟와 新羅가 아직도 櫓을 이용하고 있는 記錄들과 함께, 이 시기를 前後하여 從來의 城柵  
類가 高句麗系의 山城으로 代替되는時期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山城은 일단 高句麗 王都의 防禦 战略으로 高句麗의 成立과 때를  
같이하여 採擇된 以後 高句麗系의 一派로 自處하는 百濟에 의하여 漢江流域에 出現하고,  
新羅吐城은 高句麗에게 賢子로 보내졌던 實聖王이 韓國하여 即位한 以後에 역시 高句麗式  
의 山城이 新羅의 王都에도 採擇되어졌을 可能性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韓半  
島에의 高句麗式 典型的인 山城의 成立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石築山城의 韓半島 中南部地域에의 出現은 戰國과 古代國家의 發展에 큰 影響을 끼쳤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글은 민덕석의 <삼국시대 이전의 성곽에 관한 시고>(한국상고사학  
보, 16, 1994)와 전영래의 <고대산성의 발생과 변천>(마한·백제문화 11, 1988)이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주제는 아마도 地理적 산성의 계보나 원류에 대한 상반된 인식  
이라 생각됩니다.

### 3. 山城의 類型別 認識

한국의 산성을 유형별로 인식한다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의 산성 모두에 대한 형식적인 분류를 통하여 여러 가지 형식으로의 발  
전이 어떻게 전개되었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역사 발전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추  
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각 시기별로 사용된 산성들을 기능별로 나누고 각각  
의 유형들이 당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위한 전제적인 요소가 있다면 시기별 문화 양상과 전쟁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지  
식이 필요합니다. 산성의 기능의 예를 들자면 조선 후기의 경우 지역별 거점 방어를 위한  
산성 제도가 운영되었을 사기에 사용된 산성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수원 독성산성, 개성 대홍산성, 강화 정족산성과 고려산성, 평주 남한산성, 양주 북  
한산성과 대모산성, 수월성, 파주 임진진성과 장산진성, 적성 토란성, 통진 문수산성 등  
이 울성을 제외한 防護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동시기에  
유지된 다른 산성과 기능이 같았거나 위상이 같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격의  
규명은 동시기에 유지된 산성 상호간의 비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들은 이전 시기에 사용된 많은 다른 옛산성들과 비교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는 일정한 관방에 대한 논의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가 운영된 전통 시기의 산성은 도성을 모델로 하여 지방의 성과 제도가 운영되어졌던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산성의 기능은 고대나 근세에 둔밀한 위치를 점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성 축조의 기술적 변화도 매우 투명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 산성의 유형별 인식에서 배놓을 수 없는 한 분야는 성의 부분별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의 부분별 이해는 예컨대 체성과 여관, 용도와 차단성, 치와 문, 수구와 수문, 암문, 용성, 돈대, 장대와 망대 시설, 성내 우물과 연못, 성내 건물과 문루, 성외의 해자와 기타 시설에 이르기까지 부분별로 나누어서 형식을 구분하고, 어떤 과정으로 변화 발전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산성의 발전 과정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까지의 산성 연구의 경향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분석적이고 종관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성 하나만을 예로 들자면,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의 산성들은 체성의 구축 재료로 흙과 돌을 사용하였고, 축조의 방법은 토축의 경우 성토나 석도, 혹은 판축을 하였습니다. 판축의 경우는 기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기단이 있는 경우는 다시 수평 기단과 사선 기단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석축의 경우에는 크게 내외접축과 외축내탁의 방법이 있고, 다시 벽면의 구성에는 석계의 쌓는 방법과 벽면의 기울기, 그리고 기단보축의 있고 없음에 따른 구분 등의 여러 가치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체성의 평면과 입체적인 구성에서의 내성, 중성, 외성 등의 구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것들이 어떠한 이유로 변화되면서 축조되어 왔는지가 확실히 밝혀져지 못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산성을 형식 구분한 경우는 일본인들이 대체로 구분한 包谷式과 韓國式의 양분에서 벗어나서, 북한에서는 대체로 경악용 아래의 사분법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대략 포곡식과 태폐식, 그리고 을두명과 성주탁이 <백제산성의 신류형>(백제연구 8, 1977)을 발표한 이후 복합식 산성에 대한 인식이 추가되었고, 고정룡이 <가야할기 산성개축에 대한 일고찰>(가야통신 15...16, 17, 1988)을 내놓아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성의 형식분류는 태폐식에 대하여 공식구가 <백제 태폐식 산성의 형식분류>(백제연구 24, 1994)를 발표하여 태폐식을 태머리식과 산정식 및 산복식으로 구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의 이전복이 고구려의 성곽을 크게 산성과 평원성으로 나누고, 산성을 다시 4구분하여 典型山城, 平山城, 關隘, 單卡으로 구분한 것(중국 고대 북방 민족 문화사, 1993)과 축조 기법을 역시 4구분하여 扑打壁式, 석축 기단 회축법, 토석혼축, 판축으로 구분하여 시기를 획정한 것을 포함하여 깊이 있게 논의되어져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성의 부분별 연구는 체성에 대하여 박종익이 시도한 <서부경남지역의 고대산성에 대한 연구>(경상사학 10, 1994)가 있고, 문에 대하여는 성주탁, 차용길의 <한일고대성문초식초답>(고문화답총 30, 1993), 차용길의 <삼년산성 문지유구의 검토>(충남사학 1, 1986) 등이 있고, 수구에 대하여는 차용길의 <소백산맥 북쪽 석축산성 수구형식시론>(차문집고수화감기념논총, 1989) 등이 있으나, 아직 연구의 초보적 수준을 염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면의 연구는 일본의 교오토지역 학자들이 “구루”라는 학술잡지를 내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음을 오히려 주시하게 됩니다.

#### 4. 비교연구의 필요성

산성의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이해가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의 연구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연구는 성곽 자체에 대한 이해와 우리 나라 이외의 세계 여러 지역의 성들과의 비교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우선적으로 우리 나라 내부에서 산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설정은 아직도 역사 지리적 만족이거나, 산성을 그저 옛것에 대한 창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과학적이고 학제적이지 못한 조사나 연구는 낭비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비교연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주학의 <대야성소고-백제 산성과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경산행성생고회기념고문화논고, 1980), 이진희의 <조선과 일본의 산성>(일본 고대 문화의 탐구-성-1977) 등이 있는데 이는 엄격하게 말해서 비교연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열의 성을 언급한 것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비교연구는 시각을 보다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土壘를 알려면 motte와 비교되어져야 하고, 목책과 vallum, 해자와 ditch fossa, 우리의 산성이 hill fort나 promontory fort 혹은 hill-top fort 아니면 casemates에 의한 성벽을 모두 판축이라 할 것인지 등등 한국의 산성이 가지는 요소들을 세계 공통의 용어와 비교하고 적용시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산성이 가지는 인류 문화사에의 공헌이 입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5. 조사 연구의 현황

우리 나라의 성곽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조사서와 연구 논자를 정리하여 보면 가장 확실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저표 조사와 발굴 조사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꽤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성곽의 조사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길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 분야는 그리 많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계된 통계를 보면, <한국고고학분야목록>에서 성곽에 대한 것은 국내 100건, 북한 31, 일본과 중국 73건으로 되어 있고, 구비어로는 Gina L.Barnes의 한편이 있을 뿐입니다. 토성은 국내 28건, 북한 2건, 일본 중국 4건으로 되어 있고, 산성은 국내 114건, 북한 18건, 일본 중국이 19건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와 논고의 실체적인 모습은 매우 다양하여 2·3쪽 분량의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산성의 작은 부분에 대한 발굴 보고가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 있어서 雜志의 차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된 산성들은 그 수효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자세한 설정을 알 수 있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강원 지역-- 남한산성, 미성산성, 북한산성, 행주산성, 호암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한계산성, 예주 파사산성, 남양 달성산성, 이천 설봉산성, 즉주산성, 파주 오두산성, 춘천 봉의산성, 양주 마차산성,

충청 지역-- 충주 남산성, 장미산성, 적성산성, 은달산성, 읍성 봉이산성, 단양 가은암산성, 곤문성, 득락산성, 청풍 망월산성, 체현 월악산성, 삼년산성, 과산 이성산성, 진천 도당

산성, 대모산성, 과산 미륵산성, 철주 우암산성, 부모산성, 상당산성, 문의 양성산성, 대전 보문산성, 계죽산성, 월평동산성, 부여 부소산성 및 나성, 광주 공산성, 칙산 사산성, 칙산 위례산성, 전안 백석동산성, 청량 칠갑산성, 계봉산성, 논산 팔화산성, 노성산성, 팔산성, 부여 는티산성, 성홍산성, 보령 진당산성, 연기 운주산성, 고려산성, 흥성 석성산성, 학성산성, 태봉산성, 소구니산성, 불수산성, 물산성,

전라 지역—익산 미륵산성, 오금산성, 전주 동고산성, 위봉산성, 담양 금성산성, 광주 무진고성, 차비산성, 전도 철마산성, 구례 석주관성,

경상 지역—경주 명활성, 경산 용산성, 칠곡 가산산성, 선산 천생산성, 함안 성산산성, 선산 금오산성, 동래 금정산성, 진해 구산성, 순흥 비봉산성, 성주 독옹산성, 울주 화산리 산성,

이와 같은 사정은 연구자의 분포화도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성곽 내지 산성의 연구는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상명대, 한림대, 강원대, 강남대, 세종대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충청 지역은 충남대, 광주대, 대전산업대, 충북대, 충주 산업대 등에서 조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전라 지역의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경상 지역의 동아대, 경북대, 대구대 등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구자의 경우에는 성곽 문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서너 명에 이르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열 명쯤인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점차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희망스런 미래를 예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사적 및 지방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성터조사도 현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되어 기록된 것이 적은 것과, 실측된 성벽이 그리 많지 않은 점에서, 문화재 행정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절실히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전국의 성곽 실태 조사와 실측 조사가 금방간 꼭 필요하고, 아울러 전국의 산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연구 자료뿐만이 아니라 문화재 행정 자료로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한때에 몇 개씩 알려지지 않았던 산성들이 새로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을 산성의 나라라고 말하는 만큼 그 특징과 성격을 역설히 보여줄 수 있는 학문적 기본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여러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속고하여 짜낸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지원과 열의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 「한국의 산성연구 동향과 과제」에 대한 論評

沈奉璉(동아대)

오늘 발표자께서는 일찍부터 우리나라 山城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면서 忠北地方을 비롯한 우리나라 中部地方 山城을 대부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 山城研究의 現況과 앞으로 研究課題에 대해서도 발표문에 잘 자세하고 있다. 따라서 토론자의 주석이 필요 없게 되었으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으로서 토론요지에 대신코자 한다.

1. 山城이란 명칭 그대로 산에 위치한 성이므로 위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없으나 그 용도에 대해서는 築造時期 또는 鋪造 등 세특징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발표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우리나라 최초의 防禦施設은 青銅器時代 跡或者是 木柵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토성, 石築城으로 변형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자도 언급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固有한 것인지 아니면 인접국가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우리나라 三國時代 山城들이 褚菟 高句麗의 影響으로 발표자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듯한데 城郭의 築造나 築造手法上의 相似點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삽겠습니다.

## 西日本 古代山城에 관한 최근의 調査 成果

-특히 朝鮮式 山城에 관하여-

발표자 : 小田富士雄(후쿠호카다)

논평자 : 成 周 鐸(충남대)

# 西日本 古代山城에 관한 최근의 調査 成果

-독자 朝鮮式 山城에 관하여--

小田 富士雄 (오다 후지오)

1. 머리말
2. 문헌사료에서 본 西日本の 밤위체제
3. 최근에 있어서의 朝鮮式 山城의 調査와 成果
4. 朝鮮式 山城 再考

## 1. 머리말

西日本の 古代山城 유적에는 大別해서 두 개의 유형이 있다. 첫번째는 7세기 후반대에 百濟 멀당과 관련해서 西日本の 방위선을 형성하는 「朝鮮式 山城」이다. 「日本書紀」 등의 사료에 나타나 그 유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두번에는 사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종류의 山城으로 「神龍石式 山城」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뷔이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發掘調査가 행되어져 급속히 새로운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한 것들의 成果에 관해서는 1988년 11월에 韓國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가 주최 제4회 百濟研究國際學術大會 「百濟의 국가 발전과 城郭」에서 발표한 것이 있다. 그 위에 이 내용을 계정리해서 「百濟研究」 제19집에 「西日本古代城郭유적의 연구동향」을 발표했다.

그후 九州地方의 朝鮮式 山城·對馬·金田城, 福岡縣·大野城, 同·水城, 熊本縣·駒智城 등에 관해 정비사업을 수반한 發掘調査가 실시되어져 새로운 발견이 거듭 얻어졌고 그 위에 새로운 연구단계를 겪게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첫번째의 神龍石式 山城에 관해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한 發掘調査가 실시되어 福岡縣·御所原谷, 同·垂毛馬, 熊本縣·鬼城山 등에서 새로운 成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1988년 이후의 調査成果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그것들에 근거한 古代山城의 再考를 시도해보자 한다. 그러나 日下進行中에 있는 이 유적들 모두에 관해 진술한 것은 제반의 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朝鮮式 山城 가운데 새로운 發掘成果을 거두고 있는 對馬·金田城, 大宰府·大野城과 水城·熊本縣·駒智城에 관해 정리하고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유적의 성격상, 韓日양지역의 교섭사적 시점은 부가해서 전술해 보고싶다.

## 2. 文獻史料에 의거한 西日本の 防衛體制

古代日本의 城櫓關係記事는 「日本書紀」에 의하면 쌀단(稻)을 쌓아서 성을 구축하고(垂仁紀), 혹은 그것에 의지해서 짜운다(雄略紀·崇峻紀)고 하는記事,自家의 바깥에 城櫓·兵庫를 만들고 혹은 옷을 과시 성으로 만들다(皇極紀) 등의記事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7세기 전반의 城櫓에 관한 실태는 불분명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稻城」에 관해서는 집의 주위에 옛단을 여러 걸으로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독립적인 「울타리」라고 생각해서 5세기대의 墓塚중에 불圓墳輪에 比定하는 說도 있다. 즉 「목재를 끌조로 했던 棚狀의 시설에 있어서 벽체에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벼파의 식물을 묶어서 덮어 써온 것과 같이 절박했던 構造」라고 하는 것이다.<sup>1)</sup>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은 사적인 용금설비로 했고, 대강 지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에 견딜 수 있는 城櫓이라 할 수는 없다.

문헌사료에 보여지는 것으로 본격적인 城櫓의 출연은 한국에 있어서 663년 8월, 百濟·日本의 연합군이 新羅·唐의 연합군과 白村江에서 싸워 대패했던 것에 의해 西日本の 沿海地城은 新羅 진공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국가적 규모로 방위체계의 정비가

1) 佐井優人「고대 문헌에 나타난 城-특히 西日本을 중심으로-」(『일본고대문화의 탐구·城』) 1977년  
佐藤宗諭「고대의 城에서의-사각-그 史的 의의」(『필간 문화제』 283호) 1987년

필요하다고 요구되어 졌다. 百濟王室의 亡命高官의 지도를 도대로 築城된 「朝鮮式山城」이 그것이다. 그곳에서 西日本에 있어서 山城要塞의 경위를 사료에 의해 더듬어 보면 이하와 같다.

- (1) 654 (天智3)年 對馬島・壹岐島・筑紫國 등에 防人(병卒)과 봉화를 설치하다. 또 筑紫에 大堤을 구축해서 물을 저하시킨다. 이름하여 水城이라고 하다. (日本書紀)
- (2) 655 (天智4)年 8月 達率答·春初를 과간하여 城을 長門國에 쌓게 하다. 達率擅體留·達率四比羅夫를 築紫國에 과간해서 大野 및 種 二城을 쌓게 하다. (日本書紀)
- (3) 657 (天智6)年 11月 倭(아마토)國의 高安城·廣吉國 山田郡의 壓鷗城·對馬國의 金田城을 축조하다. (日本書紀)
- (4) 660 (天智8)年 8月 天皇 高安의 봉우리에 오르시고 고안하여 성을 改修시킨다. 그리고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어 작업을 그만두게 하시다. (日本書紀)
- (5) 670 (天智9)年 2月 겨울 高安城을 改修해서 균방의 전세를 거두다. (日本書紀)  
高安城을 改修해서 규식과 소금을 계장하다. 또 長門城 하나, 筑紫城 두개 축조하다. (日本書紀)
- (6) 676 (天武4)年 2月 天皇 高安城에 행차하시다.
- (7) 680 (天武8)年 11월 처음으로 관문(關)을 鹿田山, 大坂에 두다. 그리고 離波에 露城을 축조하다. (日本書紀)
- (8) 688 (持統3)年 9月 直廣參石上朝臣麻, 直廣肆石川朝臣魚名 등을 築紫에 과간하여 位記를 보내주었다. 동시에 新城을 강화하다. (日本書紀) (持統3)年 10月 天皇 高安城에 행차하시다. (日本書紀)
- (9) 696 (文武2)年 5月 大宰府에 명하여 大野, 基跡, 鞠智의 三城을 개수하게 하다. (續日本記)
- (10) 699 (文武3)年 9月 高安城을 수리하다. (續日本紀)
- (文武3)年 12月 大宰府에 명하여 三野, 脊積의 二城을 수리하게 하다. (續日本紀)
- (11) 701 (大宝元)年 8月 高安城을廢하고 그 舍堅과 비속을 大倭, 河內의 二國에 이동하여 괴장하다. (續日本紀)
- (12) 712 (和銅5)年 正月 河内國 高安의 봉화를 废하고 처음으로 高見의 봉화 및 大倭國春日의 봉화를 두다. 그리고 平城에 연락하게 했다. (續日本紀)  
8月 高安城에 행차하시다. (續日本紀)
- (13) 719 (養老3)年 12월 備後國 安那郡의 美城, 蒲田郡의 常城을 정하다. (續日本紀)

上記의 경과를 過覽해서 폐전의 翌년으로부터 對馬·壹岐·筑紫에서 시작해서 潤戶內·近畿쪽으로 방위시설의 정비에 열향을 미쳤고, 수년 사이에서 西日本地域에 병卒이나 봉화의 설치, 水城이나 山城의 구축, 兵櫓의 비축 등을 이루며 670년까지는 거의 완료하고 있다. 더구나 사료(5)에 보이는 長門·筑紫의 藤城記事는 사료(2)의 증복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690년부터는 上揭 諸山城의 修理記事가 보인다. 700년대에 들어서면 山城이나 봉화의 폐지가 나타나게 된다.

山城不要의 배경에는 상술한바와 같이 방위체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唐·新羅와의 전개가 급속히 평화회복으로의 경세가 변화했던 것을 들 수 있다. 671년에는 唐의 國使 2천

별이 来日하며 그 다음해에는 新羅와의 국교도 재개되었다. 대륙측에서는 668년 9월, 唐·新羅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했다. 또 당시 평양에 설치했던 安東都護府는 그후에도 고구려 유민의 반란이나 신라와의 교전 등에 의해 조선반도의 직접 지배를 단념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676년 안동도호부를 유통까지 후퇴시켰다. 그때 비로서 신라의 반도통일이 실현했다. 8세기대에 들어서 西日本山城의 捕磨措置가 취해졌던 것은 그와 같은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과 관계되는 바가 크다.

### 3. 최근에 있어서의 朝鮮式山城의 調査과 成果

상술의 문헌사료에 나타났던 山城「朝鮮式山城」은 11개소이고, 그 가운데 유적이 확정된 것은 金田·大野·基(基跡)·鞠智·星島·高安의 6개성이다.

第 1 表 朝鮮式山城一覽 (所在地確定分)

名稱	所在地	標高(m)	余長(m)	水門	城門
金田城	長崎縣 下島郡 美津島町城山	275	28	3	3
大野城	福岡縣 大宰府市 古 四天寺山	410	8.65	1	4
基 跡 城	佐賀縣 三養基郡 基山町 基山	415	3.9	1(+)	3(+)
鞠智城	熊本縣 鹿木郡 菊鹿町	100~168.9	5(?)	1	3
星島城	香川縣 高松市 星島	260	?	?	?
高安城	大阪府 八尾市 高安山	438~488	?	?	?

金田城유적은 對馬를 남북으로 이분하는 漩茅闘의 남쪽 부근, 리아스식 해안이 북쪽에 둘출한 험난한 岩山(표고275m)의先端에 위치하고 있다. 標高지점은 南西隅도 북동방으로 뻗은 尾根線은 약 1km로 높이 100여미터의 断崖에 이른다. 尾根線보다 약간 내려간 외측에 石垣을 구축하고, 암벽의 薦頭한 곳은 石垣을 생략하고 있다. 北東端으로 성벽은 굽에 굽침되어 橫傾斜의 東南斜面의 중간 부분까지 하강해서 標高 32m의 谷部에 위치한 첫번째 城戸(標高 약 30m)에 이르고, 그 사이 약 400m이다. 谷部은 石垣 8m 높이 쌓아올렸고, 基部에는 水門을 설치하고 있다. 계단가 여기부터 성벽선은 굽질하여 남서방향으로 黑面磚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거의 標高 30m의 등고선을 따라 꾸불꾸불하게 뻗어 약 750m정도로 北西방향으로 휘여져 南端에 이른다. 이것보다 北西에 尾根上을 오르는 성벽선은 標高点의 南西隅을 목표하고 있다. 첫번째 城戸부터 南隅에 계속된 石垣線은 2개의 얕은 谷部를 가로로 자르게 되고, 각각 두번째 城戸(標高 약 27m), 세번째 城戸(標高 약 32m)라고 일컫는 門跡이 설치되어 있다. 각 城戸으로부터 黑面磚岸까지는 약 120m, 약 70m, 약 120m이다.

본 跡을 계일 번체 담사였던 後藤守一씨는 1922년에 당시의 각 城戸의 견문록을 소

개하고<sup>2)</sup> 그후 1948년에 東亞考古學會의 調査에서 城戸遺構의 略調査가 행하여졌다.<sup>3)</sup> 양자를 참고하면서 각 성문에 관해 보면

첫번째 城戸은 확인되어지 있지 않지만 檻部에 내려간 도로가 문으로 보이는 장소를 가로로 자르고 있다. 그 남쪽에 橋狀臺出(後塵)씨는 「望樓臺 모양의 設備」라고 한다>이 있고 張出幅 1.5~1.8m, 높이 9m, 높이 6m이다. 城郭壁을 구성하는 石垣과는 다른 대형의 平切石을 算木으로 쌓았다. 그것이 근세의 故補修箇所라고 불리우는 까닭이다.<sup>4)</sup>

두번째 城戸은 東面하는 문의 유격이 있고 성벽의 높이는 외측에서 4.5m, 내측에서 1.5m이다. 폭은 上面에서 2m, 基部에서 5m이다. 문의 폭 2m에서 南側에 門跡 1개가 있고, 차름 20cm, 깊이 8.5cm의 納穴 2개가 병렬해서 설치되어 있고, 원위치를 보존하고 있다(a). 또한 미동된 벌도의 置石 1개에도 같은 크기의 納穴 1개가 보이진다.

세번째 城戸은 南面하는 폭 4m의 門跡이 있다. 성벽은 그 위에 7.7m정도 西行하고 암벽에 맞서서 끝나지만 성벽의 높이 6.5m(내측으로 0.67m), 上面 폭 2m, 基部 폭 4m이다. 門跡은 北端으로 폭 3.2m로 南側보다 조금 좁다. 한계는 西側 南端의 門跡가 기울어져서 거의 원위치를 보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1922~1948兩年の 도면을 참조해서 본래 3組 합 6개의 置石이 남쪽에 빙렬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계단과 두번째 城戸의 門跡와 같은 크기의 納穴이 각 置石에 설치되어져 있었던 점, 문의 좌우 폭이 두번째 城戸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점 등도 참조해서 兩開形式의 門扉를 설비했던 構門風의 구조로 있었던 것 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진다. 후술하는 大宰府 大野城 유적의 太宰府口城戸의 구조의 규모를 축소했던 것 같은 것도推察되어 지지만 근간 정비단계에서 精査할 필요가 있겠다.

1979년 金田城跡은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82년에는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보존 관리계획의 大綱이 정해졌다.<sup>5)</sup> 1991년부터 金田城 유적 정비위원회가 방죽에서 壁形圖作成과 城壁實測圖作成을 진행하여 93년부터 發掘調査를 실시하고 있다.<sup>6)</sup>

93년도는 두번째 城戸과 세 번째 城戸 谷道를 거슬러 올라가는 高 70m의 골짜기의 載不平坦地를 發掘했다. 북서와 남동은 山 기슭의 斜面이 좁아지고 북동과 남서는 木戸에 이르는 금경사의 굽싸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平坦部는 약 20m 面方의 병위밖에 되지 않는다. 北西斜面에서는 이전인 8世紀代보다 내려가지 않는 須惠器들이 쌓임되었다. 두번째의 木戸로 내려가는 平坦地邊의 중앙부근에서 門跡 1개가 원위치에서 발견되었다. 0.8m × 1.2m, 두께 0.3m의 끝에 차름 25cm, 높이 6cm와 차름 13cm, 깊이 8cm의 2개의 納穴이 설치되어져 있어서 일견 木戸의 門跡과 함께 통하고 있다. 그것에 대응하는 北側 4~5m의 위치에 그렇게 하나의 門跡의 존재가 추정되어지지만 이미 사라졌다. 2개의 納穴은 어쩌면 門柱와 車回轉軸柱에 맞는 것으로 兩開閉式의 문짝이 부설되어져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門跡推定部(4~5m)의 북서와 남동방향 檻沿部에 연하여 폭 약 3m의 土壘 모양의 올라간 부분이 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北面에는 15m정도로 불평묘하지만, 남동쪽에는 약 100m 가까이나 계속되어 남동부의 山中腹斜面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土壘

2) 後藤守一, 「對馬需見城(2관)」(『고고학 졸지』 13권 3호) 1922년.

3) 東亞考古學會, 「對馬」, 「東方考古學叢刊」 2種 6冊, 1963년.

4) 永留久惠, 「對馬」金田城, 『大宰府古文化論叢』 상권 1983년.

5) 工藤茂清, 「對馬金田城跡에 관한 一考察」, 『城郭研究室報』, vol.31 1994년.

6) 優津島町 고속피단회 「특별사적 金田城跡 보존 관리계획책정서」(美津島町 문화재조사보고서 제4집) 1982년.

6) 本田秀樹 「對馬・金田城」(『고대문화』 47권 11호) 1995년.

는 세번째 城戸에 통하는 平坦地 南西緣邊部에는 없기 때문에 土壘을 동반한 門跡遺構가 두번째 木戸側에 대한 밤위시설인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門蹟기준부터 1.2m정도 하위에서 土壘의 거의 内外緣邊線下에 상당하는 2열의 平行石列線을 검출했다. 兩石列의 간격 3.4m정도에서 外側石列線은 상층의 門蹟門柱納穴 center보다 약 0.8m정도 내측에 위치하고 있다. 内側石列線은 土壘內側基部와 거의 일치하기때문에 土壘의 基部構造라고 생각되어 지지만 外側列石線은 본래의 문의 通路幅分內側에 비껴놓았던 것이라고도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장래에 門蹟 남동쪽에 놓여진 土壘을 새로이 構斷調査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門蹟와 列石線의 사이에 1.2m의 고저차가 존재하는 사실은, 양자가 同時에 있었다고 보는 것보다도 門蹟의 設營이 重建時가 아닌 그 후의 修造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被戸의 門蹟의 設營사가의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다. 후술하는 大宰府大野城의 太宰府口門跡이 据立柱門으로 창설되어져 후에 碩石使用門에 修造된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잘래 새로운 調査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94년도는 남동부의 '병구사'山頂部 平坦面을 發掘했다. 檻高80m의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緩傾斜하는 頂部는 동서 40m여 \* 남북 20m정도의 平坦面을 구성하고 있다. 發掘 결과, 西側最高所에서부터 중앙부・東側에서와 2단식에 평평하게 잘라 평판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졌다. 東側에서는 一辺 약 60cm의 方形掘方 8개가 鋼盤을 60-70cm씩이나 굽착해서 배치되어 있다. 동서 3間・남북 1間의 据立柱建物에서 柱間注量은 각 1.9m-2.0m이다. 遺構의 북서방향에서 須惠器, 土師器가 발견되었고 須惠器 한 개에 7세기 후반의 특징을 나타내는 달개가 있다. 중앙부에서는 암반을 捣穿한 方形掘方 3개가 남북에 배치되어 있다. 北端의 1개는 60x80cm의 長方形, 다른 2개는 60cm의 方形으로 깊이는 40-70cm이다. 柱間注量은 2m정도이다. 동서는 넓은 상태는 아니고 檻列인가도 생각되어지지만 더욱 發掘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주변에서 須惠器片 1개가 발견되었다. 서쪽은 最高所에서 암반이 노출했던 곳도 있고 麥土下 30-40cm에서 암반으로 이르지만 削平은 되었지만 다 뜯어지지 않은 그 표면은 자연의 유흘이 넓게 있고 遺構의 形跡은 아니다. 須惠器片若干이 발견되었던 서쪽의 건물은 高床倉庫 등이 짐작되어지고 출토품에서부터 7세기 후반대로 北定되어진다.

大野城跡은 大宰府政廳遺跡北側의 四王寺山(標高410m)에 축성되었던 경위도 있어 가장 일찍부터 調査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被城은 북측에 谷을 내어 山麓線을 더듬어 가면서 土壘, 石垣과 맞추어 총연장 8km를 넘는 최대규모이다. 북과 남에서는 土壘를 이중으로 둘러쌓았다. 土壘의 基底幅 8m, 높이 2m정도 版築土로 무성하게 지었고 谷部에는 石垣을 구축하였다. 북측에는 百間石垣(약 180m)・北石垣・小石垣을, 남측에는 大石垣(약 64m)・水1手石垣을 설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대규모의 百間石垣은 基底幅 9m, 높이 8m로 화강암의 自然石體, 내부는 조약돌로 가득 채워져 있다. 被戸은 4개소 있고 북에 字美口(百間石垣), 남에 太宰府口・根本口・水城口가 있다. 북 1개소는 内郭土壘線上에, 남 3개소는 外郭土壘線上에 있다. 北方博多灣方面에서부터의 적의 습격에 대처해서, 南側 山麓에서 진격하는 大宰府政廳・郭内住民들인 官・民들이 도망치는 城으로의 성격에서 그와 같은 被戸配置도 수긍되어질 수 있겠다. 내부시설에는 高床倉庫를 主體로 하는 碩石總柱建物 70여동이 확인되어져 있고, 尾花・鶴坂・増長天・廣目天・八波・毘沙門・村上・主城原의 8지구에 통합되어져 있다. 약 반수의 건물이 발견되어서 4期로 大別할 수 있겠다. 참고건물은 3間×4間 규모의 것이 많다. 主城原地區에는 3間×7間, 계단해서 재건된 据立總柱建物

이 있고 百濟系單舟軒瓦를 쟁여하고 있어서 7세기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地區名의 발생은 823(弘仁14)년에 설치되어졌던 主城2員에 유래하지만, 그 지구에는 축성이래 미대 관리의 충주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sup>7)</sup>

近年의 大野城跡調査에서 주목할 만한 成果을 들리고 있는 것은 太宰府口城門 및 그 北東外周土壘의 調査이다. 그 지구의 보존,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1993년에서부터 5개년계획에서 비롯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도 太宰府口城門跡의 掘掘調査은 이미 1985년부터 88년까지 진행되어져 왔다. 이전부터 城門面端에 노출되어 온 唐敷居石列의 북측에도 비슷한 唐敷居石列이 나란하게 검출되었다. 계속해서 石列의 下層에도 挖立柱形式의 城門이 발견되어져 3時期의 변천이 알려져 왔었다.<sup>8)</sup>

제1기는 挖立柱의 城門으로, 정면 7.05m이상의 규모이다. 東列의 柱穴은 제3기 石積을 띠고 있어 未發掘상태로 있지만 문의 중심선에서 折返에서 復原하면 梁行 8.70m・桁行 8.85m의 정방형에 가까운 틀을 갖는 3間안길이4間을 復原할 수 있다. 身舎를 구성하는 6~15개의 柱位置중에 7・9・12・14는 제2・3기의 磬石柱位置와 중복되어 있지만 磬石下의 斷割調査에서는 柱穴은 확인되어져 있지만 本來柱는 존재해 놓던 것이라고도 생각되어 진다. 여섯번째로 발견되었던 柱根은 지름 50cm로 年輪年代法으로부터 西紀 648년의 수치가 얻어질 수 있다.

제2기는 磬石사용의 城門으로 개작되어 있다. 柱位置은 제1기의 7・9・12・14의 위치로 축소되어졌고 정면 5.25m 안길이 5.10m의 규모로 柱門 각 1개이다. 양측면의 石垣은 제1기의 것을 이용하면서 柱position 4개소와의 간격을 끌고 놓아서 막고 있다.

제3기는 제2기를 그대로 딛습하면서 건물과 제1기 石垣과의 사이를 완전히 끌고 놓아서 끊어버렸고, 그 밑에 鏡・鑄先을 地鐵具로서 納入했다. 또 石積한 가운데에 鳴臘館系瓦片이 혼입해 있다.

이상 各期城門의 연대에 판례사는 제1기 柱根의 年輪年代가 665(天智天皇4)년 창건이라고 하는 기록에 가까운 점에서 주목되어진다. 제3기 石積의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졌던 鳴臘館系瓦는 제2기 城門에 사용되어져 있던 것으로 太宰府政廳에서는 제2기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8세기의 1/4半期에 此定할 수 있다. 제3기는 城域에 四王寺가 있었던 774(寶龜5)년으로 내려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sup>9)</sup>

太宰府口城門부근의 정비에 수반한 北東外周土壘의 調査에서도 새로운 견해가 있었다. 1968~19 89년의 調査에서 城門跡의 동쪽 약 20m의 土壘上面에 2열 구성의 柱穴이 발견되어 檻列의 가능성에 치적되어 있었지만 더욱이 이 土壘가 북동 방향으로 연장된 外周土壘의 上面에 柱列이 존재한다고 알려졌다. 柱穴은 隅九方形이 아니고 不整内形의 檻方内에 지름 20cm정도의 柱痕跡이 확인되었고 柱의 중심거리는 1.78~1.85m이다. 土壘上에는 檻끼이 둘러싸여져 있었던 가능성이 더욱 커져 왔다.

다음으로 外周土壘와 内周土壘가 접속하는 부분의 土壘調査에서, 外周土壘에서부터 연장된 旧実土의 黑色土上에 内周土壘의 塗土가 확인되어져, 外周土壘의 구축이 先行하는 것이 명백해졌다. 또 土壘의 基底幅 7m・上面幅 5m・높이 2m가 기본규모로 表土直下부터 7세기 후반~8세기 전반의 須惠器・土師器의 片면이 발견되어진 것은 현재 土壘의 대부

7) 小田富士雄『서일본고대성과 유적의 연구동향』(『백제연구』19집) 1998년

8) 橋田義章『筑前・大野城』(『고대문화』47권 11호) 1995년

8) 橋田賢次郎『大野城의 성문-太宰府口城門을 중심으로-』(『월간고고학 Journal』 200호) 1993년 12월

9) 小田富士雄『筑前・四王寺』(『九州考古學研究・歷史時代論』) 1977년

분이 創設時에 근접한 무렵의 공작물인 것을 推察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大宰府都城의 構成이라고 하는 시점에 설 때, 大野城은 방위시설의 一端을 맡은 것이고 그 西方山塊와의 사이에 전개하는 博多灣으로 이르는 小野部를 남북에 차단하는 水城大堤와 連動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된다.

大野城의 水城口城門에서부터 남서 방향에 연장된 尾根線을 내리면 山麓에서 水城大堤의 東端에 이른다. 이것보다 남서방향에 연장된 大堤는 全長 12km에 그리고 西端은 西側山塊에 빙어 있다. 그래서 더욱 西方에는 남북방향의 골짜기와 小山塊가 고호적으로 반복하는 地勢가 되고 이것들의 谷部를 차단하는 小土壘(통칭「小水城」)가 축조되어 동에서 부터 上大利土壘(약 80m)・大土居(약 40m)・天神山(약 70m)과 順次로 西에 미쳐 水城大堤의 西端부터 더욱 西方 4km에 이른다.

水城大堤의 구조는 上・下城에서부터 된 二段築城으로 높이 약 13m, 下城土壘의 基底 폭 80m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1975년의 調査에서 이 大堤의 북쪽에 폭 60m, 깊이 4m의 大構가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알려졌다. 그 大構로의 取水는 大堤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御笠川부터 도입하고 있고, 大堤를 획단하는 木橋이 발견되어졌다. 664년에 축성되었던 이 大堤는 貯水되었던 곳에서부터 <水城>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사정을 차운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大堤의 北側大構에 저수하는 것에 의해 북방에서부터의 敵襲에 대비하는 방위선이었다. 大堤의 東西兩端에는 문이 설치되었다. 1992년 이래 東門地區, 그리고 西門地區의 調査가 행해져 새로운 成果를 올리고 있다.<sup>10)</sup> 都母支구 남쪽의 下成土壘의 調査(제24차 調査)에서는 土壘을 획단하는 畔호(trench)가 깊이 2.5-3.5m까지 미치고 版築狀積土가 당시의 表土面(旧 水田面)의 위에 평하여져 있는 것이다. 橫土의 細하층의 두께 40cm의 樹木枝葉(粗榮)를 부설하고 있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積粗榮에 사용되어졌던 植物遺體의 同定에 의하면 木本 12種(常綠性-타부노끼・카고노끼・야부와끼・구스노끼・아도가시・시리부가가시・쓰부라자미・무로끼・이즈노끼・세끼소우, 落葉性-무구노끼・코나라・자야나기)・草本 1種(세끼소우)가 사용되어 그 계절성에 따라서는 5월 중순-7월 중순 경에 收穫되어 흙속에 쌓아 묻어졌다고 추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같은 土壘築工法에 관해 地盤工學의 調査가 진행되어져, 大堤北側의 면은 1: 1.1-1.2의 斜坡사와, 그 下成土壘에 해당하는 약 10m의 土段을 갖고, 그의 전면에 깊이 4m의 大構를 설치했던 것은 북방에서부터의 적습에 防護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神積平野에 높이 13m의 卷經사土壘를 축조하기 위해서 「押之盛土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 下成土段(土壘)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例證으로서 1973년의 石敷遺構調査에서의 土層斷面의 관찰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난감하게 밟아놓은 것같이 쌓아놓은 石敷와 그 사이에 木枕이 난감하게 짊어넣어진 상황에 관해 「築堤도중에 미끄러지 파괴가 발생하고 황폐해져서 抑止枕을 비밀목(countweight)로서의 돌을 투입했던 상태를 엿볼수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 積粗榮에 관해서도 연약한 地盤面上에 상식적으로 부설된 역할을 뛰어넘는 정도로 사용되어 있어서, 최근 언급되어지고 있는 「補強土工法」을 병용했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西門地區의 調査(제25차 調査)에서는 3기에 걸친 변천이 명확해졌다.

10) 九州歴史資料館 「大宰府史跡-平成5年度發掘調査報告-」 1994년, 「同一-平成7年度發掘調査報告-」 1996년  
栗原和彦・廣田賢次郎・小田和利・九州歴史資料館 「特別史跡水城跡의 조사」, 『? 일본 고고학 협회 제22회  
총회 연구발표요지』, 1990년

### 제1기 —— 7세기 후반 · 木城創設時의 遺構

土壘는 頂部幅 3m · 基部幅 20-22m으로 북측에 높 3m의 테라스(下或土壘)를 가지고 있다. 8세기 단계의 塵地暨下部에서 石垣의 西側隅(c)를 검출했다. 화강암割石을 4-6단 조금 쌓아서 북측을 향하여<八>자형으로 벌렸다. 또 石垣의 북측에 북서쪽으로 높은 構(j)를 검출해서 墓土下位부터 7세기 후반의 須惠器鏡 2점과 출토했다.

### 제2기 —— 8세기 단계 · 大宰府政廳 2期의 정비화장에 수반한 改修

土壘의 顶部는 제1기의 테라스를 둘어 폭 12m의 평탄면을 조성해서 軒先瓦가 출토되고 있어서 瓦葺의 門建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門跡(A)는 柱施方 4개를 검출하고 正面 1間(5.4m?) · 안길이 2間(2.7m×2 = 5.4m)의 사사문을 기초로 하고 그 천후에 控柱가 선 全長 10.4m의 樓門형식이 복원되었다. 또 門跡의 북측兩翼에는 0.5-1m의 切石의 石組을 배치하고 있지만 동측에서는 上或土壘에 잊당아 18m 계단되고 있다(B). 이 石組에 직행해서 북으로 연장한 石組暗渠 2열이 설치되어져 있다. 동문은 최근의 調査에서는 大甕의 북측에 폭 60m의 大構(外濠)가 존재했지만, 西門跡의 북측에는 堤山面이 끼져 있어 淬는 존재할 수 없고, 그 西門을 통한 官道와 동측에서 깊이 2m의 용폭 파여진 부분이 검출되었고 外濠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동으로 끼져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G).

### 제3기 —— 9세기 段階

門造構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土壘의 頂部에 9세기대의 瓦가 다량으로 발견되어 権門의 존재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下阻은 명확하지 않다. 또 門跡의 북서에 2棟의 構(폭 약 2m 깊이 약 1m)가 검출되어 官道의 兩側構라고 추정되었다. 路面幅은 약 12m, 土壘에의 배달된 部에서는 6m로 할소해 진다(H).

이상 水城에 관해서도 茶堤工法이 명확하게 채택됨과 동시에 大宰府政廳 · 大野城大宰府城 등의 경비 · 轉轍에 運動해서 광설시의 石垣 · 構 · 土壘테라스를 둘어서 문의 확대로 재건을 도모했던 것이 명확해졌다.

鞠智城跡의 고고학적 탐색은 故坂本經鹿씨에 의해 1930년경부터 시작되어 그 調査成果에 의거해 1969년 12월에 熊本縣史誌 「伝鞠智城跡」으로 指定했다. 그후 水田化工事에 수반해서 熊本縣에서는 1968년부터 전면적인 確認調査를 개시함과 동시에 사적명칭을 「鞠智城跡」에 개칭했다. 發掘調査은 196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세로이 진행중이고 1994년부터는 사적정비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遺跡은 八方丁堀(標高 1052m)의 南麓台地에 있고 서쪽은 南流하는 木野川, 南側은 南流하는 泊間川으로 구획되었고 양河川은 莊池川에 합류한다. 유적의 중추를 이루는 木原台地(標高90-100m)는 평야부와의 比高差 50-70m로 大野城이나 基肄城 등과는 지형상으로도 크게 다르고 평야부에 접경하는 위치에 있다. 축성에 배달되는 주변부를 追地(谷狀低地)에 둘러싸여 독립지형을 이루는 銀城(内郭)과 더욱 그 外城을 囲繞하는 斷崖과 八方丁堀 支脈尾根부터인 莊城(外郭)의 철묘한 지세가 선배되어져 있다. 内外兩郭과 외부를 연결하는 것은 서쪽으로 열린 대문과 남 2개소의 문(深追門 · 堀切門)이 있지만 천연의 尾根線(土壁線)과 壁線으로 둘러싸여 방어기능으로는 적격의 지세이다. 그래서 이 西側을 북상하는 権持住還은 福岡縣南端의 八女山越道를 지나서 大宰府에 이르는 古代道路에 해당하는

되고 有明海에서부터 침입하는 계습에 방비해서 大宰府와 연락하는 군사·교통상의 요충을 점하고 있다.<sup>11)</sup>

内郭은 土壘狀尾根과 斷崖로 구획되었던 남반부의 米原台地(内城)과 그 서·북을 도는 外濠部(外城)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考古調査되고 있는 米原台地에서는 55동의 建物遺構(1996년 3월 현재)가 발견되어졌고 계다가 증가일로에 있다.<sup>12)</sup> 건물은 구조상以下の 4종으로 大別되어 있다.(제2표, 별첨).

(1) 捩立柱建物 - 34동. 縱柱과 側柱構成의 2종이 있고 그 위에 천자는 長方形과 方形의 평면구조가 있다. 최대규모의 것은 13호이다. 側柱構成의 것은 10호가 方形, 그외는 長方形들이고 규모상의 최소는 2호, 최대는 16~18호이다. 또 차양이 달린 것이 있고 24호는 남측에, 27호는 남동측에 끌어있다.

(2) 磚石建物 - 14동. 縱柱構成에서 평면형에 方形과 長方形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것은 49호(宮野建物)로 内城중 최대규모의 건물이다. 3間×9間의 전형적인 長倉式이 된다.

(3) 磚石建物(本體)十擬立柱(庇) - 3동(11·12·29호). 縱柱構成의 方形를 대형 건물이다.

(4) 八角形建物 - 4동분. 2동이 남북에 50m의 거리로 놓여서 있고, 각각 1회씩 같은 장소에 중복해서 고차례 세우고 있다. 북측의 것은 初建期(30호)가 捩立柱, 再建期(30호)가 磚石建物이 된다. 동시에 心礎를 중심에 미중으로 柱을 배치하고 있다. 남측의 것은 창건기(32호), 재건기(33호) 함께 捩立柱를 삼중으로 배치하고 전통 자체는 재건시에 235도 기울어져 있다.

상술한 건물의 연대는 柱의 掘方埋土나 磚石의 地基穴부터 須惠器나 土師器의 발견이 있었다. 3·6·7·11·12·16호에서는 7세기 후반, 36호에서는 9세기 후반이라고 판별되었다. 팔각형 건물에서는 33호(남측·재건기)의 掘方에서부터 8세기대, 주변의 捩立柱에서부터 7세기 후반의 須惠器가 발견되어졌다. 또 西方의 長者山의 4동분(45~48호)과 宮野磚石建物(49호)에서 출토했던 古瓦는 7세기 후반부터 8세기에 이치고 있다. 軒先瓦에서는 사용 건물을 특정할 수 없지만 百濟系單件軒丸瓦片 2점이 있고, 그중 한 점은 基跡城例에 近似한 것이다.

1995년도에 시작했던 제17차, 제18차 調査에서는 59호까지의 건물이 추가되어 長者原北側의 追地(谷部階段上水田地域)에서는 trench(참호)調査에 의해 河의 遷構가 확인되어 지면서, 包含層부터 8세기대에 거슬러 올라가 須惠器片 등의 발견도 있어서 현재 계속적인發掘에 의해 비슷하게 그 규모도 명확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南側에서 東面하는 深追門礎부근의 調査는 1995년도에 행해져, 門礎는 원위치를 이탈하고 있는 것, 창건시에는 捩立柱이었던 것, 통로의 좌우에는 版築土壁가 축조되어졌던 것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의 규모·구조 등을 명확히 하는 것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창건시에는 捩立柱구조에서 그후 磚石 사용에 移行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은 大

11) 小田富士雄 「熊本縣・鹿智城跡을 둘러싼 諸問題」, 「考古論集-潮見浩신생 謂題集」, 1980년

12) 熊本縣 教育위원회 「鹿智城跡」 (熊本縣문화조사보고서) 제1-6차(1982년)·제10-12차(1991년)·제13차(1992년)·제14차(1993년)·제15차(1994년)·제16차(1995년)·제17차(1996년) 大田幸博 「鹿智城跡에서 강출되었던 八角形建物에 관해」, 「월간고고학 Journal」 No.368, 1993년 大田幸博 「肥後・鹿智城」, 「고대문화」 47권 11호, 1995년

野城大宰府口城戸의 調査成果와도 照合할 수 있는 경과를 가지고 있어서 흥미롭다.

#### 4. 朝鮮式 山城 再考

상술한 바와 같이 朝鮮式山城에 관련해서는 對馬・金田城, 橋岡郡・大野城과 木城, 熊本郡・鶴賀城에 관해 주로 사적정비에 중반한 發掘調査가 행하여져서 이에 따라 몇가지 새로운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金田城은 667년 11월에 축성의 사료가 보여진다. 종래 石壘과 세개의 城戸(門)構造가 알려져 있었지만 城內의 두번째의 城戸와 세번째의 城戸의 창방에 통하는 駁道平坦地에 城戸로 존재하는 門廳과 동류의 磚石를 설치했던 문과, 여기에서부터 등고선에 잇달아 파생하는 土壘가 확인되었다. 이것들의 시설이 세번째 城戸廳이 아니라 두번째의 城戸廳에 설치되어져 있는 것은 淩茅岡側에 침입해 오는 외적이 城山의 북단과 그 對岸의 鶴亭岳(標高 62m)가 형성하는 가장 험소한 頓戸, 가는 입구를 通化해서 그 内奥・黑頭灣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첫 번째 城戸・두번째 城戸 근처까지가 그것에 대응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가는 口頭戸를 침입하려고 하는 외적에 대해서는 城山側에서만이 아니라 對岸의 鶴亭岳側부터도 함께 초용해서 逆擊할 때에 방위전의 위력을 발휘되어지는 것이다. 城山의 駁道平坦地는 城의 중추기관을 설치한 舒處이다. 그 남동에 인접하는 '별구시' 산을 포함해 土壘로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일련의 시설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山頂部에 捨立柱建物이 발견됐던 곳에서 여기에 高床倉庫 등이 배치되어졌다고 推察할 수 있다.

한편, 가는 입구를 통하여 그 위에 黑頭灣에 이르지만 그 内奥는 處行하면서 후미 길이 군선을 수용해 방위에 쓰는 것만이 아니라 출격기지도로서 최적의 자세이다. 「三國史記」、「新羅本紀」에는 기원전 1세기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기부터 倭人(倭賊)이 新羅의 동・남 해변을 습격했던 기사가 보여진다.<sup>13)</sup> 그 중에서도 實註尼師今王7년(408)2월조에는

「王聞倭人於對馬島置營, 獄以兵革資糧, 以謀擊我。」

라고 있어 항은 출정하려고 했지만 신하의進言을 받아들여 중지했던 것에 보여진다. 즉 倭의 군사거점이 對馬島에 있었던 것을 전하고 있다. 또 시대는 나중이지만 「李朝實錄」成宗의 成化 12년(1476) 7월조에 對馬島에 관해 기록한 가운데에 「島有山城, 相傳朝鮮人所築, 未知信否」라고 있어서 城山(金田城)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있다. 이것들의 역사적 經緯를 참고하면 金田城은 城山에서부터의 戰鬪船團을 감시하고 大宰府에 전달하는 것을 계일의 임무로 하는 西日本防衛網의 최전선기지로서 최적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64년에 배치되었던 贊人(병졸)이나 龍化시설도 金田城을 둘러싼 淩茅岡주변에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계다가 그와 같은 방위기능뿐만 아니라 出擊船團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복잡한 '아스'식 지형에 의해 가장 넓고 깊게 풍을 수 있는 淩茅岡은 최적의 기지이기도 하다. 「三國史記」에 기록되었던 倭人的 對馬에 대한 계일의 거점 후보로 金田城주변을 추천하는 까닭이다. 상술해 왔던 바와 같은 金田

13) 旗田龍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나타난『唐』」, 『일본내부에서의 조선문화』 1983년  
高麗歎 「『三國史記』新羅本紀의 唐關係記事」, 「고대의 일본과 중국사」, 1996년

城 성립이전부터의 新羅·對馬의 역사적 교섭을 생각하면서 金田城의 城城을 구획한 城郭線을 주의해서 보면, 우선 隅角을 만들어 방향전환하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百濟系山城이라고 보여지는 大野城·基肄城·鞠智城 등의 城郭線은 隅角을 만들지 않고 둥글게 마무리해서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 것도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또한 金田城의 石垣은 수직에 가까이 직립해 높이 쌓아 올린 기법도 주목되어지는 바이다. 즉 百濟式山城의 외관적 특징이 걸려되어 있어 옛날 6세기까지 축성된 伝承이나 史料를 구비하고 있는 古新羅時代 山城과의 近緣關係로 요청되어지는 것이라 하겠다.『三國史記』에 나타난 儒人の 新羅襲來는 시기적으로 新羅의 京城주변에까지 도착해 金城을 포위하는 것이 10월이나 지속되었다. (訥抵王 28년 = 444년) 金田城의 창설은 이와 같은 신라침공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시기에 충격의 본거지로서 신라의 축성기술의 모범을 취해서 실현된 것임 아니었던가라고 憶想해 본다. 667년 11월의 축성기사는 이 이전의 축성을 기초로 하면서 재이용하고 정비했던 것이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軍部平粗埴나 山의 諸施設은 그 사이에 새롭게 道設되어졌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어진다. 7세기 이전의 道構에 관해서는 考古學調査로는 아직 불명하지만 금후 이와 같은 시점으로 부가해서 검토해 가는 것이 기대된다.

다음으로 大野城에 관해서는 大宰府政廳으로 통하는 太宰府口城門과 그것에 접한 外周土壘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얻을 수 있다.<sup>14)</sup> 城門遺構에서는 7세기 후반의 창설사에는 捏立柱八脚門이고 제2기에는 제1기의 전후와 左右驛間을 생략했던 규모의 碰石立四脚門이고 石垣과 사이에 생긴 공간은 돌로 쌓아 묻고, 屋瓦에 國體館系瓦가 사용되어진 끝이기 때문에 大宰府政廳의 제2기 정비와 서로 조응하는 것과 알려져. 그 시기는 8세기의 제1/4반기로 比定되어진다. 개다가 城門에서부터 동북방으로 퍼져있는 外周土壘上에는 檻列이 물려싸여져 있는 것, 内周土壘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土覆調查부터 外周土壘의 구축방법이 선행하는 것 등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内周土壘의 道證이 창설단계에 있어서 構築順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설치되어졌던 것인가는その後의 과정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古代山城의 二重土壘에 관해서는 규모의 축소, 혹은 확대라고 하는 해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大野城에서는 774년에 四王寺가 설립되어 城門이 改修되어졌다(제3기)고 하는 특수사정이 있다. 内周土壘은 그 단계에서도 무엇인가 가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内外兩土壘는 동시에 가능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大野城에 관해서의 下限史料는 貞觀18(876)년 3월 3일의 太政官符(『顯賢三代格』)이다. 이 무렵 大野城의 衛卒 40人이 배치되어 稲禾 24斛를 매월 城庫에 거두고 있던 것, 이들 城兵이 大宰府 주변의 治安警備로 배치되었던 것이라고 推察할 수 있다. 또 大野城과 제휴해서 大宰府蘿城의 北面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本城大堤에 관해서는 연락한 시면에 堤堤하기 위해서 田地表面에 樹木枝葉(粗朶)을 敷設(敷粗朶)한 补強工法, 그 위에 높이 13m의 급경사 版築土壘를 建城해서, 그 전면에 깊이 4m·폭 60m의 大澗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拆之盛土工이 필요해서 그 목적으로 우선 下成土壘를 축조한 공법이 취해졌던 것 등, 堤堤工法이 地盤工學의 방면에서부터 명확해졌다. 마무기 敷粗朶에 사용되었던 植物遺體의 同定부터 5월 중순-7월 중순경에 根探되어 土中에 잘라 묻은 것이 알려져 水城大堤의 축성공사가 사료도 참조해서 664년의 어름부터 가을에 걸쳐 행な여진 것이推察된다.

『日本書紀』 665년 8월조에 의하면 百濟창설의 遣臣達率 答林春初가 金門城의 遣率 檻體

14) 橋田賢次郎 「大野城의 성문-太宰府口城門을 중심으로-」 『월간고고학 Journal』 No.369 1963년

福留·諸率四比羅夫가 大野·操(基跡) 2성의 城城指導에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連率의 官位를 수여받은 것으로부터 百濟王室의 高官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答体春初·禮禮福留와 함께 天智紀 10년(671년) 정월조에 大山下의 官位를 수여받아 「兵法에 적당함」이라고 평석될 수 있는 행법가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비에 관해서는 天智紀 2년(663년) 9월조에 同月 25일에 弓體城(전라남도 烏城설이 있음)부터 登船해서 日本으로 향했던 기사가 있고 百濟陪葬시의 방명고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大宰府城郭의 구성이 百濟扶餘의 그것과 유사한 곳이 많다. 百濟泗沘都城에 모범을 봄 것이 누차 지적되어 온 것도 이와 같은 이유와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水城大堤의 축조에 대해 前面에 大溝를 설치해 「水城」의 명칭을 생겨나게 했던 발상은 어디에 부합될 수 있겠는가? 大宰府城郭과 百濟泗沘都城의 관계에 관해서는 大宰府城郭과 北背의 大野城에 대한 推定의 漢昭王宮과 北背의 扶蘇山城, 근년에 제기되고 있는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大宰府城郭廣域설과 扶蘇羅城域의 자연지형이용, 大野城과 扶蘇山城에 있어서 内外二重土壘의 존재 등 몇 개의 유사점이 제기되고 있다.<sup>15)</sup> 大宰府城郭에 대해 水城 및 小水城은 羅城의 北限을 구획해서 북으로부터의 침습에 대비 할 수 있었던 시설이다. 百濟泗沘都城은 羅城의 西에서부터 南을 曲流하는 銚江에 의해 친연의 城域을 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西域에는 銚江東岸域에 연한 西羅城土壘 가 파괴되어지면서도 扶蘇山城西門跡부근에서 발생해 官北里·田校里·東南里·軍守里·城末里에 이르고 있다. 현재로는 東行하는 城南端北岸域에 羅城構造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城東域이 鎮山里丘陵을 통해 鹽倉里의 銚江 가까이까지 남하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하여 생각해보자. 당연 銚江北岸을 따라 羅城門을 포함한 南羅城의 존재가 예상되어지는 바이다. 아마 서에서부터 남으로 걸쳐서의 羅城遺構는 古代이래의 銚江의 沔盤에 의해서 빨리 일어버린 것이라고推察되어진다. 또 羅城내의 사방에 池가 있어서 용수를 저장한 후, 성외의 銚江에 흐르게 하는 계획이었다. 서에서 남으로 羅城이 틀려싸고, 그것에 따라 外側에 銚江이 흐르는 경관은 확실히 水城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大宰府城郭에서는 내부에 御笠川을 끌어들여, 大堤의 밑에 木驛을 통해서 外側의 大溝에 계수하려는 계획이다. 大堤의 前面에 川이 없는 水城大堤의 경우, 泗沘城내의 웃에서부터 城外에 물을 흐르게 하는 구조가 御笠川을 이용해서 大堤前面의 大溝에導水貯蓄하는 발상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大野城水城口城門에서 시작해서 水城大堤 외에도 小水城에 이르는 大宰府北羅城의 구성은 확실히 泗沘都城의 西-南羅城과 銚江의 편성에 모범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大宰府城郭과 泗沘都城의 상관관계에서 설명해 왔던 종래의 설과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翁智城의 初見史料는 608년 5월의 수리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大野·基跡 2城과並記하고 있다. 따라서 축성시기는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665년의 大野·基跡 2城과同時期인지 다소 뒤지는 시기인지를 推察할 수 있다. 그후 翁智城에 관한 사료는 없고 9세기 후반이었던 다음의 3개의 기사가 알려져 있다.

(1) 天安2년(858) 2월 24일 「肥後國言, 菊池城院兵庫放自鳴」 25일 「又鳴」, 『日本文德天皇實錄』

(2) 天安2년(858) 6월 20일 「又肥後國 菊池城院兵庫放自鳴, 同城不動倉十一宇火」 (上同)

15) 成因録「大宰府城郭과 百濟泗沘都城의 비교고찰」 『한국고고학 Journal』 No.360 1993년

(3)元慶3년(879) 3월 16일 「又賤接國 菊池郡城院兵車戶自鳴。」(『日本三代實錄』)

어느 쪽도 菊池城(鞠智城)의 불가사의한 이변을 전하고, 대우기 不動倉火災의 것을 기록하고 있다. 즉 9세기 후반까지 鞠智城이 기능하고 있었던 것을 전하는 것이지만, 더욱 大野城이 9세기 후반에 若干의 병사를 두어 大宰府주변의 치안경비를 담당해 온 것이지만 아마 鞠智城의 경우도 서로 유사한 성격으로 변질했던 것이라 하겠다.

鞠智城의 内城 특히 米原台地주변에 약 60동의 건물이 집중해 있는 것은 그 지역이 城내의 중추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推察할 수 있다. 이것을 건물군은 大別해서 4종류가 있는 것은 상술했던 바 있고, 兵舍・倉庫・司令舍 등의 구별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현재 진해증인 경비계획과 부합해 몇 개의 건물에 대해 建築史學의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sup>16)</sup> 즉 5호 挖立柱建物은 高床板倉形式, 茅葺 20호 磚石建物은 高床甲倉形式本瓦와 함께 穀倉, 並 16호・28호의 挖立柱長方形을 즉 柱建物에 관해서는 兵舍로서의 복원이 고려되어지고 있다. 이것들의 복원작업에 대해서는 古代의 諸國宮倉의 納穀交替帳이나 寺院의 資財帳에 대한 참고의 法量記載를 검토해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八角形建物에 대해서는 한국 경기도 廣州郡・二聖山城<sup>17)</sup>에서 發掘된 八角形・九角形의 磚石建物과 이 復元案 등이 참고되었지만, 日本의 朝鮮式 山城에서 시작해서 발견되었던 다각형 건물이 한국의 古代山城과도 조합될 수 있는 것은 그 계보를 더듬는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현제 體觀說, 佛敎施設의 圓室・圓塔說, 鐮樓說, 天壇・地壇說 등이 提出되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증은 얻을 수 없다. 요컨대 軍事關係가 祭祀關係나 어느 것인가하는 것이 되겠다.

立地景觀에서 보아 鞠智城이 大野・基肄 2城의 高位山頂型과 달라 평야부에 접속하기 쉬운 低位丘陵型인 것으로보아, 이것을 朝鮮式 山城이라고 하기에 주저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와 같은 견해는 朝鮮式 山城을 大野・基肄 2城에게만 찾으려고 하는 편견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古代山城에 여러 유형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장없는 것이라 하겠다. 옛날 鞠智城 타입의 山城은 소위 “도당처 들어가는 城”으로서 방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는 囲擊型의 기능도 갖추고 있었던 것을 付記해 놓았다. 또 현제 調査중인 内城域에 있어서의 坎地를 이용했던 듯의 발견도 西日本의 古代山城에서는 처음 보는 것으로 금후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 새롭게 韓國古代山城의 譜例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수년내의 西日本古代山城의 訓査調査는 여러가지 새로운 전례를 아기시켰고 새로운 연구단계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16) 吉田後玄・北野壽 「古代鞠智城에 관한 연구-總括建物의 분류-」, 『일본건축학회 中國・九州支部연구보고』, 10호, 1996년

17) 金秉模・沈光洙 「二聖山城」, 『한양대학교 학문관 총서 5・6・12집』, 1987・88・90년

第2表 楊智城跡内塚(米原台地)発見建物遺構一覧

號	間数		幅 延 長 (m)		備 考
	縱行	橫行	縱 行	橫 行	
1	3	5	4.5 (15尺)	10.0 (33.3尺)	獨立柱建物(櫛柱)
2	1	3	2.4 (8尺)	4.2 (14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3	2	3	6.0 (20尺)	9.0 (30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4	-	-	長軸9.0(30尺)	短軸6.6(21.3尺)	礎石建物(櫛柱에 한정)
5	3	4	6.9 (23尺)	12.0 (40尺)	獨立柱建物(櫛柱)
6	3	6	6.0 (20尺)	16.4 (54.7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7	3	-	6.3 (21尺)	8.4 (28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8	3	6	6.0 (20尺)	13.4 (44.3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9	2	-	6.0 (20尺)	7.5 (25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10	2	3	6.0 (20尺)	7.5 (25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11	5	6	11.0 (36.7尺)	12.6 (42尺)	礎石 + 獨立柱併用建物
12	5	6	11.5 (38.3尺)	13.2 (43尺)	礎石 + 獨立柱併用建物
13	3	4	7.5 (25尺)	10.8 (36尺)	獨立柱建物(櫛柱)
14	3	5	7.2 (24尺)	14.5 (48.3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15	3	-	7.2 (24尺)	11.6 (38.7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16	3	10	7.8 (26尺)	26.6 (88.3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17	3	-	7.2 (24尺)	13.25 (44.2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18	3	-	8.1 (27尺)	20.8 (68.3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19	1	5	6.3 (21尺)	15.0 (50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20	3	4	7.2 (24尺)	9.6 (32尺)	礎石建物
21	3	4	7.2 (24尺)	8.8 (29.3尺)	礎石建物
22	4	4	5.8 (18.3尺)	8.0 (26.7尺)	礎石建物
23	4	6	5.8 (19.3尺)	12.6 (42尺)	礎石建物
24	1	-	5.7 (19尺)	10.2 (34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담개 무작
25	3	3	5.7 (19尺)	7.2 (24尺)	獨立柱建物(櫛柱)
26	3	-	7.2 (24尺)	6.0 (20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27	1	-	5.7 (19尺)	10.0 (33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담개 무작
28	2	5	4.2 (14尺)	9.0 (30尺)	獨立柱建物(櫛柱에 한정)
29	8	-	12.9 (43尺)	6.9 (23尺)	礎石 + 獨立柱併用建物 礎石本體+礎石蓋片+獨立柱

八角形遺物

(単位:m)

號	内徑(1)	外徑(2)	外 檻	備 考
30	-	6.8 (22.7尺)	9.6 (32尺)	礎石建物
31	-	-	-	獨立柱建物
32	3.8 (12.7尺)	5.9 (19.7尺)	9.2 (30.7尺)	獨立柱建物
33	4.0 (13.3尺)	6.7 (22.3尺)	9.8 (32.7尺)	獨立柱建物

號	間 數		繪 出 線 (m)		備 考
	梁行	柵行	單 行	重 行	
34	-	-	-	-	礎石建物
35	-	-	-	-	獨立柱建物
36	3	4	7.5 (25尺)	9.2 (30.6尺)	礎石建物
37	-	-	-	-	礎石建物(36호에 속함)
38	-	-	-	-	獨立柱建物(37호에 속함)
39	-	-	-	-	獨立柱建物(37호에 속함)
40	-	-	-	-	獨立柱建物(37호에 속함)
41	2	(25)	5.0 (16.6尺)	5.0 (16.6尺)	獨立柱建物 (전체 규모의 확장에 끝마침)
42	(3)	(3)	4.8 (15.3尺)	5.4 (18尺)	獨立柱建物 (전체 규모의 확장에 끝마침)
43	(3)	(3)	6.8 (22.6尺)	9.0 (30尺)	獨立柱建物 (전체 규모의 확장에 끝마침)
44	-	-	-	-	獨立柱建物
45	(2)	(3)	5.0 (16.6尺)	7.5 (25尺)	礎石建物(長者山建物)
46	(3)	(4)	6.6 (22尺)	8.4 (28尺)	礎石建物(長者山建物)
47	3	3	6.9 (23尺)	7.5 (25尺)	礎石建物(長者山建物)
48	(2)	(4)	4.2 (14尺)	12.0 (40尺)	礎石建物(長者山建物)
49	3	9	7.2 (24尺)	21.6 (72尺)	礎石建物(宮野建物)
50	(2)	(4)	4.6 (15尺)	7.2 (24尺)	礎石建物(長者山建物)
51	-	-	-	-	獨立柱建物
52	(2)	-	6.0 (20尺)	4.5 (15尺)	獨立柱建物
53	(2)	-	4.6 (15尺)	3.3 (11尺)	獨立柱建物
54	(2)	-	4.4 (14.6尺)	3.0 (10尺)	獨立柱建物
55	-	-	-	-	獨立柱建物

[古代文化, 47-11에서]

# 「西日本 古代山城에 관한 최근의 調査 成果」에 대한 論評

- 특히 朝鮮式山城에 관하여 -

成 周 銸(충남대)

小田教授가 발표한 바와 같이 西日本 地域에는 百濟가 멀망한 직후 (663~) 百濟遺民들이 건너가서 自衛를 목적으로 축조하였다고 알려진 「朝鮮式山城」과 계보를 알 수 있는 「神護石式山城」들이 많이 산재하여 있다.

前者에 속하여 있는 山城으로서는 對馬島에 있는 金田城, 福岡縣에 있는 大野城과 水城, 佐賀縣에 있는 基肄城, 熊本縣에 있는 鞠智城 등인데, 이를 山城에 대하여는『日本書記』에 명시되어 있어 축조년대와 축성자의 이름까지도 알 수 있어서 그 계보가 확실하다. 그러나 후자의 「神護石式山城」에 관하여는 量的으로 볼 때 数는 훨씬 더 많지만 그 계보는 아직까지 구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小田教授는 본고에서 먼저 근거가 확실한 朝鮮式山城에 대해 분한자료에 입각해서 그 계보를 밝힌 다음, '88년 이후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朝鮮式山城」들의 실제에 대해서 明确하고 나아가 이 山城들의 源流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仁濟山城과 新羅山城의 새로운 발굴조사 자료와 「朝鮮式山城」을 비교검토해서 이 城들의 성격을 파악하느냐 초점을 맞은 論文이다.

山城공부를 하고 있는 討論者로서는 이 방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金田城은 단 한 번의 답사를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山城들은 수차례 걸쳐서 답사는 하였지만 皮相의 편찰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은 범악한 식견을 가지고 질의에 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줄 생각하지마는 이 방면에 보다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對馬島에 있는 金田城 문제, 두 번째는 福岡縣에 있는 大野城·水城, 그리고 佐賀縣에 있는 基肄城을 한 단원으로 묶어 몇가지 문제를, 세 번째는 熊本縣에 있는 鞠智城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였으며, 이 끝에 山城에 관련된 啓疑事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다.

## 첫 번째 金田城

(1) 발표자가 논술한 바와 같이 金田城은 百濟 멀망후 (667) 百濟人에 의해서 축성되었음을 「日本書記」는 명시하고 있다.

지형상 전략적 요충지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新羅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므로

그 교류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표자는 미와간은 점에 차안에서 金田城의 隅角처리技法과 수직 축성법의 특징적인例를 들어 百濟山城의 圓形처리 방법과는 相異하므로 그 면면을 新羅城의 영향을 받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조심성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金田城의 隅角처리 기법과 長方形의石材를 수직으로 축성한 기법은 이 山城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大田부근에 있는 三丁洞山城인 경우 堆城인지는 몰라도 隅角을 수직으로 처리하고 있어 百濟山城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發表자의 논술대로 百濟式山城은 隅角처리를 원형으로 하고 있음을 틀림없는 사실이라 新羅山城도 三年山城의 경우처럼 隅角을 圓形으로 처리했던 예로 미루어 보아서 金田城이 新羅의 영향을 받아서 축조하였다고 하는 의견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한다.

金田城의石材는 택재나 新羅 어느쪽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예가 있으면 제시해 주기 바란다.

(2) 金田城에는 城門이 3개로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런데 이 3개의 門地가 산정으로 올라가는 능선을 따라 서 있는 것으로 나는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지 알려주기 바란다.

城에는 보통 東西南北으로 4개소의 문과 그 외에 간혹 暗文도 부설하는 것이 상례인데 3개 城門의 처리방법은 무슨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필자가 20年前 鏡山猛선생의 주선으로 漢邊正氣선생의 안내를 받아 現地인 永留선생을 대동하고 이 산성을 답사 하였는데 永留선생은 “一城門” “二城門” “三城門” 의 문지는 中한것으로 설명하여 주었다.

혹시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 두 번째 大野城 水城·基肄城

이 城들은 축조년대 뿐만아니라 축성자와 이름도 알 수 있는 전형적인 百濟式山城의 領型에 속하는 城地들이다.

##### (1) 城制

發表者が 논술한 바와 같이 大宰府 부근에 있는 이들 城地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百濟末期의 都城剖面 살펴보면 罗城인 平地城과 비후의 丘陵性山城이 扶蘇山城, 그리고 青馬山城의 高地性山城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자께서는 高地性山城인 青馬山城의 岩과 쪽 같은 高地性山城인 基肄城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니 西批都城制와 같이 편입시켜 한組로 보는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 (2) 大野城과 扶蘇山城의 비교고찰문제

大野城은 표고410m의 山城에 둘레 약 8km의 土城이며, 무문격으로 취약점은 石築에

의존하여 축조하였고 城내에는 70餘棟의 건물지가 있는 것으로 발표자는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扶蘇山城은 표고 110m의丘陵에 둘레 약 2.2km의 土城이다. 성내에는 역시 軍倉地로 알려진 건물지가 발굴조사되어 地形과 규모는 다를망정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山城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大野城이 같은 시기에 축조된 二東式山城으로 발표자는 파악하고 있는데 扶蘇山城의 二東式山城인 경우 그 年代가 최근 조사로 삼아함이 편영되어 그 비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

### (3) 龍城과 水城 문제

發表者は 龍城性格을 가지고 있는 水城을 기점으로 해서 小水城을 거쳐 東門地圖 남쪽의 下城土臺에 이르는 土城地番 扶蘇龍城에 비교하고 있다. 百濟式都城體의 구체적인 실례를 확증한 셈이다. 그런데 龍城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水城은 높이 13cm, 기지쪽 80m의 壁도 부설되어 있어 扶蘇龍城과는 그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 진일보한 축성법이 아닌가 한다.

(4) 基肄城은 土城으로 되어있는 반면에 부여 青馬山城은 石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일단 유사시에 도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點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青馬山城은 百濟末期에 축조된 가장 큰 包各式山城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基肄城에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水口가 부설되어 있다.

이와 같은 類型의 水口는 百濟나 新羅 어느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水口이다. 굳이 비교해 본다면 時代는 다르지만 南漢山城에 부설된 水口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金田城, 大野城·水城, 基肄城을 감안해 볼 때 百濟人들이 日本에 건너가서 축조한 城들은 규모와 技法, 구조면에 있어서 長足의 발전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百濟酒罇都城에는 陵山里吉墳群이 있고, 頤律城에는 家山理古墳群, 그리고 初期 漢城時代 城地로 알려진 麥村土城, 風納洞土城 부근에는 石村洞古墳群이 조성되어 있다. 大宰府城과 부근에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어찌해서 없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 세 번째 開智城

(1) 發表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金田城, 大野城, 基肄城 등은 모두 높은 산위에 축조하였는데 開智城만은 표고 90~100m의 구릉성 山城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扶蘇山城과 公山城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데 發表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周邊地形도 上記 二個城地와 같은 點에서 주목을 끌며, 城안에 木原, 長者原, 東原 등 群眾都城의 원 이름인 夫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百濟의 五方制度인 東西南北中の 명칭이 일부 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볼 수는 없는지? 그리고 年代는 다르지만은 익힐하게 江田都山古墳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百濟

人の 근거지가 鞠智城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諸去者の 의견은 어떠하신지 教示해 주기 바란다.

(2) 鞠智城에도 兵舎, 倉庫, 司倅署 등의 건물이 있었으며, 八角形建物地도 조사 확인되었으며, 발표자는 이것을 二堅山城의 八角形建物地와 비교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鞠智城은 新羅系山城이라고 하는 의미인지 明示해 주기 바란다.

글으로 덧부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三國時代인 경우 高句麗, 百濟, 新羅 모두 城郭의 축소시기와 國家의 起源을 같이 보고 있으며 中國의 경우도 같다고 볼 수 있다. 唯獨 日本만은 그 경우가 다르니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 東北歷代山城의 홍망성쇠에 대한 略述

발표자 : 孫 玉 良(길림사회과학원)

논평자 : 徐 吉 淮(서경대)

# 東北歷代山城의 흥망성쇠에 대한 略述

孫 玉 良 (중국길림사회과학원)

1. 夫餘山城
2. 高句麗의 山城
3. 渤海, 契丹 및 女眞山城

## 머리말

中國은 春秋와 楚의 封建割据 세력이 출현한 이후부터 여러 제후국들이 번갈아 與하였고 邦國들이 수없이 세워졌으며 분분히 城과 堤을 쌓아 자기의 땅을 공고히 하였다. 때로는 성성을 쌓아 국경을 삼고 할부로 넘나들지 못하게 하였고 혹은 성벽을 쌓아 郡邑과 취파를 에워쌌으며, 혹은 關門을 설치하여 門戶를 만들고 사방을 지키는 丘塞로 삼았다. 둘레가 철만리나 되는 墓宇內의 곳곳이 형형색색을 띤 담장의 세계에서 중국의 독특한 고대 담장 문화를 이루었다. 산성은 바로 이러한 담장 문화의 일부로서 그것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아래를 내려보며 사방을 둘러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장엄한 역사의 篇章들을 남겨놓았다.

中國 歷代 정권은 건립한 이후 반드시 먼저 도시를 세워 旌旗場所를 정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근 100개의 郡城을 세웠다. 통치자들은 오랜 집권과 평화 그리고 끝없는 명화를 누리기 위해 대규모의 도목공사를 벌여 郡城을 修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郡城을 에워싼 闢城을 修築하였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城邑이 우후죽순, 또는 별처럼 늘어서고 바둑알처럼 널려서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古城의 대부분은 인류가 살아가고 번영하는데 적합하면서도 광활한 평원지대에 건축되었으며 혹은 넓은 강가나 골짜기, 산 사이의 塵地에 건축되었다. 이것은 평원 城의 한 종류에 속한다. 그런데 산성으로서의 고설은 내륙지방에서는 매우 드물게 건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동북 각 민족이 거주하는 산맥이 험준한 지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북 지구의 고대 城市 건축에 있어서 하나의 큰 특징이다.

몇십년간 아庇에서의 考古學적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동북 각지에서 고대 산성의 유적지를 120여 개나 발견하였는데 모두 여러 민족이 특정한 역사적 환경 하에서 특정한 역사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러한 산성들은 어느 한 민족의 궁기에 따라 흥기 되거나 또 그 민족의 해체에 따라 옮겨지거나 繁落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성은 오래되면 활폐해져서 초목이 무성한 폐허로 되었는데, 끝까지 온전하게 보전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城市로 발전될 수 없었다.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흔적 뿐이다. 발견된 120여 개의 산성 유적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다만 산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발굴한 간략한 보고문 뿐이며 독립적으로 이 일에 대하여 연구한 글이 드물고 더욱이 전문적인 과제로 인식되지도 않아서 장차 과학적인 분석과 診斷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동북 각지에서 발견된 산성 유적지는 시간상으로 구분할 때 漢, 魏, 晋, 朝鮮, 金, 元, 明, 清初에 이르는 각각의 역사시기에 모두 삼이한 규모의 산성이 건축되었다. 民族들을 는 한다면 夫餘와 高句麗人의 산성이 있고 또 鮮卑과 女真人の 산성도 있다. 특히 고구려인의 산성이 가장 많은데, 그 통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산이 있으면 거의 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산성은 고구려 문화의 가장 특별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 一. 夫餘 山城

동북 지구에서 계일 먼저 나타난 민족정권은 서한 이전에 龍驤人이 건립한 무여국이다. 부여 사람들이 건립한 산성은 동북 지구에서 가장 일찍 나타난 산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런데 부여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은 “아주 평평하고 너르며 땅이 오곡의 생산에 이르고 끝”(干東禹之域, 豊爲平敞, 土宜五谷)이면서도 또한 “산과 구릉이 많고廣澤하다”고 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는 평원 지대를 위주로 한다. 또 “그 사람들은 거칠고 몸집이 크며 건강하고 용감하며 근면하고, 도둑질과 노략질을 하지 않는다.”(其人粗大彌勇而禮厚, 不爲寇抄)<sup>1)</sup> 그러므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산성을 건축한 것은 매우 적었다.

古籍 중에서 부여인의 성읍에 대하여 비록 “둥근 올타리로 성을 만든다”(以圓壠爲城)<sup>2)</sup>와 “성책을 만드는데 모두 둥글다”(作城柵皆圓)<sup>3)</sup>라는 기록이 있지만 부여에 산성 건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는 경확한 설명이 없다. 게다가 그 王城이 있었던 곳에 대하여 학술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꼭 어느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근래에 와서 통과사 처리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현장 考古 조사를 기초로 하여 부여 王城에 대하여 세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李健才 선생은 자신이 직접 그 곳에서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하고 문헌에 기재된 方位원칙을 참고로 하여 비교적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의 추측에 의하면 吉林市 市郊의 龍潭山 山城 및 그 부근의 용담산 기차역의 平潭城, 東潭山 山城 등의 유지는 하나의 豐體로서 魏, 晉時代의 부여 王城이라고 인정하였다.<sup>4)</sup> 이 외에도 武國勳 선생은 자신의 東圓山 山城 유적에 대한 고찰과 실제적인 측량을 통하여 그 城이 “略近圓形”이며, 바로 고적 중에 기재된 “圓壠”과 서로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하여 東圓山의 山城이 부여 천기의 王城유적이라고 분명히 주장하였다.<sup>5)</sup> 武선생의 발견과 認定은 李선생의 논점을 진일보시켜 겸증하였다는데 夫餘의 역사 연구에 대한 획기적인意義가 있다. 그리하여 夫餘 王城에 대한 의혹을 풀었고 또한 夫餘인들이 건축한 산성을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文獻에 의하면 夫餘人이 構築한 山城은 최초에 주로 邑聚인들의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에는 先民인 鄉聚人도 포함된다. 「三國志·呂岱傳」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악화되었을 때 “廟子夫餘”였고 “한 나라 이대로 부여에 복속되었다”(自漢已來, 臣屬夫餘)라고 하였다. 曹, 魏初年에 이르러 “부여인들은 조세와 부역을 무겁게 하자, 黃初中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부여가 여러번 칭벌하였다.”(夫餘夷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사람들에게 남긴 인상은 “그 나라는 멋대로 배를 타고 노략질하고 흥서 안근의 나라들에 근심거리었다.”(其國便乘船寇盜, 囉國患之)라고 하였다. 이것도 역시 夫餘의 천기에 주로 와래의 感覺을 떨지 하기 위하여 山城을 뽐았음을 말한다.

兩晉南北朝때 夫餘 西部의 鮮卑慕容氏, 北部의 奴吉人, 南部의 高句麗人은 中原의 혼란한 풍을 타서 연이어 움기하였는데 빈번히 사방으로부터 夫餘를 침략하여 부여를 날로 쇠퇴계 하였다. 먼저 晉穆帝 永和 三年(347年)에 前燕의 王慕容皝이 병사를 과건하여 부여를 기습하였으며 “그 왕 및 부하 5만여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唐其王及部衆五萬余以還)하였다.<sup>6)</sup> 그래서 夫餘人을 東部山城 치구에서 멀리 떠나 “세쪽 우리나라 부근으로 옮기게 하였는데”(西後近秦) 통치의 중심을 오늘의 長安一带인 초원치구로 옮겼으며 前燕의 前期에 속국이 되었다. 후에 고구려가 鮑太王 통치시기에 진입하여 그 세력이 전에 없이 강

1) <後漢書·東夷列傳> 卷65.

2) 위와 같음

3) <三國志·魏志·東夷傳>, 卷30.

4) 李健才, <南北史地考略>(續集), <吉林省龍潭山山城考>.

5) 武國勳, <夫餘王城新考>, 是<黑龍江文物刊>, 1983年 4期.

6) <晉書·慕容載記>, 卷109.

성하였는바 바울대로 대외로 국경을 확장하여 부여는 또 한편 高句麗의 칠북대성이 되었다. 好太王碑의 기재에 의하면 호태왕二十四年(410)에 왕이 병사를 인출하여 가서 도벌하니 군대가 부여 삶에 이르자 온나라가 놀라 항복하였는데 부둣 궁락한 城이 64개며 촌락은 千四百개나 되었다. 또다시 부여를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원기를 소진케 하였다. 호태왕이 차지한 “能城”은 西쪽으로 이동한 후의 부여성이었고 전기의 王城은 궁락된 64개 城안에 있었으며 고구려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용담산 山城과 동단산 山城 유적지에서 많은 고구려의 유물을 수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유력한 증거이다. 그 중에는 흥갈색의 磚砂眞瓦紋磚板瓦, 회색의 전통으로 만든 陶罐, 건축용 瓦, 금도금을 한 饰件 등은 모두 고구려인의 전형적인 固物이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용담산의 산성에 호태왕에 의하여 점령된 이후에 고구려 북부의 重鎮인 大城으로 되었다고 단언하였다.<sup>7)</sup>

高句麗가 멀쩡한 이후에 渤海의 말간인이 흥기하였는데 용담산의 산성 일대는 渤海에 의하여 점령되었다. 그러나 渤海의 유물은 단지 동단산의 산성 부근에서 조금 발견되었을 뿐 그 인근의 몇 개 山城의 유적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渤海外에는 大城外 高句麗 시기의 山城이 계기되어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 二. 高句麗의 山城

山城은 고구려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는 점이 고구려 역사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다.

고구려인들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으며 평원과 深地가 없는” 자리적 환경에서 생활하였으며 또 “성풀이 금급하고 노략질을 좋아하여”(其人性凶狠, 喜寇抄)<sup>8)</sup> 늘 삼 주변의 이웃나라를 침략하였다. 또 부단히 四方騎圖으로부터의 도발과 습격을 당하였기 때문에 각 山과 江의 험준한 곳에 몇 백개의 攻守를 兼備한 山城을 건축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정권은 700여년이나 유지할 수 있었는데 山城이 고구려 역사에서 중요한 방어적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구려의 산성 유적지는 모두 백여 개나 발견되었는데, 그 판형 경내는 南으로부터 北에 이르고 東으로부터 西에 이르며, 산이 있으면 모두 山城이 있어서 어디든지 고구려인의 삶과 투쟁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文獻과 碑에 기재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고구려가 최초에 건축한 산성은 乾升骨城과 丸都城으로서 고구려의 역사상에서 제일 유명하다.

乾升骨城은 始祖인 鄭平가 建國初期에 修建하였다. 『三國史記』 <高句麗 本紀>의 기록에 의하면 鄭平는 먼저 도망의 비유하고 산원이 험준한 幸本川에 나라를 건립하였는데 “궁궐을 짓지는 않았지만 비유수 삼류에 여막을 짓고 살았다”(未選作宮室。但結廬于渾濁水上居之) 전국 세四年에 이르러 “營作城郭宮室”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록은 원래 여막을 지어 살던 땅에 성곽과 궁궐을 지었는지 아니면 따로 새로운 땅을 선택하여 城郭宮室을 지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魏書』 <高句麗傳>은 “주몽이 훌승골성에 이르러 드디어 정착하였다”(主蒙至乾升骨城, 遂居焉)라고 하였는데 乾升骨城이 일찍 존재하였던 것 같다. 다시 호태왕비의 기계에 근거하면, 산 위에 성을 건립하고 鄭平을 세웠다고 한다. 이 세 가지 기사를 종합하면 鄭平가 먼저 滯濱谷 평야에 나라를 세우고 平原城을 건

7) 李龍才, <東北史料考略>, 疆集, <吉林省龍潭山山城考>

8) <三國志, 魏書高句麗傳>

축하였으며 이후로 부근의 산위에 乾升骨城을 건축하였다.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遼寧省 横仁縣의 五女山城 유적지는 확실히 乾升骨城이라고 한다. 그러나 몇 년전 어떤 학자들은 오녀산성에 고구려의 문물이 없으며 乾升骨城 유적지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부정설의 발표는 후 고구려 역사가이자 고고학자인 李顯福 선생의 주의를 불러 일으켜 친히 오녀성 유적지를 고찰하며 허설과 충고 그룹을 겸증케 하였다. 고찰 가운데서 후선생은 그 유적지의 남쪽 담장이 끌어진 돌 틈에서 회갈색의 陶器 조각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 산성이 漢代에 건축된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또 세珉한 유물 중에서 일부 고구려 初期의 홍간색의 도자기 조각을 발견하였는데, 이 유적지의 계통을 확인하는데 한층 유력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더욱이 이 유적지 아래에 흘러져 있는 많은 고구려 墓葬과 古城의 유적 및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지리적 장위를 맞추어보면 이 산성은 고구려 초기에 건축한 乾升骨城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시기에 산성은 확실히 적을 방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평화로운 환경하에서 산성이 움직이고 발전하는데 불리하며 매우 큰 제약을 갖는다. 그러므로 고구려 第二代 琉璃王 二十二년에 王都를 “산수가 깊고 힘하여 땅이 오곡을 생산하는데 유리하며 도사습, 물고기, 자라 등이 많이나고”(山水深險, 地宜五谷, 又多麋鹿魚鹽之產) “백성들에게 이 익引力가 무궁할 뿐만 아니라 또 전관의 근심을 면할 수 있는”(不唯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 국내성으로 옮겼다. 그 통치 중심을 동쪽으로 옮기자 乾升骨城은 본래의 군사 방위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점차 쇠약해짐에 따라 그저 조상을 제사하는 聖地로 되었다.

근세 이래로 또 그 유적지 중에서 많은 金代의 유물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금나라 때에 이 산성이 이미 존재하였으며, 금인에 의하여 침략되어 사용되었음을 설명하여주는데 도대체 어느 때에 훼손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元史』의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 초에 諸王 乃顥이 요동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世祖 忽必烈이 친히 병사를 거느리고 토벌하여 가서 요동을 평정하였는데 이것이 제1차의 매우 파괴적인 전쟁이었다. 이 책 『地理志』의 <遼陽路條> 기사에서는 “遼金나라는 沈州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전쟁으로 하물어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乾升骨城은 원초에 요동을 평정할 때 훼손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九都城은 또 朝鮮畿城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의 가장 힘峻하고 세밀한 산성 중에 하나이다. 둘레 길이가 약 7Km나 된다. 琉璃王이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김과 동시에 환도성을 건설하여 국내성의 開城를 삼았다. 두 성의 거리는 2.5Km 밖에 안되었다. 『三國史』의 기록에 의하면 大武神王 11년에 東漢의 요동 太守가 병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국내성 아래에 까지 이르렀다. 대무신왕은 병사를 거느리고 환도성 내에도 들어가 수 심일을 치웠는데 魏나라 군대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물러가게 하였다. 이로부터 환도성이 적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서기 197년에 이끄러山上王이 즉위한 후 고구려 왕실은 정전 다툼으로 내부 분규가 일어났다. 통치자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였다. 王의 형 韶岐는山上王을 폐위시키기 위하여 東太守 公孫度에 의지하여 외력을 빌어 자기의 벽량을 굳혔으며, 公孫度으로 하여금 병사를 풀어山上王을 징벌하게 하여 고구려의政局에 위기가 초래되었다. 다른 한편 일찍이 고구려의 故國川王의 末年에 公孫度은 스스로 僦가 되어 요동을 할거한 후 고구려를 비롯한 나라들을 대외 확장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산성왕이嗣位할 때 고구려는 内憂外患이 가장

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第一』, 卷13.

심한 시기였으며 創立한 이듬 해의 정월에 환도성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 十三年에 도읍을 환도로 옮겼다. 『三國史記』는 산상왕이 도읍을 옮긴 원인에 대하여 생략하고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三國志』 <魏書東夷傳> 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 建安 년간에 公孫康이 병사를 풀어 고구려를 칠 때 그 나라를 파하고 읍과 촌락을 물살랐다고 한다. 建安 연간은 즉 산상왕 十二年(209年)前後의 때이다. 그러므로 산상왕이 서울을 환도 산성에 옮긴 것은 공손강이 고구려를 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강한 적이 압도해 오자 環疊城략을 쓴 것이며 환도성을 굳게 지킴으로써 정권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東川王 十八年에 이르러 통치자의 실수로 고구려는 또 세차례의 대규모 外患의 위기를 당한다. 曹, 魏, 楊平은 고구려가 요동의 西安平縣을 친다는 것을 구실로 韻州刺史 母丘徵을 파견하여 병사를 끌고가서 토벌하게 하였는데 환도성을 공격하여 병사들이 불을 질러 궁궐을 훼손시킴으로써 다시는 살지 못하게 하였다. 故國原王 十二년에 이르러 고구려는 또 강대한 적인 慕容皝이 침병하여 위협하자 환도성을 수축할 것을 명하였다. 8월에는 산성에 들어가 살면서 적을 물리칠 준비를 하였다. 十一월에 慕容皝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토벌하였는데 환도성은 두 번이나 함락되고 하물어져서 다시는 수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장수왕 때에 이르러 서울을 평양으로 옮겼는데, 통치 중심도 남쪽으로 이동함으로써 환도산성의 역사적 기능은 이로써 끝나게 되었으며 과거의 유적으로 변하여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을 그 속에 감추지 않았다.

많은 고구려 산성 가운데서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방어 작용을 하였던 산성은 아직도 환도성 남북으로 통하는 두 갈래의 혐난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鞏王廟山城과 關馬山城 유지 및 오늘의 柳河, 輛南縣 交界에 위치한 龍通山城 유적인데 모두 고구려 要地要道를 지키는 城壁이다. 이들은 모두 天險을 병풍으로 삼아 치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쳤다.

이 외에도 遷河를 따라 북쪽으로부터 南쪽으로 흘러가 그 좌측의 각 산 마루의 要地는 거의 모두 고구려의 산성 유적이 있는데 길고도 삼엄한 防禦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이 산성 중에서 또 遷, 金세대의 유물들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고구려가 멀쩡한 후 이러한 산성들이 遷, 金 두 왕조에 의해 밟습되었음을 설명한다. 그 중 비교적 현저한 것은 撫順 高爾山 산성 유적인데 평원 지구로부터 요동의 산악지대로 진입하는 門號이다. 이 성은 둘레가 4Km나 되는 산성의 평지 위에 건축되었으며 일곱 개의 서로 이어진 城壁로 구성되었다. 그 중 동서 두 城을 중심으로 남북 및 동남의 5개 성이 圍城이며 東쪽의 성을 主城으로 하였다. 근래 일부 학자들은 고이산 산성은 고구려 북부에서 鎭에 이르는 새로 운 성이라고 하며 고구려의 故國原王 五年부터 요동의 산악지대로 진입하는 門號이다. 그러나 이는지는 문헌에서 기재된 것과 수집한 문물이 말해주는 연대와 조금도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김부식의 『三國史記』의 기재에 의하면 일찍이 고국원왕 이전에 이미 新城이 축성하였다. 예컨대 西川王 7년(276년)에 “왕이 새로 지운 城에 행차”(王以新城)하였고, 또 槩上王 五年(296년)에 “왕이 高奴子로 신성의 대수를 삼았다”(王以高奴子為新城太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국원왕이 “나라 북쪽의 신성을 쌓았다”(築國北新號)고 한 것은 始葉이 아니었다.

둘째로 고이산이 산성은 요동지구에 있으며 『晉書』 등 문헌의 기재에 의하면 고구려는 광개토왕 十四年부터 요동을 침략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고국원왕 때에 고이산 위에 성을 건축한 것이 아니다.

셋째로 유적 중에서 수집한 유물은 漢代의 여러 가지 철기인데 이 산성이 땅 나라 때

에 건축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며 가장 늦은 시기라도 마땅히 東漢 후기였을 것이다.

만일 상술한 세 가지 점이 모두 사실이라면 고이산 산성은 고구려 북쪽의 신성이 아니며 그것을 처음 건축한 것도 고구려인이 아니다. 혹은 西川王 때의 고구려에서 일시 고이산 치구를 점령하여 이 산성을 건축하였다가 후에 다시 일은 것일 수도 있다. 총괄적으로 이상의 몇 가지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야 한다.

### 三. 魏海,契丹 및 女眞山城

渤海 정권이 존립한 시기를 총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기간은 평화적으로 발전한 시기였고 주위의 나라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교류하고 화복하였으며, 외부를 침략하지도 않고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적었다. 그러므로 군사적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산성은 고구려 대처된 많지는 않았다.

동시에 장기간의 평화와 안일한 생활 때문에 밭해의 濫患 의식이 고구려처럼 그렇게 감염하지 않았다. 때문에契丹의 鐵騎가 공략하여 들어올 때 혼난한 요새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굳게 성을 지킬 수도 없었으며 그 철기와 긴속히 진입하여 재빨리 활도를 할크 시름으로써 급속하게 멸망하였다. 단지 200여년을 존립하였는데 고구려의 정립이 존재한 시간에 비하면 극히 짧은 기간이다. 만일 밭해도 고구려처럼 널리 산성을 건축하고 군사 방어 역량을 강화하였다면 아마契丹과 한번 겨루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考古 조사를 통하여 밭해 산성의 유적이 심히 곳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지금의 길림성 연변지구와 흑룡강성 옥단강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 비교적 유명한 것은 들판사 以南의 城子山 산성인데 이 산성은 둘레 길이가 2Km나 된다. 많은 학자들은 大鹿禁이 "東平山을 막고 산성을 짓아 살았던" 뜻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영안현 경박호수에 위치한 故墻薩子山城은 京城에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上京의 開城이라고 불린다. 기타 여러 산성은 모두 산맥의 협약한 곳에 건축되어 있어 한 지역의 세력을 제압하고 부근의 평원성의 군을 보위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여러 유적에서 발견한 유물의 분석으로부터 밭해가 멸망한 후 대다수 산성은契丹과女眞에 의하여 탑승되었던 것이다.

契丹인은 지금의 内蒙과 遼西 초원 지구에서 웨기하였는데 907년에 邪律阿保機가 총을 칭하여 나라를 건립하여 신속히 외부로 확장하여 나갔다. 游牧과 征戰 생활의 영향으로 그 백성은 이동이 빈번하여 居處함이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줄곧 城堡를 구축하는 습관이 부족하였다. 923년에 아보기가 밭해를 멸망시킨 후 동북 지구는 거란에 귀속되었되어 여러 민족 사이의 대규모적인 군사 충돌은 일단락을 고하였다. 그러므로 전대의 군사 방위를 목적으로 하던 산성은 거란인으로 말하자면 조금도 실제적인 의미가 없었다. 비록 고구려 및 밭해 때의 일부 산성 유적지에서 근대의 유물을 발견하였을지라도 이것은 거란인에 의하여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고 단지 임시 성이거나 혹은 일반 생활상의 居住地임 따름이며 원래 意義上의 작용은 하지 않았다. 어느 산성도 거란인이 건축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女眞인이 지금의 흑룡강성 阿城市 일대에서 일어나자 阿骨打가 宛頤部를 거느리고 무력으로 여진의 각部를 점복하는 과정중에 또 115년 金朝가 건립된 이후 宋과 遼와의 끊임

없이 전쟁을 벌이며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자 각 지역에 산성을 건축하여 무력 준비를 강화하였고 전쟁에 대비하였는데 동북 지구의 산성 건설을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켰다. 발견된 굴대의 산성 유적 중에서 비교적 큰 것은 寿安縣 城子後山의 山城과 木蘭縣 蒙古山 산성, 그리고 훈춘시 平海子산성, 용경현 鮦海子산성 및 船口산성, 그리고 도문시 滢台산성 등이다. 이러한 산성은 그 둘레가 일반적으로 2내지 4Km이다.

明朝 후기에 여진족은 다시 모이 또 걸기하였다. 1616년에 누루하치가 建州部를 중심으로 지금의 신빈현 경내에 赫圖阿拉城을 건립하고 정권을 잡았다. 1618년에 누루하치는 “일곱가지 큰 비용을 들어 하늘에 고함”(以七大恨告天)을 구호로 병사를 일으켜 명조를 반대할 것을 선언하고 무술성을 생취하였다. 赫道阿拉의 보위를 강화하고 명나라 군대들이 와서 도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순의 東藏 背山위에 界克山城을 구축하였다. 1619년에 살이허의 전쟁이후 철배산과 잇달아 있는 살이허산 위에 살이허 산성을 구축하였다. 두 성은 서로 나란히 그 장엄함을 나타내었고 혁도아라성의 門號로 되었다. 그러나 누루하치가 빠른 속도로 계속 승리하는 바람에 땅은 곧 수색에 물렸고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왔다. 명나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한 山城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 특히 清나라 軍이 入關한 후 東北은 清나라의 稳固한 후방으로 되었으며 전쟁이 끝나자 山城도 황폐하게 되었다. 이후 東北 지구에는 다시는 山城을 건축하는 역사가 없게 되었다.

## 「東北 歷代 山城의 興亡盛衰에 대한 略述」에 관한 論評

徐吉洙(西京大, 高句麗研究會)

滿洲地域의 山城에 관한 興亡盛衰를 한꺼번에 다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 기간이 몇 천 년에 달하고, 옛날 檀君朝鮮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으며, 그 때마다 대부분 같은 城을 주요 기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언제 처음으로 築造하여 어떻게 변천하였는지 그 역사를 분별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미라한 어려운 작업을 발표자는 1. 夫餘山城, 2. 高句麗山城, 3. 渤海, 萨丹 및 女真山城으로 나누어 개관하고 있다. 아마 현지에서 직접 발굴에 참여하고 현지답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으리라고 믿는다.

본 토론자는 지난 7·8년 동안 주로 高句麗 山城을 위주로 현지를 답사해 보았으나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아 확실한 이론적 바탕을 세우기 못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한다.

### 1. 夫餘山城

1) 夫餘의 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夫餘가 지금의 어디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中國 學界의 일반적인 인식은 초기 夫餘의 中心은 吉林地方이고, 후기에는 현재의 黑龍江附近으로 보고 있고 발표자도 그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初期 夫餘에 대해서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 이외에도 田中復明(田中復明)이나 鏡泊湖周邊說(徐榮洙) 등이 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 奄列大水를 건넜다고 했는데 大水라고 이름하려면 松花江 정도 밖에 없으며 그러려면 夫餘는 松花江보다 월선 동쪽이나 북쪽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송화강 가에 있는 吉林이라면 설득력이 없게 된다.

2) 廣開土王이 공격한 鮮城은 서쪽으로 이동한 후의 夫餘城이라고 했는데 이 鮮城은 후기 夫餘의 首都라고 생각하시는지요? 李健材 선생이 吉林 龍潭山 근처를 廣開土王이 침략한 夫餘城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는데 龍潭山이 鮮城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64城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며, 이에 대한 發表者的 意見을 듣고 싶다.

3) 廣開土王이 410년에 攻略한 城은 해도 64城인데 현재 東北地方에서 조사된 수백개의 城 가운데 夫餘城으로 비정된 것은 극히 적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後期 夫餘의 中心地가 오늘날 黑龍江 일대의 草原地帶라고 했는데 이것을 證明할 수

있는 考古學的 結果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高句麗山城

1) 혼희 고구려를 말할 때 “多大山深谷, 無原澤”, “其人性兇急 喜寇掠”라는 三國志 魏書의 내용을 끌어 인용하는데, 三國志의 내용은 高句麗 705년 歷史 가운데서는 初期의 記錄이다. 때문에 후에 遼東半島 등 넓은 꾸野心를經營하였는데 이 初期의 기록을 가지고 高句麗의 特性을 斷定하는 것은 無理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首都를 國內城으로 옮긴 뒤에도 乾升骨城은 주위의 여러 성들과 함께 國內城을 지키는 마지막 防禦線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특히 太子河를 따라 치들어 온 적을 막는데는 중요한 위치였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는 “단지 祖上을 朝拜 하느 聖地로 되었다”고 하였다. 그 根據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3) 乾升骨城의 破壞에 대해서 元나라 初 蒙古의 侵入을 그 原因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高句麗 城 가운데 乾升骨城은 다른 성에 비해 比較的 保存狀態가 좋다. 그 建城法으로 보아 高句麗가 建城한 것이 분명하고 또 가장 오래 되었다고 보는 高句麗 城의 形態가 분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城의 회손시기와 문제로 삼은 것은 그 目的이 어디 있는지요?

4) 發表者が 九都山城이라고 보는 山城子山山城을 東北歷史地理에서는 國內城이라고 주장하고 顯王廟山城이 副都巖城이라고 주장하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5) “高爾山城은 高句麗 북쪽의 新城이 아니고 그것을 처음으로 建築한 것도 高句麗가 아니다”는 주장은 좀 더 확실한 証據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根據를 발표자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대체로 說得力이 낮은 것 같다.

셋째 故國原王 이전에 이미 新城이 나온 것은 新城이 일찍부터 高句麗의 城이라는 證據이지 그것이 高句麗의 城이 아니라는 證據는 아니다. 故國原王 때의 「策國北新城」이란 記錄은 新城을 차운 건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 북쪽에 새로운 城을 쌓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가 遼東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은 廣開土王太王 14년(404)이기 때문에 故國原王 때 高麗山 위에 山城을 쌓을 수 없다고 하였다. 三國史記의 기록을 보면 高句麗는 紀元 初에 이미 遼東을 길이 치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 가. 유리왕 33년(14) - 한나라 원도군, 고구려현을 탈취
- 나. 모본왕 2년(49) - 한나라의 北平, 魚陽, 上谷, 大原 등 지대를 습격
- 다. 태조대왕 3년(56) - 遼水 서쪽에 10개 城을 쌓아 漢나라 침략 대비
- 라. 태조대왕 66년(118), 69년(121), 70년(122) 원도군과 延寧郡 공격하여 승리

이 후 313년에 樂浪郡을, 314년에 帶方郡을, 그리고 315년에 交趾郡을 차지하므로 해서 고구려는 이미 이 때 遼東地城을 손에 넣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때 遼東 太守나 鮑卑軍이 치들어와 일진 일파의 공방을 한 적은 있었으나 이때 新城은 이미 고구려의 주요한 성이었음이 분명하다.

셋째, 현재까지 발표된 考古學的 연구 결과는 高爾山城은 高句麗山城이라는 데 이전이 없어 발표자의 반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이상 몇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위에서 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발표자의 변론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본다.

6) 사실 東北地方 歷代 山城의 興亡盛衰를 논하는데 특정한 山城 2~3개를 관찰하여 그 흐름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主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高句麗 山城의 분포를 경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이어서 고구려 성이 갖는 특성을 경확하게 밝혀야지만 다른 時代와의 差別化를 통해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討論者는 지난 몇 년 동안 高句麗 城의 分布를 研究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표는 高句麗 城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誤을 모아놓은 것인기 때문에 앞으로 研究를 통해 添削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한편 高句麗 城의 特性에 대해서도 몇몇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있다. 發表者도 이미 討論했으리라고 보고, 發表者가 새롭게 내세울 수 있는 高句麗城의 특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3. 酋族, 契丹 및 女眞의 山城

1) 契丹人이 쟁은 山城은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본 토론자가 吉林省 각 현의 文物志에 나온 각 賊의 荘城時期를 모아 統計를 내 본 결과 전체 397개의 城 가운데 거란민이 세운 運代에 荘城한 것이 21, 遼金時期에 荘城한 것이 216, 모두 237개나 되어 거의 60%에 달한다(表 2 참조). 그렇다면 이런 城들은 모두 遼나라 이전, 즉 高句麗나 渤海가 荘城한 것을 住居用으로만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 <표 1> 東北地方의 高句麗 城

##### I. 遼寧省에 있는 高句麗 城

1. 千里長城
2. 桓仁 五女山山城(乾升骨城)
3. 桓仁 下古城子城址(卒本城)
4. 華安縣 嘴哈城: 桓仁鎮 北甸子鄉
5. 華安縣 東古城子: 桓齋子鄉
6. 桓仁縣 木孟子鄉 高險村山城
7. 桓仁縣 沙尖子鄉 城牆村子山城
8. 桓仁 瓦房溝山城
9. 桓仁 北溝廟臺
10. 桓仁 馬鞍山山城
11. 新賓縣 紅廟子鄉 黑溝山城
12. 新賓縣 韓水河子鄉 轉水河山城(可勿城, 多勿)
13. 永陵鎮城, 신빈현 영릉 <조선전사(31)>

14. 老城, 신민현 老城(老城里?) <조선전사(32)>
15. 舊老城, 신민현 舊老城(聳罕城) <조선전사(33)>
16. 이도하자산성, 신민현 二道 河子(二道河子?) <조선전사(34)>
17. 新賓현 木奇城 木奇城(木底城)
18. 西三道關, 二道關
19. 新賓縣 上夾河鄉 五龍山城 또는 得勝堡山城(南夾城)
20. 抚順市 東大伙房水庫 鐵背 釜 鐵背山城(南蘇城)
21. 抚順縣 南草叢山城: 五龍鄉 南草叢屯 東北 小山 上 (金山城)
22. 抚順縣 城子頂山城: 大柳鄉 太平溝村 北城子溝山 上
23. 抚順市 勞動公園 文菟城
24. 抚寧 高麗山山城(新城)
25. 抚順縣 小東鄉 馬和寺山城
26. 抚順縣 西山城: 哈達鄉 上午村 北百米的 西山上
27. 蘭陽 石臺子 高句麗 山城
28. 遼陽市 蘇家屯區 塔山山城(蓋牛城)
29. 마총문산성, 심양시 남쪽 - 조선전사(19) -
30. 石佛寺山城, 심양시 북쪽 - 조선전사(20) -
31. 조선전사(21): 현도성, 심양시 서북(현도성)
32. 新民縣 高臺山 鴻等 高麗城(武州羅城)
33. 新賓縣 下夾河鄉 太子城山城
34. 新賓縣 章子峪鄉 杉松山城
35. 本溪小市 上山城寨 下堡山城(北豐城)
36. 本溪市 章臺山城: 立新區 牛心臺鄉 與隆村 北竇臺山 上
37. 本溪 馬圈溝山城(後黃城)
38. 조선전사(41): 상산성재(남쪽2성), 본계시 동쪽
39. 조선전사(15): 평정산성, 본계시 工瀨(?)
40. 조선전사(17): 쇄두산성, 본계시 쇄두산
41. 宮山城(方城)
42. 本溪縣 石橋子鄉 邊牛山城(磨米州)
43. 億塔縣 西大窯鄉 嶩州城(白巖城)
44. 석성, 표양 통쪽, 조선전사(13)
45. 遼陽市 遼東城
46. 고려성자, 표양 서쪽, 조선전사(12) - 柳壕鄉 高麗城村 (遼寧省行政區圖 曲坦) -
47. 千山 古城
48. 안산시 고려체: 안산시 남쪽, 조선전사(10)
49. 海城市 英城子村 英城子山山城(安市城)
50. 寬甸縣 濱水鄉 高力城山山城
51. 조선전사(59): 애양 고려성, 봉설현 애양
52. 鳳城 通遠堡鎮 山城溝山城
53. 本溪縣 草河口鄉 李家堡山城(後黃城)

54. 龍城 龍頭山山城(烏骨城)
55. 丹東市 九連城鄉 鏊河尖城址(安平城)
56. 九連城(泊均城)
57. 虎山山城: 寬角鄉 虎山鄉(泊均城)
58. 紫岩縣 黃花甸鄉 老富村 老城溝山山城
59. 紫岩縣 黃花甸鄉 陳家堡村 南溝山城
60. 紫岩縣 菲莊溝鄉 永泉村 古城山山城
61. 紫岩縣 黃花甸鄉 鄭家嶺村 松樹溝山山城(銀城)
62. 姑巖縣 老城山山城: 洋河鎮 瓦房店村 楊家嶺屯 西南 6리 山上
63. 姑巖縣 二道嶺山城: 紅旗營鄉 二道干溝村 二道嶺屯 北2里 山巒上
64. 姑巖縣 南嶺子山城: 哈達牌鄉 賽利村 南嶺子屯 西等 溝谷中
65. 姑巖縣 開溝門山城: 黃花甸子鄉 開門山村 開溝門屯 北山上
66. 姑巖縣 劉家堡山城: 大營子鄉 橫山村 劉家堡村 北 高山上
67. 姑巖縣 小茨山城: 朝陽鄉 溝門沃村 小茨屯 西山 上
68. 姑巖縣 清涼山城: 湯溝鄉 清涼山村 馬下屯 西山 上
69. 구수암성, 수암 부근 <조선전사(48)>
70. 신수암성, 수암 부근 <조선전사(49)>
71. 구로성, 수암 부근 (오골성) <조선전사(47)>
72. 성산산성, 수암 서쪽 <조선전사(51)>
73. 설마산성, 수암원 서남 <조선전사(45)>
74. 빙우산성(고려성), 수암현 서남 <조선전사(46)>
75. 紫岩縣 膽營鄉 馬圈子山山城
76. 동필면산성, 수암 동남 <조선전사(52)>
77. 紫岩縣 楊家堡鄉 嫣娘城山城(積利城)
78. 고산산성, 수암 동남 120리 <조선전사(53)>
79. 쟁산산성, 수암 동남 180리 <조선전사(54)>
80. 莊河 平山鄉 旋城山山城
81. 蓋縣 蘿屯鄉 赤山山城
82. 蓋縣 什子街鄉 高麗城山山城
83. 蓋縣 孫家高麗山城: 萬福鄉 孫家高麗村 東北 高山上
84. 莊河縣 城山鄉 城山山城(石城)
85. 昔蘭店市(新金) 墓盤鄉 馬屯 高麗城山山城
86. 昔蘭店市(新金) 星臺鄉 吳姑山山城
88. 昔蘭店市(新金) 元臺鄉 老白山山城
89. 金縣 友誼鄉 大黑山山城(卑抄城)
90. 瓦房店市 李店鄉 三閣山山城
91. 瓦房店市 太陽升鄉 高麗城山山城
92. 瓦房店市 得利寺鄉 龍潭山山城
93. 瓦房店市 得利寺鄉 馬圈子山山城
94. 蓋縣 陽豐鄉 奕英山城

95. 盖縣 雙臺子鄉 城子溝山城
96. 盖縣 徐屯鄉 滯筒山山城
97. 平郭城, 盖縣 願城 下古城址
98. 盖縣 寶石嶺鄉 高麗城山山城(建安城)
99. 蒲口縣(大石橋) 百葉子鄉 馬圈子山山城
100. 鐵嶺縣 崔陣堡鄉 崔陣堡山城
101. 鐵嶺縣 錦陣堡鄉 青龍山山城
102. 開原縣 或遠堡鄉 龍潭山山城
103. 開原 馬家寨山城-柴下堡山城-(延津城)
104. 開原鄉 八棵樹鄉 古城子山城
105. 西豐 城子山山城(夫餘城, 舜夫審城)
106. 西豐縣 和隆鄉 張家堡山城
107. 西豐縣 天德城子山山城: 天德鄉 玉振村 東二里 城子山上
108. 清原縣 英額門鄉 山城子山城(北置城)
109. 清原縣 南山城鄉 南山城山城(蒼巖城)
110. 두도성파, 창원면 봄가보(夏家堡鎮?) <조선전사(39)>
111. 홍경 서남 125리 < 조선전사(60)>

## II. 吉林省에 있는 고구려 산성

1. 集安 山城子山山城(丸都山城, 國內城)
2. 침안성지(國內城, 平壤城)
3. 黃城
4. 老邊牆遮斷城: 凉水鄉 海關村 道天嶺 老邊 기술
5. 七個頭子 遮斷城:涼水鄉 外岔溝村
6. 망파령관성, 침안현 침안 서쪽
7. 集安 羅王朝山山城(附照岩城)
8. 集安 關馬嶺山城
9. 大川哨卡(哨壘, 嘴所): 清河鄉, 大川村
10. 조선전사(65): 楊木橋子古城, 침안현 북쪽 楊木
11. 조선전사(67): 북동고성, 침안현 북쪽
12. 二道溝門遮斷城: 鴨園鄉 鴨園村(高麗城子, 高麗道子)
13. 通化市 石湖遮斷城: 石湖鄉 公益村
14. 赤柏松古城: 快大嶺 赤柏松 2隊
15. 兩臺古城: 三棵榆樹鄉 南
16. 太平溝門古城: 三棵榆樹鄉 三棵榆樹村 7隊
17. 依木樹古城: 三棵榆樹鄉 依木樹村
18. 通化市 江東鄉 自安山城
19. 英額布山城: 通化縣 英戈布鄉 英戈布村
20. 建設山城: 長春縣 대천향 건설촌 고려성자구

21. 조선전사(70): 삼삼보산성, 통화현 서북
22. 桐河縣 大通溝鄉 羅通山城
23. 조선전사(72): 고려성자, 림강현 팔도강 동북
24. 東豐縣 橫道河子鎮 城子山山城
25. 조선전사(75): 高句麗城, 崁梧原(성)
26. 錫南縣 鈞魚臺古城: 板石河鄉
27. 錫南縣 小城子古城: 朝陽縣 小城子村
28. 錫南縣 輝發城: 長春堡 西南 4Km 辉發山上
29. 燕石縣 實山鄉 城子溝山城
30. 燕石縣 大馬宗裏山城: 安樂鄉 大馬宗村
31. 燕石縣 紙房溝山城
32. 遼源市 龍首山山城
33. 遼源市 龍山區 工農山山城
34. 遼源市 龍山區 城子山山城
35. 靖宇縣 檜樹川鄉 檜樹川山城
36. 扶松縣 万良鄉 大方村 大方頂子城址
37. 蛟河縣 六家子 東山山城
38. 蛟河縣 櫻河鎮 橫道子山城
39. 拉法城, 蛟河縣 拉法屯 東山坡
40. 吉林 龍潭山山城
41. 吉林市 江南鄉 東園山山城
42. 吉林市 三道嶺城: 沙河子 北山
43. 吉林市 潘瓦河山城: 永吉縣 旺起鄉 第3生產隊
44. 官地古城: 용답산 서남쪽
45. 조선전사(87): 단단자산성, 길림시
46. 조선전사(88): 구참남성(九站南城?), 길림시; 土城子, 永吉縣 九站 トソン자
47. 조선전사(89): 고려성(타생오라성), 길림시 북쪽 70리
48. 豊安縣城址
49. 敦化市 紅山鄉 城山子山城
50. 조선전사(79): 양평산성, 안도현 서쪽
51. 安圖縣 長興鄉 五峰山城
52. 安圖縣 石門鎮 城門山山城
53. 安圖縣 石門鎮 五孤山山城
54. 安圖縣 仇輪山城, 松江鎮 西 25, 南江鎮 小營子屯
55. 龍井縣 桃源鄉 城子溝山城
56. 和龍縣 富興鄉 松月山城
58. 和龍縣 勇化鄉 三層禪山城
59. 耒梧縣 八家子鎮 八家子山城
60. 和龍縣 龍水鄉 福木頂子山城
61. 龍井縣 富裕鄉 朝東山城

62. 龍井縣 三合鎮 晴水山城  
63. 龍井縣 智新鄉 養蓀峰山城  
65. 龍井縣 德新鄉 金谷山城  
66. 龍井縣 德新鄉 안암면 中邦古城  
67. 龍井縣 光開鄉 船口山城  
68. 조선전사(80): 용정시 용정진  
69. 龍井市 西山村 土城屹吉城  
70. 龍井縣(현제는 圖門市) 長安鄉 城子山山城  
71. 延邊 高句麗長城  
72. 延吉市 與安鄉 與安城牆  
73. 圖門市 石規鄉 高臺城山城  
74. 汪清縣 始鑿城鄉 漢興山城  
75. 汪清縣 始鑿城鄉 東四方臺山城  
76. 瑫春縣 凉水鄉 亭巒山城  
77. 瑪春縣 三家子鄉 온득히부성  
78. 瑪春縣 三家子鄉 비우성  
79. 瑪春市 石頭河子古城  
80. 瑪春縣 敬信鄉 水流峰山城  
81. 瑪春縣 哈達門鄉 乾溝子山城  
82. 瑪春縣 楊泡鄉 蘆其山城  
83. 瑪春縣 春化鄉 登城子古城  
84. 瑪春縣 春化鄉 城牆砬子山城(糧城)  
85. 瑪春縣 春化鄉 通崗山城

<표2> 吉林省 각 군 古城와 築城 時期

市 地區	市 郡	夫 郡	西 周	秦	漢代	唐宋	遼代	金代	明代	清代	不明	備考	城郭 數
白城 地區	通榆市				5			1				6	
	白城市											0	
	鎮賀縣				2	1	1					4	
	大安縣				6							4	
	通榆縣					3						3	
	洮南縣				3	2						5	
	大興縣				15		2					17	
	前郭爾羅斯 蒙古族自治 縣				10							10	
	長嶺縣				2	1	1					4	
長春市	農安縣	1			14	5	2					22	
	德惠縣				17							17	
	榆樹市				10		1					11	
	九臺市				18	8			3			29	
	長春市				1							1	
	雙陽縣				7							7	
四平市	雙遼縣				3							3	
	梨樹縣	2			13			3	1			19	
	公主嶺市				13		1					14	
	四平市				1		2					3	
	伊通縣	1			6		1					8	
	東遼市		5		8							13	
遼源市	遼源市	3			1				2			6	20
	東豐縣				1							1	
	東豐縣				5							5	
	吉林市	3	1	4			3	1				12	
	永吉縣				7			2				8	
	蛟河縣	3		2	5							10	
吉林省	磐石縣	2			8				1			11	
	龍江縣	2		1	1			1	1	1		7	
	梅河口縣				3							3	
	磐石縣	1				1		1				3	
	梅河縣	1	1	1								3	
	通化縣	6					1					7	
通化市	通化市	2										2	
	集安市	8										8	
	靖宇縣				1			1				2	
	撫松縣	1	2									3	
	濱江市	3	1									4	
	長白縣	4										4	
延邊朝鮮族自治州	敦化市				12			3				15	
	安圖縣	9			3							12	
	和龍縣	8			2				3			13	
	龍井市	6			8			1				15	
	延吉市	1	6	1								10	
	圖們市				1							1	
	汪清縣				9	5				3		17	
	琿春市				12	10						22	
	總計		1	39	73	8	218	21	13	15	5	12	400

\*작 천지 봄날자에서 읍마 작성함 (1995년 9월 1일)

##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발표자 : 蘇 鎭 光(경원대)

논평자 : 박 영 철(국토개발연구원)

조 유 전(국립민속박물관장)

##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蘇 鎏 光(경원대)

1. 들어가는말
2. 남한산성의 가치와 현재 이용실태
3. 남한산성의 활용방안
4. 맺는말

## I. 들어가는 말

남한산성은 경기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립공원으로서 그 위상이 역사적으로나 지리공간적으로나 재평가 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이 하남위례성에 도읍한 이래 앞산으로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남위례성에 말갈축이 침입하여 꽂을 때 설령산을 중심으로 가파른 산록으로 형성된 자연요새인 이곳으로 천도한 바 있고 이후로도 지형이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좋아 으로 활용되어왔다.

조선조에서도 광해군 13년(서기 1621년)에 처음으로 남한산성을 경도보장지(京都保障地)로 경하고 후금의 침입을 막고자 土城을 石城으로 개축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이괄의 난을 치르고 후금의 위협이 증가하자 인조2년(서기 1624년) 수어사 미서에게 명하여 수축개화에 지금의 성채가 완성된 것은 인조 4년(서기 1625년)이나 금년이 石城으로서의 축성 370주년되는 해이고 반도 중심부의 요충으로 쓰여온지는 2,000년을 헤아린다. 특히 인조 17년(서기 1630년)에는 백제의 시조이신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을 건립한 바 있고 정종 19년에 이를 燃烈이라 사액하였으니 남한산성은 韓朝와 韓運을 간직한 성지이다. 물이켜 보면 세월이 흘러 사연이 엮어지면 과거요, 그중에서 기억할만 하고 기억되어야 하며,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내력이 있다면 이를 역사라 할 것이다.

무수한 영겁이 지났을 것임에도 과거는 작마지고 역사는 없어지고 있으니 미래 또한 맞이할 가치가 기대에 못미치라는 생각이 들텐다. 역사가 풍부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는 것도 그 이치에 있다. 경험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소홀히 다루다보면 무모한 시행착오만 반복할 뿐 나아가 얻는게 없으니 이제 역사를 들추어 알을 밝힐 때이다. 가뜩이나 세계화나 국제화나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기가 어려운 때 민족혼을 보존하고 후세를 돋독히 위해서라도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남한산성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II. 남한산성의 가치와 현재 이용실태

### 1. 남한산성의 이용실태

남한산성일대 광주군의 25km<sup>2</sup>, 하남시의 6.6km<sup>2</sup>, 성남시의 4.2km<sup>2</sup> 등 모두 36.4km<sup>2</sup>가 1971년 3월 17일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한산성의 성곽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사적 제 57호로 지정되었다. 성곽의 내부와 외부 동쪽 및 남쪽의 대부분이 광주군에 속해 있고 남문의 진입로와 동산로가 성남시에 속해 있으며 성곽외부의 서쪽과 북쪽이 하남시에 속한다. 성곽은 자연지형의 능선을 따라 본성 9.05km와 외곽 용성 2.71km를 포함하여 모두 11.76km로 이루어졌으나 이중 4.56km는 크게훼손되어 보수 대상이다.

공원지경 면적중 본성내부는 2.3km<sup>2</sup>로 거의 모두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속하고 성곽외부는 34.1km<sup>2</sup>이다. 특히 성곽내부의 산성리는 민간인이 거주한 지 500년이 흘러 대부분(약 76%)이 사유지로서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 초등학교에 다닐때만 해도 (초등학교 2회)총 학생이 350여명이나 되는 등 대체로 규모가 큰 집단거주지였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광주군

첨 소재지 옆을 산성을 포함한 이 지역의 地勢를 짐작케한다. 아마도 이 지역의 주민거주 면사는 학제시대를 포함하게 되면 2,000년을 아름하여 할 것이다. 현재는 (1996년 6월 기준) 378가구 1,18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초등학교 전체 학생은 50여명이 채 안되어 폐교 직전에 있다.

동원내 주택은 모두 229동이고,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침포는 164동, 숙박시설은 1개동이 있다. 주차장은 모두 19개소가 마련되어 있어 최대주차용량은 4,080대이고 산책로 5개소와 화장실 28개소(이중 14개소는 고정식이고 14개소는 이동식임)가 설치해 있다.

남한산성공원 용도지구는 〈표 1〉과 같다.

〈표 1〉 남한산성공원의 용도지구 및 차목(단위:ha)

구 분	용 도 지 구				지 목			
	자연보존 지구	자연환경 지구	취락지구	합 계	농지	임야	기타	합계
면적 (구성비%)	31.7 (57.1)	30 (18.2)	1.7 (4.7)	36.4 (100.0)	1.7 (5.0)	32.9 (80.0)	1.8 (5.0)	36.4 (100.0)

1994년도 남한산성의 두 개 대표소를 통해 들어온 유료입장객을 월별로 보면 7월이 21만 7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월로 19만 5천여명, 6월이 17만 7천여명으로 나타났고, 동절기인 12월, 1월, 2월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도 입장객 수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었으나 특이한 것은 입장인원은 1994년도에 161만 4천 5백여명에서 1995년도에는 146만 9천 5백여명으로 전년대비 9.0%가량 감소하였으나 입장료 수입은 1994년도 832,788천원에서 1995년도 1,066,768천원으로 오히려 28.1%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8월 하순 입장료를 올린 때문이다.

차량입장도 대체로 하절기에 증가하고 동절기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94년도 7월 한달 입장차량수는 8만 7,000여대로 가장 적었던 12월의 2만 5,500여대(12월 27일까지의 합계)와 3.4배로 달렸고 1995년도에는 8월의 차량입장이 가장 많아 7만 1,300여대를 기록하고 있고 역시 12월에는 18,518대로 가장 적어 8월이 12월(27일까지)의 3.8배를 높아하여 계절별 편차가 커다. 이와 같은 유료 입장객수와 차량전입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은 1994년도 832,788천원에서 1995년도 1,066,768천원으로 전년대비 2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는 연도별 월별 입장료 및 주차료를 합한 총수입규모를 대비한 것이다.

〈표2〉에서 알수 있듯이 '96년도 들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주차료) 수입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1991년도 이후 1992년도를 제외하고 입장료 및 주차료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나 이는 효율인상에 따른 것으로 유료 입장인원 및 차량대수는 뚜렷한 추세없이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산성리 일대의 음식점들은 민관 지하수를 오염시켜 몇곳의 악수터가 폐쇄된 바 있고 동문으로 흐르는 하천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등 각종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2〉 민도별,월별 남한산성 수입내역 (단위:천원)

구분 월	민 도 별			주 차 별			총 수 입		
	'94	'95	'96	'94	'95	'96	'94	'95	'96
1	24,485	21,392	19,296	15,443	13,545	21,482	39,928	34,937	42,888
2	24,810	29,524	26,029	16,093	19,131	24,520	40,903	48,755	51,149
3	31,843	33,203	29,794	20,777	21,070	35,674	52,620	54,273	65,488
4	43,592	48,335	43,763	30,355	29,057	54,354	79,947	77,382	98,137
5	60,911	55,466	36,791	32,670	37,702	86,136			
6	56,580	53,654	33,763	31,686	30,356	65,350			
7	70,004	53,784	42,622	32,512	112,826	86,296			
8	57,454	58,057	36,058	34,630	92,512	62,887			
9	40,519	76,529	25,076	33,255	65,587	110,084			
10	46,506	156,385	26,114	54,082	74,620	230,477			
11	33,484	79,972	21,236	29,840	54,720	109,812			
12+	18,620	49,823	12,426	18,536	31,245	68,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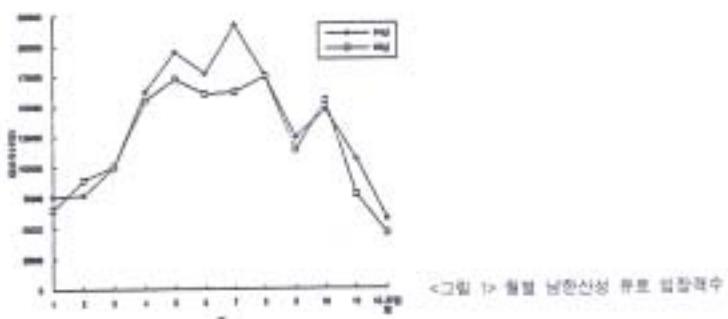
- 27월까지 집계결과임

## 2. 남한산성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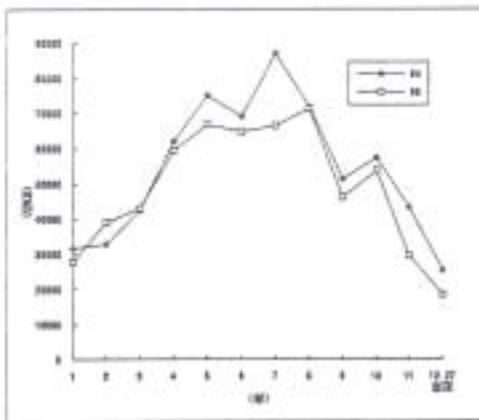
남한산성은 천혜의 지형적 특성으로 2,000년 역사를 담아오고 있기도 하려니와 그 위치로 인해 수도 서울의 동남방 방책역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부로서의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다.

### 가. 역사적 가치

남한산성이 石城으로 축성된지가 금년으로 370년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백제초기 지형지세를 이용한 土城으로서 기능하였고, 백제시조 온조대왕은 화남위례성에 말갈족이 침입하였을 때 철량산을 중심으로 고지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곳 산성으로 천도했을 만큼 이곳의 역사는 2,000년을 높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石城은 인조 4년 (서기 1626년) 완공된 것으로 이후 숙종때까지 外城이 쌓아지게 되었다. 성곽의 높이는 3~7.5m로 4개의 장대가 세워졌으나 현재는 수어장대만 남아있고 4개의 침문, 5개의 용성, 2개의 불화대 그리고 16개의 암문이 있다.



<그림 1> 월별 남한산성 유트 입장객수



<그림 2> 월별 남한산성 유료 입장 차량수 추이

수어장대는 1972년 5월 4일 경기도 지방 유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산성의 동서남쪽 4개 장대 중 서장대로서 인조 2년에 단층으로 축조한 것을 영조 27년 (1751년) 유후 이기진이 광명으로 2층 누각을 증축하고 외부 편액을 수어장대(守御將臺), 내부면액은 무당루라 하였다.

특히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은 숭열전(崇烈殿)이다. 숭열전은 인조 17년 (1639년)에 건립하고 정조 19년 숭열(崇烈)이라 사액하였으며 백제의 시조이신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이다. 온조대왕은 하복위례성에서 한강을 건너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하면서 이미 이곳 남한산성의 군사적 가치를 뼈우에 두었고 이를 알산으로 활용하였으며, 와적의 침입이 있을시 이곳을 거점으로 항거하는 등 이곳 지력을 깨달은 문으로 그 분을 기리는 사당이 이곳에 입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백제 온조대왕이 이곳에 원시 천도했을 당시 황궁지였다고 구전되어온 칠폐정(七廢亭)도 산성안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의 건물은 영조 27년 (1751년)에 유후 이기진이 중수한 것으로 칠폐정이라 하였고 조선조에는 무기제작소의 사무를 관찰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남한산성의 역사적 등장은 백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후 국가적 대사와 전란을 겪으면서 국운의 상징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는 우리 민족이 전란을 겪거나 외침을 받았을 시 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점과 평시에는 국가기반을 둔튼히 하는데 그 중심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혼희 병자호란을 계기로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당시의 한반도 주변 경세를 감안할 때, 45일간 이곳에서 비밀 수 있었던 정은 이곳의 치관에 힘입은 바 크고 따라서 남한산성은 패배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족훈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위상이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만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숨어버리고 우리의 민족정기는 더욱 번창하여 오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에는 삼학사의 영혼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한 현절사(顯節祠)가 있다.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때 척화신인 3학사 홍민환, 윤집, 오달재의 혼을 달래기 위해 숙종 14년 (1688년)에 세워진 사당으로 숙종 27년 (1711년)에 주전파씨 거두 김상현과 경온을 다시 추향하였다. 이와같이 남한산성은 민족정기를 일깨워준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명의 의승군이 침결해 있던 개원사, 창경사, 망월사, 국청사 등과 9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4개의 사찰만 복원되어 있어서 호국불교의 명맥을 지펴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한산성 풍원내에는 국가 지정사적지 1개소,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7개소, 문화재 자료 2개소, 기념물 2개소가 있는데 이들의 역사적 가치는 의세침입에 맞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민족정기를 일깨우는 상징물이었다는 데 있다. 남한산성은 조선조에 있어서는 북한산성과 더불어 수도 한양을 기켜온 국가방위의 핵심도량이었다. 따라서 관서급 수어사가 관리하는 남한산성은 수도권 방어의 중심축으로 발전한 산성도시였다. 270년간 조선왕조의 마지막 보루로서 충도성을 두어 1894년까지 유지하면서 국가가 관리하였다. 최근까지만 해도 남한산성을 관할하는 광주군수는 내직과 다툴없이 중요시 되어 왔으며 영천하는 자리로 인기가 있었음은 이곳의 이러한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다.

#### 나. 지리공간상의 가치

남한산성은 수도 서울을 조망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동남방을 둘우고 있으며 산성의 東口 또한 동남방으로 나있어 적의 관심을 유인하며 국가의 중심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형을 하고 있다. 대체로 성채의 기울기가 완만하여 외적과 대치하여 서도 내부의 물자보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동, 서의 고지와 남북의 고지가 균형을 이루어 땅에 이롭고, 내부의 분지로 인해 거주에 적합하다. 비록 반도의 서부에 기울어 있으나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국가번영의 '무계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地德이 은후하여 수복이 번창하고 있다. "한강을 차지하면 반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남한산성은 한강을 긁어보기기에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 한반도의 실장부를 수비하는데 큰 지리공간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 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

남한산성내의 생태계는 우리나라 중부일대의 일반적인 분포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족제비, 다람쥐, 청설모와 온갖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몇백년 자란 적송(赤松)과 약 300년령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산재하고 있으며 계곡을 따라 단풍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불당리 계곡의 휴경지인 계단식 논에는 도룡용등이 서식하고 있는 등 아직도 청정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양서류, 어류, 곤충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변이 온통 도시화로 인해 농사를 짓고 있는 수도권에서 남한산성만큼 우리의 토속적인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도 드물 것이다.

특히 산성에서 수어장대에 이르는 산책로 주변에서는 야생 보리수가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것이 눈이 빙한다. 봄에는 반하, 돌나물, 쌈바귀, 등외나물(미나리마제비파), 고들빼기, 범풀기, 노랑붓꽃, 쟁이풀, 만월새, 천남성, 마위는 물론 등갈퀴나물, 타래붓꽃, 앵초, 각시꽃, 꿀풀 등 우리미 불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패천궁, 천호, 흰바위위, 까치수염, 환바늘영경까, 눈개승마, 월주리, 패랭이꽃 등이 흔히 눈에 띈다.

#### 4. 민속자료적 가치

하남시 학암계곡에서 남한산성 서쪽 통산로를 오르다 보면 피암과 함께 각종 고사와 기도를 드리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물리는 바로는 남한산성 일대는 우리의 전래 도속신왕의 영산(靈山)으로 神氣가 다했던 무당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영험을 보충한다 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일대의 주민들은 대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달해 일제가 온갖 생활용기를 수탈하여 병기제조에 박차를 가할 때에도 땅에 묻거나 은밀한 곳에 감추어 일제가 버릴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켰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쟁기 등 전통 농기구나 생활용기가 계곡 사이 사이에 산재해 있는 전통가옥에서 많이 발견된다.

원래 남한산성에는 9개의 물방아가 있었고 뜻곳에 연자방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곳이 철단으로 치닫는 한반도 중앙이면서도 우리의 끈끈한 민족이 그대로 숨쉬는 박물관임을 알 수 있다.

### III. 남한산성의 활용방안

#### 1. 통일한반도의 무게중심(역사공간인식의 재확인)

세계화란 악자에게 있어 경쟁원리보다도 더 낭혹한 악육강식의 자연생태계 생존원리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기계분명, 정보화 사회의 대세는 세계화를 거부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 세계시민사회란 이와같이 강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자기를 잊고 남과의 공동분모만을 내세워야 하는 '몰개체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내세울 수 있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몇 안되는 강한 민족임에 틀림없다.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 추세에서 악자는 남의 것을 흡수하기 위해 자기것을 버려야만 한다. 강자라면 자기것을 악자에게 강요하며 악자를 흡수해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것'을 분명히 할 수 없는 민족은 강자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일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은 강자인가? 악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는 진정 우리 것을 알고 있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 답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간 우리의 근대화나 개발이니 발전천략이니 하는 것들은 서구의 것을 되도록 빨리, 많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표방하고 있던 것만 보아도,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된 세태를 보아도 우리는 악자이었음을 틀림없다. 남의 것을 받아 들이되 '자기중심'을 잊지 않았다면 그때도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여 혼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질적인 요소에 동요되어 '자기중심'을 잊고 후발자와 유일한 특권마저 포기한 때, 앞선 자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것을 버리고 남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굳이 발전이니 삶의 질 향상이니 하는 가치를 무엇으로 평하랴? 자기 중심을 잊은 민족의 번영은 대 이상 민족 고유의 색깔을 표현할 수 없다. 마치 '세계시민사회로의 회식될'을 세계화를 수단으로 한 민족번영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우리것을 찾아 그 안에서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 도전 세계화의 풍파에 휩쓸리더라도 우리를 인식할 좌표를 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머지 않은 장래에 이질적인 것으로 변해버린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여야 할 운명에 있다. 남북통일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무에 따라서는 남북통일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

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으로 해서 존재를 상실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흡수되거나 흡수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재편기에 과연 통일미 민족번영의 촉진계인치 아니면 반대로 심각한 뇌보의 원인이 될지 하는 문제도 진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통일이 속령적 파제라면 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남과 북 모두나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역사성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남한의 정통성을 너무 신라문화에서 찾으려는 것도 문제이고 북한의 정통성을 고구려에만 치중하는 것도 문제다. 한반도의 양극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 통일명분으로 삼는다면 통일비용은 훨씬 적게를 뿐만 아니라 통일로 인한 충격 또한 작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중앙에서 남과 북을 잇는 연결고리는 일찍이 백제시대로 거슬러가서 찾아야 한다. 위례성의 앞선으로 가능했던 남한산성과 광주, 부여를 잇는 백제 천도의 혼적이 이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 낼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한산성은 현재까지도 모든 권력 배분 방식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성을 이어주는 기준점으로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진정 이시대 한반도의 권력 구조를 설명할 때 삼국시대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남한산성이 간직한 역사적 가치는 우리의 '기준점'이고 한민족의 '무게중심'이며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좌표'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의 역사성을 제대로 평가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충분한 고증을 거쳐 남한산성의 역사성을 재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현재 광주군에서 추진중인 남한산성 제모습찾기 사업은 국가적 대사이다. 그런 만큼 다방면으로의 충분한 조사, 발굴, 고증을 거쳐 '한반도 통일의 기준점', '세계화의 좌표'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表象를 세워야한다.

## 2. 백제권 개발의 시발점

그간 수차례에 걸친 팔잔치에도 불구하고 백제권은 여전히 국가적 태과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굳이 백제권을 광주, 부여로 한정하여 설정하려는 정치권의 논리자체에는 위례성의 한강주변과 앞선인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현재의 권력구도화에서 공간적으로 분리하고픈 심경이 팔려있는 것 같다. 그것은 곧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이후 남한의 정통성을 신라문화로부터 찾으려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도 하남 위례성과 남한산성을 시발로 해서 끝어져야 되고, 백제문화의 공간화 작업도 '남한산성 - 광주 - 부여'를 축으로하여 재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술열천 앞마당에서 백제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채화되어야 하며 이곳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역사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남한산성 - 광주 - 부여'의 역사축에 대한 인식은 과거 우리가 일본문화를 성숙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상기시키는 일이며 미래 대일본 관계 설정에 필요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서울의 송파구와 광주시, 부여군은 한반도 미래상을 정립키 위한 공통의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과 같은 지역할거주의는 신라문화의 파대평가와 백제문화의 과소평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반도 미래상을 정립키 위한 새로운 역사축으로 '서울(남한산성) - 광주 - 부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백제권 개발사업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민족자존의 도장

격동의 세계화 추세속에서 스스로 자기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자기중심’을 확지 않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좌표’를 확보하는 일이다. 자기중심을 확인하고 좌표를 확보하는 작업은 투철한 역사관을 필요로 한다. 역사관 사건이 있어야 하고 사건은 가시적이어야 가장 잘 표현된다. 지나온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남한산성이 간직하고 있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 민족의 혼적이며, 뿐만 아니라 인식이 없다면 스스로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뿌리인식이 없으면 곧 기생이다). 반만년 시간을 한반도에서 보낸 우리민족에게 남한산성만큼 역사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공간유산은 흔치 않다.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화류에 휩쓸려 존재가치를 상실하고자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기중심’과 ‘좌표’를 보여줄 도장이 필요하다. 이의 적지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고구려 문화의 거점(평양 즉, 북한)과 신라문화의 거점(명남, 즉 남한)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남한산성이라고 논자는 믿는다.

이러한 민족자존의 도장을 건립키 위해 산성리 일대를 정화하여 역사공간을 재현하고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산성 일대의 위락지역을 재배치 할 수 있는 계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성리 성곽안에 있는 육식점등 점포와 주택은 불당리, 오전리 일대로 재배치하고 산성리 일대를 성역화하고 도장을 전립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민족정기를 깨닫게하여 자기를 알고 세계시민으로 휩쓸려 민족의 경제성을 흐리는 최악의 경우를 경계해 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이다.

### 4. 전통가치의 기준점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엔 전통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미래의 모습을 상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남한산성일대에는 우리의 토속적인 것과 우리의 삶 주변에서 같이 살아오고 변화를 함께 겪었던 갖가지 풍, 식물 그리고 우리선조들 삶의 방식인 민속이 그대로 숨쉬고 있다.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그간 온갖 시련에도 버텨온 우리것이 더 이상 변질되거나 없어지기 전에 쇄김 모아져서 후세의 미래를 설정할 때 기준점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산성의 성곽 밖 광원내(불당리나 오전리 일대)에 우리의 토속을 모아 민속관을 세우고 우리의 토종만을 모아 기를 수 있는 풍, 식물원을 전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表象들은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기준점을 미래세대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 IV. 맺는 말

남한산성은 한반도 전역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공간 유산으로서 ‘공주 - 부여’ 와 연결하여 하나의 역사축을 이룬다. 따라서 ‘남한산성(서울) - 공주 - 부여’ 의 역사축을 재평가하여 ‘남북통일의 기준점’ 을 찾을 수 있고 남한산성과 관련한 역사인식으로 ‘세계화의 좌표’ 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성리 (성파내부) 일대에 산재해 있는 읍식점등 점포와 주택들을 성파밖 불당리, 오전리 일대로 옮기고 남한산성의 역사 유적들을 복원하여 민족자존의 도장을 건립 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진정한 전통가치를 물려주고 자아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당리, 오전리 일대에 우리의 토속과 토종을 천할 수 있는 민속관, 토종 등, 석물원을 건립하여 산성리 일대의 역사유적과 함께 민족정기의 수련장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광주군이나 경기도 차원이 아닌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할 일이며 세계 도처에 흩어져 점차 민족혼이 희미해져 가는 한민족의 역사인식 기준점으로 선포할 만하다. 이러한 사업은 경계논리 이상의 자아인식 논리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박영철(국토개발연구원)

1. 남한산성의 가치를 역사적 가치, 지리공간상 가치, 자연생태계의 보고, 민속사표적 가치로 유형화하고 활용방안으로 세계화의 기준점, 백제권개발의 시발점, 민족자존의 도장, 천통가치의 기준점으로 설정한 소진광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위치와 활용의 기본방향을 우리나라 전체 또는 경기도의 여가공간의 원활과 문제점, 여건의 변화 등과 연계시켜 다소 푸언하면 다음과 같다.

2.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치는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에 20개(6,73.5km<sup>2</sup>)가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있는 "북한산 국립공원"(78,45km<sup>2</sup>)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도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관광풍경지인 도립공원은 전국에 20개소(732.0km<sup>2</sup>)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1개소, 즉 남한산성(36.44km<sup>2</sup>)이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국에는 27개의 군립공원이 있으며 경기도에는 2개(천마산: 12.7ha, 명지산: 12.73km<sup>2</sup>)의 군립공원이 있다.

3. 남한산성의 관광자원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는 개발 잠재력이 큰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으나 기능과 특성에 맞지 않는 계반시설의 설치로 자원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관광자원의 분석과 유행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은 네가지 인자 즉, 자연인자, 문화인자(유물, 산성, 원연기념물 등), 예전인자(교통시간, 도로상태, 유명도, 배후성), 활동인자(등산, 캠핑, 낚시, 해수욕 등)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경기도내 주요한 관광자원을 이용형태별로 구분할 경우 운동형, 위락형, 관광형, 휴양형으로 유행화되며 남한산성은 이 가운데 "관광형(자연경관형)"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 국민여가공간의 조성 즉, 관광개발의 동향과 문제점, 여건의 변화와 전망,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 동향과 문제점

첫째, 여가활동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다양화이다. 경제사회적 여건과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여가활동이 대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가활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에 따른 자원 및 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여가수요의 증가와 질적 변화에 비해 관광시설의 공급과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여가공간 및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이 저조하다.

셋째, 문화공간 및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이다. 특히, 문화 유적이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

서 훼손 및 파손되고 있으나, 정비와 복원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종합적 관광개발정책의 미흡이다. 특히, 관광이 부가가치가 높은 중요한 상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과 지역경제진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 여건의 변화와 전망

첫째, 여가사회의 도래이다. 경제수준의 향상, 자유시간의 증대, 이동성의 증대,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실현추구를 위해 여가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여가활동량의 지속적 증가와 고급화, 다양화이다.

셋째, 관광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연계이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제교류의 증대 및 관광거점의 확보에 따른 외국 관광객의 증대이다.

#### · 현황 및 문제점,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후 향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에 대비한 관광여건의 조성이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수용기반의 확충과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관광자원개발이다.

둘째, 자연성과 시장성을 고려한 관광시설의 확충이다.

셋째,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도모이다. 특히, 지역특산품의 개발, 주민참여증대로 관광자원을 지역주민소득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긴요하다.

도. 남한산성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위치,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관광과 관련된 계반 어건의 변화, 향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등을 고려할 때 남한산성의 활용방안과 기본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관광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관광수요와 여타지역 등으로부터의 관광수요를 적절히 수용할만한 진입도로, 주차장, 숙박시설, 놀이시설등 제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화에 대비한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유산을 정비할 뿐만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전통문화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된다. 이외는 소진왕 교수님께서 제시한 “민족자존의 도장”이라는 관점이 부각되는 문화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한다.

셋째, 남한산성의 활용이 성남시 등 관련지역의 지역발전전략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관광사업이 향후 고부가가치산업임을 명심하여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남한산성만의 특별한 기능을 감안한 지역특산품의 개발, 관광식당의 확충, 놀이시설의 설치등 관광자원이 지역소득의 증대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한다.

넷째, 친환경적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산성은 기본적으로 역사유적과 더불어 경관이 구비된 자연자원이다. 관광개발에 따라 역사유적과 자연자원이 훼손된다면 관광개발의 의미가 없으며 관광의 수요가 감퇴하는 등 관광개발의 “실질적인” 효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활용을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존이 천제되어야 될 것이다.

다섯째, 종합계획적 차원에서 활용방안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각종

연계, 친환경적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적 차원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개발계획의 참여에는 개발론자, 보존론자들 제반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지닌 전문가들의 참여가 긴요하되 결론의 도출에는 참여자들의 일치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한 論評

조유전(국립민속박물관장)

### 1. 남한산성의 존재의미

남한산성은 삼국시대 이래로 국가적인 요충지로서 주목을 끌어왔다. 백제의 온조가 이부근에 도읍을 정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는데, 흥정모의 《南漢志》에는 광주의 고읍이었던 금단산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아 활용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살길적으로 남한산성의 위치에 신성을 촉조한 것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 문무왕 12년으로 주장산성(晝長山城, 혹은 日長山城)이라고 불려왔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의 남한산성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그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한양의 남쪽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인조 때에 중개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때의 중개축에는 승군을 이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당시의 광주유수였던 이서(李驥)에게 명하여 산성을 쌓도록 하였다. 이서는 이인고에게 남쪽을, 벽암이라는 중에게는 북쪽을 책임하며 각각 산성을 쌓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벽암은 기일 안에 자신이 맡은 지역의 공사를 끝내고 남은 공사비도 환납을 하였지만, 이인고는 세심히 잘 쌓는 바람에 자신의 사비를 벌어서 까지 공사를 했지만, 공사기일이 지연되었다. 나라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 이인고가 주색감기에 빠져 공사에 관심이 없다는 식의 모함이 있었다. 결국 이인고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죽을 때 목에서 때가 한 마리 나와 이인고의 시체를 한바퀴 돋 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이상히 여긴 사람들은 공사현장을 확인하였더니 벽암이 쌓은 곳은 하늘하기 짜이 없었으나, 이인고가 맡은 지역은 전고하기가 그지 없었다. 그후 이서는 경술합을 높우치고 서장대의 옆에 청량담이라는 사당을 갖고 원훈을 달렸다. 현재로 남아 있는 성벽은 이인고가 맡은 곳이라고 한다. (《광주군지》 참조)

이러한 전설은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요충적인 중요함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벌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산성의 북쪽에 있는 벌바위에 정기가 서려 있어 남한산성을 공략하더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전쟁 전에 첨자를 보내 벌바위를 깨뜨렸다고 하는 전설도 전해진다. (《경기도의 전설》 참조)

남한산성에 어떤 전설들의 의미는 남한산성이 우리 민족의 오랜 수난사를 극복하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자키고 있을 때 청나라가 함락을 못시킨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 민족들의 정신 속에는 매우 신성한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 2. 남한산성의 활용에 있어서의 기본축

남한산성이 산성으로는 갖추어야 할 각종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성의 한 전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남한산성의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삼아야 할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족들 사이에서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의미, 특히 신성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도 역시 활용방안의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의미, 예컨대 산성의 단순한 기능이나 위치적인 면모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남북한의 중심축으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은 온당한 평가로 생각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산성 내의 공간의 갖는 의미, 유사시에 밀집이 거쳐할 수 있는 행궁이나 하궐(下闕), 그리고 종묘를 봉안하기 위한 좌전(左殿)과 사직을 옮길 우설(右室)등이 존재한다는 점은 남한산성이 하나의 우주적인 공간구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상시에는 조선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주목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고구려의 중심축으로 제시된 평양이나 신라의 중심축인 경주를 연결하는 가운데 고리의 의미라고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남한산성은 삼국 이래의 역사적인 공간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의미를 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시간상 축급한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대안 제시로 대신하고자 한다.

## 3. 남한산성 활용방안으로서의 제안

### 1) 조선시대 산성공간(山城空間)의 재현

따라서 남한산성의 활용방안은 그런 기본인 정신축, 조선의 중심이자 신성공간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제시되어야만 한다. 그럴 경우 남한산성은 원칙적으로 가장 완성된 시기였던 순조 때의 공간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공간을 재현한다는 것은 과연 조선시대의 삶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생생한 현장으로서 주목받을 것이다. 신간의 민속촌이 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남한산성은 산성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면서 차별성을 갖추어야 한다. 산성의 기능인 군사적인 방어형태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상시에는 조선시대의 산성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삶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군사시설인 비장청(裨將廳)이나 교련관청(敎練官廳) 등에서는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보여주며, 종각(鐘閣)에서는 시간에 맞춰 남한산성 내의 시간을 알리는 기능을, 그리고 온조왕묘(溫祚王廟)·성황당(成皇堂)·역단(厲壇)등에서는 시절에 맞춰 각종 제의행사를 벌이는 것이다. 남한산성이 신성공간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도 사실은 온조왕묘(溫祚王廟)·성황당(成皇堂)·역단(厲壇)등에서 행해지는 제의행사에 있다. 이것을 통해서 제의공간의 신성성(神聖性)을 확보받을 수 있으므로, 한반도 내의 남북한을 포함하는 중심공

간접을 할릴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생동감 있는 산성을 구성할 경우 국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과거시대의 山城空間에서 벌어지는 삶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바로 남한산성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죽어 버린 공간의 이미지를 어떻게 새롭게 재현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위해선 현재 이곳이 경기도립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충족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살아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Master-plan<sup>9)</sup> 작성되어야 할 물론, 현재의 관할자치단체에 의한 무분별한 시설물의 설치나 산성 전체의 어떠한 현상변경도 막고 민간인 소유의 땅은 연차적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다.

## 2) 민족수난사 박물관의 전립

남한산성은 병자호관 당시에 인조가 삼전도로 나가 군욕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산성 만은 지켰던 바로 그 역사적 장소이다. 미래는 세계화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은 약소 민족의 문화적인 독자성을 상실될 수밖에 없다.

남한산성을 삼전도의 군욕을 되새김하고 민족의 수난을 극복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민족문화, 그리고 전통적인 품속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이 어떤 수난과 고난에도 극복하고 현재까지 그 존재를 계승하여 왔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남한산성의 교훈을 통한 우리의 존립이유를 후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죽은 역사가 아니라 고통과 수난을 통해서 지켜온 역사를 알리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감인함과 불굴의지를 새롭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한다.

민족수난사 박물관은 다만 유물 중심의 나열식 정적인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적 이면서 다이내믹한 공간설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디오라마식이면서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전투공간과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민족수난사 박물관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장이다. 민족의 수난을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고난에 대한 극복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

## 4. 소결-남한산성을 어떻게 재탄생시킬 것인가

본인은 남한산성의 활용문제는 민족자존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자각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부여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단순한 관광지로 전락할 경우, 다른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전시내용에도 뒤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남한산성의 존재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애플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남한산성의 존재는 신생과 조선의 중심, 그리고 수난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 재현공간으로 인식시켜야만 한다. 그를 통해 미래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따른 노력형태, 그리고 실천적인 행동 등을 두루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남한산성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남한산성이 과거의 남한산성으로만 남는다고 한다면 새롭게 조성될 필요는 없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물의 계기가 주어지는 공간으로서 남한산성이 새롭게 탄생되어야만 할 것이다.

**편집위원**

위원장: 전보삼  
위 원: 허창무, 한춘섭, 오세순,  
조병로, 소진광, 장철수  
간 사: 김종업, 변영진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

인 대 : 1996년 10월 9일  
발 행 : 1996년 10월 9일  
발행인 : 이 형 하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태평2동 3309-425  
(시민회관 2층)  
전 화 : (0342)753-1020, 754-6001  
F A X : (0342)756-5245

---

\* 이 자료집 발간은 성남시 향토문화연구소 사업 지원  
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